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김선숙 이규선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초판 1쇄 발행 2024년 2월 22일

지은이 박재갑 Park Jae-Gahb
김선숙 Kim Sun Sook
이규선 Lee Kyu Sun
김 민 Kim Min

펴낸이 박재갑
도운이 김해림
표지디자인 김미애
본문디자인 견병진, 김정현
펴낸곳 한글재민체연구회
등록 제2022-000176호(2022년 9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501동 1401호
전화 02-766-8080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한글재민체연구회
· 출판은 봉래출판문화재단과 대신송촌문화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980056-6-3(05640)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

지은이

박재갑朴在甲 www.jgpark.ne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퇴직을 하였다. 2000~2006년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을 역임하고, 2010~2011년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세계대장항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세포주연구재단韓國細胞株研究財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국내 단행본으로 『대장항문학, 일조각, 서울, 1991, 2000, 2005, 2012.』, 『종양학, 일조각, 서울, 2003, 2012.』 등 14권, 국외 단행본으로 『Atlas of Human Tumor Cell Lines, Academic Press, San Diego, 1994.』 등 12권, 국내 논문 228편, 국제 논문 218편을 발표하였다. 2011년~2014년 충청북도 제1기 및 제2기 명예도지사, 2001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 2005년 세계금연의날 WHO 금연공로상, 2008년 미국대장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009년 제11회 관악대상, 2018년 국민훈장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김선숙金善淑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과(현 예술대학원)에서 서예(학)전공을 하였으며 『傅山의 書藝觀에 관한 研究-'四寧四毋'說을 中心으로-』 논문으로 2008년 8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기획부이사장, 서울미술협회 서예분과 부이사장, (사)아시안캘리그래피협회 부이사장,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이사이다. 제17대 대통령에게 서예 지도를 하였다. 공동편저로 『15세기 한글서예사』가 있으며, 공저로 『새겨읽은 규합총셔』가 있다. 현재 심재서예원沁齊書藝院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며, 동방서법탐원과정東方書法探源課程에서 정음체正音體를 지도하고 있다.

이규선李奎宣

시카고 미술대학교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活字 공방工房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에서 한글재민체 1.0부터 3.0에 이르기까지 김민 원장의 지도하에 글꼴 디자인 및 연구에 참여하고, 2022년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 부설 연구소인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김민金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년간 일본의 세계적인 CI 전문회사 ㈜파오스PAOS에 근무하며 스미토모은행, 기린맥주, 캔우드, 브릿지스톤, 조지루시 등의 CI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90년에는 파오스 서울을 설립하여 ㈜한샘의 CI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다. 1993년까지 ㈜CDR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데이콤, OB 맥주, 삼성중공업 등의 CI 작업을 주도하였다. 1996년 미국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미국 보스턴에 JAM Design Inc. 와 1998년 뉴욕에 Telosphere Inc. 를 설립하여 아트디렉터로서 다수의 CI와 웹디자인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1999년 국민대학교에 부임하였다. 2005년에는 천상병 시인의 각종 필적을 찾아내 디지털 폰트로 완성하였고 신영복, 윤동주 등의 육필 복원 디지털 폰트를 비롯하여 CJ그룹, GS칼텍스, 이건산업 등 다수의 기업 전용 서체를 디자인하였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2012년 제2회 사회적 기업의날 정부포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3년 제25회 아산상, 2017년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제12회 봉래상蓬萊賞 등을 수상하였다.

일러두기

관공체官公體 :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관공체官公體 서체에 기반하여 개발된 재해석再解釋 폰트

봉래출판문화재단蓬萊出版文化財團과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 지원支援으로 간행刊行된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官公體 韓契在民體』는 비매품非賣品/무료無料이며,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www.nl.go.kr과 한글재민체연구회www.hangeuljaemin.kr에서 전자책電子冊을 무료無料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 김선숙 · 이규선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머리말

박재갑朴在甲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 말 정년을 맞은 대장암 전문 외과 의사로서 7천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박재갑 이름 석 자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2018년 11월 12일부터 서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글자의 서체書體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담긴 한글서체韓契書體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단아端雅하고 꼿꼿하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선비답고 고귀高貴한 서체가 현재는 사라지고 없어졌나 하는 아쉬움에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되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한문國漢文 혼용混用의 「대한의원개원칙서」를 한글학자 박갑수朴甲洙 교수에게 부탁드려 기존의 국역國譯 문장을 다듬은 후 개원칙서의 글꼴과 유사하게 반복하여 붓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설날 인사차 방문한 국민대학교 김민金民 교수가 이 모습을 보고 반기며 본인本人의 정년停年이 8년 남았는데 마지막 업적으로 함께 「대한의원개원칙서」에 기반한 서체書體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박재갑은 서체 개발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門外漢이었으므로 큰 귀인貴人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김민金民은 2000년 7월 14일 국립암센터의 심볼 및 로고로 선정된 작품을 디자인한 홍석표洪碩杓의 지도교수로 당시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재갑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재갑이 하는 공익활동단체公益活動團體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韓國細胞株研究財團, 담배없는세상연맹,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의 로고, 그리고 영문서적인 『Banning Tobacco담배제조및매매금지』의 표지 디자인 등을 재능 기부한 바 있습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5~6쪽

2020년 한글날에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를 재해석하여 개발한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발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韓國著作權委員會에서 개설한 웹사이트 공유마당에 오픈소스 형식으로 기증하여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된 한글재민체의 보급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글재민체연구회韓契在民體研究會를 2022년 8월 8일 발족하였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붓글씨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한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命名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글서체의 정의定義 및 명칭名稱의 기원起源을 공식적公式的인 기록記錄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특허청特許廳에 상표명商標名 「관공체官公體」를 2022년 9월 22일 상표출원[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하였으며, 상표명 「관공체」가 2024년 2월 13일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되었습니다.

원로 중진 서예가 30인, 강복영, 강영애, 곽상혁, 구자송, 김상숙, 김선숙, 김응학, 김이중, 김일순, 김정묵, 김후분, 박병천, 박정숙,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송하경, 신길자, 유혜선, 이기훈, 이명실, 이성숙, 이송자, 이신영, 장지훈, 장혜자, 정복동, 조종숙, 최미연, 함민숙을 초대하여 《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 - 개원칙서와 보건의료》 특별전을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의 후원으로 2023년 1월 11~31일 개최하였습니다.

관공체官公體를 향向한 한글 정자체正字體의 발전 과정을

조망眺望하고자 박재갑의 한글 정자체正字體 임서臨書 32작품과 한글재민체 19작품 등을 소개하는 『한글재민체 소고韓契在民體小考』를 대신송촌문화재단의 지원支援으로 2023년 5월 5일 출간出刊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21~25일 《한글재민체서예대전韓契在民體書藝大典》을 대신송촌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작품은 애국가愛國歌 가사歌詞 1~4절(후렴구는 마지막 4절에 한 번만) 총 136자(부록3)를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나 관공체官公體 등의 한글 정자체正字體로 70×70cm 크기의 한지에 자유로운 장법章法으로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개원칙서와 보건의료》 특별 초대전과 《한글재민체서예대전韓契在民體書藝大典》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서예교본書藝敎本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要請이 있어,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를 집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숙金善淑은 「제13장. 한글재민체 결구법結構法」을 일곱 분의 서예가와 함께 집필하였습니다.
이규선李奎宣은 「제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중 '한글재민체 韓契在民體 디자인' 부분을 집필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봉래출판문화재단蓬萊出版文化財團과 대신송촌문화재단大信松村文化財團의 지원支援으로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 출간出刊에 이르기까지 한글재민체의 개발, 활용, 보급에 아래와 같은 많은 분께 무한無限의 신세를 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심양면物心兩面 후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국민일보,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일신문, 농민신문, 뉴스1, 뉴시스, 대신송촌문화재단, 동아일보, 매일경제, 봉래출판문화재단, 부산시립박물관, 서울경제,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울신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아시아경제, 안중근의사기념관, 연합뉴스, 오죽헌시립박물관, 월간서예, 윤디자인, 이데일리,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조선일보, 참빛아카이브, 특허청,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학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헤럴드경제, 강복영, 강연민, 강영애, 곽상혁, 견병진, 고인수, 고재석, 곽노봉, 고호곤, 구자송, 권재일, 권진호, 김규봉, 김기석, 김길원, 김두헌, 김동각, 김동진, 김미애, 김병기, 김상숙, 김상태, 김성기, 김성수, 김수하, 김순찬, 김시연, 김연수, 김운기, 김응학, 김이중, 김인걸, 김인규, 김일순, 김일환, 김재년, 김정묵, 김정수, 김정은, 김정현, 김종규, 김주원, 김지명, 김지영, 김채식, 김한영, 김해림, 김현승, 김현일, 김 호, 김후분, 박갑수, 박기호, 박병천, 박상철, 박연철, 박영국, 박용만, 박윤정, 박정숙, 박중신, 박지원, 박형근, 배광식, 부정애,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서 준, 서홍관, 성인근, 성 파, 손신진, 손용석, 송하경, 송현경, 신길자, 신선호, 심동섭, 안병욱, 안휘준, 양홍석, 오강남, 오석원, 우동엽, 유홍준, 유혜선, 유희정, 윤동한, 윤양희, 윤진영, 이규복, 이기동, 이기훈, 이동훈, 이명규, 이명박, 이명실, 이문석, 이문수, 이배용, 이상백, 이석연, 이성숙, 이성자, 이신영, 이어룡, 이영관, 이태준, 이태진, 이필숙, 이현정, 이현주, 이호영, 임광규, 임기연, 임원선, 임홍재, 장광순, 장명국, 장민환, 장지훈, 장혜자, 전광배, 전정우, 정 광, 정복동, 정상식, 정상혁, 정재두, 정재영, 정진웅, 정해창, 조용진, 조종숙, 진황가, 최명근, 최명옥, 최미연, 최병구, 최은철, 최인숙, 최재혁, 최홍식, 편석훈, 표학길, 하철용, 한도희, 한원자, 한재영, 한재훈, 함민숙, 허경무, 허성도, 허유미, 홍윤표, 황문환, 황상익, 황위주, 황준석 (가나다 순順, 직함職銜 및 존칭尊稱 생략省略)

2024년 2월 박재갑 · 김선숙 · 이규선 · 김민

목차

머리말

제1장 개요概要

1. 관공체官公體 12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4
3.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 15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4. 『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17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의 내용

제2장 훈민정음의 창제創製와 한글 변천變遷의 시대時代 구분區分

1. 훈민정음의 창제創製 18
   1-1. 훈민정음의 기원起源 18
   1-2. 훈민정음의 뜻 18
   1-3. 훈민정음의 창제創製 목적目的 20

2. 한글 23
   2-1. 한글의 용어와 그 의미 23
   2-2. 한글 명칭의 변화 24

3. 한글운동과 한글의 변천變遷 25
   3-1.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1446~1494년 26
   3-2.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1495~1893년 26
   3-3.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1894~1910년 27
   3-4.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1911~1932년 28

4. 일제 강점기 조선어朝鮮語 말살정책抹殺政策 30

5. 한글시대韓契時代(확산기擴散期) 31

제3장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1894년, 1895년)

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일체 국내외 공적인 34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894년 7월 8일
   1-1. 적용사례: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36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0월 11일

2.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38
   공문식公文式 제14조: 법률法律 · 칙령勅令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1894년 11월 21일
   2-1. 적용사례: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42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894년 12월 10일

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式의 44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노라,
   공문식公文式 제9조: 법률法律, 명령命令은 다 국문國文
   으로 기본基本을 삼고 한문漢文 번역飜譯을 첨부添附
   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1895년 5월 8일

제4장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서 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1894~1909년)

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의 관공체官公體 50
   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50
   1-1-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895년 5월 3일 50
   1-1-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899년 10월 30일 52
   1-2.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낱자,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895년, 1899년 54

2.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의 관공체官公體 55
   2-1. 주본奏本, 1895년 1월 29일 56
   2-2. 주의奏議, 1896년 11월 4일 60
   2-3. 의주議奏, 1895년 3월 21일 62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낱자,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년, 1896년 66

3. 칙령勅令의 관공체官公體 74
   3-1. 칙령勅令, 1895년 1월 29일, 1895년 3월 25일, 1899년 3월 24일, 1899년 4월 24일, 1907년 3월 10일 75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84

4.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의 관공체官公體 94
   4-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94
   4-2.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낱자,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95

5. 관급증서官給證書의 관공체官公體 96
   5-1.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96
   5-2.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98
   5-3.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낱자, 관급증서官給證書, 1907년 100

6.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01
   6-1.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101
   6-2. 관공체官公體 74자, 33 낱자,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03

제5장 국문시대國文時代 한국韓國개화기開化期 국어교과서國語教科書(1894~1910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106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14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14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15
5. 리봉운李鳳雲,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116
6.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蔵板, 1906년 120
7.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연활자본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121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122
9.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24
10.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125
11.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126
1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27
13. 周時經, 『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138
    13-1.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138
    13-2. 주시경체周時經體 139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1909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1. 『국문연구의정안』 보고서, 1909년 12월 28일 141
2. 『국문연구國文研究』 142
    2-1. 주시경周時經, 『국문연구國文研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142

제7장 한글시대韓契時代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1911~193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46
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147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149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152
5.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153
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54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155
8.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56
9.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157

제8장 한글시대韓契時代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 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59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 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 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76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78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81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81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3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3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5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87
1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9
1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89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90
14. 朝鮮総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191

제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고종실록高宗實錄』 192
   1-1. 『고종실록高宗實錄』, 「국고國庫의 고갈枯渴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다」, 1895년 3월 5일 194

제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韓契教科書(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98
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99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200
   1-1. 정인보鄭寅普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200
   1-2. 김충현金忠顯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200
   1-3.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중앙신문』, 1946년 200
   1-3-1.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00
   1-3-2.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01
   1-3-3.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02
   1-4. 「바로 찾아야 할 국문 쓰는 법」, 『서울신문』, 1948년 203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205
2-1. 『언문테첩諺文體帖』(1917년) 205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1948~1997년) 205
2-3.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 (1949~2023년) 206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1948~2023년) 207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書體本(2009~2011년) 210
3-1.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 한글 서체본 210
3-2.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 한글 서체본 210
3-3.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 한글 서체본 211
3-4. 갈물 이철경李喆卿 한글 서체본 211
3-5. 꽃뜰 이미경李美卿 한글 서체본 211
3-6. 규당圭堂 조종숙趙琮淑 한글 서체본 211
3-7. 의당懿堂 이현종李賢鍾 한글 서체본 212
3-8. 아람 이한순李漢順 한글 서체본 212
3-9. 난정蘭汀 이지연李知姸 한글 서체본 212
3-10. 한곬 현병찬玄昞璨 한글 서체본 212

4. 최정호崔正浩,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213

제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214
1-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214
1-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214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215
1-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215
1-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216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216
2-1. 관공체官公體 107자, 33 낱자,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217
2-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필체筆體 비교 218
2-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방향 220
2-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원칙 221
2-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폰트 제작 과정 222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비교 224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한글2,350자 226

제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결구법結構法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기본基本 자모음자子母音字 257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자모음자子母音字의 위치별 획형劃形 257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획劃 258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점點 260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자음子音 262

맺음말 268

부록 附錄

부록 1. 도판圖版 목록目錄 270
부록 2. 표表 목록目錄 273
부록 3. 참고參考 문헌文獻 274
부록 4. 기증寄贈 받은 참고參考 문헌文獻 284
부록 4-1. 홍윤표洪允杓 기증 문헌 284
부록 4-2. 김동진金東珍 기증 문헌 285
부록 4-3. 김현일金賢鎰 기증 문헌 285
부록 4-4. 박병천朴炳千 기증 문헌 285
부록 4-5. 김한영金漢榮 기증 문헌 285
부록 4-6. 허유미許有美 기증 문헌 286
부록 5. 관공체官公體 88 낱자 287
부록 6. 한글재민체 모본模本 288
부록 6-1.「헌법憲法 제第 1~4조條」 288
부록 6-2.「애국가愛國歌」 289
부록 7. 한글재민체 작품作品 290
부록 7-1.「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290
부록 7-2.「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291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제1장 개요概要

1. 관공체官公體

관공체官公體 Official Script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한문서체漢文書體를 지칭指稱하지 않으면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단아端雅하고 단정端正한 붓글씨 한글韓契 서체를 정의定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명書體名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고인수高仁洙, 김응학金應鶴, 한재훈韓在壎 등)에게 의견을 들은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하였다.

영어로는 Official Script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관공체官公體: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그러나 누가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서사書寫하였다는 기록은 아직 찾을 수가 없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국가등록문화재 제449호, 2009년 10월 12일 지정)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세로 11cm 크기의 『칙명지보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 · 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년 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였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79&ccbaAsno=04490000&ccbaCtcd=11&pageNo=1_1_1_0



朕이維건ᄃᆡ國運의隆替ᄂᆞᆫ國民의健痺에因ᄒᆞᆷ이
多ᄒᆞᆫ지라我國의現狀을察건ᄃᆡ衛生思想이尚히
幼稺ᄒᆞ고救療機關이不備ᄒᆞᆷ으로朕이
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ᄒᆞ야有司로ᄒᆞ야곰長
을友邦에取ᄒᆞ야醫術의普及과振興ᄒᆞᆷ을計코져
ᄒᆞ야大韓醫院을創設ᄒᆞᆷ이라니有司의忠勤盡職
ᄒᆞᆷ을因ᄒᆞ야今에工事가告竣ᄒᆞ고開院의式을擧
ᄒᆞ니蓋院務가業已就緒ᄒᆞ야其效果의曙光이漸
次로遐通에及ᄒᆞ야四民이其惠澤에浴ᄒᆞᆷ은朕心
에滿足ᄒᆞᄂᆞᆫ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ᄒᆞ고其道ᄂᆞᆫ
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
勵ᄒᆞᆷ을倚藉ᄒᆞ야此를庶幾大成케ᄒᆞ노니爾臣僚
ᄂᆞᆫ朕旨를克體ᄒᆞᆫ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도판 1-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

원본 크기 : 43.0x59.0cm
자료 제공 : 김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dept.snuh.org/dept/HHCC/index.do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1908년 대한의원 개원일에 순종純宗이 내린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국가등록문화재 제449호)에 담긴 격조格調높은 붓글씨 서체에 기반을 두고 박재갑과 김민 등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재해석 디지털 폰트이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라는 명칭名稱은, 김민金民이 박재갑朴在甲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民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靈感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의 명칭名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입각立脚하여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여 탄생하였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시카고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2020년 한글날에 발표한 「한글재민체1.0」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KS 표준한자를 추가한 「한글재민체2.0」,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固有 한자 203자와 대법원인명용한자大法院人名用漢字 8,279자 등을 추가하여 「한글재민체3.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3년 윤디자인그룹을 통해 배포한 「한글재민체4.0」은 중국인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와 번체자, 일본 한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 문자 등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한글과 로만 알파벳, 중국의 간체자와 번체자, 일본 문자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다국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를 완성하였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2;22:319~330.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 (集團) 公司, 2023;456:74~76.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박재갑, 김민, 이규선, 진황가, 김지영, 『한글재민체4.0』, 폰코font.co.kr/collection/sub?family_idx=10658, 2023. 5. 25.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40쪽

3.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김병기金炳基의 주장主張*대로 서체書體와 자체字體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서체書體란 자체字體를 서사자書寫者가 서사書寫한 것으로 정의定義한다.

* 金炳基, 『書藝, 基本用語의 意味明瞭化試論-活劃(金翅劈海, 香象渡河), 字體, 書體, 筆體, 書風에 대한 辨釋』, 中國學論叢, 2010.

한글서체書體의 명칭名稱은 1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 모색의 시안 및 결론과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방안에서 제시된 1안 및 2안,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硏究院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개최한 2016 장서각藏書閣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도록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① 정음체正音體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인 훈민정음 해례본체訓民正音解例本體를 정음체라 한다.
② 정자체正字體 : 훈민정음 언해본체를 정자체라 한다. 정자체에는 민체民體정자正字와 관공체官公體 및 궁체宮體정자正字가 있다.
③ 흘림체 :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이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민체民體는 궁체宮體에 대립對立시켜 만든 용어다. 백성이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글씨를 썼다는 의미이다. 민체로 보이는 최초의 자료는 16세기의 언간諺簡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당수의 필사본筆寫本들이 이 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95~96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서체書體를 민체民體라 정의定義하였다.

조선 시대에 궁녀들이 쓰던 한글 서체인 궁체宮體란 단어는 원래 서체書體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문체文體의 한 종류로서 '궁체'는 이미 중국中國에서 널리 알려졌던 것이다. '궁체'란 한문漢文의 문체文體로부터 시작하여 서체書體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글 서체의 명칭이 된 동기로 보인다. '궁체' 필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50년대 이후로 보인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한재영, 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필획筆劃의 연결이 있는 흘려 쓴 서체書體를 흘림체라 정의定義하였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관공체官公體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재해석再解釋 디지털 폰트이다.

그동안 한글 서예는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고체古體, 판본체版本體)와 미려美麗한 궁체宮體, 그리고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發展을 하였다.

이제는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애용愛用하고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 특히 정부의 훈포장勳褒章이나 공직자公職者의 인사발령장人事發令狀 등 격조格調 높고 단정端正한 서체書體를 필요로 하는 각종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의 사자寫字 시時에는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적극積極 활용活用하여야겠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한글서체韓契書體'는 한글 서예계에서 사용하는 내용과 한글폰트나 한글 디자인계에서 사용하는 '글꼴'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있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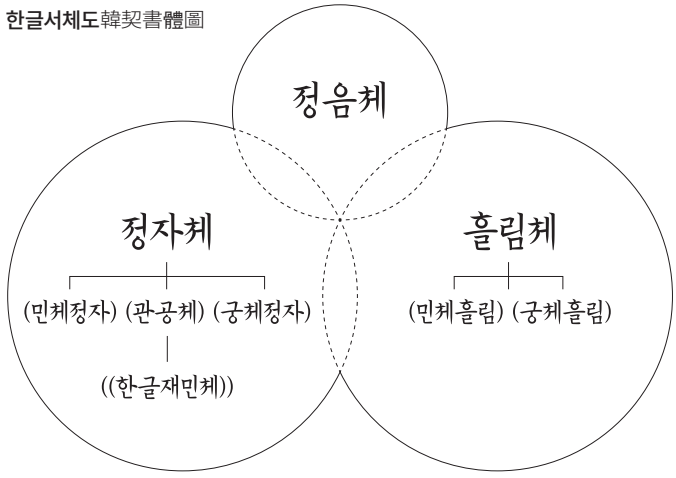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2006년 11월10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1회 공청회	시안	**정음**해례본**체**	정음언해체	궁체	민체	-
		결론	고체	**정자체**	**흘림체**	-	-
2007년 4월28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회 공청회	시안 1안	해례본체	언해본체	궁체	-	-
		시안 2안	곧은체	바름체	**흘림체**	진흘림체	-
2016년 6월28일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서체표	-	**정자체**	**흘림체**	-	목판본 금속활자
2023년 5월5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한글서체표	**정음체***	**정자체** (민체정자) (관공체) ((한글재민체)) (궁체정자)	**흘림체** (민체흘림) (궁체흘림)	-	-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 중분류
(( )) : 소분류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쪽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 중분류
(( )) : 소분류

『한글재민체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2023.5.5.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3쪽

4.『한글서체 한글서예 관공체 한글재민체 韓契書體 韓契書藝 官公體 韓契在民體』의 내용

이 책에서는

1장. 한글서체韓契書體의 명칭名稱으로 정음체正音體, 정자체正字體[민체民體, 관공체官公體(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궁체宮體], 흘림체를 소개한다. 그리고 민체와 흘림체를 정의定義한다.

2장. 훈민정음의 뜻과 훈민정음의 창제創製 목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어학자 홍윤표洪允杓의 『한글』, 『국어사 자료 강독』,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자 학습 문헌자료 연구』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하고, 한글 명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홍윤표의 『한글』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한다. 그리고 한국어학자 이윤재李允宰가 발표한 한글 발달發達의 시대時代 구분區分을 소개한다.

3장.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를 연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을 알아본다.

4장.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를 정리한다.

5장. 관공체官公體가 사용된 국문시대國文時代와 같은 시기인 한국 개화기開化期의 국어 교과서를 인용하고,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國語文法』 육필본肉筆本에서 개발된 주시경체周時經體를 소개한다.

6장.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와 함께 주시경周時經이 집필한 『국문연구國文硏究』를 소개한다.

7장. 한글시대에 발간된 한글 교과서를 소개하고 책에 사용된 한글서체를 인용한다.

8장. 한글시대의 붓글씨 필체를 엿볼 수 있는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을 인용한다.

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를 인용한다.

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인 1945년 조선어학회에서 군정청을 통하여 발간한 『한글 첫 걸음』과 1949년 라우박이 미국 공보원을 통하여 발간한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의 한글서체를 소개한다.

11장. 김충현金忠顯의 우리글씨 쓰는 법에 관한 글과 함께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고,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열 분의 한글 서체본을 인용한다. 그리고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崔正浩를 소개한다.

12장. 「대한의원개원칙서」 관공체官公體의 재해석再解釋 폰트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개발의 기본원칙을 소개한다.

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를 필사하고자 할 때 유의留意할 한글재민체 결구법結構法을 소개한다.

부록附錄에서 도판圖版과 표表의 목록目錄, 참고參考 문헌文獻, 기증받은 참고 문헌, 관공체官公體 낱자, 한글재민체 모본模本 그리고 한글재민체 작품作品을 소개한다.

제2장 훈민정음의 창제創製와 한글 변천變遷의 시대時代 구분區分

1. 훈민정음의 창제創製

1-1. 훈민정음의 기원起源

한글과 한글보다 이른 시대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존재하였던 어떤 문자의 관계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사실을 처음으로 전하는 『세종실록』 25년 (1443년) 12월의 기사記事 [이달에 왕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셨는데 그 글자는 고전을 모방한 것이다 是月 上親製諺文 二十八字 其字倣古篆]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550년간 수시로 언급되었다.

조선시대 이래 한글의 기원으로 지목된 문자는 전서篆書 · 범서梵書 ·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 · 티베트문자 · 한자漢字 등이었다. 1940년 해례본 훈민정음이 발견된 이후 한글의 타他 문자 기원설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 다른 문자에서 기원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한글의 기원을 다른 문자에서 찾은 사람들은 대개 한글의 자형字形과 유사한 자형의 존재를 다른 문서에서 발견 · 제시하였지만, 제자해制字解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왔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도 동북아 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가지며 발달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의 창제 역시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문자 발달사와 무관할 수 없다.

동북아시아 문자 발달사를 일별해 볼 때,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기원을 타 문자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상상한 것처럼, 기존 문자의 자형을 축약하여 신문자를 제작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 대신, 기존 문자의 원리는 이용하되 자형은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의 자형을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글은 동북아시아 제 문자의 오랜 전통과 전통적 음운 연구의 결정체結晶體로 등장한 문자 체계였다. 송기중宋基中, 『東北아시아 歷史上의 諸文字와 한글의 起源』, 진단학보, 1997;84:203, 219.

1-2. 훈민정음의 뜻

다 알다시피 '훈민정음'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문자 이름이고 또 하나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훈민정음 언해본』과 같은 문헌 이름이다. 오늘날 흔히 '훈민정음'은 '한글'과 혼동된다. 이것은 '훈민정음'의 두 가지 뜻 때문이다. 예컨대 금년(2016년) 한글날은 소위 '한글 반포 570돌 기념일'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때의 '한글 반포'는 책 이름 '훈민정음(해례본) 반포'를 잘못 쓴 것이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사頒賜하여 배포한(곧 '반포頒布한') 내용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훈민정음성訓民正音成'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문헌이 아닌 문자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훈민정음'의 '훈민'이란 용어를 통해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훈민'은 그 시대에는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이다. '훈訓'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진 '교敎'와는 달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쓰이는 것이며 '교敎'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 두루 쓰이는 글자이다.*

* 『藝海珠塵騈字分箋』에는 '敎訓'의 항목에서 '廣韻'을 인용하여 '男曰敎 女曰訓'(13a)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의 '어제御製'에서도 확인된다.

문자 이름을 '훈민정자訓民正字'나 '훈민정문訓民正文'이라고 하지 않고 훈민정음訓民正音, 즉 '소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이는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 ᄒᆞᆯ씨'의 '문자文字'를 대부분의 학자가 '한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나랏말ᄊᆞᆷ'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상의 문제가 있다. '나랏말ᄊᆞᆷ'은 '소리'인데, '문자'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文字'가 '한자漢字'를 뜻한다면, 이 당시 이미 '한자漢字'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 씨'로 쓰지 않고 '漢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 씨'로 써야 했을 것이다. 석보상절 서문에 이미 '就ᄂᆞᆫ 곧 因ᄒᆞ야 ᄒᆞ듯ᄒᆞᆫ ᄠᅳ디니 漢字로 몬져 그를 밍ᄀᆞᆯ오 그를 곧 因ᄒᆞ야 正音으로 밍ᄀᆞᆯ 씨 곧 因ᄒᆞ다 ᄒᆞ니라 [『석보상절』 서5b-6a]'란 글이 보이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문자文字'의 의미는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자로 된 숙어나 성구成句 또는 문장'을 뜻한다. 이런 뜻의 '문자'는 오늘날에도 '문자 쓴다'거나 '문자 속 기특하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본문인 '國之語音이'를 앞에 제시하고 그 뒤에 언해문인 '나랏말ᄊᆞ미'를 대비시키고 마찬가지로



도판 2-1.『훈민정음 언해본』, 1459년 판을 디지털 수정한 것
원본 크기 : 32.5 x 22.5cm x 2장
자료 제공 : 문화재청

'異乎中國ᄒᆞ야'와 '中國에 달아'를, 그리고 '與文字不相流通ᄒᆞᆯ씨'와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해본들은 원문을 한 단락씩 나누어 싣고 그 뒤에 언해문을 다는 형식을 취하여서, '國之語音이 異乎中國ᄒᆞ야 與文字不相流通ᄒᆞᆯ씨'를 앞에 제시하고(또는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ᄒᆞ야도 而終不得伸其情者ㅣ 多矣라'까지 더 큰 단위로 잘라서), '나랏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씨'를 대비시키는 형식을 취하는데,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 원문이나 언해문 모두 한 단락씩 나누지 않고 한 어구씩 나누고 언해문을 싣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본문을 한 어구씩 제시하고 언해문도 그 어구에 따라 대비시키는 방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유독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만 보이는 방식이다. 대체로 권점圈點이 있는 부분에서 분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지어음國之語音'이 문자이고, '나랏말ᄊᆞ미'가 '正音'임을 보이기 위한 편찬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자'와 '정음'을 대비시켜 놓고 '국지어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랏말ᄊᆞ미'로 말하고 읽으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정자正字'나 '정문正文'이 아니라 '정음正音' 인 것이다.

이 '훈민정음'이란 명칭에서 이 당시의 어문생활을 감지할 수 있다. 즉 '國之語音 異乎中國'을 읽을 때, '國之語音이 異乎中國ᄒᆞ야'로 읽는 순독구결順讀口訣 방식이 있었고, 또한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로 읽는 석독구결釋讀口訣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순독 구결로 읽는 방식을 말하기에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러한 순독구결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은 필자(홍윤표)의 젊은 시절, 즉 1960년도까지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예컨대 '少年易老學難成이니 一寸光陰不可輕이라'는 말은 1960년대의 어른들에게서 흔히 들었던 말이다.

따라서 '정음'의 뜻은 '國之語音이 異乎中國ᄒᆞ야'로 말하지 말고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로 말하여야 함을 암시한 것이어서, 훈민정음 창제는 어문생활의 역사로 볼 때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어문생활사에서 순독구결 방식을 거쳐 석독구결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언해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 언해문 표기의 문자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로 되는, 인식의 대변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홍윤표,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어사 연구, 2017;3:197-201.

1-3. 훈민정음의 창제創製 목적目的

훈민정음은 무엇을 표기하기 위해 창제하였나?

훈민정음은 고유어固有語, 외래어外來語(그 당시의 한자음), 외국어外國語(중국음과 범어梵語 등)를 표기表記하기 위하여 창제되었다. 그래서 고유어 표기 방식과 외래어 표기 방식, 그리고 외국어 표기 방식을 달리하였다. 한자음은 당시로서는 외래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① 솅죵엉졩훈민졍흠　② 나랏 말ᄊᆞ미
③ 듕귁　④ 에 달아
⑤ 문ᄍᆞᆼ　⑥ 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 ᄊ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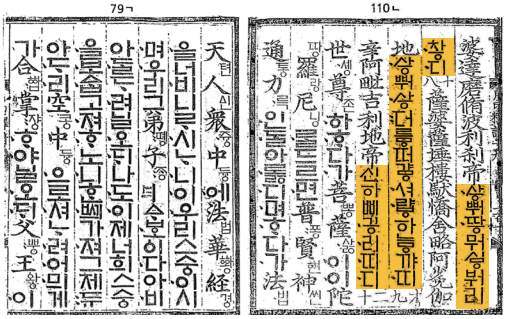
②와 ④와 ⑥은 고유어 표기 방식에 따라 표기한 것이고 ①과 ③과 ⑤ 는 외래어 표기 방식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①은 '世宗御製訓民正音'이란 한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③과 ⑤도 '中國'과 '文字'란 한자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한자음 표기는 외래어 표기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외래어 표기 방식인 한자음 표기는 소위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한자음 표기이다.

世솅宗죵御엉製졩訓훈民민正졍音흠

한자 아래에 쓴 한글 표기는 한자음 표기이다. 그런데 '世'를 '솅'로 쓰지 않고 '솅'로 쓴 것은 한자음 표기 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어 표기로서는 그 당시의 중국음 표기로서 '훈도訓導'는 '쓘도', '교열敎閱'은 '쟈웜'로, 그리고 범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단타구사예檀陀鳩舍隸'를 '딴떠갈셔리'로 표기하였다. 외국어 표기는 서체까지도 달리하여 표기하려 하였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월인석보 권19의 110ㄴ에 보이는 '상, 싱, 셔, 신' 등은 국어 표기의 '상, 싱, 셔, 신' 등과는 그 글자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정치음과 치두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 이 외국어 표기에 보인다.



도판 2-2. 『월인석보』, 1459년, 권19, 79ㄱ / 권19, 110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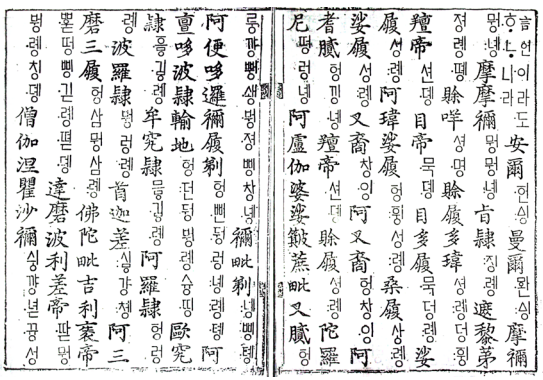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외국어 표기를 위한 문자의 서체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인석보』 권19의 79ㄱ에 보이는 글자의 서체와 월인석보 권19의 110ㄴ의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서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10ㄴ에 보이는 '상뭐땅뭐싱---리띠니' 부분의 서체는 그 뒤의 '世尊하 ᄒᆞ다가 --- ᄒᆞ다가'까지 보이는 서체와 달라 보이는데, 앞부분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체까지도 달리 한 것이다.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 태학사, 파주, 2017년, 311~312쪽

이 월인석보의 다라니경 부분과 같이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국어에는 없는 치음의 정치음正齒音과 치두음齒頭音을 표기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언해본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해례본에 없는 '한음치성漢音齒聲'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도판 2-3. 『훈민정음 언해본』, 1459년, 15a / 14b

그렇다면 '한음치성'이 석보상절을 편찬할 때 훈민정음 언해본의 뒤에 덧붙여졌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보상절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음치성'이 필요한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석보상절을 읽기 위해서는 고유어도 외래어도 외국어 표기에 대한 것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음치성'의 정치음, 치두음 표기는 외국어 표기에 필요했던 것이다. 즉 외래어인 한자어의 한자음은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하면 읽을 수 있지만, 중국 한자음 표기는 외국어로서 읽어야 하므로 중국어의 정치음과 치두음을 구별하기 위해 외국어 표기 규정을 밝혀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한음의 치성을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보상절에는 여러 곳에 다라니경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라니경을 암송할 때 제대로 읽기 위해 '한음치성'이 필요하여 이 규정을 덧붙인 것으로 생각한다. 석보상절의 다라니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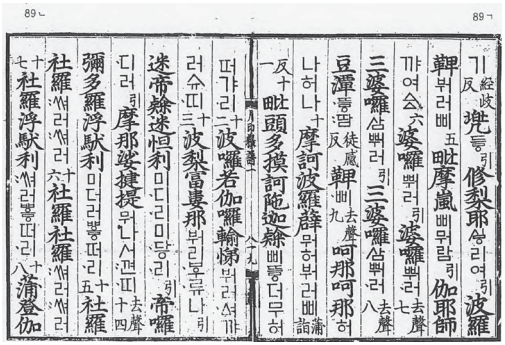


도판 2-4.『석보상절』, 1447년, 권21, 23b / 권21, 23a

석보상절 권23의 23a부터 24a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23의 55b부터 56b까지가 그러한데, 이 부분은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서체까지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한음치성' 표기를 통해 이것이 중국 한자음인 것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서체의 변이를 통해 이들이 외국어임을 알려 주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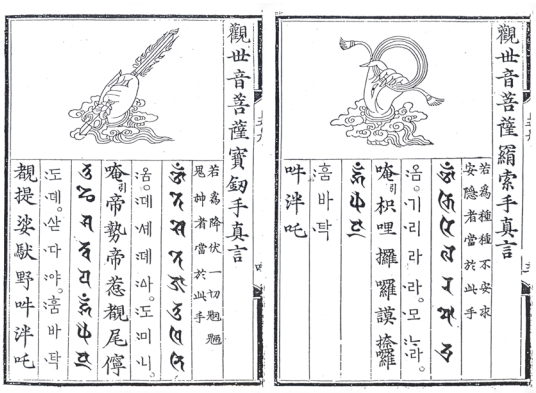
이 '한음치성'은 월인석보를 간행할 때도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도판 2-5.『월인석보』, 1459년, 권10, 89ㄴ / 권10, 89ㄱ

월인석보에도 다라니경이 있어서 이들 진언을 표기하기 위해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없는 규정이다. 홍윤표,『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어사 연구, 2017;3:227~229.

15세기 당시에 외국어 표기는 중국어 표기와 범어 표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범어 표기의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판 2-6.『오대진언』, 1485년, 4b / 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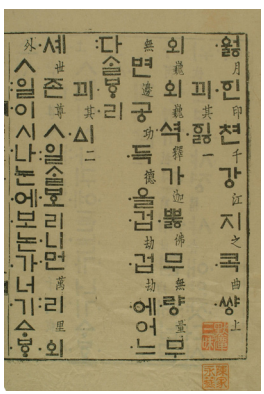
이 범자는 불가에서 오래전부터 학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진언집眞言集에는 실제로 범자들을 설명한 내용이 보인다. 진언집의 앞에 '凡例'에서 언문 글자와 범자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ㄱ'은 범자의  이나  와 같으며, 'ㄴ'은  이나  과 같으며, 'ㄷ'은  과 같다는 등의 설명을 한 후에 '범본오십자모실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을 싣고 있다.



도판 2-7. 「범본오십자모실담장」, 『중간진언집重刊眞言集』, 1800년, 二十

홍윤표, 『한자 학습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22년, 46, 47쪽

그런데 한자음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기와는 다른 표기를 보이는 문헌이 있다. 즉 '세世'를 '솅'로 표기하지 않고 '셰'로 표기한 문헌이다. 그것은 세종이 직접 썼다고 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그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한다.



도판 2-8. 『월인천강지곡』, 1447년, 1a

이것을 일부분만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

월月인印쳔千강江지之콕曲썅上
외巍외巍셕釋가迦뿛佛무無량量무無
변邊공功득德을 겁劫겁劫에 어느
다 술ᄫᅳ리

『월인석보』와는 달리 한자음을 한글로 먼저 쓰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월인석보와 월인천강지곡의 표기 비교

문헌	표기	현대적 해석
『월인석보』	世솅宗종御엉製졩訓훈民민正졍音흠	世宗御製訓民正音(솅종엉졩훈민정흠)
『월인천강지곡』	월月인印쳔千江지之콕曲썅上	월인쳔강지콕썅(月印千江之曲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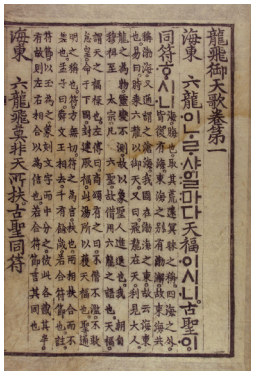
즉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한자음을 먼저 쓰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은 셈이다. 그런데 그 한자음 표기에서 『월인석보』와는 달리 '지之'의 한자음 표기가 '징'가 아닌 '지'이다. 『월인석보』에서는 '징'이었다. '외외巍巍'도 '욍욍'가 아닌 '외외'이고, '가迦, 무無'도 각각 '가, 무'이다. 이것은 이 한자음 표기도 고유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표기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 태학사, 파주, 2017년, 312~314쪽

세종이 계획한 훈민정음의 표기 내용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편찬한 문헌을 보면 훈민정음이 무엇을 어떻게 표기하려고 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한 후 처음으로 간행된 책은 『용비어천가』이다. 이 『용비어천가』에는 3가지의 표기 현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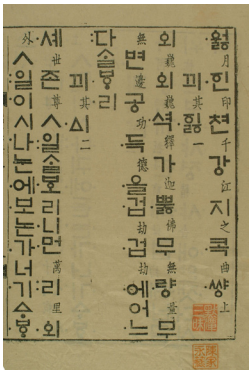


도판 2-9. 『용비어천가』 제1장, 14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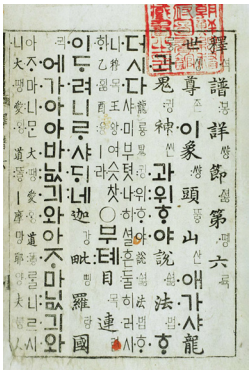
첫째는 우리말의 음音을 적기 위한 것이다. 곧 글자가 우리말의 음을 적기 위한 것이어서 ㄱ 은 [k] 또는 [g]의 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며, ㄴ 은 [n]음을 표기하기 귀한 것이며 '나'는 [na]를 표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ᄂᆞᄅᆞ샤, 일마다, 이시니, 이, ᄒᆞ시니'가 그것이다.

둘째는 우리말의 성조聲調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기호가 방점이다. 평성은 무점, 거성은 1점, 상성은 2점으로 표기하였다. '六龍이'의 '이', 'ᄂᆞᄅᆞ샤'의 '샤', '天福이시니'의 '이'와 '니', '古聖이 同符ᄒᆞ시니'의 '이'와 'ᄒᆞ'가 모두 방점이 하나이어서 거성을 나타내며, '일마다'의 '일'과 '마'가 두 점이어서 상성을, 그리고 나머지 방점이 없는 한글 표기는 점이 없어서 평성을 나타낸다.

셋째는 우리말의 문법文法 단위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법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 표시한 것이 권점이다. 권점을 가운데에 두는 것은 구句 단위이며 권점을 오른쪽에 둔 것은 절節 단위



도판 2-8.『월인천강지곡』, 1447년, 1a



도판 2-10.『석보상절』 권6, 1447년

를 뜻한다. '海東 六龍이 ᄂᆞᄅᆞ샤'의 아래에는 가운데에 권점(˳)이 보이고, '일마다 天福이시니'의 아래에는 오른쪽에 권점(˳)이 보인다. 이것은 문법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海東 六龍이 ᄂᆞᄅᆞ샤'까지는 구句를, 그리고 '海東 六龍이 ᄂᆞᄅᆞ샤 일마다 天福이시니'까지는 절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용비어천가』에는 한자음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계의 일부 학자는 훈민정음이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훈민정음이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초기의 문헌인『용비어천가』에 한자음을 표기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다.

『용비어천가』 다음으로 편찬된 문헌은『월인천강지곡』이다. 이『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다른 편찬 방식을 보이는 문헌이다. 이 문헌의 특징은 다른 문헌이 한자를 먼저 쓰고 그 아래에 한자음을 단 것에 비하여,『월인천강지곡』에서는 한자음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한자를 썼다는 점이다.

『월인천강지곡』과『석보상절』의 사진(도판 2-8, 도판 2-10)을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과『석보상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 : 월月인印천千강江지之곡曲

석보상절 : 月월印인千천江강之지曲곡

이것은 오늘날 국한혼용을 할 때의 방법, 즉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방식과 '月印千江之曲월인천강지곡'의 두 가지 방식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표기 방식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어떤 방식의 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훈민정음 창제자는 우리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윤표,『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57~59쪽

2. 한글

2-1. 한글의 용어와 그 의미

'한글'이란 단어를 각종 사전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이름'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을 뿐, 한글이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 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글'의 '한'이 지니고 있는 뜻을 해석해서 '한글'을 '하나의 글' 또는 '큰 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한글의 '한'은 '크다'라는 뜻과 '하나'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한글'은 '큰 글'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인 글'이라는 뜻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란 온 누리에서 오직 하나인 첫째가는 글이요, 또 법이 한 길로 정리되고 온 겨레에게 두루 쓰이는 큰 글임을 뜻한다.

장하일,『한글 맞춤법 교본』, 고려문화사, 서울, 1946년, 1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과 '흔'을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은 '큰''이란 뜻을 지니지만 '하나'란 뜻을 가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흔'은 '하나의'란 뜻을 가질 뿐 '큰'이란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한글'이 '하나의 글'이나 '큰 글'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한글'의 본래 의미를 찾으려면 '한글'이란 말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이다. '한글'이란 명칭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가는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시경 선생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남선은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한글'이란 명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10년에 주시경이 쓴 글에 나타나는 '한나라글'에서 '한글'이

비롯되었고, 주시경의 손으로 쓴 각종 증서에 '한말', '배달말글', '한글'이 실용되고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한글'은 주시경 선생이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말과 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이 창립한 「국어연구학회」의 명칭이 1911년 9월 3일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으로 바뀌었고, 1913년 3월 23일에는 「한글모」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국어학자 이규영(1890-1920)이 1907년부터 1917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조선언문회의 활동을 기록한 활동집인 『한글모 죽보기』의 "四二四六年 三月 二十三日(日曜)下午一時…本會의 名稱을 '한글모'라 改稱하고…"에서 '한글'이 처음 등장한다.

이규영, 『한글모 죽보기』, 한힌샘연구, 1988;1:168.

따라서 한글의 가장 오래된 사용 연대는 1913년 3월 23일이 된다. 이 말이 보편화된 것은 1927년 이후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 이름 저 이름 쓰다가, 드디어 한글이라고 지어져 불리었으니, 이 이름은 주 시경周時經 스승님이 처음으로 쓰신 이름이다. 하나인 글이요, 가장 바른 글이요, 가장 훌륭한 글자란 뜻으로, 우리 글자가 만들어진 지 사백 오륙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제 이름을 얻은 것이다.

유열, 『한글 강좌』,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서울, 1948년, 18쪽

'한글'은 주시경 선생이 지은 명칭으로, '한나라글'이란 말의 줄임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의 창시자가 최남선崔南善 또는 이종일李鍾一 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때의 '한나라'는 '韓나라'이고 이중의 '韓'은 '한국韓國'의 '韓' 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韓'이 아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로 '삼한국三韓國'의 약자이다. 따라서 '한국'이란 단어는 중국의 사서史書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던 단어다. 예컨대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自言 古之亡人 避秦役 來適韓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노인들이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옛날에 진나라 노역을 피하여 온 사람이 한국에 왔다)이란 기록에서 '한국韓國' 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은 그 원천이 '韓글'로 '한국의 글자'란 뜻을 가진 것이다. '큰 글'이나 '하나의 글'이란 의미는 후에 붙여진 설명일 뿐이다.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35~39쪽

2-2. 한글 명칭의 변화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명칭은 '훈민정음'에서 곧바로 '한글'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한글'로 정착된 것이다. 창제 당시의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 그렇다면 이 문자의 이름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을까?

①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정음正音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우리 문자를 전체적으로 지칭한 표현은 '훈민정음訓民正音'과 '정음正音'이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 · 중성中聲 · 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에는 임금이 친히 '언문'을 지었으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서 우리 문자의 고유한 이름이 '훈민정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언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중국의 한자에 대해서 그 이외의 문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언문에 속하지만, 언문이 곧 훈민정음은 아닌 것이다.

② 언문諺文

'언문'이란 원래 '한글'에만 쓰이었던 것이 아니다. '언문'은 중국 문자에 대해 주변 국가의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③ 언자諺字

'언자'는 '언문자諺文字'의 약자일 것이다. 가끔 사용되었던 명칭

이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④ 반절反切

반절이란 원래 한자의 음을 표시하던 방법 중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예컨대 한자'동東'의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덕홍반절德紅反切(주로 '덕홍반德紅反'으로 표시하였다) 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덕德'에서 성모聲母인 [t]를 취하고 '홍紅'에서 운모韻母인 [oŋ]을 취하여 '동東'의 음을 [toŋ]으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훈민정음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한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을 마치 성모와 운모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여 훈민정음을 반절이라고도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반절도 한글에만 썼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⑤ 국문國文

19세기 말엽末葉에 와서야 우리의 고유문자固有文字가 국가國家문자로 인정認定받게 되고, 그 명칭이 국문國文으로 변화하게 된다.

⑥ 조선문朝鮮文, 선문鮮文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 '조선문朝鮮文' 혹은 '선문鮮文'으로 추락하고 국문國文의 자리를 일본 문자에 내주게 되었다.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우리말을 '조선어朝鮮語'로 하여 조선어를 외국어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⑦ 한글

'한글'이란 명칭은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이란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자료는 1913년 3월 23일에 창립한 배달말글몯음(조선언문회) 창립총회의 전말을 기록한 『한글모 죽보기』이다.

'한글'은 『아이들보이』,1913년 9월의 '한글풀이'란에 처음 실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63~68쪽

3. 한글운동과 한글의 변천變遷

한글학자 이윤재李允宰*는 193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東亞日報』의 지면紙面을 통해 한글의 변천變遷을 네 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대성大聖 세종世宗께서 조선朝鮮의 문자훈민정음文字訓民正音을 발포發布하신지 이에 사백팔십육기四百八十六朞를 당하엿도다. 이에 광휘光輝잇는 업적業績이 조선朝鮮 문화사상文化史上에 영원永遠히 남아잇어 우리가 두고두고 이것을 기념記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쩌르지 아니한 반천년半千年의 역사歷史를 가진 이 한글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지나간 자취를 회고回顧하매 미상불 감개感慨를 금禁치 못하겟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에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의미無意味한 일이 아님을 안다. 내가 이제 우리 글의 발생發生으로부터 여러번 변천變遷을 지나 오늘까지에 이르는 기간期間을 아래와 같이

一,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세종世宗 28년부터 성종成宗대代까지 50년간(1446~1494년)

二,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연산군燕山君 대代부터 고종高宗 30년까지 약 400년간(1495~1893년)

三,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부터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간(1894~1910년)

四,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주시경周時經의 한글운동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1911~1932년)

등等 사기四期로 나누어 그 개요槪要를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환산桓山 이윤재李允宰(1888~1943) : 일제시기의 대표적인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에 그는 국어학자인 주시경의 주장을 계승하여 우리말과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한 최현배 · 이극로 · 신명균 · 이희승 · 장지영 등과 함께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 참여하여 언어독립운동인 한글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어학회의 중진이었던 이윤재는 일제의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함흥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1943년 옥사하였다. 박용규, 『우리말 ·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 역사공간, 서울, 2023년, 4쪽

3-1. 정음시대正音時代(창정기創定期)

세종世宗 28년부터 성종成宗 대代까지 50년간(1446~1494년)

조선글이 처음으로 할정割定되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일컬어 시행한 세종世宗 이십팔년二十八年으로 비롯하야 성종조成宗朝까지 이르는 오십년간五十年間(1446~1494)을 정음시대正音時代라 이른다. 곧 우리글이 창정創定된 시기時期다. 이것을 지은 경과經過에 대하야 녯적의 기록을 상고하면 세종世宗 이십오년二十五年 계해癸亥(1443)겨을에 임근께서 제국諸國은 각기 문자文字를 지어서 그나라의 방언方言을 적거늘 홀로 우리나라에만 없다 하시고 드디어 자모字母 이십팔자二十八字를 만드사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시고 국局을 금중禁中에 여사 정인지鄭麟趾,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등等을 시기어 자세히 해석解釋을 달라 하시엇으며 삼년三年을 지나, 이십팔년二十八年 병인丙寅(1446) 구월이십구일九月二十九日(음력陰曆)에 이것을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시엇다 한다. 세종世宗께서 정음正音을 창제創製하심에 얼마나한 노력努力과 용심用心이 있은 것은 여기에 장황히 말하지 않기로 하며, 다만 그 문자文字의 구조構造에 대하야 개괄적槪括的으로 보면,

【초성初聲 및 종성終聲】ㄱㅋㆁㄷㅌㄴㅂㅍㅁㅈㅊㅅㆆㅇㅎㅿㄹ

【중성中聲】ㆍㅡㅣㅗㅏㅜㅓㅛㅑㅠㅕ

【병서자並書字】ㄲㄸㅃㅆㅉㆅ

【순경음脣輕音】ㅱ ㆄ ㅹ

【치두음齒頭音】ㅈ ㅊ ㅉ ㅅ ㅆ

【정치음正齒音】ㅈ ㅊ ㅉ ㅅ ㅆ } 한음용漢音用

【상거성上去聲】좌左에 일점一點을 가加하면 거성去聲, 이점二點이면 상성上聲, 이러케 되엇다. 이것이 완성完成되매, 세종世宗께서 먼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정인지鄭麟趾, 권제權踶, 안지安止 등等 찬撰), 동국정운東國正韻(최항崔恒 찬撰), 사성통고四聲通攷(신숙주申叔舟 찬撰) 찬술撰述하사 실용實用의 예例를 보이시고, 이전취재吏典取才(문관시험文官試驗)에 정음正音을 한 과목科目으로 넣으사 일반一般 공용문公用文에도 널리 쓰게 하시엇다. 이로써 문학文學, 종교宗敎, 윤리倫理, 정치政治에 관한 서적書籍이 많이 우리말로 쓰게 되어 조선문학朝鮮文學 독립獨立의 일기축一機軸을 지엇다. 그리고 이 기기期期에 정음正音으로 쓴 많은 저역著譯이 잇엇으니, 그중 중요重要한 것 몇만 들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세종이십구년世宗二十九年),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세조팔년世祖八年),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세조십년世祖十年),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세조십년世祖十年),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세조조世祖朝), 두시언해杜詩諺解(성종십이년成宗十二年), 황산곡언해黃山谷諺解(성종십사년成宗十四年) 등等은 다 명문名文 거편巨篇으로 오늘날 우리 조선어문朝鮮語文 연구硏究에 막대莫大한 공헌貢獻이 되는 것이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3-2. 언문시대諺文時代(침체기沈滯期)

연산군燕山君 대代부터 고종高宗 30년까지 약 400년간
(1495~1893년)

이때 조선朝鮮은 문화文化의 꽃이 한창 난만爛漫함과 함께 이러틋 국학國學이 벗적 늘어갓섯다. 그러나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밥벌이로 삼는 완명몰각頑冥沒覺 한학배漢學輩는 저사抵死코 이를 꺾어버리려 하엿다. 그리하여 우리글은 문자文字로 승인承認하지 아니하므로 그리 좋든 정음正音이란 이름까지 언문諺文이란 비속卑俗한 명칭名稱으로 바꾸어 버리었다. (한자漢字에는 진서眞書란 존호尊號를 올리엇다) 이때를 언문시대諺文時代라 하야, 연산조燕山朝부터 고종高宗 삼십년三十年까지 사백년간四百年間(1495~1893)을 이름이니, 이가 한글사상史上에 가장 장구長久한 기간期間으로, 몹슬 박해迫害와 갖은 능멸凌蔑을 받든 때엇다. 연산군燕山君 같은 폭군暴君은 언문諺文 사용하는 자에게 제서폐기율制書廢棄律을 써서 사형死刑에 처處하야 이를 박멸撲滅코저 하였으니, 문자文字의 화액禍厄이 이에서 더 심甚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역경逆境에 들어잇는 우리글은 다행이 멸절滅絕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잔명殘命을 겨우 보전하엿을 뿐이러니, 중종

조中宗朝에 이르러 최세진崔世珍의 손에서 한번 수정修正함을 받으니, 이것이 도리어 큰 병病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이 되엇다. 소위 수정修正이란 것은 그의 저著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의 범례凡例 가운대 "언문자모諺文字母(속소위반절이십칠자俗所謂反切二十七字)" 란 난하欄下에 이러케 적히엇다.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ㄱ기역其役 ㄴ니은尼隱 ㄷ지池(말末) ㄹ리을梨乙 ㅁ미음眉音 ㅂ비읍非邑 ㅅ시時(의衣) ㅇ이異=초성初聲에 씀, 응凝=종성終聲에 씀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ㄱ(기箕) ㅌ치治 ㅍ피皮 ㅈ지之 ㅊ치齒 ㅿ이而 ㅇ이伊 ㆆ시중성독용팔자厔中聲獨用八字 ㅏ아阿 ㅑ야也 ㅓ어於 ㅕ여余 ㅗ오吾 ㅛ요要 ㅜ우牛 ㅠ유由 ㅡ(응應) ㅣ(이伊)、(사思)이하以下 약略.

이를 보면,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정定한 초성初聲 중성中聲의 배열排列을 바꾸어 놓앗고 종성終聲(바침)에는 ㄱㄴㄷㄹㅁㅂㅅㅇ의 팔자八字만 쓰고 ㅈㅊㅋㅌㅍㅎ들은 바침으로 쓰는것을 철폐撤廢하엿으니, 이것이 세종世宗께서 "초성부용종성初聲復用終聲"하라는 뜻에 크게 어그러질뿐 아니라, 오늘날 문법文法의 체계體系를 세움에 크게 마장魔障이 되는 것이다.

이러틋 우리글이 연산군燕山君에게 된서리를 맞고, 최세진崔世珍이란 용의庸醫에게 서툴은 수술手術을 받아, 글자로의 본질本質을 잃고 진가眞價를 떠러트리어 아무 규칙規則이 없고 통일統一이 없이 혼란무상混亂無狀하게 쓰는 글자가 되고 말은 것이다. 그나마 상하上下 전반全般이 다 쓰는것이 아니라, 일부一部 부녀婦女와 하류계급下流階級에 한限하야 약간 행용行用함에 그치엇다. 그리고 좀 고급高級이래야 경서언해經書諺解와 한어漢語, 만주어滿洲語, 몽고어蒙古語, 일본어日本語 등等의 역어譯語와 계몽啓蒙에 관關한 책들이 잇엇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글이 머리를 들수 없고 여지없이 눌려서 오랜 세월歲月을 지내어왓다. 이때에 조선朝鮮에는 미상물 홍유석학鴻儒碩學이 많지 아님이 아니언마는 모두 우리글엔 도외시度外視하엿다. 이러구러 우리글은 침체沈滯에서 쇠퇴衰退로 향向하여 갈뿐이엇다. 그러나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의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영조英祖 이십륙년二十六年=1750)와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의 『언문지諺文志』(순조純祖 이십사년二十四年=1824)와 추금秋琴 강위姜瑋의 『국문자모분해國文字母分解』(고종高宗 육년六年=1869)는 다 이 시대時代에 난 것으로, 이것이 한글연구硏究의 보옥寶玉이며, 한글 부흥復興의 새 빛을 비치어줌이 되는 것이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二】』, 『동아일보』, 1932. 10. 30.

3-3. 국문시대國文時代(부흥기復興期)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부터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간 (1894~1910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以後 조선사회朝鮮社會에는 세계世界의 신풍조新風潮가 몰려들어와 국민國民의 사상思想을 일변一變케 되매,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고치고 모든 제도制度를 개혁改革하엿다. 이로써 조선인朝鮮人은 오백년五百年의 미몽迷夢을 각성覺醒하야, 지나학支那學에 심취心醉한 자아몰각自我沒覺의 정신精神을 벗어버리고 조선심朝鮮心의 발발勃發하는 일전기一轉機에 이르럿다. 이에 따라 우리글에 대한 자각自覺이 생기므로, 여태까지 불러오든 언문諺文이라는 비속鄙俗한 명칭名稱을 국문國文이라 고치어 시행施行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時代를 국문시대國文時代라 하니, 이는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부터 경술庚戌까지 십칠년간十七年間(1894~1910)을 이름이다.

이로부터 공문사서公文私書며 교과독본敎科讀本이며 신문잡지新聞雜誌 등류等類가 모두 우리글을 교용交用하게 되어 전사회全社會에 보편화普遍化하였으며, 이능화李能和 씨는 자전字典, 사전辭典의 편찬編纂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를 학부學部에 제출提出하야 문자文字의 사상思想을 고조高調하엿으며 주시경周時經 씨는 국문학교國文學校를 새로 설립設立하야 교육敎育에 진력盡力하였다. 또 지석영池錫永 씨(당시當時 의학교교장醫學校校長)는 신정국문新訂國文을 편성編成하야 황제皇帝께 상소上疏하야 학부學部의 심의審議를 지나, 광무구년 칠월光武九年 七 月 신정국문실시건新訂國文實施件을 공포公布하니, 그 개요槪要를 들면,

일一, 신정국문오음상형변新訂國文五音象形辨 이는 우리글의 자모字母가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등의 발음기관發音器官의 형상形象에 의依하엿다는 것.

이二, 신정국문초종중삼변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이는 초성初聲, 중성中聲, 종성終聲의 용법用法이 최세진崔世珍의 설說을 좇은 것.

삼三, 신정국문합자변新訂國文合字辨 이는 초중종初中終 삼성三聲을 합용合用하는 예例를 든 것.

사四, 신정국문고저변新訂國文高低辨 이는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각기 우가일점右加一點으로 하는 것.

오五, 신정국문첩음산정변新訂國文疊音刪正辨 이는 중성中聲ㆍ를 폐지廢止하는 것.

육六, 신정국문중성이정변新訂國文重聲釐正辨 이는 중성重聲을 ㄲㄸㅃㅆㅉ로 쓰는 것이 옳으나, 편의便宜를 좇아 ㅘㅚㅙ ㅆㅉ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글 철법綴法 정리整理의 일면一面으로 완선完善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시기時期에 있어서 첫 번재 정리整理의 손을 내민 것이다. 이 『신정국문新訂國文』이 동기動機로, 광무십일년 칠월光武十一年 七月에는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를 학부學部안에 설치設置하고, 위원장委員長 윤치오尹致昨, 당시當時 학무국장學務局長, 이하以下 십수인十數人의 위원委員이 잇어, 약約 삼년간三年間 십삼회十三回의 회의會議를 거듭하야, 여러가지 문제問題에 대하야 연구硏究를 쌓앗는데,

일一, 국문國文의 연원淵源 및 자체字體, 발음發音의 연혁沿革.

이二, 초성初聲 ㅇ ㆆ ㅿ ◇ ㅱ ㅸ ㆄ ㅹ 팔자八字 복용復用의 당부當否.

삼三, 초성初聲에서 ㄱㄷㅂㅅㅈㆆㅊ 자字 병서並書의 서법일정書法一定.

사四, 중성中聲 이자二字 를 창처創處하야ㆍ자字 폐지廢止함을 당부當否.

오五, 종성終聲 ㄷㅅ 이자二字의 용법用法 및 ㅈㅊㅋㅌㅍㆆ 육자六字를 종성終聲에도 통용通用함의 당부當否.

육六,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과의 구별區別 여하如何.

칠七, 자모字母의 음운音韻의 일정一定.

팔八, 자순字順 행순行順의 일정一定.

십十, 철자법綴字法.

이같이 의견意見이 작성作成되어, 내각內閣에 제출提出되엇으나, 그때 마침 정계政界의 파란波瀾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문제問題가 유야무야중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우리 조선사람은 워낙 오래동안 한문漢文에 중독中毒되어 잇으므로 하야, 우리글의 정리整理와 통일統一이 이러케 순조順調로 되어 가기 어려우나, 수백년數百年 오므로 굴욕중屈辱中에 신음呻吟하든 우리글이 이제야 재생再生의 영榮을 얻게된 것은 진실로 기뻐하지아니할 수 없다.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三】』, 『동아일보』, 1932. 11. 1.

3-4. 한글시대韓契時代(정리기整理期)

주시경周時經의 한글운동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1911~1932년)

"공든 탑塔이 문어지랴"하는 속담이 잇다. 과연 세종世宗께서 머처럼 애써서 말들어 놓으신 한글이 십생구사十生九死의 파란波瀾많은 역사歷史를 지나, 이러케 부흥復興함에 이르럿고, 한글 연구硏究의 선구자先驅者 주시경周時經같은 큰 학자學者가 일어나서, 희생적犧牲的 노력努力을 다하야 우리글 바루잡는 첫 길을 열어 세종世宗의 끼치신 뜻을 이어가려 하니, 이로서 깊이 묻히엇든 보배가 파냄을 얻어 광휘光輝를 다시 발휘發揮하게 되엇다. 종래從來의 한문중독漢文中毒을 깨트려 버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선말을 많히 쓰자는 동기動機에서 우리글의 명칭名稱을 한글이라 하엿다. 주시경周時經 씨의 한글운동運動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이십여년간二十餘年間(1911~1932)을 한글시대時代라한다.

전기前期에 잇는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는 단순히 정부政府의 기관機關으로 된 것이며, 그 전에도 그러하엿지마는, 이 시기時期부터는 한글운동運動이 민중民衆으로 돌아왓다. 주시경周時經 씨의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1913)과 『말의소리』(1914)가 출간出刊

되자, 이것이 오로지 한글 연구研究에 토대土臺가 되었다. 세종世宗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원칙原則에 의지하야 초성初聲 전부全部를 종성終聲으로 쓰며 된시옷을 병서並書로 고쳐쓰는것과, 역사적어음歷史的語音을 표음식表音式으로 고쳐쓰는 것은 우리글의 공전空前의 대혁명大革命을 일으킨 것이다. 김두봉金枓奉, 이규영李奎永, 권덕규權悳奎, 장지영張志暎, 최현배崔鉉培, 이규방李奎昉, 신명균申明均 정렬모鄭烈模, 이병기李秉岐, 김윤경金允經, 이상춘李常春, 제씨諸氏가 그 뒤를 이어 분투노력奮鬪努力하야 오늘까지 이른다.

최남선崔南善 씨 경영經營의 신문관新文館과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 이중건씨李重乾氏 경영經營의 신소년사新少年社는 다수多數한 서적書籍과 잡지雜誌를 간행刊行하는 중 우리 어문語文에 더욱이 많은 공헌貢獻이 잇엇으며 『동아일보東亞日報』가 창간創刊되면서부터 가장 간이화簡易化한 철자綴字를 사용使用하야, 전반全般에 전형典型이 되엇다, 조선어문朝鮮語文 연구研究의 유일唯一한 기관機關으로 경성京城 수표정교육협회내水標町教育協會內에 있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는 십여년전十餘年前에 창립創立된 한글 연구대가研究大家의 총망라總網羅한 단체團體로, 매월每月 월간잡지月刊雜誌 『한글』을 발행發行하고 잇다.

사전辭典 편찬編纂에 대하여는, 김두봉金枓奉 씨의 『말모이』와 이상춘李常春 씨의 사전辭典이 다 여려해로 고심苦心함이 적지 아니하엿으나 완성完成함에는 이르지 못하엿고, 정인보鄭寅普, 최남선崔南善 제씨諸氏의 발기로 계명구락부내啓明俱樂部內에서 사전辭典 편찬編纂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완공完工을 못하야 버려두엇는데, 지금 몇몇 분이 그것을 계속繼續 정리중이라 하며, 재작년再昨年부터 전조선全朝鮮의 유지有志 백여인百餘人의 발기發起로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를 조직組織하고, 지금까지 편찬編纂에 열중熱中하고 있다.

당국當國에서는 이 시기중時期中에 전후이회前後二回에 긍亘하야 철자안綴字案을 작성作成하야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에 사용使用하엿다. 지금 사용使用하는 철자개정안綴字改正案은 삼년전三年前(1929)부터 시행施行하는 것으로 지금 현저顯著한 효과效果를 주奏한다.

일반一般 민중民衆에게 교양敎養하는것으로는,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주최主催로 전조선오륙십처全朝鮮五六十處에 하기夏期 한글강습회講習會를 열어 작금昨今 양회兩回에 성적成績이 자못 양호良好하였으며, 계몽운동啓蒙運動으로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주최主催의 문자보급반文字普及班과,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주최主催의 브나로드*는 놀랄만한 효과效果를 거두엇다.

한글 운동運動을 말함에 야소교耶蘇敎는 내놓을수 없다. 사십만 교도四十萬敎徒의 일일송독日日誦讀하는 성경聖經이 우리글로 번역飜譯되어, 각종서적중各種書籍中 발행부수發行部數로 으뜸될 것이다.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사람이라도 교회敎會에 기주간幾週間만 다니면 성경聖經을 능히 독파讀破할수 잇다. 한글 보급普及의 속도速度는 야소耶蘇에서 지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상以上은 이 시기중時期中 한글 발달發達의 개요槪要를 말한 것이다. 이 앞으로 더욱 우리의 노력努力 쉬지아니하야, 한글이 완전完全히 정리整理되고 통일統一함에 이를 것을 믿는다.(끝)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四】』, 『동아일보』, 1932. 11. 2.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편, 『한뫼 이윤재 글모음』, 도서출판 선인, 서울, 2016년, 554~557쪽

* 브나로드운동 Vnarod運動 : 『동아일보사』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일으킨 농촌 계몽운동의 하나이다.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로 부르다가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제4회부터 '계몽운동'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금지 조처로 계속하지 못하였다. 원래 '브나로드'는 제정帝政 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민중 속으로 가자.'는 뜻의 러시아말 구호이다. 이 구호를 내세우고 1874년 수백 명의 러시아 청년 학생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066

4. 일제 강점기 조선어朝鮮語 말살정책抹殺政策

일제日帝는 임오군란壬午軍亂(1882), 갑신정변甲申政變(1884)과 같은 정변政變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 여세를 몰아 주변 국가의 침략에 광분하여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러일전쟁을 도발,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장치를 강화해 나가다가 드디어 을사늑약乙巳勒約 · 일한병합日韓倂合을 단행하는 불법적 침략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불행하게 식민지국으로 전락한 조선에서는 일어日語가 도리어 국어로 둔갑하여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학과목에 일어 교과서를 사용하고, 또 일어로 교수하게 하는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어와 일어의 지위는 완전히 역전되어 일어는 지배자의 언어로서 '일어=내지어=국어'로 상승하고, 조선어는 피지배자의 언어로서 '조선어=외지어(반도어)=언문(방언)'이라는 등식으로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선어의 불행한 가치전락價値顚落의 근저에는 '일어는 조선어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는 정치적 지배자의 언어 차별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일제는 조선어를 종주국宗主國의 언어에 대한 식민지의 언어, 내지어에 대한 외지어, 국가 공용어에 대한 지방적 방언이라는 차별의식을 강렬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어의 입지立地를 비참하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두 민족은 엄연히 다른 종족이었으나 일본이 좀 더 아량이 있고 전향적前向的인 여유가 있는 민족이었더라면, 유럽의 몇 나라의 경우처럼 가급적 이중언어주의체제二重言語主義體制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유연悠然한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제는 처음부터 조선 민족의 언어동화와 황국신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상 보통교육의 교과과정에 정식으로 「朝鮮語及漢文」 이란 교과목을 설정하여 비록 제한적이긴 했으나 조선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1921년 3월에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대요」, 1930년에는 「보통학교용 철자법」이라는 이른바 '총독부철자법'을 연달아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한때 조선어교육을 공식으로 허용하는 이언어주의二言語主義를 지향해 갔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한낱 허울 좋은 정치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통해 처음부터 각급 학교의 조선어와 일본어의 수업시수에 현저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교육령 개정 때마다 조선어 시수를 축소해 나가며 조선어 말살抹殺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편 제2차 교육령 하의 1934년 7월에 이르러 우가키 총독이 매년 성대하게 실시해온 學生夏季農村文字普及運動(브나로드운동)을 금지한 제1차 조선어 말살 단계에 이어서, 1938년 3월에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함에 이르러서는 조선어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규정, 금지로 정책을 바꾸어 교묘한 술책을 써서 「朝鮮語及漢文」과목에서 먼저 조선식 한문을 없애고, 조선어는 일단 수의과목隨意科目이라는 명목을 붙였다가 다음 해 4월에 결국 각급 학교의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말았다. 이는 조선어 말살의 제2차 단계로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조선어교육 폐지의 연장선상에서 1940년 8월 10일 자에는 언문으로 발행되던 민족지 『동아일보』 · 『조선일보』를 강제로 폐간시킨 것은 조선어 말살의 제3차 단계로서 암흑정치의 표본적인 악법惡法을 강요한 것이었다. 미나미 총독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1941년 3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國民學校規定」을 공포하여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정, 이곳에서 조선어의 냄새마저 완전히 말소해 버리려고 그 교과과정에서 조선어 과목명을 삭제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고이소 총독 때인 1943년 1월 제4차 교육령 하에서는 중학교 ·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를 또 삭제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조선어 말살의 제4차 단계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41년 12월 8일에 발발한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에서 차츰 전황이 불리해지며 전국이 급박해가자, 1943년 8월 군대 소모를 충당하기 위한 징병제의 강행 실시와 맞물려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의 주도하에 학교는 물론 가정 · 사

회에 이르기까지 일어전해日語全解 및 일어상용운동日語常用運動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고, 조선어는 온갖 핍박 아래 사실상 사용이 금지하다시피 되었다. 그리고 이는 1940년 2월 창씨개명創氏改名의 강제 실시와 함께 조선어와 민족말살정책의 병행을 의미하는 반역사적 폭정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조선어 말살의 제5 · 6차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1942년 10월에는 조선어의 진작振作을 뿌리째 뽑아 버리기 위한 극단적 조처로서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 편찬을 민족운동으로 규정, 이른바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최현배 등 많은 인사를 투옥하고 '조선어큰사전원고'를 모두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윤재 · 한징이 옥사獄死하는 큰 불행이 일어났다. 이 무자비하고 냉엄한 탄압 조치는 마지막인 조선어 말살의 제7차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게 됨에 따라, 조선어는 오랜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 국어의 자리를 회복하여 조선어 · 한국어 또는 언문 · 한글이라고 자유롭게 호칭할 수 있게 된 것은 천우신조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鄭百秀, 『한국근대의 植民地體驗과 二重言語文學』, 아시아문화사, 2000년, 16, 17쪽

金成俊,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景仁文化社, 2010년, 109~112쪽

5. 한글시대韓契時代(확산기擴散期)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のまひでき, 野間秀樹, Noma Hideki는 그의 저서 『한글의 탄생』에서 현재 한반도의 에크리튀르(집단 특유의 언어습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 압도壓倒하고 있어 1945년 이후를 한글시대時代(제압기制壓期)로 덧붙일 수 있다 하였다.

野間秀樹, 『ハングルの誕生』, 新版, 平凡社, 東京, 2021년, p308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베게, 파주, 2020년, 334쪽

그러나 필자들은 21세기 들어 한글韓契이 한류韓流의 중심에서서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擴散되고 있으므로, 한글의 제압기制壓期라는 생소한 표현보다는 한글의 확산기擴散期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한국어 세계화는 최근 2, 30년 동안에 일어난 획기적인 일이며 적어도 한국어는 세계 10대 언어 중 하나이다.

세계 대학 약 1,400개와 약 1,200개의 초중고에서 교육되는 언어이고, 세계적으로 60개국 180여 개의 세종학당과, 2,000여 개의 한글학교 등을 포함하여 총 4,400여 개 외국 기관에서 한국어가 교육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한류에 힘입어 한국어 노래, 드라마, 영화, 음식, 한복, 한글디자인 등과 함께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나고 있다.

박영순, 「한국어 세계화,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2020;2020:1~8.

인도네시아 한쪽 부톤섬의 바우바우시에는 약 8만 명의 찌아찌아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찌아찌아어에는 고유문자文字가 없었다. 이 때문에 찌아찌아어는 주로 구어口語로 전해졌다. 한글이 찌아찌아족 전통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글로 부족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2009년 『바하사 찌아찌아1』이라는 이름의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어 교과서가 도입됐다.

(훈민정음학회)이호영, 황효성, 아비딘, 『바하사 찌아찌아』, 한국학술정보, 파주, 2009.

박의래, 「한글 도입 15년 인니 찌아찌아족…"전통언어 보존위한 특별도구"」, 『연합뉴스』, 2023. 12. 20.

제3장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1894년, 1895년)

국한문國漢文 사용

갑오개혁 이전 국문國文은 문자 생활에서 보완적補完的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국문을 제정하면서 표방한 원래 목적 역시 한문 서적의 국역國譯과 행정 실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도였다. 『세종실록』 세종 26년 2월 20일 조선시대 법전에서도 언문으로 작성된 사문서는 소송에 접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사채의 문기가 언문諺文이거나 증인이나 필자가 없는 경우에는 송사를 들어주지 않는다. 私債成文, 諺文及無證筆者, 勿聽。'

『大典通編>戶典>徵債>[私債成文諺文]』,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시대법령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국문의 새로운 용도가 규정된 것은 1894년 7월 8일 「의안」에서였다.

'무릇 국내외의 공사문자公私文字는 구문歐文으로 상용되는 외국의 국명 · 지명 · 인명이 있는 경우 모두 국문國文으로 번역하여 실행할 것'

모든 문서와 기록물에 외국어 표기를 국문으로 번역하라는 이 규정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였다. 개항 이후 서구와 각종 조약이 체결되자, 서구의 서적들이 대거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 고문관, 군인, 사업가 등 외국인들의 방문이 또한 빈번하였다. 따라서 의사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구의 용어를 국문으로 가차假借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갑오개혁기 공문서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법령인 『공문식公文式』은 일본의 『공문식』을 전적으로 모방하였다. 그런데 일본 『공문식』에는 없는 조항이 갑호개혁기 『공문식』에 하나가 있다. 바로 공문서 작성에 있어 사용한 문자에 대한 규정, 즉 국문國文을 근본으로 하고 국한문 혼용을 허용한 조항이다.

1894년 7월 12일 「명령반포식」에는 국문을 사용 문자로 규정한 조항이 없다가 몇 개월 뒤인 1894년 11월 21일 『공문식』 제14조에 '법률 ·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문을 부역附譯하거나 혹은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894년 11월 『공문식公文式』이 순한문純漢文으로 작성되었지만, 법률과 칙령에 국문을 사용하도록 천명하였다. 그 뒤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1895년 5월 8일 『공문식』 제9조에 재천명함으로써 드디어 한글 창제 이후 국문이 우리나라 대표 문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국문은 외래어 표기, 관원 시험 국문 규정, 법률 및 명령, 『관보』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드디어 대표 문자로 공인되었다.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37~42쪽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 · 미국 유학생으로서 당대 대표적인 개화開化 지식인知識人 유길준俞吉濬(1856~1914)은 개화기에 대표적인 저작물인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한 개화사상가이며, 또한 갑오개혁甲午改革 당시 군국기무처의원軍國機務處議員,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내각총서內閣總書, 내부협판內部協辦 등을 거치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치가이다.

尹炳喜, 『兪吉濬硏究』, 國學資料院, 서울, 1998년, 2015년, 7쪽

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5년, 17쪽

황위주黃渭周는 『공문식公文式』에서의 국문사용國文使用 기획企劃 주체主體를 정치적, 외교적, 학술적 측면에서 검증檢證해 보고자 하는 논문論文에서 『공문식公文式』에서의 국문國文 사용使用 선포宣布는 유길준俞吉濬의 기획企劃이 분명分明하다고 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갑오경장의 핵심적 추진 기관이었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와 그 구성원들을 점검해 본 결과, 이 기관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 약 10명, 그중에서도 유길준의 활동

이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문식』 또한 유길준이 기획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공문식』이 일본 『공문식』을 변용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것은 『공문식』을 기획한 주체가 일본 사정에 정통하였음을 말해 주는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또한 유길준이었다. 그는 군국기무처 설립 이전부터 일본과의 외교 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공문식』 발표 직전까지 일본을 오가며 내정개혁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공문식』의 국문 사용 선포를 연상시키는 글을 짓기도 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공문식』 제14조가 일본 『공문식』에 없는 것을 별도로 추가한 것이란 점이 주목되었다. 이렇듯 중요한 조항을 전격적電擊的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문國文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학문적 성찰이 필요했을 터인데, 군국기무처 구성원 가운데 이런 성찰이 있었던 인물은 유길준이 유일하였다. 유길준은 군국기무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분명한 국문관國文觀을 정립하였고, 이런 생각을 각종 저서著書 논설論說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開陳하였으며, 『공문식』에서의 '국문 사용' 또한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문식』에서의 국문國文 사용使用 선포는 유길준의 기획이 분명하며, 이런 점에서 유길준은 국 · 한문의 대전환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할 만하였다.

황위주黃渭周,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企劃 主體, 嶺南學, 2023;85: 285~321.

유길준兪吉濬(1856~1914)의 1894년 관직官職 이력履歷

1894년 5월 20일(양력 6월 23일)

- 外衙門(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에 임명됨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 軍國機務處 설치
-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
  유길준은 外務參議로 임명되어 內閣 書記官長 겸직
  (김홍집의 비서 2명 중 1명)

1894년 7월 15일(양력 8월 15일)

- 俞吉濬이 朴容大, 李重夏, 李泰容, 曺寅承과 함께
  議政府 都憲*에 임명됨

* 도헌은 사헌부를 계승한 감찰기관, 관리들 비행 규찰糾察하는 감찰위원

1894년 9월 11일(양력 10월 10일) 報聘大使의 일원으로 일본 방문

정사	義和君(10월 3일 최종 확정)
수행원 6명	高永喜(학무아문 참의), 李準榮(기기국 위원), 田畯基(궁내부 주사), 張淳奎(前 訓練僉正), 金洛駿(前 主事), 金演泰(司勇)
시찰원 9명	俞吉濬(議政府 都憲), 李秉武(壯衛營 領官), 金思濬(前 縣監), 金觀濟(外務衙門 主事), 趙重應(議政府 主事), 尹致昊(議政府 主事), 韓善會(前 主事), 魚允迪(度支衙門 主事), 金昌浩(심부름???)
하인 4명	李熙容, 申聲求, 韓景履, 李浩奭

1894년 11월 16일(양력 12월 12일) 귀국, 17일 복명復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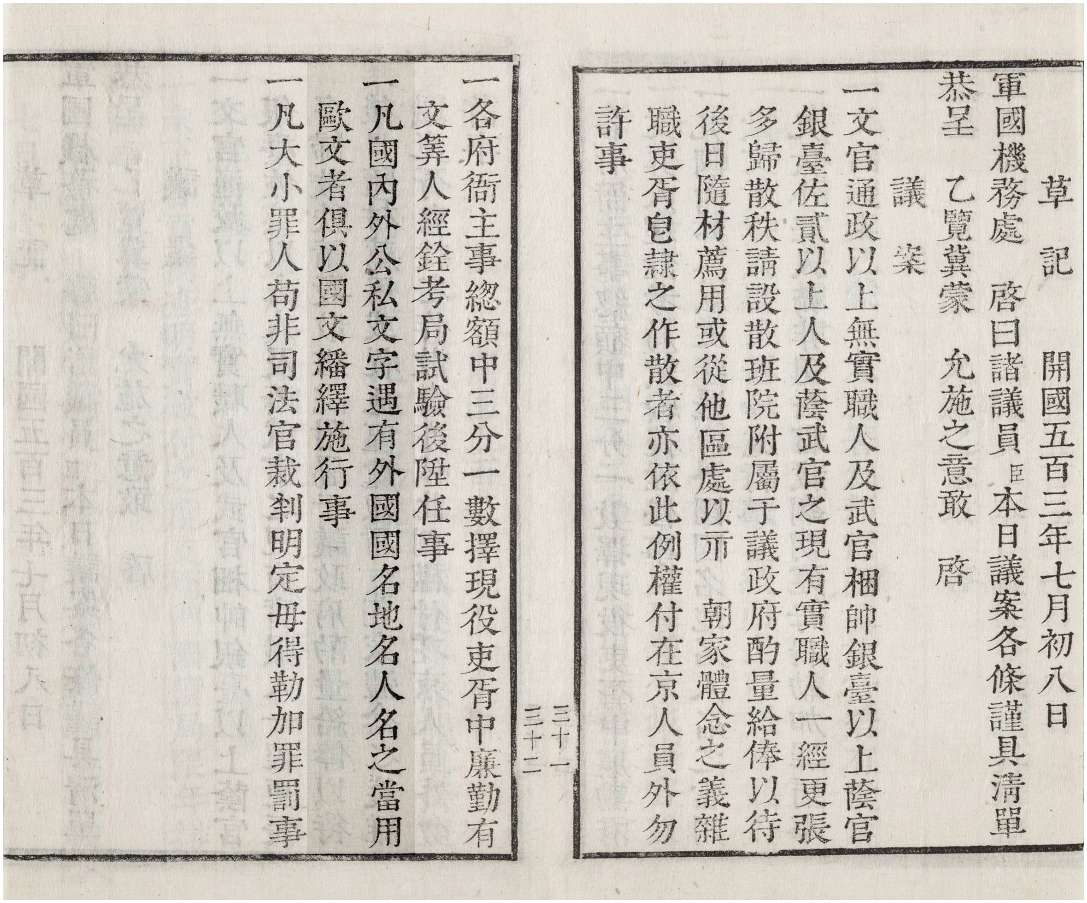
1894년 11월 21일(양력 12월 17일)

- 칙령 제1호로 公文式 (한문漢文으로 작성) 발표
- 같은 날. 새로운 내각 인사 발표
- 제2차 金弘集 내각 (金弘集, 朴泳孝 聯立內閣) 출범

- 이때 1894년 11월 21일(양력 12월 17일) 유길준은 內閣總書, 즉 내각서기장으로 임명된 듯하나,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5개월 뒤인 1895년 4월 25일이었다.
- 明治 27년(1894) 12월 19일 자 時事新報의 기사, 尹致昊日記 권4 1895년 12월 14일 자 등에 그를 內閣 書記長으로 지칭한 기록이 있다.

황위주黃渭周, 개인 교신, 2024. 1. 24.

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894년 7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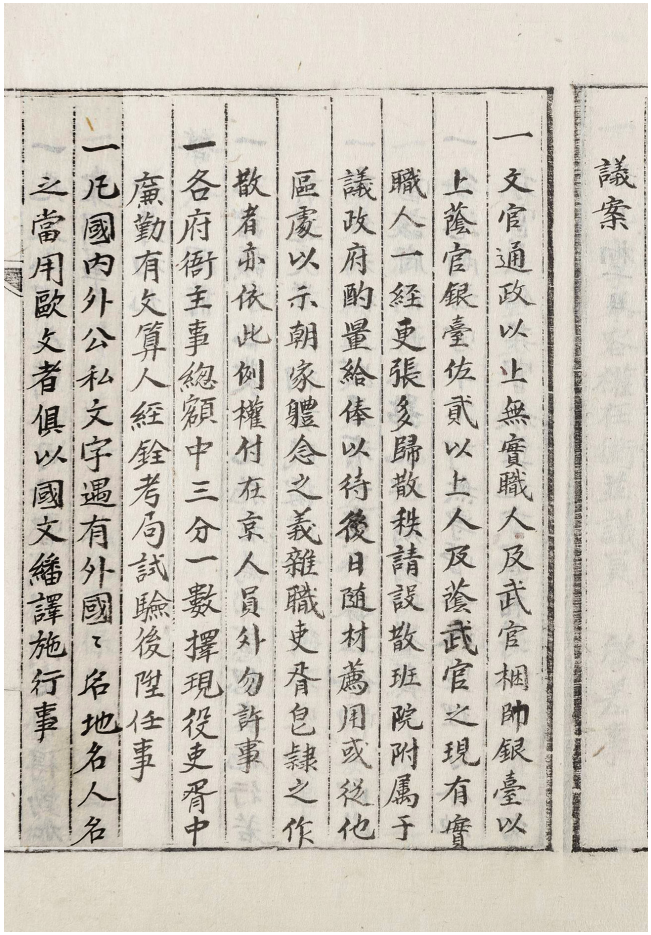
草記　開國五百三年七月初八日
軍國機務處　啓曰諸議員臣本日議案各條謹具淸單
恭呈　乙覽冀蒙　允施之意敢　啓
議案
一文官通政以上無實職人及武官捕帥銀臺以上蔭官
銀臺佐貳以上人及蔭武官之現有實職人一經更張
多歸散秩請設散班院附屬于議政府酌量給俸以待
後日隨材薦用或從他區處以示　朝家體念之義雜
職吏胥皂隷之作散者亦依此例權付在京人員外勿
許事

一各府衙主事總額中三分一數擇現役吏胥中廉勤有
文筭人經銓考局試驗後陞任事
一凡國內外公私文字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
歐文者俱以國文繙繹施行事
一凡大小罪人苟非司法官裁判明定毋得勒加罪罰事

三十一
三十二

도판 3-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5248_00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군국기무처는 조선 말기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친일파 정권이 수립되자 제도개혁과 신정권 탄생에 따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합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초정부적 입법 · 정책 결정 기구로서 최고 집권자의 회의체 기능을 수행했다.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하며 210건의 의안을 심의 · 통과시켰다.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469&cid=46623&categoryId=46623


議案
一文官通政以上無實職人及武官捕將銀臺以
上蔭官銀臺佐貳以上人及蔭武官之現有實
職人一經更張多歸散秩請設散班院附屬于
議政府酌量給俸以待後日隨材薦用或從他
區處以示朝家體念之義雜職吏胥皂隷之作
散者亦依此例權付在京人員外勿許事
一各府衙主事總額中三分一數擇現役吏胥中
廉勤有文算人經銓考局試驗後陞任事
一凡國內外公私文字遇有外國人名地名人名
之當用歐文者俱以國文繙譯施行事

도판 3-2.「의안議案」, 1894년 7월 8일

—

『議案 · 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46~47쪽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8일 임오 4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議案에

"1.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문관文官으로서 실직이 없는 사람과 병사兵使, 수사水使, 승지承旨 이상의 무관武官과 승지, 참의參議, 참판參判 이상의 음관蔭官과 현재 실직을 가지고 있는 음관 출신인 무관들이 한 번 경장更張을 겪은 뒤로 대부분 산질散秩이 되었으니 산반원散班院을 설치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고 헤아려서 봉급을 주고 뒷날에 재능에 따라 추천하여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처하여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뜻을 보이며 잡직雜職, 이서吏胥, 조예皁隷로서 직임이 없게 된 사람들도 이 규례대로 임시로 붙여 두되 중앙에 있는 인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각 부府와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총인원 중 3분의 1은 현역 이서吏胥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며 문서 처리와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고국銓考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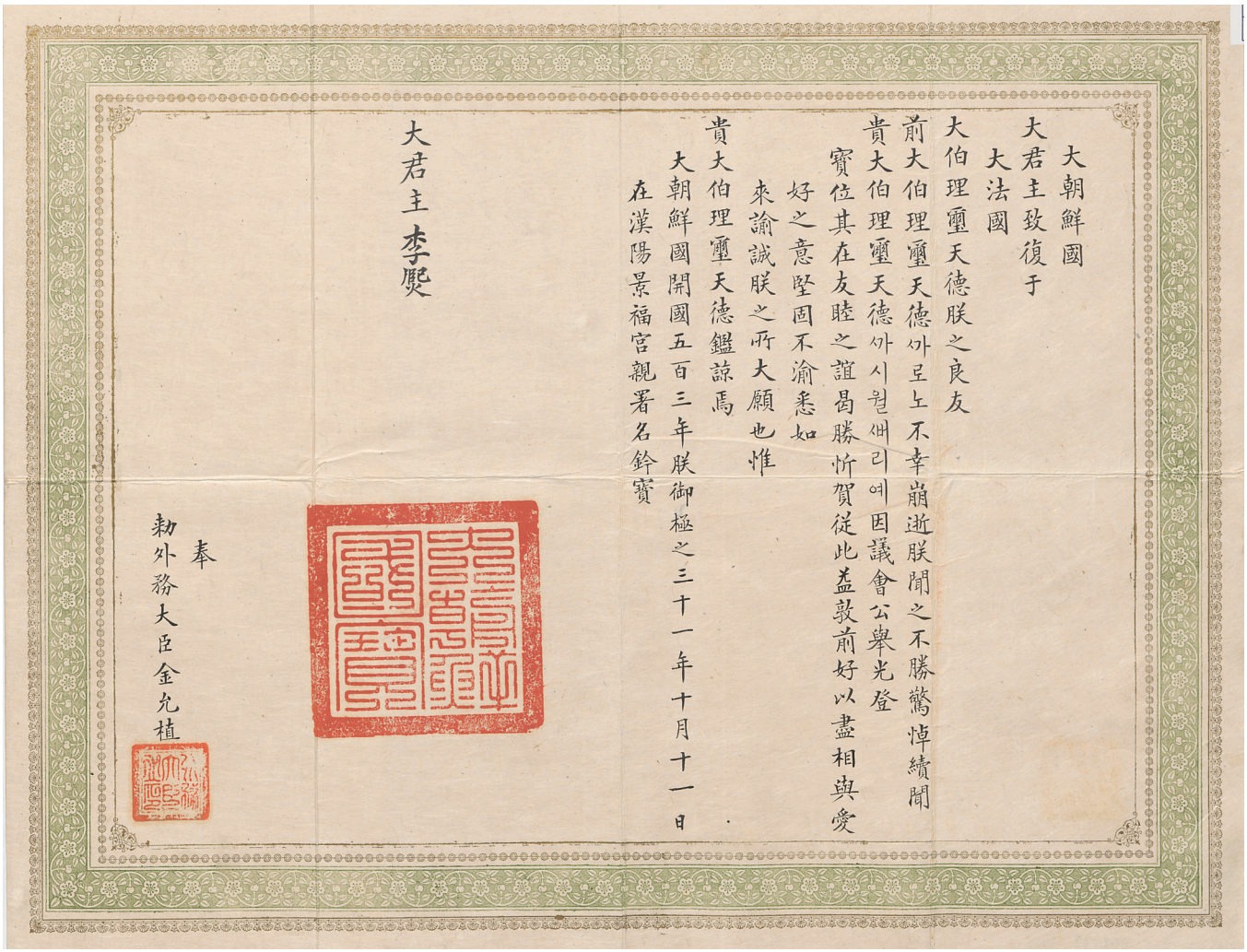
1.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 대소 죄인에 대하여 사법관司法官이 재판하여 명확히 형량을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원본】 36책 32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499면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大朝鮮國
大君主致復于
大法國
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前大伯理璽天德卽位之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璽天德卽時월씨리예因議會公擧光登
寶位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
好之意堅固不渝悉如
來諭誠朕之所大願也惟
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大朝鮮國開國五百三年朕御極之三十一年十月十一日
在漢陽景福宮親署名鈐寶
大君主 李熙
奉
勅外務大臣金允植

도판 3-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

원본 크기 : 40.7x51.5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22 / 開國 50년(1894년) 10월 11일 / 40.7x51.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대통령 싸로노Sadi Carnot가 서거하고 싸시월쩌리예Jean Casimir-Perier가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호를 지속하자는 내용으로 보내기 위해 작성한 국서. 1894년(고종 31) 10월 11일에 작성하였고, 고종의 친필 서명과 「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②前大伯理璽天德싸로노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

③續聞貴大伯理璽天德싸시월쌔리예 因議會公擧光登寶位 其在友睦之誼曷勝忻賀

④從此益敦前好以盡相與愛好之意堅固不渝悉如來諭誠朕之所大願也惟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⑤大朝鮮國 開國五百三年 朕御極之三十一年 十月 十一日 在漢陽 景福宮 親署名鈐寶

⑥大君主 李熙「大朝鮮國寶」

⑦奉勅外務大臣 金允植「外務大臣之印」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싸로노Carnot께서 불행하게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싸시월쌔리예Jean Casimir-Perier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의와 친목의 입장에서 어찌 기쁨과 축하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

④이를 계기로 기존의 친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서로 간의 우호의 뜻을 변함없이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과 같으며, 진실로 짐이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귀 대통령께서 살펴 헤아려주십시오.

⑤대조선국 개국 503년, 짐의 등극 31년(1894) 10월 11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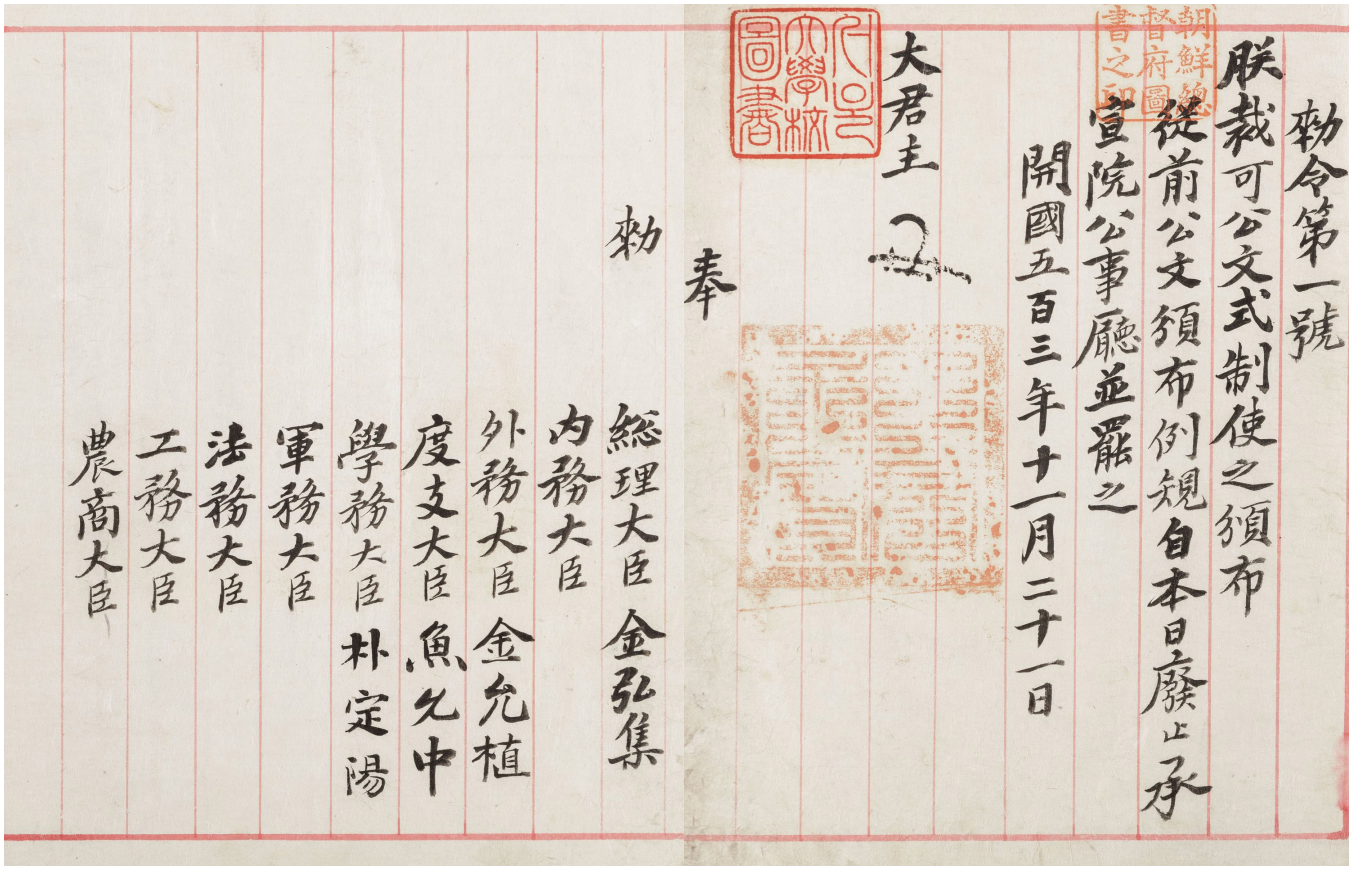
⑥대군주 이희「대조선국보」

⑦칙령을 받든 이 외무대신 김윤식「외무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5~126쪽

2.「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공문식公文式 제14조 : 법률法律 · 칙령勅令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1894년 11월 21일


勅令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自本日廢止
宣院公事廳並罷之
開國五百三年十一月二十一日
奉
大君主
勅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外務大臣 金允植
度支大臣 魚允中
學務大臣 朴定陽
軍務大臣
法務大臣
工務大臣
農商大臣

도판 3-4.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
議案 · 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199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짐朕이 재가裁可한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頒布하게 하고

종전從前의 공문 반포 규례公文頒布例規는 오늘부터自本日 폐지廢止하며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竝罷之 한다

개국 503년 11월 21일 開國 五百三年 十一月 二十一日

대군주大君主

봉奉

칙勅

총리대신 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대신 內務大臣

외무대신 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대신 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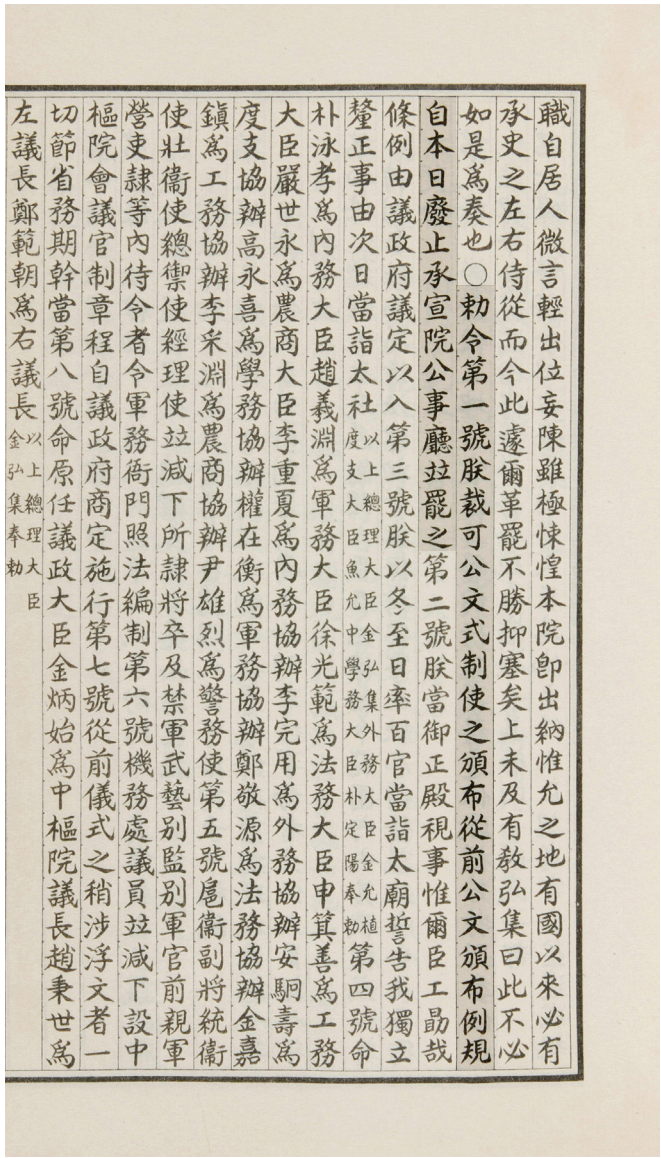
학무대신 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

군무대신 軍務大臣

법무대신 法務大臣

공무대신 工務大臣

농상대신 農商大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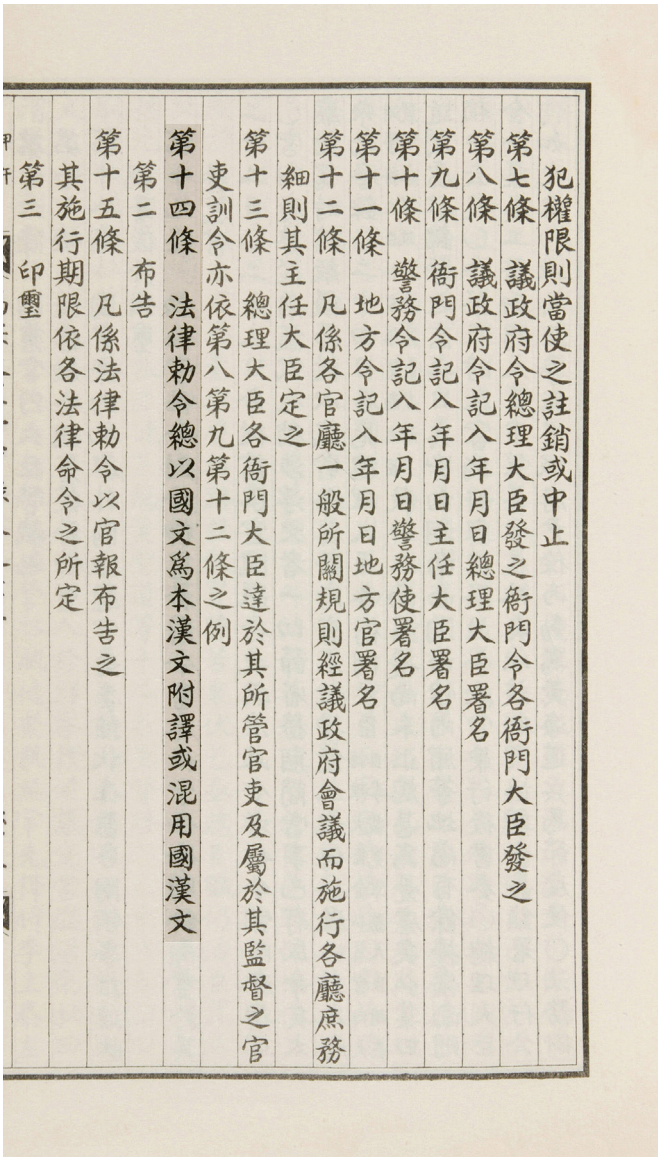


職自居人微言輕出位妄陳雖極悚惶本院卽出納惟允之地有國以來必有承史之左右侍從而今此遽爾革罷不勝抑塞矣上未及有敎弘集曰此不必如是爲奏也○勅令第一號朕裁可公文式制使之頒布從前公文頒布例規自本日廢止承宣院公事廳竝罷之第二號朕當御正殿視事惟爾臣工勗哉條例由議政府議定以入第三號朕以冬至日率百官當詣太廟誓告我獨立釐正事由次日當詣太社 以上總理大臣金弘集外務大臣金允植度支大臣魚允中學務大臣朴定陽奉勅第四號命朴泳孝爲內務大臣趙義淵爲軍務大臣徐光範爲法務大臣申箕善爲工務大臣嚴世永爲農商大臣李重夏爲內務協辦李完用爲外務協辦安駉壽爲度支協辦高永喜爲學務協辦權在衡爲軍務協辦鄭敎源爲法務協辦金嘉鎭爲工務協辦李采淵爲農商協辦尹雄烈爲警務使第五號扈衛副將統衛使壯衛使總禦使經理使竝減下所隷將卒及禁軍武藝別監別軍官前親軍營吏隷等內待令者令軍務衙門照法編制第六號機務處議員竝減下設中樞院會議官制章程自議政府商定施行第七號從前儀式之稍涉浮文者一切節省務期幹當第八號命原任議政大臣金炳始爲中樞院議長趙秉世爲左議長鄭範朝爲右議長 以上總理大臣金弘集奉勅

도판 3-5.『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犯權限則當使之註銷或中止
第七條 議政府令總理大臣發之衙門令各衙門大臣發之
第八條 議政府令記入年月日總理大臣署名
第九條 衙門令記入年月日主任大臣署名
第十條 警務令記入年月日警務使署名
第十一條 地方令記入年月日地方官署名
第十二條 凡係各官廳一般所關規則經議政府會議而施行各廳庶務細則其主任大臣定之
第十三條 總理大臣各衙門大臣達於其所管官吏及屬於其監督之官吏訓令亦依第八第九第十二條之例
第十四條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
第二 布告
第十五條 凡係法律勅令以官報布告之
其施行期限依各法律命令之所定
第三 印璽

도판 3-6.『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계사 2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내가 재가裁可한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2호, 내가 정전正殿에 나가서 정사를 보겠으니 너희들 모든 관리들은 정사에 힘써라. 조례條例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의정議定하여 들이도록 하라.

제3호, 내가 동지冬至날에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 가겠다.【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학무 대신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제4호, 박영효朴泳孝를 내무 대신內務大臣으로, 조희연趙羲淵을 군무 대신軍務大臣으로, 서광범徐光範을 법무 대신法務大臣으로 신기선申箕善을 공무 대신工務大臣으로, 엄세영嚴世永을 농상 대신農商大臣으로, 이중하李重夏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으로, 이완용李完用을 외무 협판外務協辦으로, 안경수安駉壽를 탁지 협판度支協辦으로, 고영희高永喜를 학무 협판學務協辦으로, 권재형權在衡을 군무 협판軍務協辦으로, 정경원鄭敬源을 법무 협판法務協辦으로, 김가진金嘉鎭을 공무 협판工務協辦으로, 이채연李采淵을 농상 협판農商協辦으로, 윤웅렬尹雄烈을 경무사警務使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중략)

제8호,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김병시金炳始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조병세趙秉世를 좌의장左議長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우의장右議長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공문식公文式
제1, 공문식

제1조, 법률法律 · 칙령勅令은 임금의 칙유勅諭로 공포한다.

(중략)

제13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이 관할하는 관리나 자기 감독에 속하는 관리들에게 내리는 훈령訓令도 제8조 · 제9조 · 제12조 규례대로 한다.

제14조, 법률 · 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제2, 포고布告

제15조, 일체 법률이나 칙령은 관보官報로 포고한다. 그 시행 기한은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대로 한다.

제3, 인새印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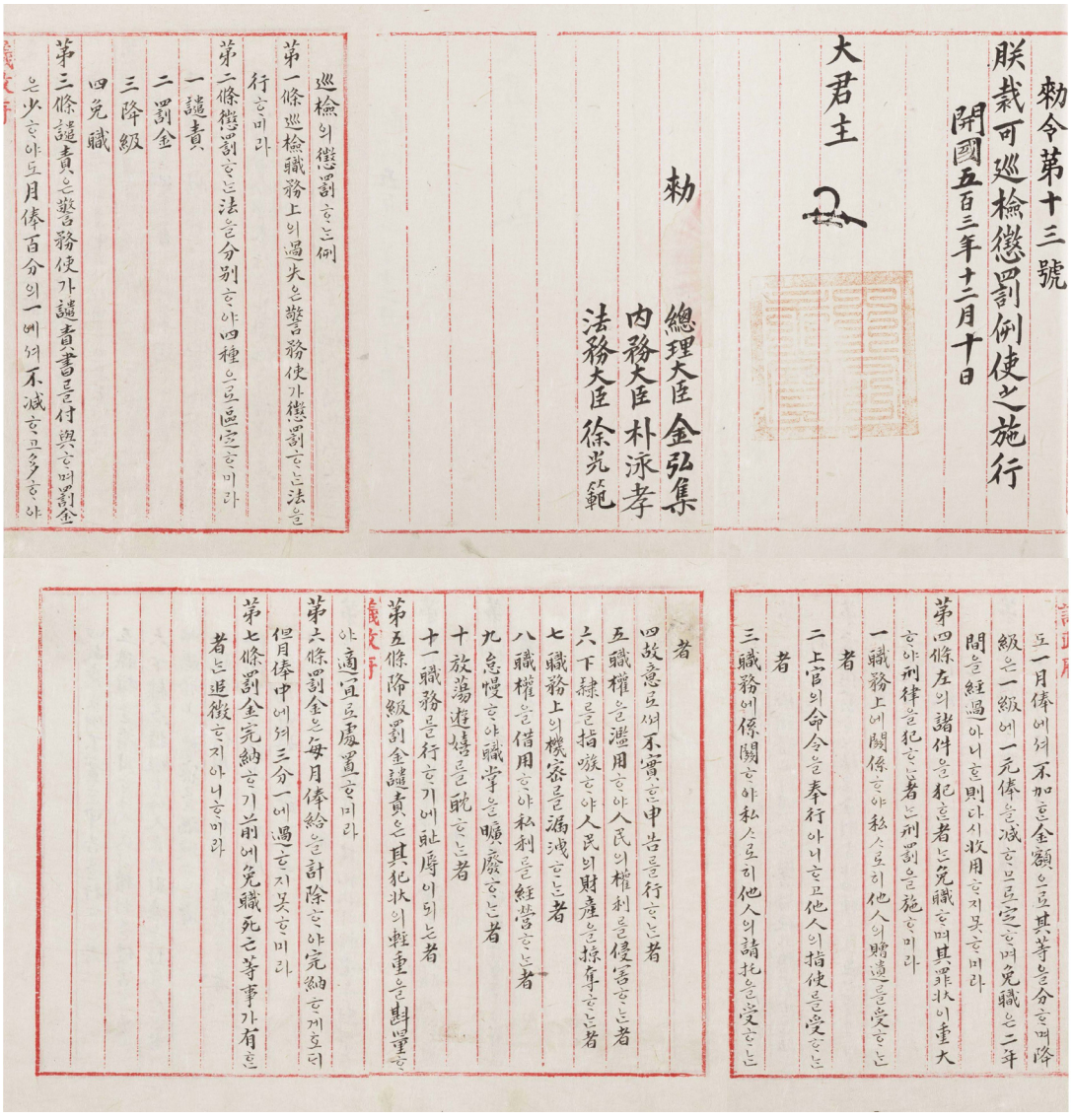
(중략)

제1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사령서辭令書에 옥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그 주천서奏薦書에 옥새를 찍는다.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2-1. 적용사례 :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894년 12월 10일


勅令第十三號
朕裁可巡檢懲罰例使之施行
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日
大君主
勅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法務大臣 徐光範
巡檢의 懲罰ᄒᆞᄂᆞᆫ 例
第一條 巡檢職務上의 過失은 警務使가 懲罰ᄒᆞᄂᆞᆫ 法으로
行ᄒᆞᄆᆡ라
第二條 懲罰ᄒᆞᄂᆞᆫ 法은 分別ᄒᆞ야 四種으로 區定ᄒᆞᄆᆡ라
一 譴責
二 罰金
三 降級
四 免職
第三條 譴責은 警務使가 譴責書를 付與ᄒᆞᄆᆡ 罰金
은 少ᄒᆞ야도 月俸百分의 一에 ᄯᅥ러 不減ᄒᆞ고 多ᄒᆞ야
도一月俸에 ᄯᅥ러 不加ᄒᆞ고 金額으로 其等을 分ᄒᆞ며 降
級은 一級에 一元俸을 減ᄒᆞ므로 定ᄒᆞ며 免職은 二年
間을 經過아니ᄒᆞ면 則다시 收用ᄒᆞ지 못ᄒᆞᄆᆡ라
第四條 左의 諸件을 犯ᄒᆞᄂᆞᆫ 者는 免職ᄒᆞ며 其罪狀이 重大
ᄒᆞ야 刑律을 犯ᄒᆞᄂᆞᆫ 者는 刑罰을 施ᄒᆞᄆᆡ라
一 職務上에 關係ᄒᆞ야 私ᄉᆞ로히 他人의 贈遺를 受ᄒᆞᄂᆞᆫ
者
二 上官의 命令을 奉行아니ᄒᆞ고 他人의 指使를 受ᄒᆞᄂᆞᆫ
者
三 職務에 係關ᄒᆞ야 私ᄉᆞ로히 他人의 請托을 受ᄒᆞᄂᆞᆫ
者
四 故意로 ᄯᅥ러 不實ᄒᆞᆫ 申告를 行ᄒᆞᄂᆞᆫ 者
五 職權을 濫用ᄒᆞ야 人民의 權利를 侵害ᄒᆞᄂᆞᆫ 者
六 下隷를 指嗾ᄒᆞ야 人民의 財産을 掠奪ᄒᆞᄂᆞᆫ 者
七 職務上의 機密을 漏洩ᄒᆞᄂᆞᆫ 者
八 職權을 借用ᄒᆞ야 私利를 經營ᄒᆞᄂᆞᆫ 者
九 怠慢ᄒᆞ야 職掌을 曠廢ᄒᆞᄂᆞᆫ 者
十 放蕩遊嬉로 恥辱이 되ᄂᆞᆫ 者
十一 職務를 行ᄒᆞ기에 恥辱이 되ᄂᆞᆫ 者
第五條 降級罰金譴責은 其犯狀의 輕重을 斟量ᄒᆞ
야 適宜로 處置ᄒᆞᄆᆡ라
第六條 罰金은 每月俸給을 計除ᄒᆞ야 完納ᄒᆞ게 ᄒᆞ되
但月俸中에 ᄯᅥ러 三分一에 過ᄒᆞ지 못ᄒᆞᄆᆡ라
第七條 罰金完納ᄒᆞᆫ 기 前에 免職死亡等事가 有ᄒᆞᆫ
者는 追徵ᄒᆞ지 아니ᄒᆞᄆᆡ라

도판 3-7.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勅令第十三號

朕裁可巡檢懲罰例使之施行

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日

大君主[手決]

勅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法務大臣　徐光範

巡檢의懲罰ᄒᆞᄂᆞᆫ例

第一條巡檢職務上의過失은警務使가懲罰ᄒᆞᄂᆞᆫ法을行ᄒᆞ미라

第二條懲罰ᄒᆞᄂᆞᆫ法을分別ᄒᆞ야四種으로區定ᄒᆞ미라

一譴責

二罰金

三降級

四免職

第三條譴責은警務使가譴責書를付與ᄒᆞ며罰金은少ᄒᆞ야도月俸百分의一에셔不減ᄒᆞ고多ᄒᆞ야도一月俸에셔不加ᄒᆞᆫ金額으로其等을分ᄒᆞ며降級은一級에一元俸을減ᄒᆞ므로定ᄒᆞ며免職은二年間을經過아니ᄒᆞᆫ則다시收用ᄒᆞ지못ᄒᆞ미라

第四條左의諸件을犯ᄒᆞᆫ者ᄂᆞᆫ免職ᄒᆞ며其罪狀이重大ᄒᆞ야刑律을犯ᄒᆞᄂᆞᆫ者ᄂᆞᆫ刑罰을施ᄒᆞ미라

一職務上에關係ᄒᆞ야私ᄉᆞ로히他人의贈遺를受ᄒᆞᄂᆞᆫ者

二上官의命令을奉行아니ᄒᆞ고他人의指使를受ᄒᆞᄂᆞᆫ者

三職務에係關ᄒᆞ야私ᄉᆞ로히他人의請托을受ᄒᆞᄂᆞᆫ者

四故意로써不實ᄒᆞᆫ申告를行ᄒᆞᄂᆞᆫ者

五職權을濫用ᄒᆞ야人民의權利를侵害ᄒᆞᄂᆞᆫ者

六下隷를指嗾ᄒᆞ야人民의財産을掠奪ᄒᆞᄂᆞᆫ者

七職務上의機密를漏洩ᄒᆞᄂᆞᆫ者

八職權을借用ᄒᆞ야私利를經營ᄒᆞᄂᆞᆫ者

九怠慢ᄒᆞ야職掌을曠廢ᄒᆞᄂᆞᆫ者

十放蕩遊嬉를耽ᄒᆞᄂᆞᆫ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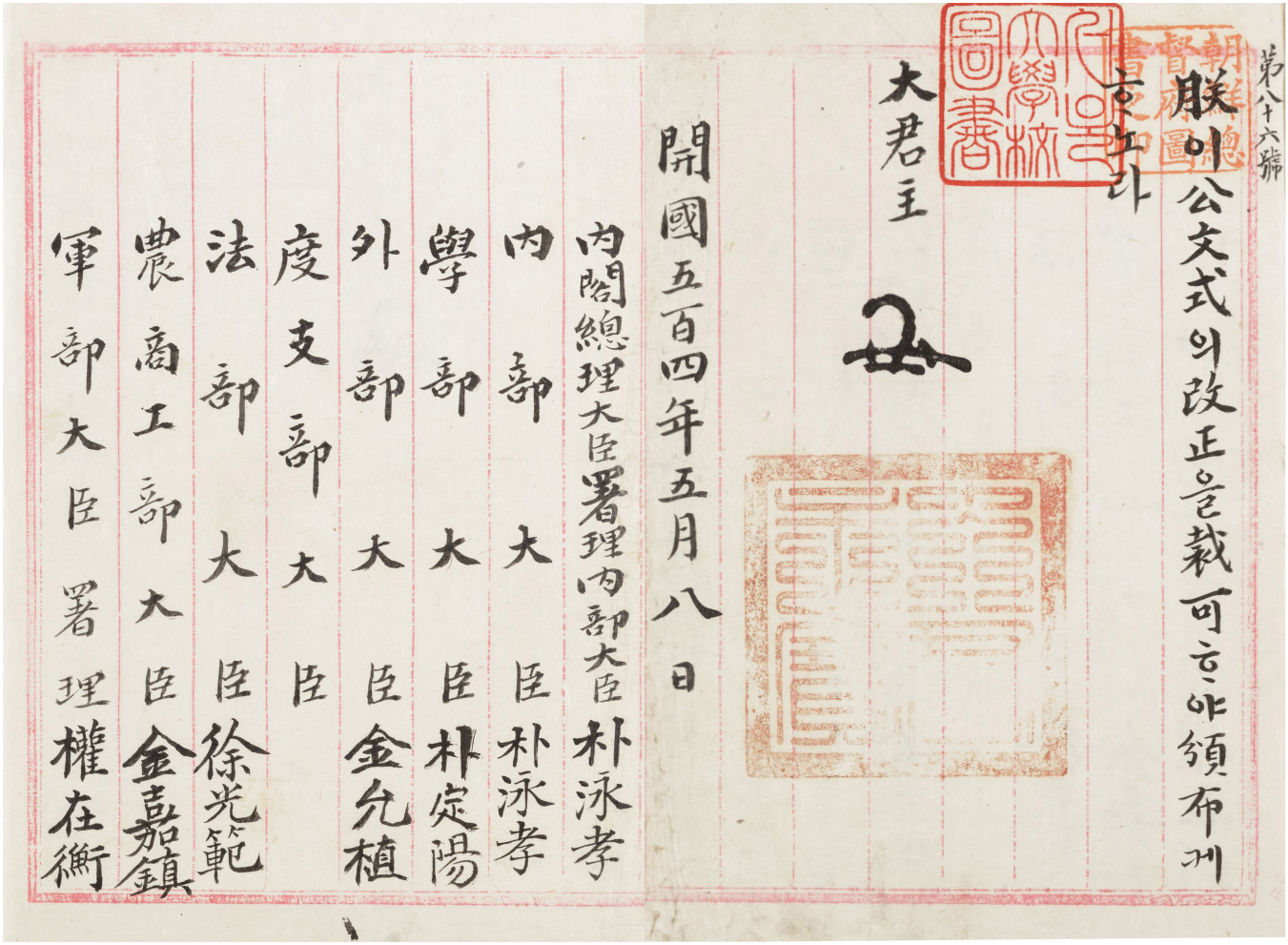
十一職務를行ᄒᆞ기에恥辱이되는者

第五條降級罰金譴責은其犯狀의輕重을斟量ᄒᆞ야適宜로處置ᄒᆞ미라

第六條罰金은每月俸給을計除ᄒᆞ야完納ᄒᆞ게호ᄃᆡ但月俸中에셔三分一에過ᄒᆞ지못ᄒᆞ미라

第七條罰金完納ᄒᆞ기前에免職死亡等事가有ᄒᆞᆫ者ᄂᆞᆫ追徵ᄒᆞ지아니ᄒᆞ미라

3.「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式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노라,
공문식公文式 제9조: 법률法律, 명령命令은 다 국문國文으로 기본基本을 삼고 한문漢文 번역飜譯을 첨부添附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1895년 5월 8일



도판 3-8.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 b쪽

—

議案 · 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244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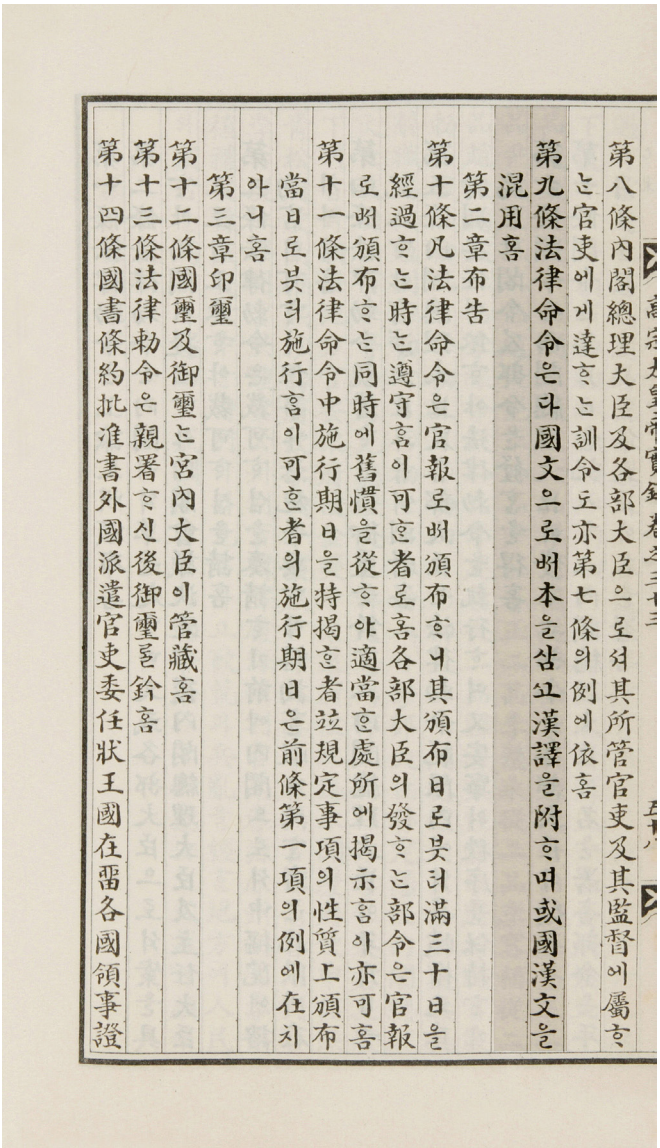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짐朕이 공문식公文式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ᄒᆞ야 반포頒布케 ᄒᆞ노라

대군주大君主

개국 504년 5월 8일 開國 五百四年 五月 八日

내각총리대신서리내부대신	內閣總理大臣署理內部大臣	박영효朴泳孝
내부대신	內部大臣	박영효朴泳孝
학부대신	學部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부대신	外部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부대신	度支部大臣	
법부대신	法部大臣	서광범徐光範
농상공부대신	農商工部大臣	김가진金嘉鎭
군부대신서리	軍部大臣署理	권재형權在衡



遇有當進之湯劑隨時稟承製入○布達第二號宮內府에特進官十六人以下置ᄒᆞᄂᆞᆫ件頒布王室典禮儀式事項奉對諮詢具上所見○正一品沈舜澤正一品金炳始正一品趙秉世從一品閔泳煥從一品李憲稙從一品李載完從一品閔泳奎正二品尹用求正二品趙東冕正二品尹容善正二品李鑢永從二品李容稙從二品趙秉弼從二品李根命從二品李建昌從二品韓耆東任宮內府特進官敘勅任官○初二日○初三日○初四日○初五日內閣總理大臣金弘集陳疏辭職賜批勉副○初六日○初七日○初八日學部大臣朴定陽任內閣總理大臣敘勅任官一等○召見總理大臣朴定陽內部大臣朴泳孝○大君主陛下께昌덕新任地方官安東府使金奭中東萊府使池錫永聞慶府使申喆熙青松府使南惟熙珍島府使李琟平壤庶尹徐九淳水原判官鄭喬春川判官李台珽江華判官洪鍾萱公州判官韓澤履海州判官南孝源原州判官李宗稙禮安縣監安世中ᄂᆞᆫ特別히引見ᄒᆞ시고歉荒과兵亂ᄂᆞᆫ經ᄒᆞᆫ地方에人民의疾苦를爲ᄒᆞ야懇切히戒訓ᄒᆞ시다○勅令第八十六號公文式裁可頒布

第一章頒布式

公文式

第八條內閣總理大臣及各部大臣으로ᄒᆞ야其所管官吏及其監督에屬ᄒᆞᆫ官吏에게達ᄒᆞᄂᆞᆫ訓令도亦第七條의例에依喜

第九條法律命令은다國文으로써本을삼고漢譯을附ᄒᆞ야或國漢文을混用喜

第二章布告

第十條凡法律命令은官報로써頒布ᄒᆞ며其頒布日로붓터滿三十日을經過ᄒᆞᆫ時ᄂᆞᆫ遵守喜이可ᄒᆞᆫ者로喜各部大臣의發ᄒᆞᆫ部令은官報로써頒布ᄒᆞᄂᆞᆫ同時에舊慣을從ᄒᆞ야適當ᄒᆞᆫ處所에揭示喜이亦可喜

第十一條法律命令中施行期日을特揭ᄒᆞᆫ者ᄂᆞᆫ規定事項의性質上頒布當日로붓터施行喜이可ᄒᆞᆫ者의施行期日은前條第一項의例에在치아니喜

第三章印璽

第十二條國璽及御璽ᄂᆞᆫ宮內大臣이管藏喜

第十三條法律勅令은親署ᄒᆞ신後御璽를鈐喜

第十四條國書條約批准書外國派遣官吏委任狀王國在留各國領事證

도판 3-9.『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도판 3-10.『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8일 무인 4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공문식公文式』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공문식公文式』

제1장 : 반포식頒布式

제1조, 법률法律, 칙령은 임금의 명령으로써 반포한다.

제2조, 법률, 칙령은 내각內閣에서 초안을 잡으며 혹은 각부各部의 대신大臣이 안案을 갖추어 내각에 제출하여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후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과 주임 대신主任大臣이 아뢰어 재가裁可할 것을 청한다.

제3조, 법률, 칙령은 결재할 것을 주청하기 전에 내각에서 중추원中樞院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단지 일이 급히 시행할 것을 요하여 문의할 겨를이 없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제4조, 법률, 칙령은 친서親署한 후 어새御璽를 누르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여 관계되는 대신과 함께 다음 자리에 수결한다.

(중략)

제7조, 각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서명하며 부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 대신이 서명한다.

제8조, 내각 총리대신과 각부 대신으로서 그 관할하는 관리官吏와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내리는 훈령訓令도 제7조의 규례대로 한다.

제9조,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기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제2장 : 포고布告

제10조, 모든 법률, 명령은 관보官報로 반포하는데 그것을 반포한 날부터 만 30일이 지났을 때는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각 부 대신이 내리는 부령은 관보로 반포하는 동시에 옛 관례대로 적당한 곳에 게시揭示할 수도 있다.

제11조, 법률, 명령 중 시행 기일을 특별히 밝힌 것과 규정 사항의 성질상 반포 당일부터 시행해야 할 것의 시행 기일은 앞 조항 제1항의 규례에 들지 않는다.

제3장 : 인새印璽

제12조, 국새國璽와 어새御璽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보관한다.

(중략)

제15조, 칙임관勅任官의 임면任免은 관고官誥에 어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면할 때는 어새御璽를 그 주청서奏請書에 찍는다.

부칙附則

(생략)

【원본】 37책 3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3면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장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894~1909년)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에 사용된 필체인 정음체로부터 문자는 필사의 편리성을 좇아서 형태가 변모하고 발전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후 발간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에서는 이미 한글의 자형이 전서체에서 벗어나 해서체楷書體의 자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종이 추구하였던 고전체의 자형은 실용성에 의해 아주 빠른 시간에 무너져갔다.

박준호, 「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체로부터 꾸준히 자형이 변모하여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에 꽃을 피워 관공체가 되는 과정過程을 조망하고자 필자 박재갑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3년 계묘년癸卯年까지 아래와 같은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 총 32종류를 임서臨書하고 2023년 5월 5일 출간出刊한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에 게재揭載한 바 있다.

언해류諺解類 관련하여 7 작품

임서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임서 2.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임서 4. 삼강행실도언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임서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임서 15.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5년
임서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임서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어서류御書類 관련하여 7 작품

임서 6. 선조宣祖가 숙의淑儀에게, 1597년, 선조30년
임서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 36년 11월 19일
임서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 36년 동짓달
임서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임서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 11년 6월
임서 11. 숙종어필간찰 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임서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 25년, 1699년

육성六聖 즉 효종, 현종, 숙종, 인선왕후, 명성왕후, 인현왕후의 편지와 장렬왕후의 편지를 장정裝幀하면서 신한첩宸翰帖 곤坤의 첫 장에 정진석이 직접 써넣은 1 작품

임서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옥책문玉冊文, 홀기笏記, 제문祭文, 애책문哀冊文 관련하여 6 작품

임서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임서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임서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년
임서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임서 28. 외진연시무동각정재무도홀기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임서 29. 책황귀비홀기冊皇貴妃笏記, 1903년

유서諭書, 국서國書, 밀서密書, 칙서勅書 관련하여 8 작품

임서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임서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임서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임서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임서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임서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임서 30. 고종황제의 밀서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 29일

임서 3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권선문勸善文, 예지법豫知法,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관련하여 3 작품

임서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임서 17. 임산예지법(18세기)臨産豫知法

임서 32.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에 작성된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등等의 관공체官公體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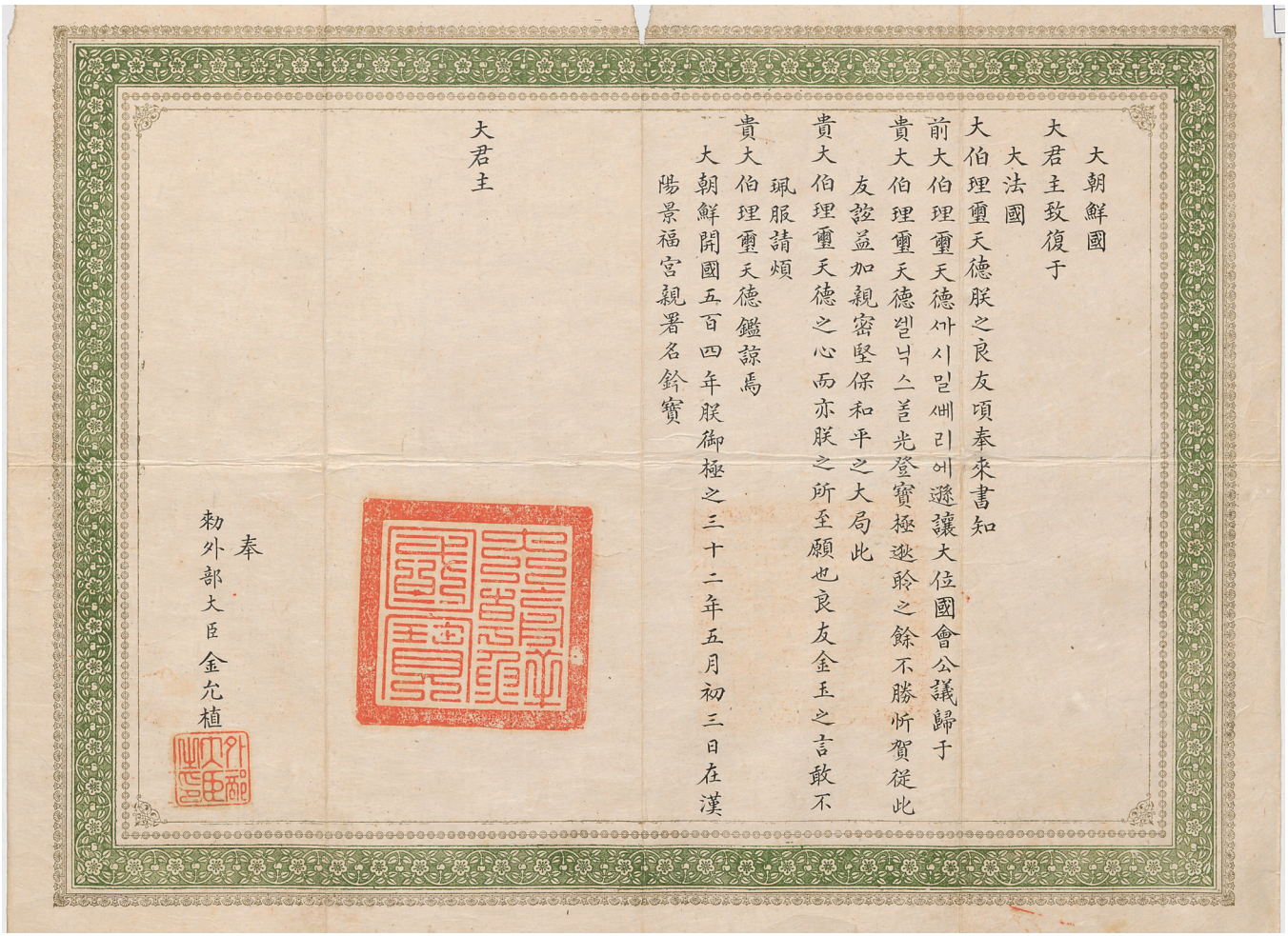
1. 1894년 10월 11일, 1895년 5월 3일, 1899년 10월 30일에 작성된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2. 1895년 1월 29일에 작성된 주본奏本 제91호, 제92호, 제93호를 인용하였다. 1896년 11월 4일에 작성된 주의奏議 청의서請議書 제2호를 인용하였다. 1895년 3월 21일에 작성된 의주議奏 제1호와 첨부문서 칙령안勅令案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3. 1894년 12월 10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13호,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라,
   1895년 5월 8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86호, 공문식公文式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케 하라,
   1895년 1월 29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32호,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판관判官으로 개칭改稱ᄒᆞ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ᄒᆞ라를 인용하였다.
   1895년 3월 25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38호, 내각관제內閣官制, 1899년 3월 24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7호,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 1899년 4월 24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14호, 병원관제病院官制, 1907년 3월 10일에 작성된 칙령勅令 제9호,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칙령勅令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4. 1895년 4월 22일에 작성된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5. 1907년 7월 30일에 작성된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를 인용하였다.
   1907년 8월 27일에 작성된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6. 1909년 1월 27일~2월 3일 사이에 이루어진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 74자, 33 낱자들을 정리하였다.

인용된 관공체官公體는 총 1,256자이며 낱자는 총 88자(287쪽 참조)이다.

1.「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의 관공체官公體

1-1.「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1-1.「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5월 3일



도판 4-1.「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

원본 크기 : 40.7x51.5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13 / 開國 504년(1895년) 5월 3일 / 42x53.5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대통령 싸시밀쎄리에Jean Casimir-Perier가 물러나고 벨닉스폴 Felix Faure이 즉위하자 고종이 즉위 축하와 더불어 양국 간에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화평한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5년(고종 32) 5월 3일에 작성하였고,「大朝鮮國寶」라고 새긴 국새가 찍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朝鮮國大君主致復于大法國大伯理璽天德朕之良友

②頃奉來書知前大伯理璽天德싸시밀쎄리에遜讓大位 國會公議歸于貴大伯理璽天德 쎌닉스쏠光登寶極 逖聆之餘不勝忻賀

③從此友誼益加親密 堅保和平之大局 此貴大伯理璽天德之心而亦朕之所至願也

④良友金玉之言敢不珮服 請煩貴大伯理璽天德鑑諒焉

⑤大朝鮮開國五百四年 朕御極之三十二年 五月 初三日 在漢陽景福宮親署名鈐寶

⑥大君主「大朝鮮國寶」

⑦奉勅外部大臣 金允植「外部大臣之印」

①대조선국 대군주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국大法國(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얼마 전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전 대통령 싸시밀쎄리에Jean Casimir-Perier가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났고, 국회의 공의가 귀 대통령 쎌닉스쏠Felix Faure에게 돌아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기쁨과 축하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를 계기로 우의가 더욱더 친밀해져서 평화의 큰 장이 굳건하게 보전될 것입니다. 이는 귀 대통령의 생각이오, 또한 짐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④훌륭한 친구의 금옥金玉 같은 말씀을 감히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귀 대통령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⑤대조선 개국 504년, 짐의 등극 32년(1895) 5월 초3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⑥대군주「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

⑦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김윤식「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7~128쪽

1-1-2.「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10월 30일


大韓國
大皇帝陛致復于
大法民主國
大伯理璽天德閣下朕之良友
前大伯理璽天德긜셕스붓不幸崩逝朕聞之不勝驚悼續聞
貴大伯理璽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擧光登
寶位遂聽之餘攢賀曷已從此
貴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朕亦當推誠協濟永以為
好用副
貴大伯理璽天德相須之
殷也玆祝
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光武三年十月三十日在漢城慶運宮親署名鈐寶
奉
勅外部大臣 朴齊純

도판 4-2.「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

원본 크기 : 40.7x51.5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617 / 光武 3년(1899년) 10월 30일 / 41.5x51.8cm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프랑스 대통령 펠씩스쏠Felix Faure이 서거하고 에밀 누비Emile Loubet가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직에 오르자, 고종 황제가 즉위 축하와 더불어 우의가 더욱 친밀해지고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서. 1899년(광무 3) 10월 30일에 작성하였고, 말미에 고종의 어휘御諱가 씌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①大韓國大皇帝陛致復于大法民主國大伯理璽天德閣下朕之良友

②前大伯理璽天德 뻴씩스쏠不幸崩逝 朕聞之不勝驚悼

③續聞貴大伯理璽天德에밀누비因議會公擧光登寶位 逖聽之餘 攢賀曷已

④從此貴國與各與國交誼諒必益臻親密 朕亦當推誠協濟 永以爲好 用副貴大伯理璽天德相須之殷也

⑤玆祝閣下撫有臣民化理之新

⑥光武三年 十月三十日在漢城 慶運宮 親署名鈐寶

⑦陛

⑧奉勅外部大臣 朴齊純「外部大臣之印」

①대한국 대황제 희는 짐의 훌륭한 친구인 대법민주국(大法民主國: 프랑스) 대통령(大伯理璽天德) 각하께 답장을 보냅니다.

②전 대통령 뻴씩스쏠Felix Faure께서 불행히도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짐이 듣고 놀람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③이어서 귀 대통령 에밀 누비Emile Loubet께서 의회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에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축하를 금할 수 없습니다.

④이를 계기로 귀국은 여러 우방[與國]과 우의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짐 역시 당연히 정성껏 협력하여 영원히 우호를 다질 것이며, 이로써 귀 대통령의 성대한 우정에 부응할 것입니다.

⑤이에 각하께서 새롭게 신민臣民을 잘 다스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⑥광무 3년(1899) 10월 30일 한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署名하고 검보鈐寶하다.

⑦희陛

⑧칙령을 받든 이 외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지인」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조선이 대한으로 바뀐것은 1897년 10월 국제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때문이다.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9~130쪽

1-2. 관공체官公體 26자, 18 낱자,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1895년, 1899년



2.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의 관공체官公體

2-1. 주본奏本

임금에게 올리는 글월을 뜻한다.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1-4, [19世紀 末(高宗31-32年:1894-1895)], 책 권수: 4冊, 筆寫本

주본奏本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제91호第九十一號, 제92호第九十二號, 제93호第九十三號(1895년 1월 29일)를 인용한다.

2-2. 주의奏議

임금에게 아뢰어 의논함. 또는 그런 의견서를 뜻한다.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165, [19世紀 末-20世紀 初(建陽1年-隆熙4年:1896-1910)], 책 권수: 165冊, 筆寫本

주의奏議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청의서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를 인용한다.

2-3. 의주議奏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그 의견을 임금에게 글로 써서 내던 일을 뜻한다.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69, [19世紀 末(高宗32-33年:1895-1896)], 책 권수: 69冊, 筆寫本

의주議奏 중에서 한글이 포함된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와 첨부문서 勅令案(1895년 3월 21일)을 인용한다.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낱자,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년 1896년

2-4-1.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낱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2-4-2. 관공체官公體 25자, 12 낱자,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2-4-3. 관공체官公體 23자, 13 낱자,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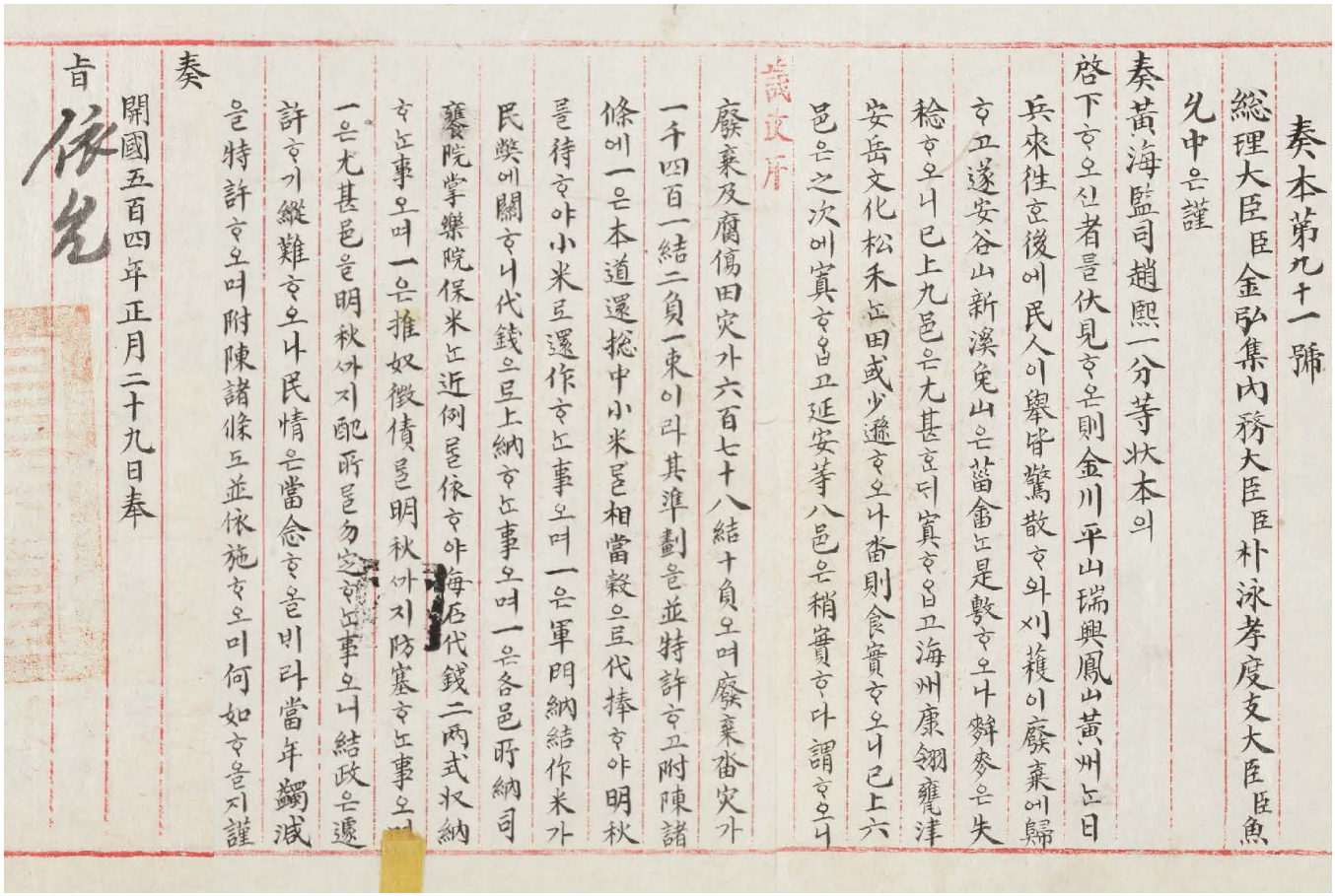
2-4-4. 관공체官公體 36자, 19 낱자,
「주의奏議,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2-4-5. 관공체官公體 34자, 23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4-6.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1. 주본奏本

2-1-1.「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黃海監司 趙熙一의 관하 군읍에 대한 分等狀本의 措置」, 발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度支大臣 魚允中, 1895년 1월 29일


奏本第九十一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度支大臣臣魚允中謹

奏黃海監司趙熙一分等狀本의

啓下ᄒᆞ오신者를伏見ᄒᆞ온則金川平山瑞興鳳山黃州ᄂᆞᆫ日兵來往ᄒᆞᆫ後에民人이擧皆驚散ᄒᆞ야刈穫이廢棄에歸ᄒᆞ고遂安谷山新溪兎山은當畓ᄂᆞᆫ是數ᄒᆞ오나舜麥은失稔ᄒᆞ오니已上九邑은尤甚ᄒᆞ더實ᄒᆞ옵고海州康翎甕津安岳文化松禾ᄂᆞᆫ田或少遜ᄒᆞ오나畓則食實ᄒᆞ오니已上六邑은之次에實ᄒᆞ옵고延安峯八邑은稍實ᄒᆞ야謂ᄒᆞ오니

議政府

廢棄及腐傷田災가六百七十八結十負오며廢棄畓災가一千四百一結二負一束이라其準劃을並特許ᄒᆞ고附陳諸條에一은本道還摠中小米를相當穀으로代捧ᄒᆞ야明秋를待ᄒᆞ야小米로還作ᄒᆞᆫ事오며一은軍門納結作米가民弊에關ᄒᆞ니代錢으로上納ᄒᆞᆫ事오며一은各邑所納司饔院掌樂院保米ᄂᆞᆫ近例를依ᄒᆞ야每石代錢二兩式收納ᄒᆞᆫ事오며一은推奴徵債를明秋까지防塞ᄒᆞᆫ事오며一은尤甚邑은明秋까지配所를勿定ᄒᆞᆫ事오니結政은還許ᄒᆞ기縱難ᄒᆞ오나民情은當念ᄒᆞ옵비라當年蠲減을特許ᄒᆞ오며附陳諸條로並依施ᄒᆞ오며何如ᄒᆞ옵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旨依允

도판 4-3.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奏本第九十一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度支大臣臣魚允中은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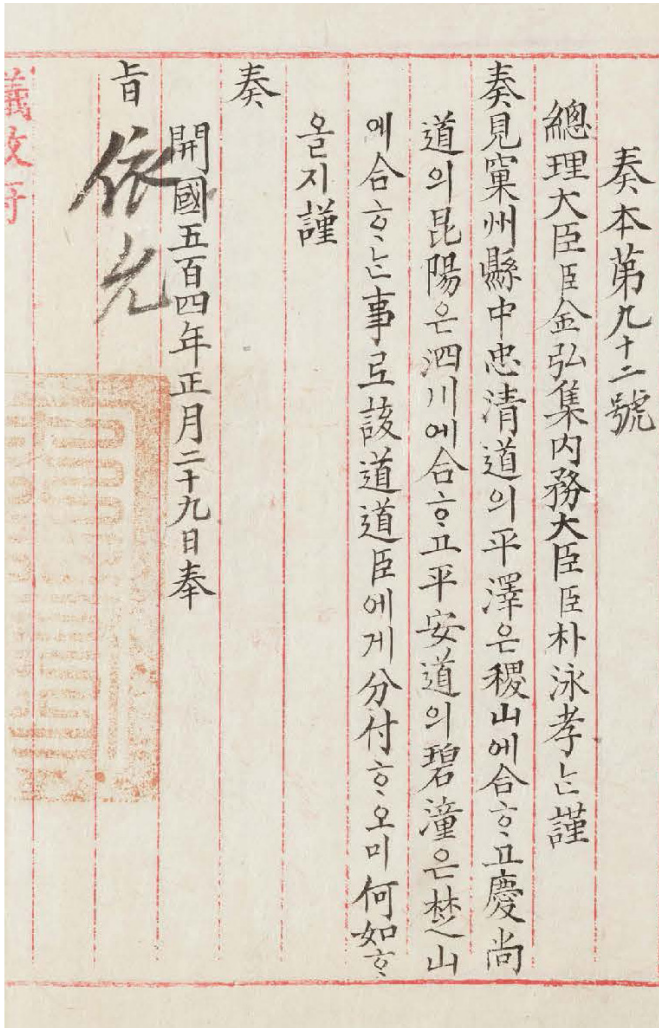
奏黃海監司趙熙一分等狀本의

啓下ᄒᆞ오신者를伏見ᄒᆞ온則金川平山瑞興鳳山黃州ᄂᆞᆫ日兵來往ᄒᆞᆫ後에民人이擧皆驚散ᄒᆞ와刈穫이廢棄에歸ᄒᆞ고遂安谷山新溪兔山은畓畓ᄂᆞᆫ是數ᄒᆞ오나粳麥은失稔ᄒᆞ오니己上九邑은尤甚ᄒᆞᆫ디實ᄒᆞ옵고海州康翎甕津安岳文化松禾ᄂᆞᆫ田或少遜ᄒᆞ오나畓則食實ᄒᆞ오니己上六邑은之次에實ᄒᆞ옵고延安等八邑은稍實ᄒᆞ다謂ᄒᆞ오니廢棄及腐傷田灾가六百七十八結十負오며廢棄畓灾가一千四百一結二負一束이라其準劃을並特許ᄒᆞ고附陳諸條에一은本道還捴中小米ᄅᆞᆯ相當穀으로代捧ᄒᆞ야明秋를待ᄒᆞ야小米로還作ᄒᆞᄂᆞᆫ事오며一은軍門納結作米가民弊에關ᄒᆞ니代錢으로上納ᄒᆞᄂᆞᆫ事오며一은各邑所納司饔院掌樂院保米ᄂᆞᆫ近例ᄅᆞᆯ依ᄒᆞ야每石代錢二兩式收納ᄒᆞᄂᆞᆫ事오며一은推奴徵債ᄅᆞᆯ明秋까지防塞ᄒᆞᄂᆞᆫ事오며一은尤甚邑을明秋까지配所ᄅᆞᆯ勿定ᄒᆞᄂᆞᆫ事오니結政은遽許ᄒᆞ기縱難ᄒᆞ오나民情은當念ᄒᆞ올ᄇᆡ라當年蠲減을特許ᄒᆞ오며附陳諸條도並依施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謹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旨 依允

2-1-2.「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忠淸道 平澤은 稷山, 慶尙道 昆陽은 泗川, 平安道 碧潼은 楚山에 합하는 건件」, 발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1895년 1월 29일


奏本第九十二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ᄂᆞᆫ謹
奏見窠州縣中忠淸道의平澤은稷山에合ᄒᆞ고慶尙
道의昆陽은泗川에合ᄒᆞ고平安道의碧潼은楚山
에合ᄒᆞᄂᆞᆫ事ᄅᆞᆯ該道道臣에게分付ᄒᆞ오미何如ᄒᆞ
올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旨 依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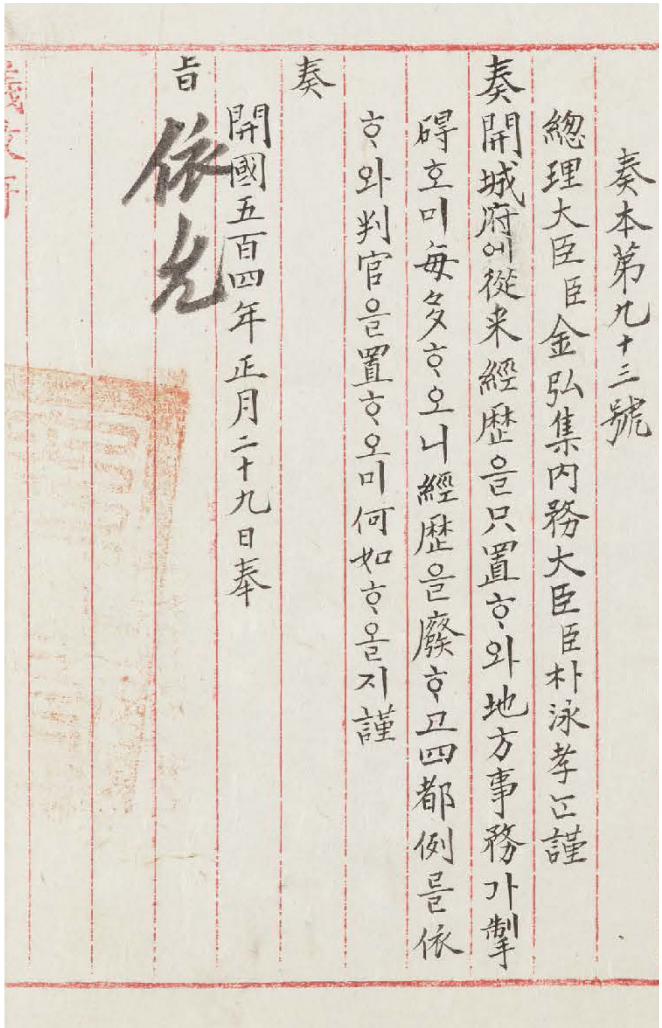
奏本第九十二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ᄂᆞᆫ謹
奏見窠州縣中忠淸道의平澤은稷山에合ᄒᆞ고慶尙
道의昆陽은泗川에合ᄒᆞ고平安道의碧潼은楚山
에合ᄒᆞᄂᆞᆫ事ᄅᆞᆯ該道道臣에게分付ᄒᆞ오미何如ᄒᆞ
올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旨 依允

도판 4-4.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2-1-3.「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開城府의 經歷을 폐하고 判官을 설치하는 건件」, 발신자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1895년 1월 29일


奏本第九十三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ㄴ謹
奏開城府에從來經歷을只置ᄒᆞ와地方事務가擧
碍ᄒᆞ미每多ᄒᆞ오니經歷을廢ᄒᆞ고四都例를依
ᄒᆞ와判官을置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吉 依允

奏本第九十三號

總理大臣臣金弘集內務大臣臣朴泳孝ㄴ謹

奏開城府에從来經歷을只置ᄒᆞ와地方事務가擧

碍ᄒᆞ미每多ᄒᆞ오니經歷을廢ᄒᆞ고四都例를依

ᄒᆞ와判官을置ᄒᆞ오미何如ᄒᆞ올지謹

奏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奉

吉 依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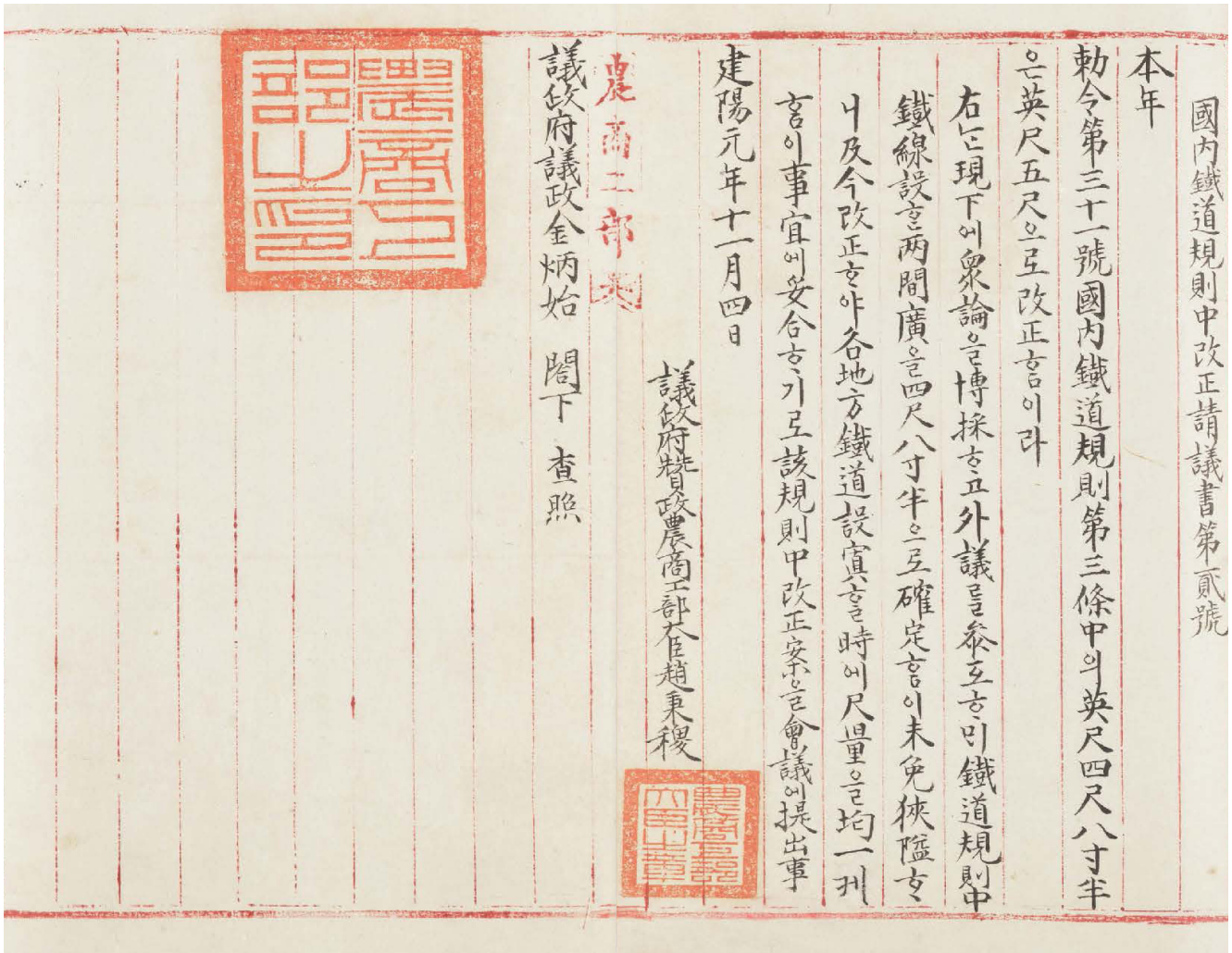
도판 4-5.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2-2 . 주의奏議

2-2 -1.「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國內鐵道規則 중 제3조의 내용을 改正하는 勅令案」, 발신자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趙秉稷, 1896년 11월 4일


國內鐵道規則中改正請議書第貳號

本年

勅令第三十一號國內鐵道規則第三條中의英尺四尺八寸半
을英尺五尺으로改正ᄒᆞᆷ이라

右ᄂᆞᆫ現下에衆論을博採ᄒᆞ야外議를參ᄒᆞ고ᄆᆡ鐵道規則中
鐵線設ᄒᆞᄂᆞᆫ兩間廣을四尺八寸半으로確定ᄒᆞᆷ이未免狹隘ᄒᆞ
야及今改正ᄒᆞ지아니ᄒᆞ면各地方鐵道設置ᄒᆞᆯ時에尺量을均一케
ᄒᆞᆷ이事宜에妥合ᄒᆞ지못ᄒᆞᆫ지라該規則中改正案을會議에提出事

建陽元年十一月四日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趙秉稷

農商工部

議政府議政金炳始 閣下 査照

도판 4-6.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3_00&vol_no=0001

國內鐵道規則中改正請議書第貳號

本年

勅令第三十一號國內鐵道規則第三條中의英尺四尺八寸半은英尺五尺으로改正홈이라

右ᄂᆞᆫ現下에衆論을博採ᄒᆞ고外議를參互ᄒᆞᄆᆡ鐵道規則中鐵線設ᄒᆞᆫ兩間廣을四尺八寸半으로確定홈이未免狹隘ᄒᆞ니及今改正ᄒᆞ야各地方鐵道設實ᄒᆞᆯ時에尺量을均一케홈이事宜에妥合ᄒᆞ기로該規則中改正案을會議에 提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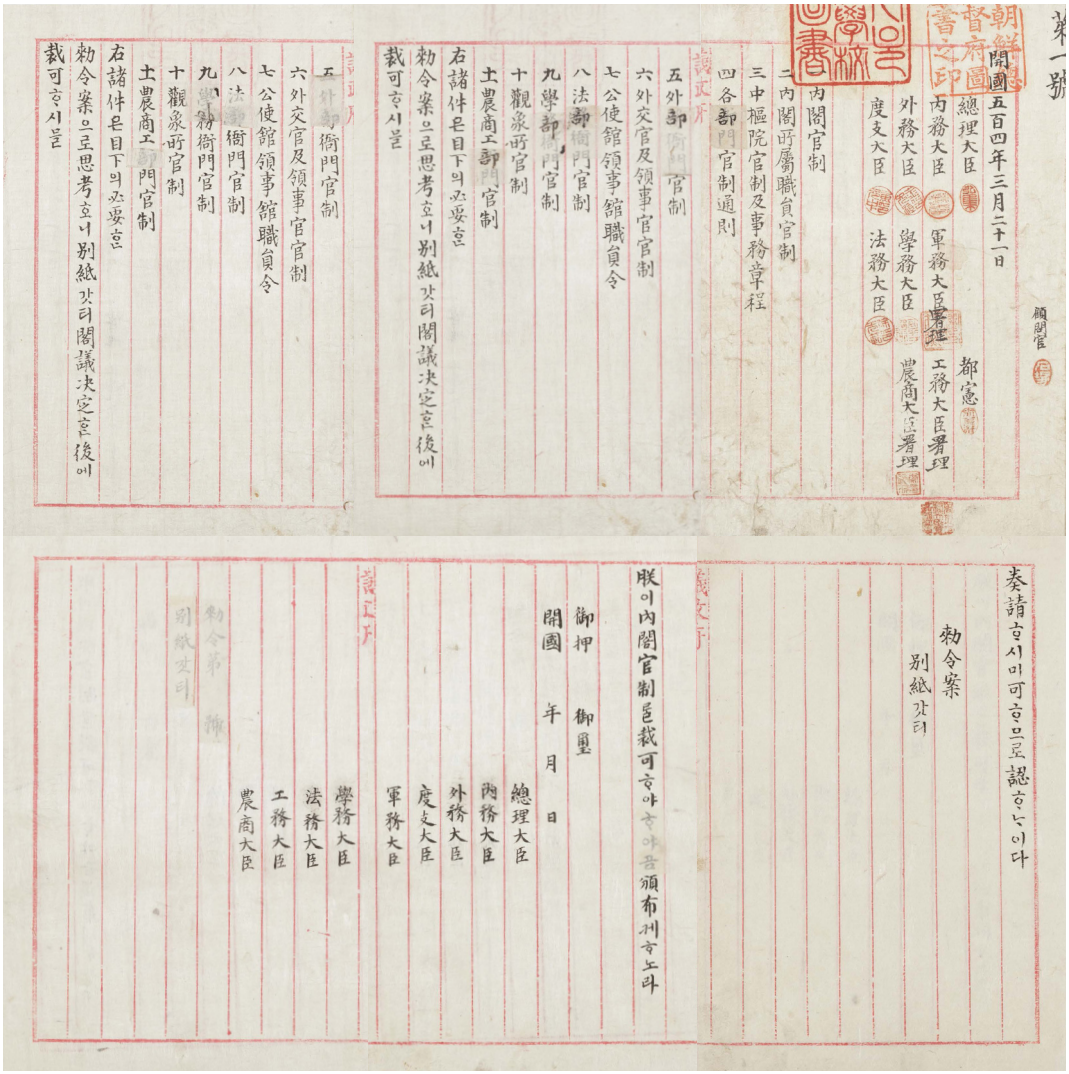
建陽元年十一月四日

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趙秉稷

議政府議政金炳始　閣下　查照

2-3. 의주議奏

2-3-1.「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內閣所屬職員官制, 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 各部 官制通則, 外部官制, 外交官 및 領事官官制, 公使館領事館職員令, 法部官制, 學部官制, 觀象所官制, 農商工部官制에 대한 內閣決定書」, 1895년 3월 21일



도판 4-7.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 b / 001b_001 / 002a / 003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第一號

顧問官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一日

總理大臣　　都憲

內務大臣　　軍務大臣署理　　工務大臣署理

外務大臣　　學務大臣　　農商大臣署理

度支大臣　　法務大臣

一　內閣官制

二　內閣所屬職員官制

三　中樞院官制及事務章程

四　各部官制通則

五　外部官制　　五　外務衙門官制

六　外交官及領事官官制　六　外交官及領事官官制

七　公使館領事館職員令　七　公使館領事館職員令

八　法部官制　　八　法務衙門官制

九　學部官制　　九　學務衙門官制

十　觀象所官制　　十　觀象所官制

十一 農商工部官制　　十一 農商工衙門官制

右諸件은目下의必要ᄒᆞᆫ

勅令案으로思考호니別紙갓티閣議決定ᄒᆞᆫ後에

裁可ᄒᆞ시믈

奏請ᄒᆞ시미可ᄒᆞ므로認ᄒᆞᄂᆞ이다

勅令案

別紙갓티

朕이內閣官制를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ᄂᆞ라

御押　御璽

開國　年　月　日

總理大臣

內務大臣

外務大臣

度支大臣

軍務伏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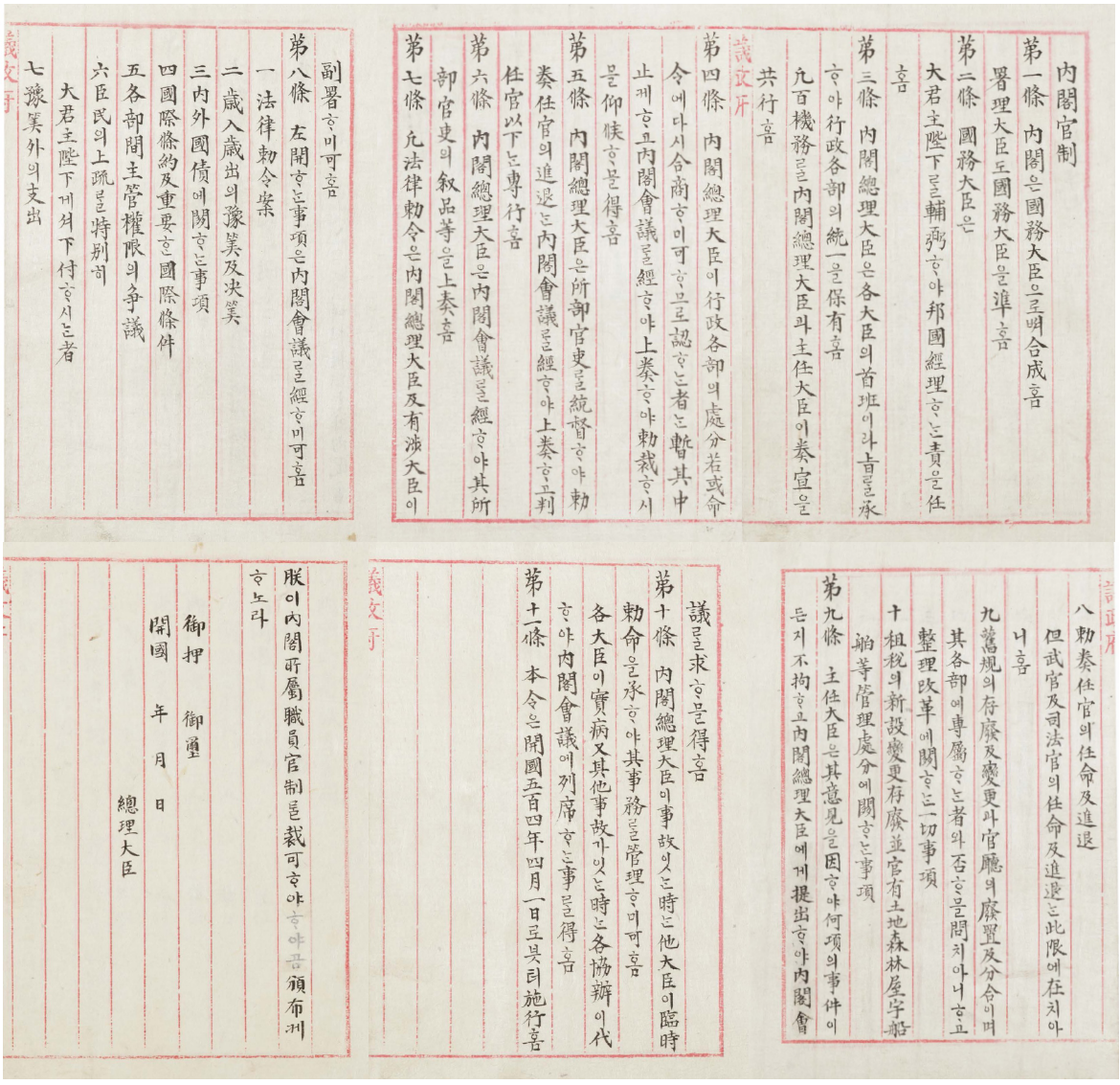
學務大臣

法務大臣

工務大臣

農商大臣

2-3-2.「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칙령안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內閣官制

第一條 內閣은 國務大臣으로써 合成홈
署理大臣도 國務大臣을 準홈

第二條 國務大臣은
大君主陛下를 輔弼ᄒᆞ야 邦國經理ᄒᆞᄂᆞᆫ 責을 任홈

第三條 內閣總理大臣은 各大臣의 首班이라 旨를 承ᄒᆞ야 行政各部의 統一을 保有홈
凡百機務를 內閣總理大臣과 主任大臣이 奏宣을 共行홈

第四條 內閣總理大臣이 行政各部의 處分若或命令에 다시 合商ᄒᆞ기 可ᄒᆞ므로 認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暫其中止케 ᄒᆞ고 內閣會議를 經ᄒᆞ야 上奏ᄒᆞ야 勅裁ᄒᆞ시믈 仰俟ᄒᆞ믈 得홈

第五條 內閣總理大臣은 所部官吏를 統督ᄒᆞ야 勅奏任官의 進退ᄂᆞᆫ 內閣會議를 經ᄒᆞ야 上奏ᄒᆞ고 判任官以下ᄂᆞᆫ 專行홈

第六條 內閣總理大臣은 內閣會議를 經ᄒᆞ야 其所部官吏의 叙品等을 上奏홈

第七條 凡法律勅令은 內閣總理大臣及有涉大臣이 副署ᄒᆞ기 可홈

第八條 左開ᄒᆞᄂᆞᆫ 事項은 內閣會議를 經ᄒᆞ기 可홈
一 法律勅令案
二 歲入歲出의 豫算及決算
三 內外國債에 關ᄒᆞᄂᆞᆫ 事項
四 國際條約及重要ᄒᆞᄂᆞᆫ 國際條件
五 各部間主管權限의 爭議
六 臣民의 上疏를 特別히
大君主陛下께셔 下付ᄒᆞ시ᄂᆞᆫ 者
七 豫算外의 支出
八 勅奏任官의 任命及進退
但武官及司法官의 任命及進退ᄂᆞᆫ 此限에 在치아니홈
九 舊規의 存廢及變更과 官廳의 廢置及分合이며 其各部에 專屬ᄒᆞᄂᆞᆫ 者외 否ᄒᆞᆫ 믈 問치아니ᄒᆞ고 整理改革에 關ᄒᆞᄂᆞᆫ 一切事項
十 租稅의 新設變更 存廢 並官有土地森林 屋宇船舶等 管理處分에 關ᄒᆞᄂᆞᆫ 事項
第九條 主任大臣은 其意見을 因ᄒᆞ야 何項의 事件이든지 不拘ᄒᆞ고 內閣總理大臣에게 提出ᄒᆞ야 內閣會議를 求ᄒᆞ믈 得홈

第十條 內閣總理大臣이 事故잇ᄂᆞᆫ 時ᄂᆞᆫ 他大臣이 臨時勅命을 承ᄒᆞ야 其事務를 管理ᄒᆞ기 可홈
各大臣이 實病又其他事故가 잇ᄂᆞᆫ 時ᄂᆞᆫ 各協辦이 代ᄒᆞ야 內閣會議에 列席ᄒᆞᄂᆞᆫ 事를 得홈

第十一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朕이 內閣所屬職員官制를 裁可ᄒᆞ야 ᄒᆞ야곰 頒布케 ᄒᆞ노라

御押 御璽

開國 年 月 日

總理大臣

도판 4-8.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의주議奏제 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 b / 005a, b / 006a / 007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內閣官制

第一條 內閣은國務大臣으로써合成홈

署理大臣도國務大臣을準홈

第二條 國務大臣은

大君主陛下를輔弼ᄒᆞ야邦國經理ᄒᆞᄂᆞᆫ責을任홈

第三條 內閣總理大臣은各大臣의首班이라旨를承ᄒᆞ야行政各部의統一을保有홈

凡百機務를內閣總理大臣과主任大臣이奏宣을共行홈

第四條 內閣總理大臣이行政各部의處分若或命令에다시合商ᄒᆞ미可ᄒᆞ므로認ᄒᆞᄂᆞᆫ者ᄂᆞᆫ暫其中止케ᄒᆞ고內閣會議를經ᄒᆞ야上奏ᄒᆞ야勅裁ᄒᆞ시믈仰候ᄒᆞ믈得홈

第五條 內閣總理大臣은所部官吏를統督ᄒᆞ야勅奏任官의進退ᄂᆞᆫ內閣會議를經ᄒᆞ야上奏ᄒᆞ고判任官以下ᄂᆞᆫ專行홈

第六條 內閣總理大臣은內閣會議를經ᄒᆞ야其所部官吏의敘品等을上奏홈

第七條 凡法律勅令은內閣總理大臣及有涉大臣이副署ᄒᆞ미可홈

第八條 左開ᄒᆞᄂᆞᆫ事項은內閣會議를經ᄒᆞ미可홈

一 法律勅令案

二 歲入歲出의豫算及決算

三 內外國債에關ᄒᆞᄂᆞᆫ事項

四 國際條約及重要ᄒᆞᆫ國際條件

五 各部間主管權限의爭議

六 臣民의上疏를特別히

大君主陛下게셔下付ᄒᆞ시ᄂᆞᆫ者

七 豫算外의支出

八 勅奏任官의任命及進退

但武官及司法官의任命及進退ᄂᆞᆫ此限에在치아니홈

九 舊規의存廢及變更과官廳의廢置及分合이며其各部에專屬ᄒᆞᄂᆞᆫ者와否ᄒᆞ믈問치아니ᄒᆞ고整理改革에關ᄒᆞᄂᆞᆫ一切事項

十 租稅의新設變更存廢並官有土地森林屋宇船舶等管理處分判關ᄒᆞᄂᆞᆫ事項

第九條 主任大臣은其意見을因ᄒᆞ야何項의事件이든지不拘ᄒᆞ고內閣總理大臣에게提出ᄒᆞ야內閣會議를求ᄒᆞ믈得홈

第十條 內閣總理大臣이事故잇ᄂᆞᆫ時ᄂᆞᆫ他大臣이臨時勅命을承ᄒᆞ야其事務를管理ᄒᆞ미可홈

各大臣이實病又其他事故가잇ᄂᆞᆫ時ᄂᆞᆫ各協辦이代ᄒᆞ야內閣會議에列席ᄒᆞᄂᆞᆫ事를得홈

第十一條 本令은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븟터施行홈

朕이內閣所屬職員官制를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御押 御璽

開國 年 月 日

總理大臣

2-4. 관공체官公體 441자, 56 낱자,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1895, 1896년
2-4-1 (1).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낱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2-4-1 (2). 관공체官公體 133자, 33 낱자,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2-4-2. 관공체官公體 25자, 12 낱자,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2-4-3. 관공체官公體 23자, 13 낱자,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2-4-4. 관공체官公體 36자, 19 낱자, 「주의奏議 ,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2-4-5. 관공체官公體 34자, 23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4-6 (1).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4-6 (2).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2-4-6 (3). 관공체官公體 190자, 38 낱자,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3. 칙령勅令의 관공체官公體

3-1. 칙령勅令

임금이 관부官府에 내리는 명령의 일종이다.
칙령은 그 자체만으로 법의 효력이 있었다. 칙령들을 모아서 법전法典을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는 고종高宗이 황제皇帝로 즉위한 이후에 쓰여 법으로 구실을 하였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임금이 조선의 임금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 가운데 한 종류[勅]를 가리켰다.
칙령勅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26, [19世紀 末-20世紀 初(高宗31年-隆熙4年:1894-1910)], 책 권수: 26冊, 圖, 筆寫本
한글이 포함된 순검巡檢 징벌 규례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는 칙령勅令 제13호(1894년 12월 10일)는 42, 43쪽에 인용하였고,
공문식公文式의 개정改正을 재가裁可하야 반포頒布케 하는 칙령勅令 제86호(1895년 5월 8일)는 44, 45쪽에 인용하였으며,

3-1-1.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판관判官으로 개칭改稱ᄒᆞ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ᄒᆞ라는 칙령勅令 제32호(1895년 1월 29일),
3-1-2. 짐朕이 내각관제內閣官制를 재가裁可ᄒᆞ야 반포頒布하는 칙령勅令 제38호(1895년 3월 25일),
3-1-3. 의학교관제醫學校官制인 칙령勅令 제7호(1899년 3월 24일),
3-1-4. 병원관제病院官制인 칙령勅令 제14호(1899년 4월 24일),
3-1-5.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인 칙령勅令 제9호(1907년 3월 10일)를 인용한다.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3-2-1.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낱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3-2-2.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3-2-3.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3-2-4. 관공체官公體 7자, 6 낱자,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3-2-5.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낱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3-2-6. 관공체官公體 126자, 25 낱자,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3-2-7. 관공체官公體 145자, 21 낱자,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3-1. 칙령勅令

3-1-1.「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개성부경력開城府經歷을 판관判官으로 개칭改稱ᄒᆞ고 기직권其職權은 사도례四都例를 의依ᄒᆞ라」, 1895년 1월 29일


勅令第三十二號
開城府經歷을判官으로改稱ᄒᆞ고
其職權은四都例를依ᄒᆞ라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
大君主
奉
勅 總理大臣金弘集
內務大臣朴泳孝

勅令第三十二號

開城府經歷을判官으로改稱ᄒᆞ고
其職權은四都例를依ᄒᆞ라
開國五百四年正月二十九日
大君主[手決]
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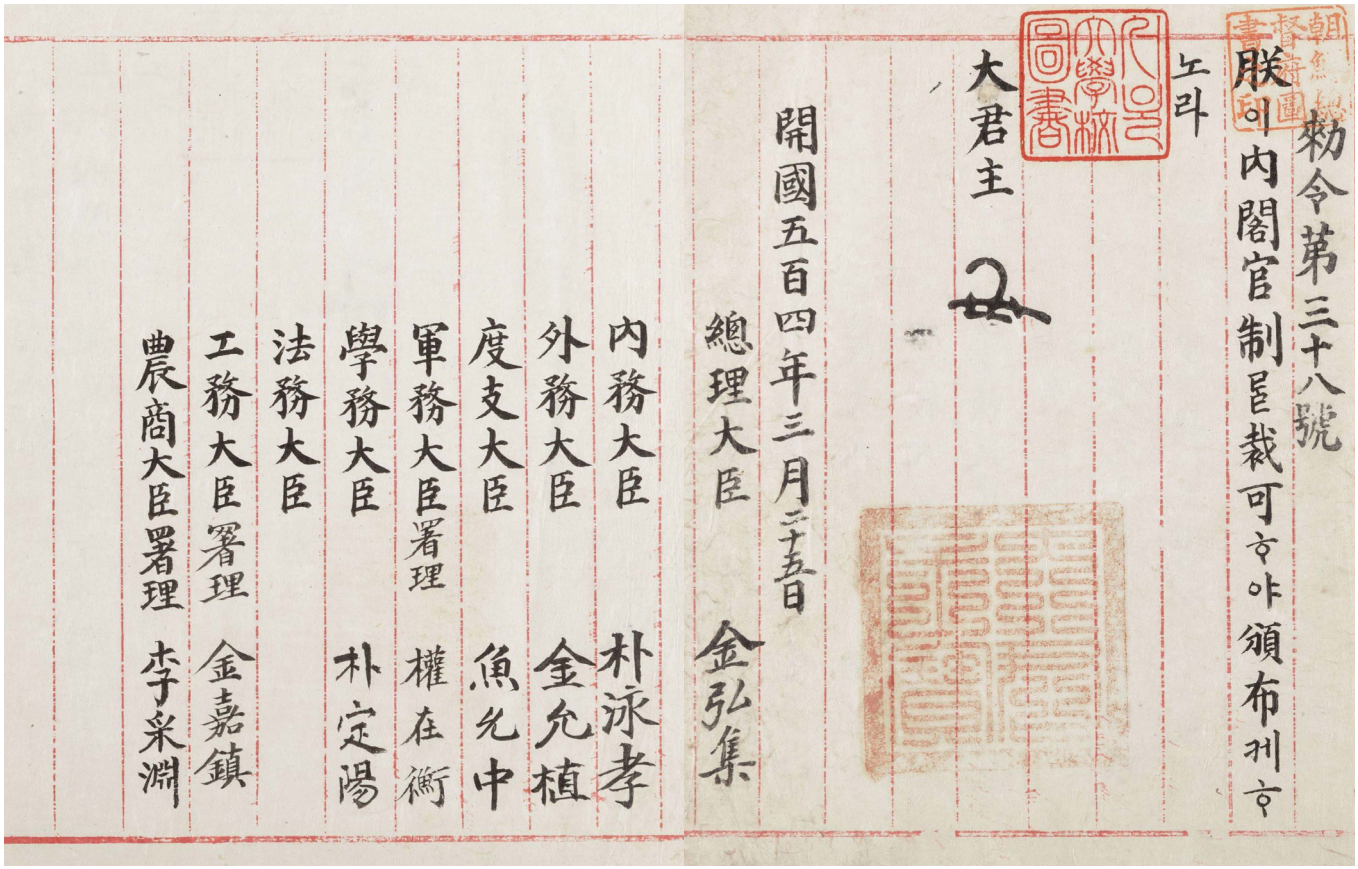
勅 總理大臣金弘集
內務大臣朴泳孝

도판 4-9.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3-1-2.「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朕이內閣官制를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1895년 3월 25일


勅令第三十八號
朕이內閣官制ᄅᆞᆯ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大君主 ㉮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外務大臣 金允植
度支大臣 魚允中
軍務大臣署理 權在衡
學務大臣 朴定陽
法務大臣
工務大臣署理 金嘉鎭
農商大臣署理 李采淵

도판 4-10.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001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2

勅令第三十八號

朕이內閣官制를裁可ᄒᆞ야頒布케ᄒᆞ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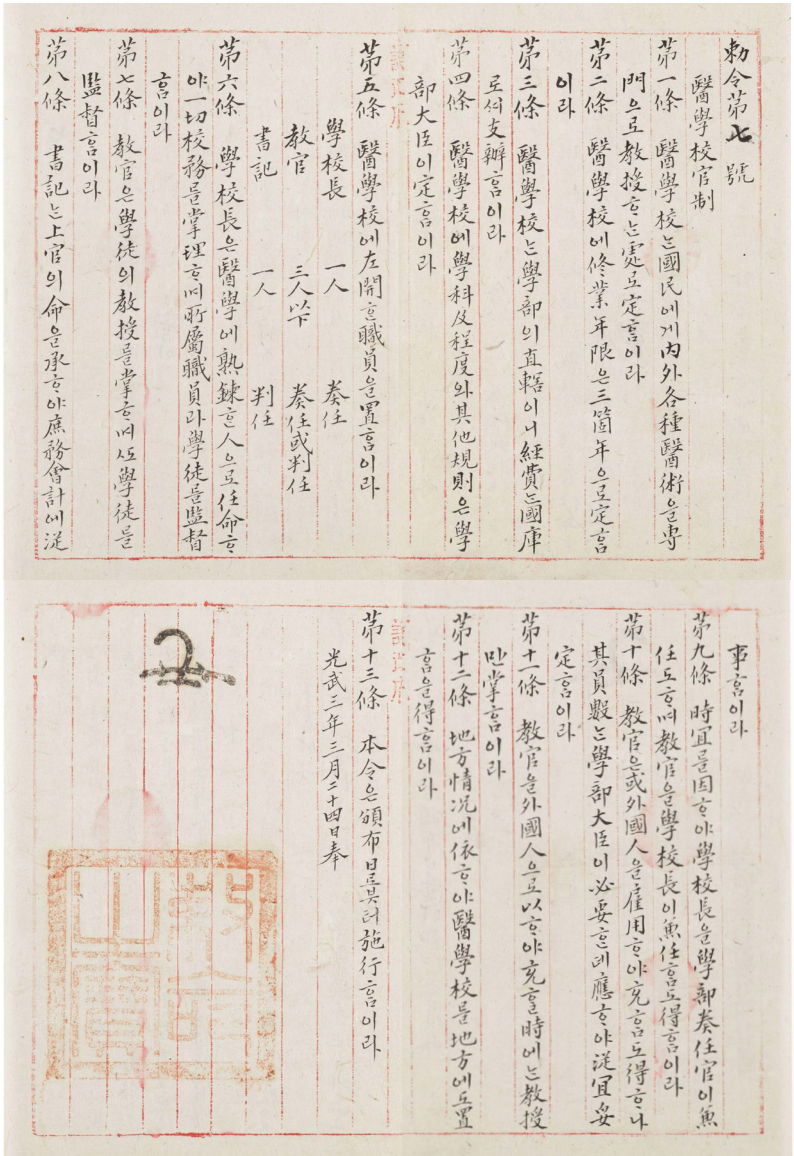
大君主[手決]

開國五百四年三月二十五日

總理大臣 金弘集

內務大臣　　朴泳孝
外務大臣　　金允植
度支大臣　　魚允中
軍務大臣署理　權在衡
學務大臣　　朴定陽
法務大臣
工務大臣署理　金嘉鎭
農商大臣署理　李采淵

3-1-3.「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는 國民에게 內外各種 醫術을 專門으로 敎授함을 目的으로 定함이라

第二條 醫學校에 修業年限은 三箇年으로 定함이라

第三條 醫學校는 學部의 直轄이니 經費는 國庫로 支辦함이라

第四條 醫學校에 學科及程度와 其他規則은 學部大臣이 定함이라

第五條 醫學校에 左開한 職員을 置함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敎官 三人以上 奏任或判任

書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 醫學에 熟練한 人으로 任命하야 一切校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과 學徒를 監督함이라

第七條 敎官은 學徒의 敎授를 掌하며 또 學徒를 監督함이라

第八條 書記는 上官의 命을 承하야 庶務會計에 從事함이라

第九條 時宜를 因하야 學校長을 學部奏任官으로 任用하며 敎官을 學校長이 兼任함을 得함이라

第十條 敎官은 或 外國人을 雇用하야 充함을 得함이나 其員數는 學部大臣이 必要를 認應하야 從宜 定함이라

第十一條 敎官을 外國人으로 以하야 充할 時에는 敎授만 掌함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 依하야 醫學校를 地方에 置함을 得함이라

第十三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도판 4-11.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 b / 017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第一條 醫學校ᄂᆞᆫ國民에게內外各種醫術을專門으로敎授ᄒᆞᄂᆞᆫ處로定ᄒᆞᆷ이라

第二條 醫學校에修業年限은三箇年으로定ᄒᆞᆷ이라

第三條 醫學校ᄂᆞᆫ學部의直轄이니經費ᄂᆞᆫ國庫로셔支辦ᄒᆞᆷ이라

第四條 醫學校에學科及程度와其他規則은學部大臣이定ᄒᆞᆷ이라

第五條 醫學校에左開ᄒᆞᆫ職員을置ᄒᆞᆷ이라

學校長 一人 奏任

敎 官 三人以下 奏任或判任

書 記 一人 判任

第六條 學校長은醫學에熟鍊ᄒᆞᆫ人으로任命ᄒᆞ야一切校務를掌理ᄒᆞ며所屬職員과學徒를監督ᄒᆞᆷ이라

第七條 敎官은學徒의敎授를掌ᄒᆞ며ᄯᅩ學徒를監督ᄒᆞᆷ이라

第八條 書記ᄂᆞᆫ上官의命을承ᄒᆞ야庶務會計에從事ᄒᆞᆷ이라

第九條 時宜를因ᄒᆞ야學校長을學部奏任官이兼任도ᄒᆞ며敎官을學校長이兼任ᄒᆞᆷ도得ᄒᆞᆷ이라

第十條 敎官은或外國人을雇用ᄒᆞ야充ᄒᆞᆷ도得ᄒᆞ나其員數ᄂᆞᆫ學部大臣이必要ᄒᆞᆫ데應ᄒᆞ야從宜妥定ᄒᆞᆷ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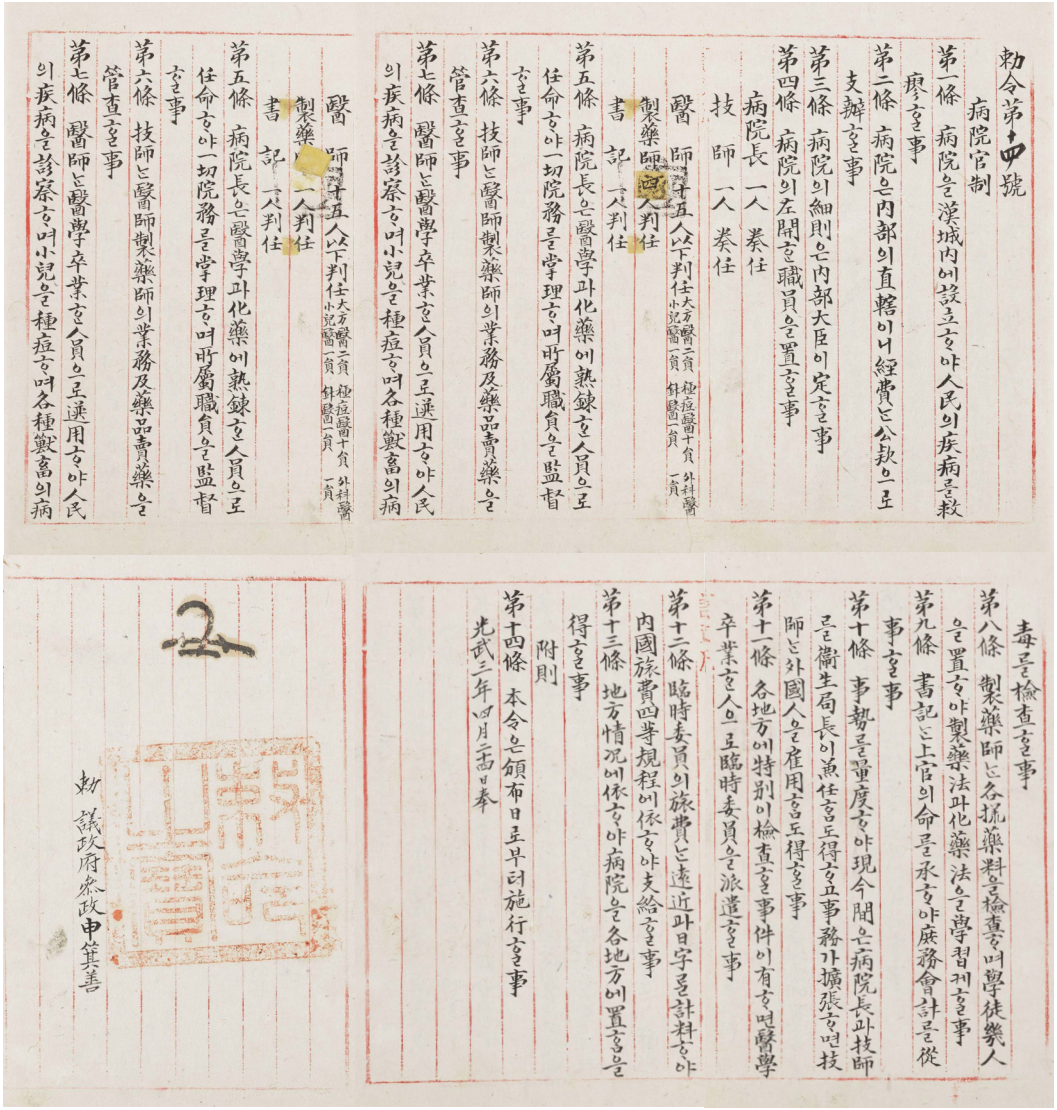
第十一條 敎官을外國人으로以ᄒᆞ야充ᄒᆞᆯ時에ᄂᆞᆫ敎授만掌ᄒᆞᆷ이라

第十二條 地方情況에依ᄒᆞ야醫學校를地方에도置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三條 本令은頒布日로븟터施行ᄒᆞᆷ이라

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奉

3-1-4.「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勅令第十四號
病院官制
第一條 病院을 漢城內에 設立ᄒᆞᆫ야 人民의 疾病을 救療ᄒᆞᆯ事
第二條 病院은 內部의 直轄이니 經費ᄂᆞᆫ 公款으로 支辦ᄒᆞᆯ事
第三條 病院의 細則은 內部大臣이 定ᄒᆞᆯ事
第四條 病院의 各開ᄒᆞᆯ 職員을 置ᄒᆞᆯ事
病院長 一人 奏任
技師 一人 奏任
醫師 十五人以下 判任 大方醫二員 種痘醫十員 外科醫一員 小兒醫一員 針醫一員
製藥師 二人 判任
書記 二人 判任
第五條 病院長은 醫學과 化藥에 熟鍊ᄒᆞᆫ 人員으로 任命ᄒᆞ야 一切院務를 掌理ᄒᆞ며 所屬職員을 監督ᄒᆞᆯ事
第六條 技師와 醫師 製藥師의 業務及藥品賣藥을 管査ᄒᆞᆯ事
第七條 醫師ᄂᆞᆫ 醫學卒業ᄒᆞᆫ 人員으로 選用ᄒᆞ야 人民의 疾病을 診察ᄒᆞ며 小兒을 種痘ᄒᆞ며 各種癘毒의 病毒을 檢査ᄒᆞᆯ事
第八條 製藥師ᄂᆞᆫ 各種藥料를 檢査ᄒᆞ며 學徒幾人을 置ᄒᆞ야 製藥法과 化藥法을 學習케ᄒᆞᆯ事
第九條 書記ᄂᆞᆫ 上官의 命을 承ᄒᆞ야 庶務會計를 從事ᄒᆞᆯ事
第十條 事務를 量度ᄒᆞ야 現今 閒ᄂᆞᆫ 病院長과 技師를 衛生局長이 兼任ᄒᆞᆷ도 得ᄒᆞᆫ 立事務가 擴張ᄒᆞ면 技師ᄂᆞᆫ 外國人을 雇用ᄒᆞᆷ도 得ᄒᆞᆯ事
第十一條 各地方에 特別이 檢査ᄒᆞᆯ 事件이 有ᄒᆞ면 醫學卒業ᄒᆞᆫ 人으로 臨時委員을 派遣ᄒᆞᆯ事
第十二條 臨時委員의 旅費ᄂᆞᆫ 遠近과 日字를 計料ᄒᆞ야 內國旅費四等規程에 依ᄒᆞ야 支給ᄒᆞᆯ事
第十三條 地方情況에 依ᄒᆞ야 病院을 各地方에 置ᄒᆞᆷ을 得ᄒᆞᆯ事
附則
第十四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ᄒᆞᆯ事
光武三年四月二十四日奉
勅議政府參政申箕善

도판 4-12.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033a, b / 034a, b / 035a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勅令第十四號

病院官制

第一條 病院을漢城內에設立ᄒᆞ야人民의疾病를救療ᄒᆞᆯ事

第二條 病院은內部의直轄이니經費ᄂᆞᆫ公款으로支辦ᄒᆞᆯ事

第三條 病院의細則은內部大臣이定ᄒᆞᆯ事

第四條 病院의左開ᄒᆞᆫ職員을置ᄒᆞᆯ事

病院長 一人 奏任

技　師 一人 奏任

醫　師 十五人以下判任 大方醫二員 種痘醫十員 外科醫一員 小兒醫一員 針醫一員

製藥師 四人判任

書　記 一人判任

第五條 病院長은醫學과化藥에熟鍊ᄒᆞᆫ人員으로任命ᄒᆞ야一切院務를掌理ᄒᆞ며所屬職員을監督ᄒᆞᆯ事

第六條 技師ᄂᆞᆫ醫師製藥師의業務及藥品賣藥을管査ᄒᆞᆯ事

第七條 醫師ᄂᆞᆫ醫學卒業ᄒᆞᆫ人員으로選用ᄒᆞ야人民의疾病을診察ᄒᆞ며小兒을種痘ᄒᆞ며各種獸畜의病毒를檢查ᄒᆞᆯ事

第八條 製藥師ᄂᆞᆫ各樣藥料을檢查ᄒᆞ며學徒幾人을置ᄒᆞ야製藥法과化藥法을學習케ᄒᆞᆯ事

第九條 書記ᄂᆞᆫ上官의命를承ᄒᆞ야庶務會計를從事ᄒᆞᆯ事

第十條 事勢를量度ᄒᆞ야現今間은病院長과技師를衛生局長이兼任ᄒᆞᆷ도得ᄒᆞ고事務가擴張ᄒᆞ면技師ᄂᆞᆫ外國人을雇用ᄒᆞᆷ도得ᄒᆞᆯ事

第十一條 各地方에特別이檢查ᄒᆞᆯ事件이有ᄒᆞ면醫學卒業ᄒᆞᆫ人으로臨時委員을派遣ᄒᆞᆯ事

第十二條 臨時委員의旅費ᄂᆞᆫ遠近과日字를計料ᄒᆞ야內國旅費四等規程에依ᄒᆞ야支給ᄒᆞᆯ事

第十三條 地方情況에依ᄒᆞ야病院을各地方에置ᄒᆞᆷ을得ᄒᆞᆯ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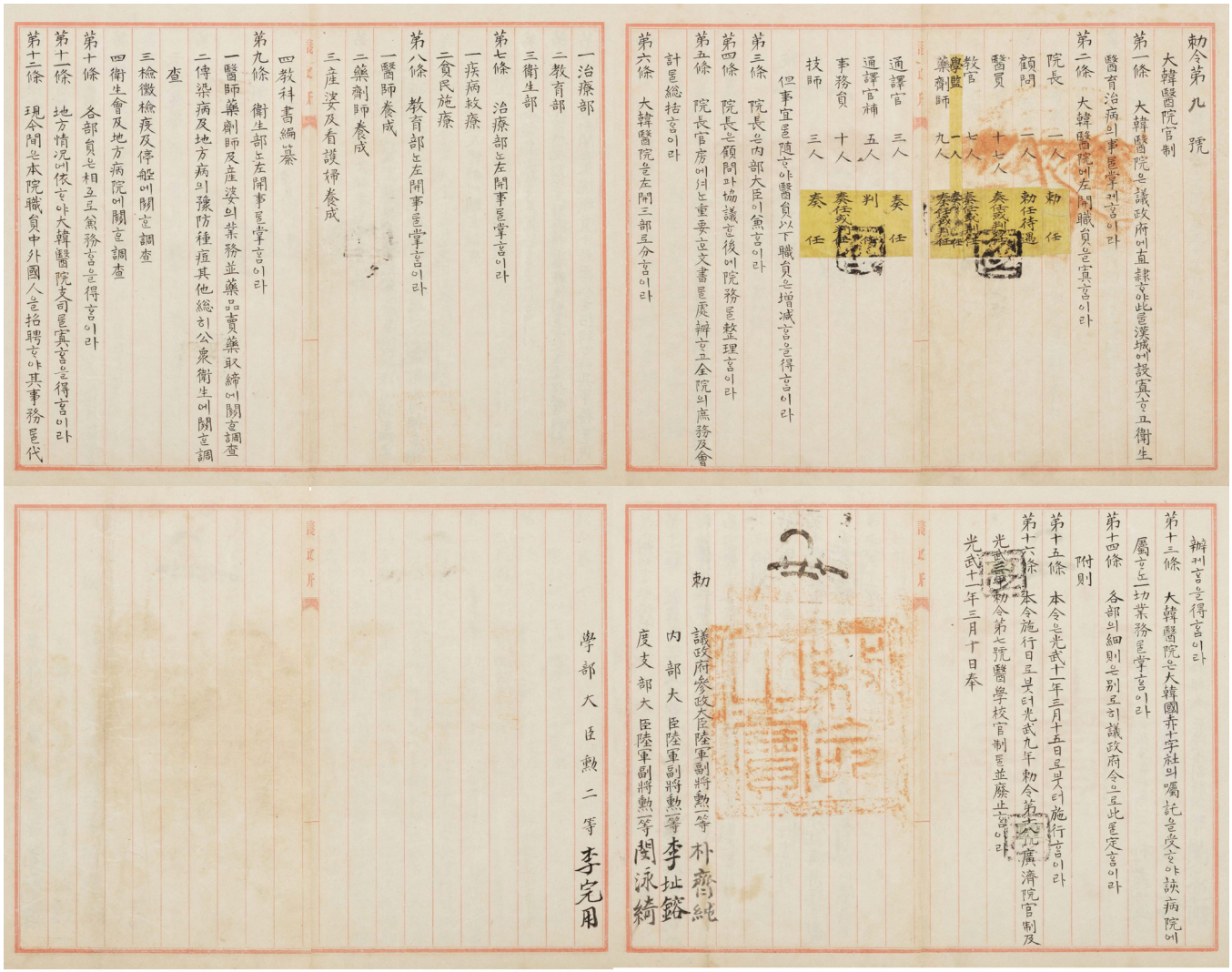
附則

第十四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ᄒᆞᆯ事

光武三年四月二十四日奉

勅 議政府參政申箕善

3-1-5.「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도판 4-13.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9,「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 / 017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19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一條 大韓醫院은議政府에直隷ᄒᆞ야此를漢城에設置ᄒᆞ고衛生醫育治病의事를掌케ᄒᆞᆷ이라

第二條 大韓醫院에左開職員을置ᄒᆞᆷ이라

院長	一人	勅任
顧問	一人	勅任待遇
醫員	十七人	奏任或判任
敎官	七人	奏任或判任
學監	一人	奏任
藥劑師	九人	奏任或判任
通譯官	三人	奏任
通譯官補	五人	判任
事務員	十人	奏任或判任
技師	三人	奏任

但事宜를隨ᄒᆞ야醫員以下職員은增減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三條 院長은內部大臣이兼ᄒᆞᆷ이라

第四條 院長은顧問과協議ᄒᆞᆫ後에院務를整理ᄒᆞᆷ이라

第五條 院長官房에셔ᄂᆞᆫ重要ᄒᆞᆫ文書를處辦ᄒᆞ고全院의庶務及會計를總括ᄒᆞᆷ이라

第六條 大韓醫院을左開三部로分ᄒᆞᆷ이라

一治療部

二敎育部

三衛生部

第七條 治療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疾病救療

二貧民施療

第八條 敎育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醫師養成

二藥劑師養成

三産婆及看護婦養成

四敎科書編纂

第九條 衛生部ᄂᆞᆫ左開事를掌ᄒᆞᆷ이라

一醫師藥劑師及産婆의業務竝藥品賣藥取締에關ᄒᆞᆫ調査

二傳染病及地方病의豫防種痘其他總히公衆衛生에關ᄒᆞᆫ調査

三檢徽檢疫及停船에關ᄒᆞᆫ調査

四衛生會及地方病院에關ᄒᆞᆫ調査

第十條 各部員은相互로兼務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一條 地方情況에依ᄒᆞ야大韓醫院支司를置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二條 現今間은本院職員中外國人을招聘ᄒᆞ야其事務를代辦케ᄒᆞᆷ을得ᄒᆞᆷ이라

第十三條 大韓醫院은大韓國赤十字社의囑託을受ᄒᆞ야該病院에屬ᄒᆞᄂᆞᆫ一切業務를掌ᄒᆞᆷ이라

第十四條 各部의細則은別로히議政府令으로此를定ᄒᆞᆷ이라

附則

第十五條 本令은光武十一年三月十五日로붓터施行ᄒᆞᆷ이라

第十六條 本令施行日로붓터光武九年勅令第十八號廣濟院官制及光武三年勅令第七號醫學校官制를竝廢止ᄒᆞᆷ이라

光武十一年三月十日奉

勅 議政府參政大臣陸軍副將勳一等 朴齊純
內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李址鎔
度支部大臣陸軍副將勳一等 閔泳綺
學部大臣勳二等 李完用

3-2. 관공체官公體 631자, 49 낱자, 칙령勅令, 1894년, 1895년, 1899년, 1907년

3-2-1 (1).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낱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3-2-1 (2).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낱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3-2-1 (3). 관공체官公體 198자, 34 낱자, 「칙령勅令 제13호第十三號」, 1894년 12월 10일



3-2-2.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3-2-3. 관공체官公體 9자, 8 낱자,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3-2-4. 관공체官公體 7자, 6 낱자,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3-2-5 (1).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낱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3-2-5 (2). 관공체官公體 137자, 27 낱자,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3-2-6 (1). 관공체官公體 126자, 25 낱자,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3-2-6 (2). 관공체官公體 126자, 25 낱자,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3-2-7 (1). 관공체官公體 145자, 21 낱자,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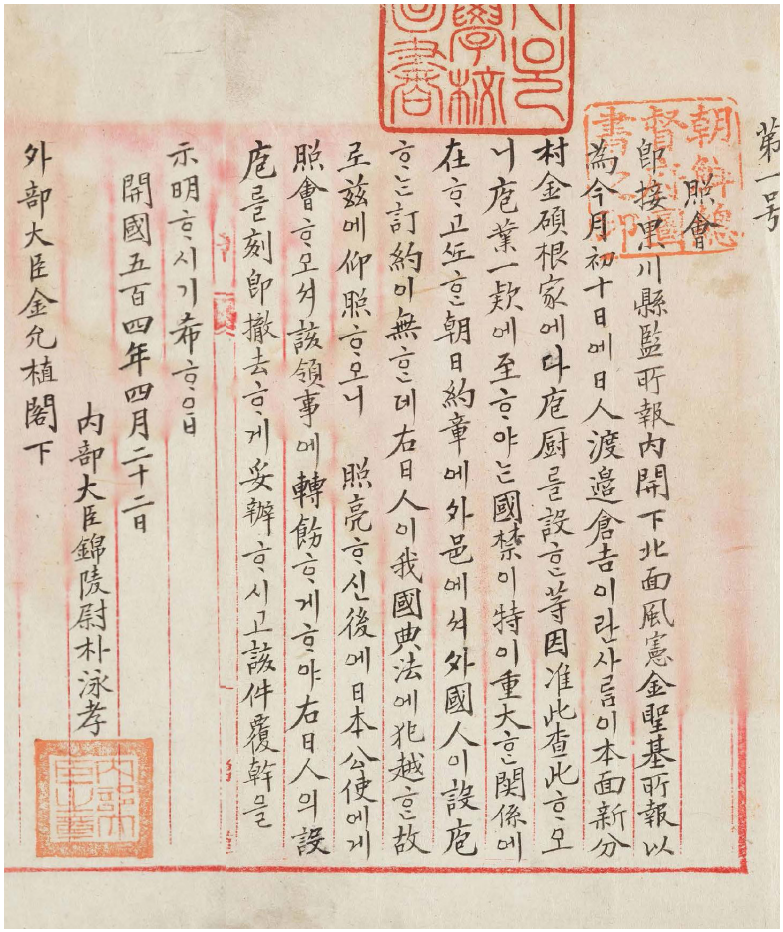


3-2-7 (2). 관공체官公體 145자, 21 낱자, 「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4.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의 관공체官公體

4-1.「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果川縣監 報告內 "下北面 風憲 金聖基 보고에 따르면 日人 渡邊倉吉이 新分村 金碩根家에 庖廚를 設하였다고 한다"고 하나 이는 國禁이며 朝日約章에 없는 것이므로 日本公使가 領事에게 轉飭하여 撤去케 해달라」, 1895년 4월 22일



第一號

照會

即接果川縣監所報內開下北面風憲金聖基所報以為今月初十日에日人渡邊倉吉이란사름이本面新分村金碩根家에다庖厨를設ᄒᆞᆫ等因准此查此ᄒᆞ오니庖業一款에至ᄒᆞ야ᄂᆞᆫ國禁이特이重大ᄒᆞᆫ關係에在ᄒᆞ고또ᄒᆞᆫ朝日約章에外邑에셔外國人이設庖ᄒᆞᄂᆞᆫ訂約이無ᄒᆞᆫ데右日人이我國典法에犯越ᄒᆞᆫ故로玆에仰照ᄒᆞ오니 照亮ᄒᆞ신後에日本公使에게照會ᄒᆞ오셔該領事에轉飭ᄒᆞ게ᄒᆞ야右日人의設庖를刻卽撤去ᄒᆞ게妥辦ᄒᆞ시고該件覆幹을示明ᄒᆞ시기希ᄒᆞ옵

開國五百四年四月二十二日

內部大臣錦陵尉朴泳孝

外部大臣金允植閣下

도판 4-14.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 b쪽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94_00&vol_no=0001

4-2. 관공체官公體 65자, 23 낱자,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5. 관급증서官給證書의 관공체官公體

5-1.「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第拾壹號

卒業證書

右員이本院의醫學全科를修ᄒᆞ야卒業試驗에及第ᄒᆞ얏기로此證書를授與ᄒᆞᄂᆞ라

光武十一年七月三十日

大韓醫院教官正六位勳四等小竹武次

尹秉學

二十五年

大韓醫院教官正六位勳四等小竹武次

仝 正三品劉世煥

仝 正三品劉秉玹

仝 九品崔奎翼

大韓醫院教育部長正六位勳四等小竹武次

도판 4-15.「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

자료 제공 : 황상익, 2024. 1. 16.

대한의원大韓醫院

대한의원大韓醫院은 당대 동아시아 전역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초대형의 최신식 병원이었다. 통감부統監府가 대한의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 일차적으로 병원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질병의 교류'도 확대되었다. 통감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의 질병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진보된 의료 및 위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이 설립한 병원을 '통합'해 대한의원을 만든 것은 한국인들이 서양 근대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온 역사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3월에 제정 공포된 관제에 따르면, 대한의원에는 17명의 의원과 7명의 교관, 9명의 약제사 등 30명 이상의 의료진이 있었으며, 치료부와 교육부, 위생부를 두어 진료뿐 아니라 종두 사무, 방역 및 위생 사무, 빈민에 대한 무료 시료 등도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광제원과 대한국적십자병원의 사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다.

대한의원 관제는 1907년 12월 말에 1차 개정되어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대한의원은 의정부 직할에서 내부 소속으로 관제상 지위가 낮아졌으며, 위생부가 위생시험부로 바뀌었다. 위생사무는 성격상 경찰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병원이 담당할 일은 아니었다. 대한의원이 위생업무를 경찰에 넘긴 데에는 이미 일본인 경무 고문이 한국 경찰행정 전반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다. 이때 교육부도 의육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는 대한의원을 내부 직속 기관으로 바꿈에 따라 학부 소관인 '교육 사무와 혼동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제2차 관제 개정은 1909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으로 의육부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편되었고,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칙임의 관습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지위를 높였다. 또 조수직을 신설하여 의육부 졸업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었다.

대한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등 전문 분과별로 나누어진 근대적 종합병원이었고, 정교하게 짜인 교과과정에 따라 4년제 의학교육을 실시했다. 의학교 제4회, 제5회 입학생들은 대한의원 교육부 및 의육부醫育部의 제1회, 제2회 졸업생이 되었는데, 이들은 의학교 시절과는 달리 4년간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을 결합한 교육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대한의원이나 자혜의원의 조수가 되어 임상 경험을 더 쌓을 수 있었다. 의육부가 부속의학교로 개편된 뒤에는 약학과, 산파과, 간호과가 추가되어 종합 의료인 양성기관으로 발전했다.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서 빈민이나 공상자公傷者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온 전통을 승계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술과 시설을 갖춘 일반 진료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개원 직후에는 무료 진료 대상을 한국인으로 한정했으나, 1909년 10월부터는 일본인 빈민도 무료 진료 대상에 포함했다.

개항 이후 서양 선교병원이나 일본인들이 개항장에 설립한 병원은 각각 자국의 의학 체계를 이식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근대의학은 확고한 표준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원은 근대의학의 분과 및 교육체계에 표준을 제시했다. 대한의원 창설을 계기로 근대의학과 의료는 국가 보건 의료사업의 확실한 중심이 되었으며, 대한의원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의학도들은 우리 사회에 서양 근대의학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2009년, 2019년, 42쪽, 43쪽

5-2.「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도판 4-16.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 102, 1907년 8월 27일

—

원본 크기 : 32×43cm
자료 출처 : 왕실고문서 102 / 隆熙 元年(1907년) 8월 27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0. 3. 2.

大韓國紀念章證書

宮內府大臣官房事務囑托井上雅二

隆熙元年八月二十七日

詔勅을欽奉ᄒᆞ야

大皇帝陛下卽位禮式紀念章一枚

를授與ᄒᆞᄂᆞᆫ事

奉勅 大韓帝國表勳院印

表勳院捴裁從一品勳一等 李載克

本章簿冊第

號編入事

表勳院書記官正三品勳五等 金瀅模

순종 황제의 즉위 예식을 기념하여 표훈원에서 순종 황제의 조칙을 받아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관방사무촉탁官房事務囑託 이노우에 마사지에게 수여한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記念章證書이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강압에 의해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하였다. 이해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일본인의 관리 임용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대한제국의 정치는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노우데 마사지 또한 그때 임명된 인사이다.

발급자는 표훈원총재종일품훈일등 이재극과 표훈원서기관정3품훈오등 김형모이다.

증서의 내용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관방사무촉탁官房事務囑託 이노우에 마사지井上雅二에게 융희 원년 8월 27일 조칙을 흠봉하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 즉위卽位 예식禮式 기념장記念章 1매를 수여함.'이라고 하였으며, 봉칙 아래에는 대한제국표훈원인이 정 가운데에 있다. 출처: 고문서 대관 1권, 大韓國記念章證書, 2010, 4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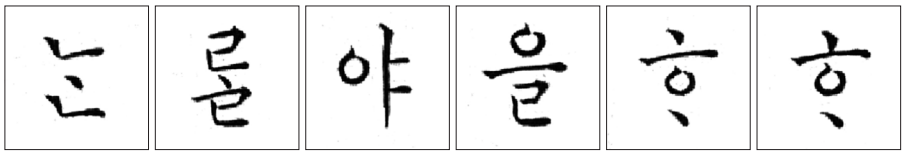
「1907년 대황제폐하즉위예식기념장」,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dir/view?dataId=JSG_RD00102

5-3. 관공체官公體 19자, 14 낱자, 관급증서官給證書, 1907년

5-3-1. 관공체官公體 13자, 11 낱자,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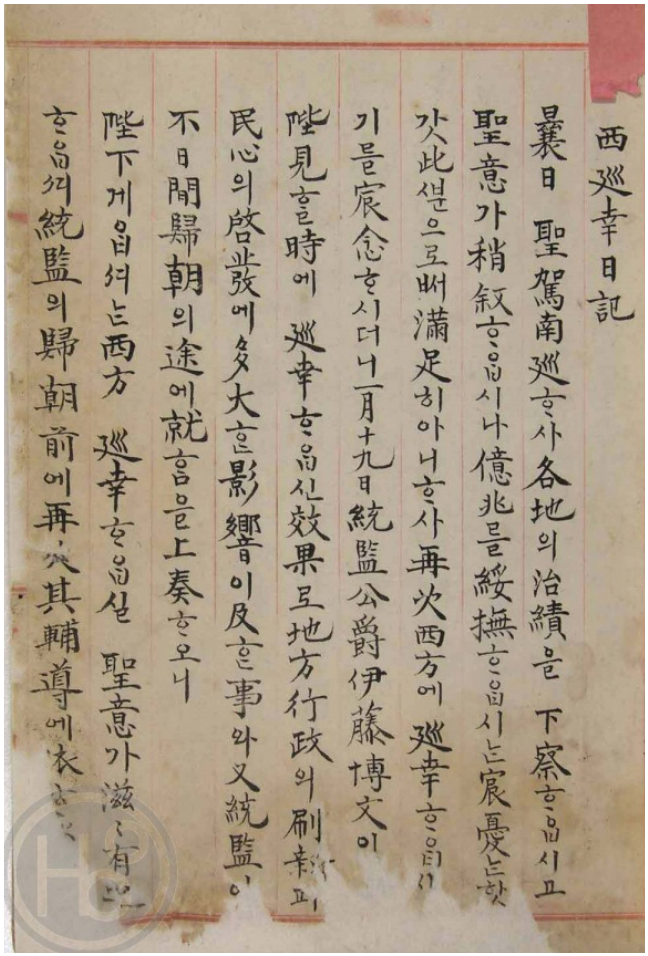


5-3-2. 관공체官公體 6자, 5 낱자,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1907년 8월 27일



6.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6-1.「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西巡幸日記

曩日 聖駕南巡ᄒᆞ사各地의治績을 下察ᄒᆞ옵시고
聖意가稍叙ᄒᆞ옵시나億兆를綏撫ᄒᆞ옵시는宸憂는핫
갓此뿐으로써滿足히아니ᄒᆞ사再次西方에 巡幸ᄒᆞ옵시
기를宸念ᄒᆞ시더니一月十九日統監公爵伊藤博文이
陛見ᄒᆞᆯ時에 巡幸ᄒᆞ옵신效果로地方行政의刷新과
民心의啓發에多大ᄒᆞᆫ影響이及ᄒᆞᆫ事와又統監이
不日間歸朝의途에就ᄒᆞᆷ을上奏ᄒᆞ오니
陛下게옵셔는西方 巡幸ᄒᆞ옵실 聖意가滋〃有之
ᄒᆞ옵셔統監의歸朝前에再次其輔導에依ᄒᆞ야西方

도판 4-17은 2022년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순행일기 표지 다음 첫 장이며, 훼손된 낱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서순행일기*를 참고하였음. 두 종류의 필사본 서체 중 화봉현장경매 서순행일기의 서체가 대한의원개원칙서의 관공체 서체와 더 유사하다.

도판 4-17.「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

원본 크기 : 26.8x19.0cm

작품 크기 : 39.0x30.0cm

자료 출처 : 화봉문고,「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27.2×19.0cm / 필사본(筆寫本) / 선장(線裝), 1冊 133張 / 종이 / 국한문혼용

청구기호 K2-222

기록시기 1909年(隆熙 3) 以後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909년(융희 3) 1월 말~2월 초 순종 황제가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을 순행한 일이다.

1909년 1월 27일~2월 3일 동안 순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양서 지방을 순행하였다. 이는 1909년 1월 초에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순행한 남순행南巡幸에 이은 두 번째 순행이었다.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7년(융희 1) 새 황제로 등극한 순종이 대한제국인에게 황제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자 순종을 순행하게 하여 대중에 노출함으로써 황제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배종하여 통감부統監府의 힘을 과시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은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남순행에 이은 행차였다. 이러한 순종의 순행은 역대 왕이 도성 내의 종묘나, 도성 주변 선왕의 능에 행차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바로 일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순행을 본뜬 것이었다.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일본 명치 1)부터 20년간 6차례에 걸쳐 일본 각지를 순행하였으며, 이러한 순행은 신격화되어 있는 천황을 대중 앞에 드러냄으로써 유신 직후 불안한 일본 정세를 가라앉히고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자주적 국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종의 순행은 메이지 천황의 순행과도 다른 것이었다. 순행을 계획한 주체가 순종 자신이 아니라 통감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통감부였다. 이 순행은 당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통감 정치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달래고, 대한제국 황제의 건재함을 보여 통감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서순행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루어졌으며 도시 간의 이동은 특별 궁정 열차를 이용하였다. 1월 27일 순종은 오전 8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은 뒤, 다음 날 정주를 거쳐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29일에 신의주에서 의주로 이동하여 머물렀으며, 30일에는 다시 신의주로 돌아와 머물렀다. 31일에는 정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평양에 도착하였다. 31일과 2월 1일에 평양에 머물렀으며 2월 2일 평양에서 출발하여 황주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개성에 도착하였다. 2월 3일 개성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에 남대문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순종의 서순행에는 궁내부宮內府, 내각內閣, 통감부의 3개 부처에서 279명이 선발되어 호종하였다. 호종원 가운데에는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궁내부 대신大臣 민병석閔丙奭, 시종원侍從院 경卿 윤덕영尹德榮, 내각 총리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內部 대신 송병준宋秉畯, 군부軍部 대신 이병무李秉武, 학부學部 대신 이재곤李載崑 등 궁내부에서 201명, 내각에서 49명이 호종하였다. 일본인으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궁내부 차관次官 고미야 사보마쓰小宮三保松, 내장원內藏院 이사理事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郎介, 「대한의원大韓醫院」 의관醫官 겸 전의典醫 스즈키 겐노스케鈴木兼之助 등 29인이 호종하였다[『순종실록』 2년 1월 21일].

순종은 서순행 시 서구식 대례복인 대원수복을 착용하였으며, 머리도 단발을 갖추었다. 이러한 순종의 차림은 사람들의 단발과 양복에 거부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순종의 서순행시 통감부에서는 연도에 마중 나온 만민들에게 한일 양국 기를 들도록 하였는데, 이때 오산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장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 · 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서순행西巡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http://waks.aks.ac.kr/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39~140쪽

6-2. 관공체官公體 74자, 33 낱자,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2월 3일



제5장 국문시대國文時代 한국韓國개화기開化期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 (1894~1910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개화기開化期는 신문물의 유입, 서구 열강列強의 득세 등으로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나라 안팎에서 요청받던 시기이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은 이러한 내적 욕구와 외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 정치 · 사회적 사건으로, 근대 교육 체재의 정비도 갑오개혁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의 교육을 관장하는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되었고,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 대학大學, 전문학교專門學校 등의 학교 설립이 고시되었으며, 1895년부터 각종 학교 관제官制와 규칙規則이 제정制定, 공포公布되었다.

'개화기開化期'라는 용어에는 응축된 사회 변혁의 의지와 함께 점증하는 외세가 만들어낸 시대의 수많은 변인變因들이 자리 잡고 있다. 개화기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근대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출발점이자 기원이었다.

근대 교육의 도정道程은 내재적 개혁이었던 갑오개혁甲午改革의 흐름 안에서 태동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급진적인 만큼 주체적이나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갑오개혁의 한계와 고스란히 통한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는 동학혁명東學革命에 따른 민중의 요구와 함께,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日本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교과서의 체재와 기술은 한국 어문의 형성과 직결되어 있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근대 지知의 계몽啓蒙과 '국민'이라는 주체 형성과 궤를 같이한다.

개화기開化期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에 담긴 근대 국어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함의含意는 크다. 여기에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선 한 사회의 요구要求와 이상理想이 아로새겨져 있고, 근대국가 성립에 필요한 근대 지知 와 공통감각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교과서는 국가와 국민, 개인과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고 형성되는 구체적인 지표였던 셈이다.

『국민소학독본』에서 『부유독습』에 이르는,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국어교과서와 독본류 14권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생경한 단어와 한자 표현 때문에 원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전대의 텍스트이다.

「2012년 가을 문턱에 편역자 일동, 총서(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발간사 중에서」,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5, 6쪽

근대적 학제에 맞추어 대한제국 학부가 편찬한 최초의 교과서는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1895)이었다.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에서는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국민소학독본』은 그러한 필요에 부합하여 다양한 근대적 지식을 담아 국민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 텍스트이다. 『국민소학독본』 이후 학부는 『소학독본小學讀本』(1895),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1896),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1907) 등을 개발하였으나, 근대 교육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과서들의 내용, 수준, 편차, 성격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묶이지 않는다. 또한 '독본 讀本', '필독必讀', '필지必知'의 제목을 단 상당수의 민간 교과서가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양정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경진출판, 2021년, mykyungjin.tistory.com/91

한글의 부흥기復興期인 국문시대國文時代(1894~1910년)에
활용된 국문서체國文書體를 조망하기 위하여 한국 개화기의
다양한 국어교과서國語教科書를 인용한다.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5. 리봉운,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6.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蔵板, 1906년
7.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연활자본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9.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0.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11.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1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 周時經, 『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13-1.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13-2. 주시경체周時經體

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사민필지士民必知는 1889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ulbert, H.B가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저술을 시작하여 1891년 1월에 첫 책을 출판한 세계 지리서이다.

호머 헐버트는 1886년, 고종 23년 조선의 초청으로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취임해 세계의 지리지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교과서 격인 『사민필지』를 저술했다. 1891년 한글본으로 초판이 나왔고, 1895년 학부學部에서 백남규白南奎 · 이명상李明翔 등이 왕명으로 한문본 『사민필지』를 간행했다.

한편, 1906년에는 아처Archer의 도움으로 『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라는 이름의 수정판이 출간되었다.

초판한글본은 17행×28자 161면이며, 10장의 지도가 수록되었다. 한문본은 10행×20자 71장張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는 실려 있지 않다. 한글본 목차는 제1장 지구, 제2장 유럽주, 제3장 아시아주, 제4장 아메리카주, 제5장 아프리카주로 되어 있고, 총론에서는 태양계와 그 현상, 지구의 모습, 기후 · 인력 · 일월식, 그 밖에도 지구상의 현상, 대륙과 해양, 인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주의 총론은 각 주의 위치 · 지형 · 면적 · 기후 · 인구 · 인종을 적고, 이어 각 주별로 주요 국가의 위치 · 방향 · 기후 · 산물 · 국체 · 인구 · 씨족 · 수도 · 산업 · 군사 · 학업 · 종교 · 나라나무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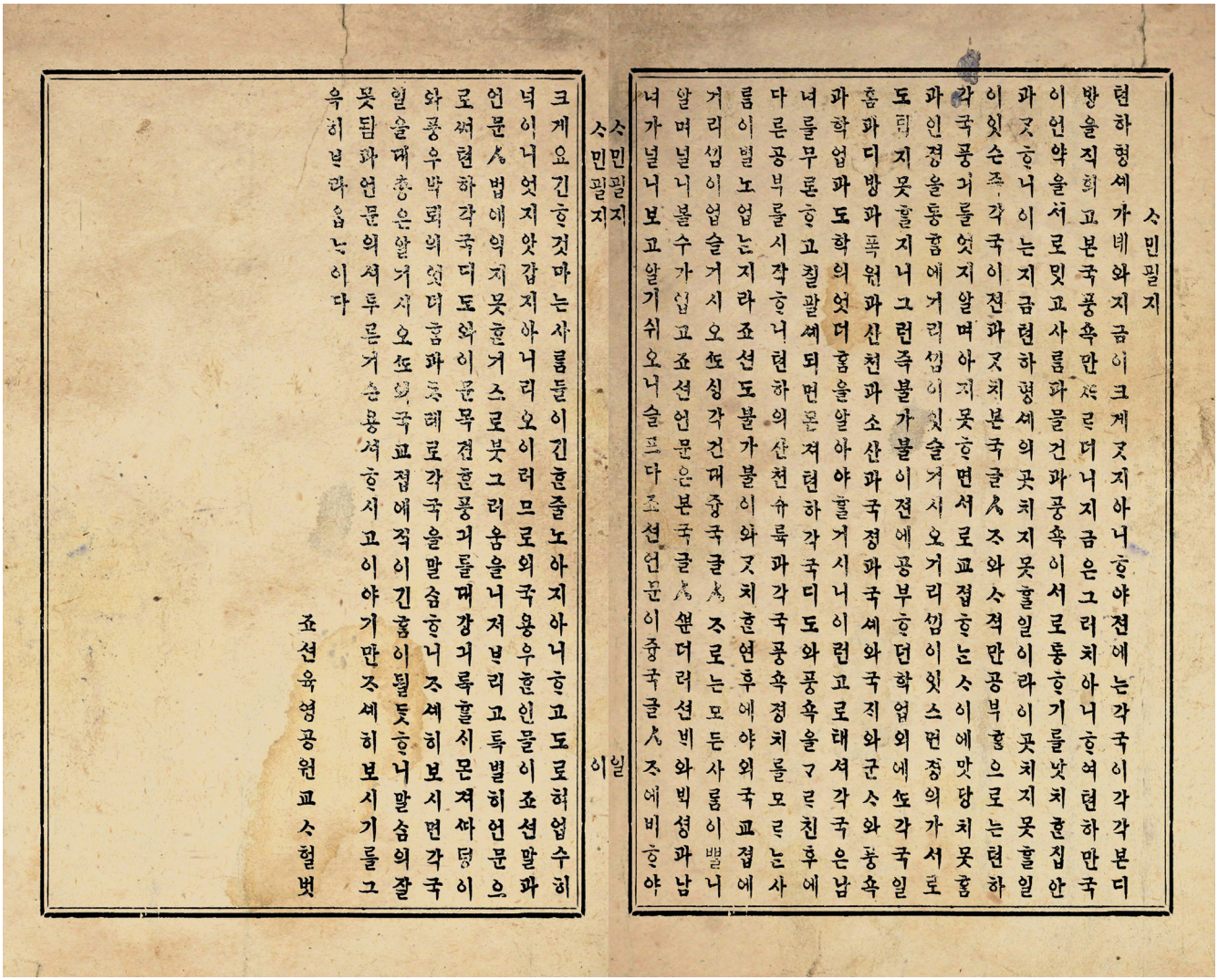
기술상의 특징은 한국을 기준으로 한 점인데, 예를 들면 "일본: 일기는 대한보다 좀 덥고 습기가 많으며……." 와 같은 내용이 그것이고, 각국의 수출입액은 한국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표시했다. 비록,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지만, 한국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로, 아직 세계정세에 대해 백지상태이던 한국에 세계 지리 지식을 꾸밈없이 심어주어 세계에 눈을 돌리게하고, 근대화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글 전용인 이 책은 1890년대 국어 연구의 자료가 된다. 표기법에서 한글만으로 쓰면서도, '글ㅅ자, 언문ㅅ법' 등 사이시옷이 사용되고, 된소리 표기에 전통적인 된시옷과 함께 'ㄲ, ㅆ' 등이 '뿔니, 똑똑이' 등과 같이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외국, 특히 유럽의 국명이 영어식 발음에 따라 '유로바 · 노웨국 · 쉬덴국 · 덴막국 · 네데란스국' 등으로 적히고, 바른쪽에 가로줄을 친 점도 특이하다. 참고로 한문본에서는 위 지명이 '구라파歐羅巴 · 나위那威 · 서전瑞典 · 정말丁抹 · 하란荷蘭'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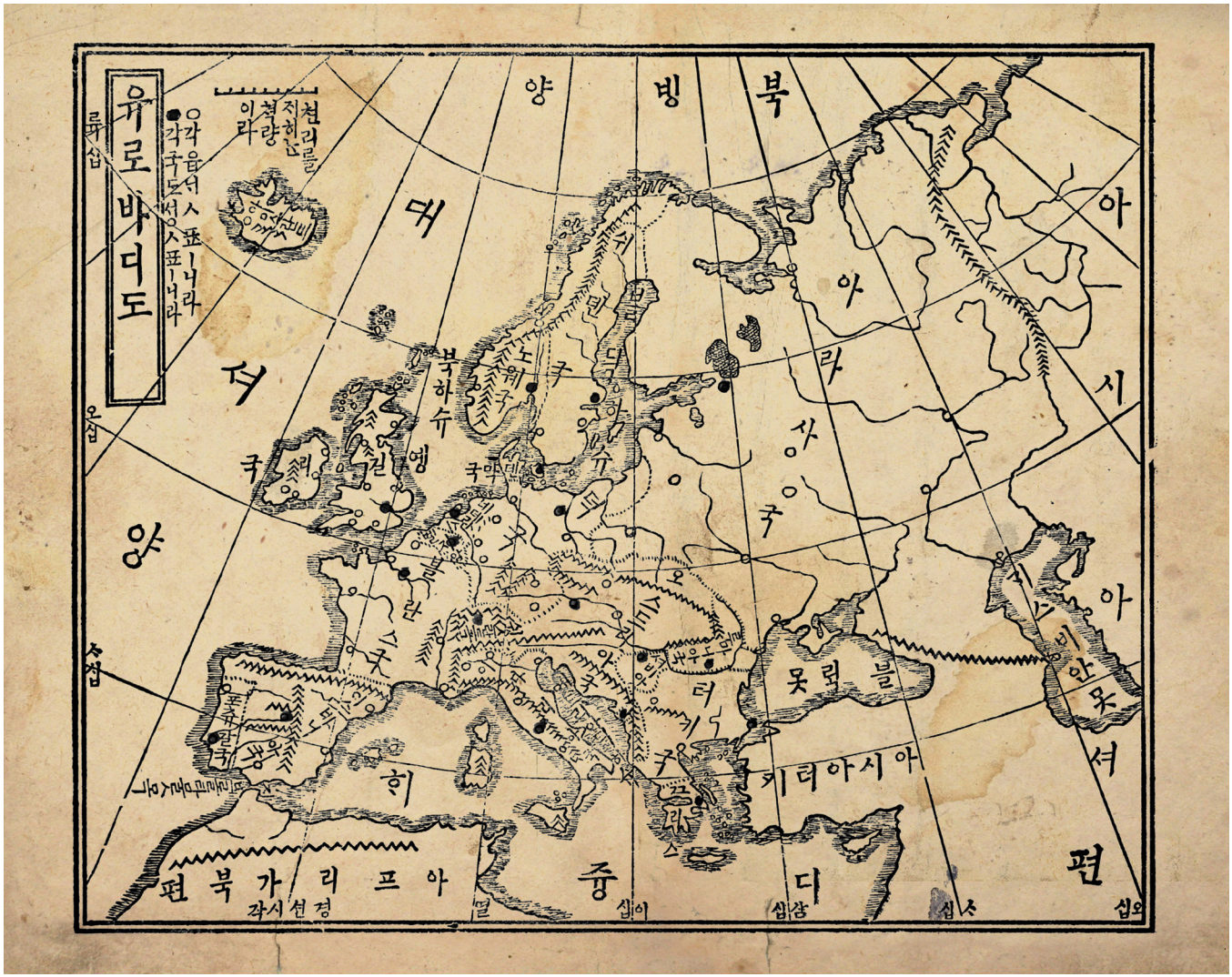
김동진,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81~92쪽
『사민필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620

『사민필지』(도판 5-2)에보면 저자는 '조션육영공원교ᄉᆞ헐벗'으로 되어있으나, Hulbert, Homer B.의 다른 이름으로 Hulbert Homer Bezaleel ; 헐버트 호머 ; 헐버트 호머 B ; 헐버트 H B ; 헐벗 ; 허흘법 ; 허할보 ; 할보 ; 흘법 ; 하루바토 H B ; ハルバート H B가 있다. Hulbert, Homer B., 국립중앙도서관 isni KOREA, www.nl.go.kr/isni/000000008114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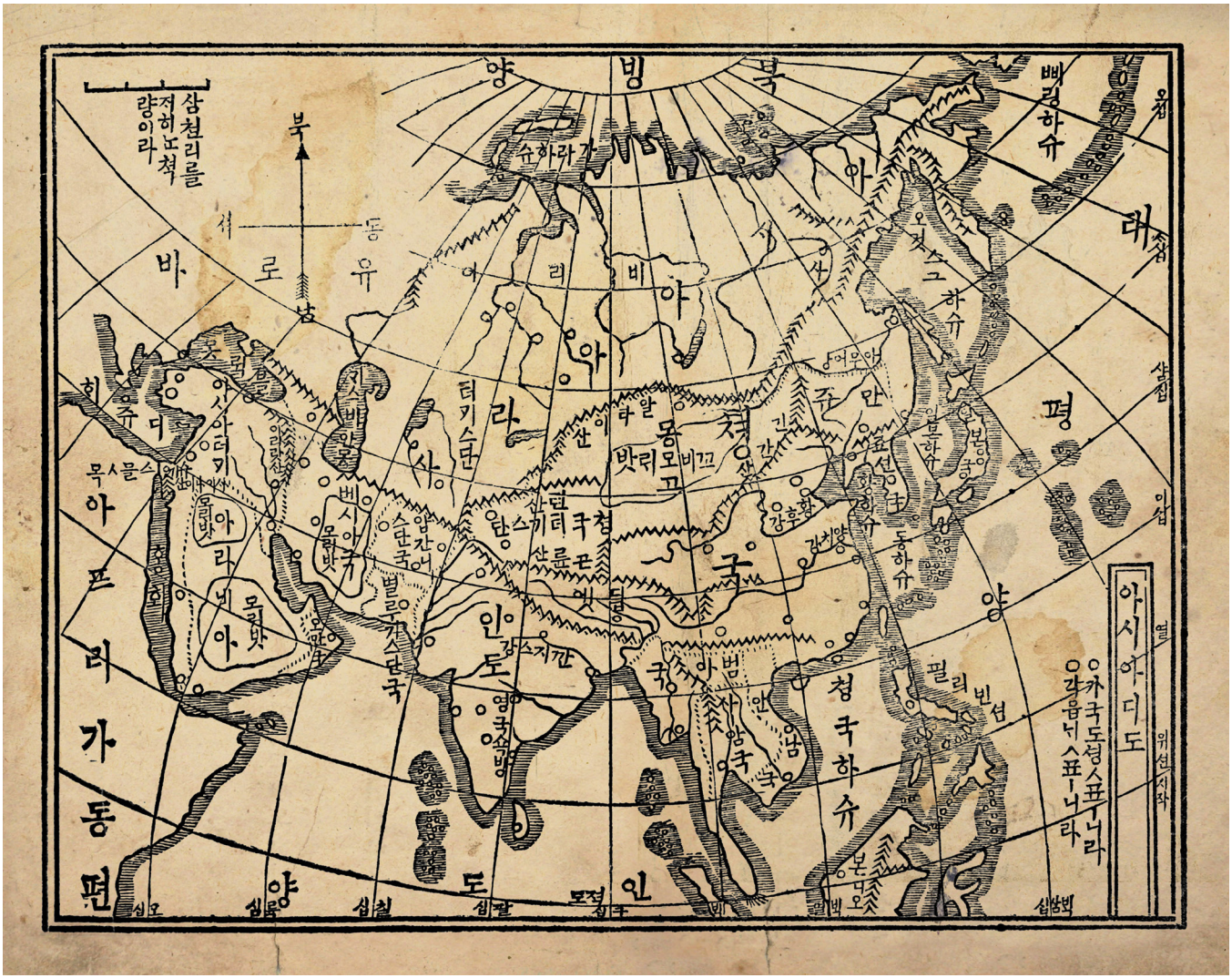
도판 5-2.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1쪽, 2쪽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3. 유로바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4. 아시아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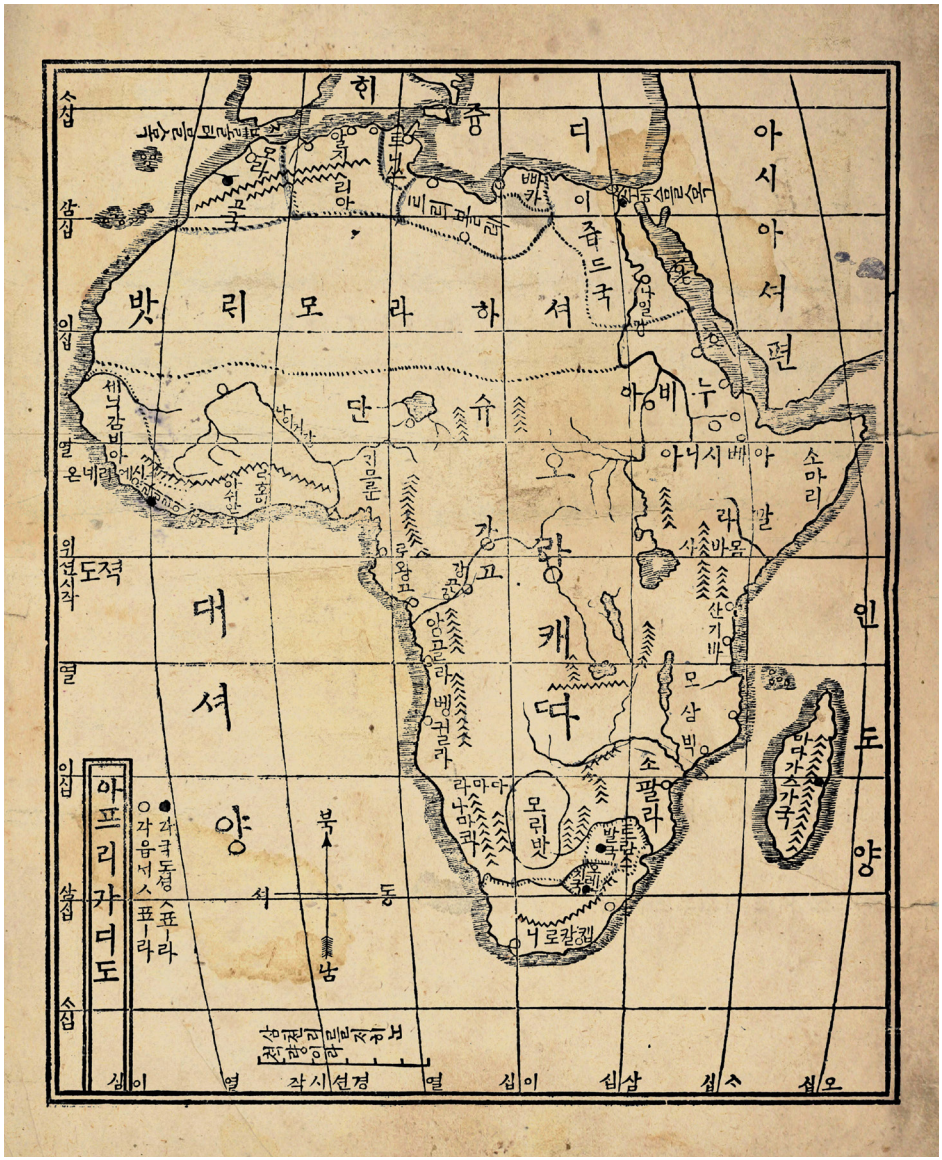


도판 5-5. 북아메리까디도 北亞米利加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6. 남아메리까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7. 아프리가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8. 오스드렐랴태평양셤디도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2.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國民小學讀本 全

國民小學讀本 天

第一課 大朝鮮國

第二課 廣智識

도판 5-9.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3.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小學讀本

小學讀本 天

立志部 一

도판 5-10.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은 갑오개혁 이후 '학부學部'에서 편찬,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간행한 신 교육용 교과서이다. 1895년 음력 7월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官撰 교과서로 오늘날의 국정교과서國定敎科書에 해당한다. 제1과 「대조선국」에서 제41과 「성길사한2」에 이르기까지 모두 41과로 편성되어, 우리의 역사와 인물, 근대 생활과 지식, 서양 도시와 역사와 위인 등을 다루고 있다. 서양 문명의 수용과 침략적인 외세의 진출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었던 당대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민족적 의지와 자주독립, 주권 수호의 시대적 사명감 등이 강하게 투사되어 있다.

단원의 구성이나 내용은 '국민 소학'이라는 표제와 달리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많다. 이 책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초등학교용 교재라기 보다는 당대 정부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국민교육용 교재라 할 수 있다.

『국민소학독본』은 조선의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기에 본격적인 근대 교과서, 특히 국어과 교과서의 탄생을 알리는 매체로 민족주의의 산물이자 응결체였다는 점, 아울러 서구와 일제日帝라는 강국에 둘러싸여 갈등하는 당대 정부의 고뇌와 지향을 집약된 형태로 보여주는 문화사적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소학독본小學讀本』은 개국 504년(1895) 중동仲冬(11월)에 목활자본木活字本으로 간행된 한지韓紙로 된 한장본韓裝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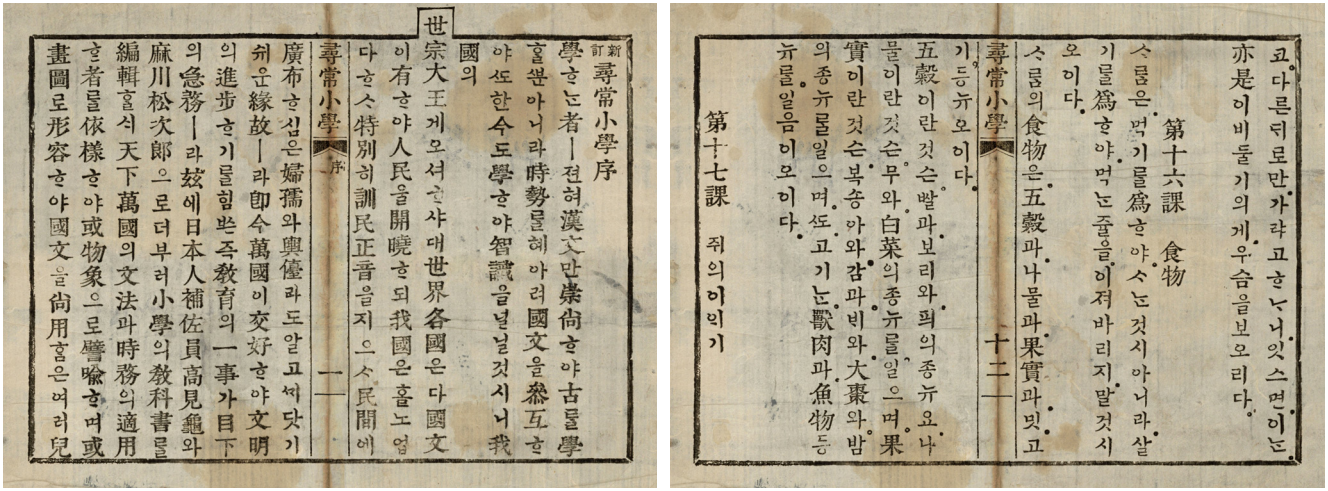
같은 해 가을에 간행되었던 『국민소학독본』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비교적 난도 높은 한자가 사용된 장문의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어 있다.

『소학독본』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된 직후에 간행된 수신서로서 지금의 교과서와는 많이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소학小學'이라는 제명 그대로 이 교과서는 초심자를 위한 수양 입문서라는 외양을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용된 한자의 수준은 중급 이상이다. 또한 이 교과서는 전통 학문에서 근대 학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소학독본』에는 군주제 국가로서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스스로 실리적인 사고와 실천력으로 무장한 신민臣民 양성으로 이어지는 궤적과 함께 유교적 이념에 근간을 둔 국민과 개인의 구체적인 상이 감겨 있다. 비록 이듬해에 간행된 『신정심상소학』(1896)의 성격이 일본 색채가 깃든 교과서로 바뀌고 말지만,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학독본』이 가진 개화기 최초의 수신교과서修身敎科書로서의 위상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임하 편역, 『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4.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新訂尋常小學序

學ᄒᆞᄂᆞᆫ者ㅣ젼혀漢文만崇尙ᄒᆞ야古를學ᄒᆞᆯ분아니라時勢를혜아려國文을兼互ᄒᆞ야또한ᄉᆞ도學ᄒᆞ야智識을널닐것시니我國의

世宗大王게오셔ᄉᆞᆫ샤대世界各國은다國文이有ᄒᆞ야人民을開曉ᄒᆞ되我國은홀노업다ᄒᆞᆫᄉᆞ特別히訓民正音을지으ᄉᆞ民間에

尋常小學 序 一

廣布ᄒᆞ심은婦孺와輿儓라도알고쉬닷기쉬운緣故ㅣ라卽ᄉᆞ萬國이交好ᄒᆞ야文明의進步ᄒᆞᆫ기를힘쓴즉敎育의一事가目下의急務ㅣ라玆에日本人補佐員高見龜와麻川松次郎으로더부러小學의敎科書를編輯ᄒᆞᆯ시天下萬國의文法과時務의適用ᄒᆞᆫ者를依樣ᄒᆞ야或物象으로譬喩ᄒᆞ며或畫圖로形容ᄒᆞ야國文을尙用ᄒᆞᆯ은여러兒

ᄀᆞᆫ다른ᄃᆡ로만가라고ᄒᆞᆫᄂᆞ니잇스면이ᄂᆞᆫ亦是이비둘기의게우슴을보오리다。

第十六課 食物

ᄉᆞᄅᆞᆷ은먹기를爲ᄒᆞ야ᄉᆞᄂᆞᆫ것시아니라살기를爲ᄒᆞ야먹ᄂᆞᆫ줄을이져바리지말것시오이다。

ᄉᆞᄅᆞᆷ의食物은五穀과나물과果實과밋고

尋常小學 十二

기등뉴오이다。

五穀이란것ᄉᆞᆫ발과보리와픠의종뉴요나물이란것ᄉᆞᆫ무와白菜의종뉴를일으며果實이란것ᄉᆞᆫ복숑아와감과비와大棗와밤의종뉴를일으며또고기ᄂᆞᆫ獸肉과魚物등뉴를일음이오이다。

第十七課 쥐의이익기

도판 5-11.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 12쪽
1896년 음력 7월에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에서 편찬한 신정심상소학은 국한문 혼용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정리자整理字)이다.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은 1896년 조선의 학부가 새로 만든 국어교과서이다. 3권 3책으로 구성되었고 국한문혼용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1895년의 『국민소학독본』에 비해 대체로 문장의 길이가 짧고, 한자의 쓰임새가 적으며, 한자의 난도도 높지 않다. 특히 내용과 단원 구성을 비교해 보면, 『국민소학독본』은 국기, 역사, 지리 등이 중심이 된 데 반해 『신정심상소학』은 생활, 가정, 사회 등 일상의 제재가 평이한 수준으로 엮인 것이 특징이다. 『신정심상소학』(1896)은 근대적 국어 교과서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을 수립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일제의 정교한 교육 전략의 소산이며, 식민 지배를 위한 '정형화定型化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채택한 국한문체 역시 본질적으로는 근대적지식을 빠르고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선의 선택이자 일제의 산물인바, 일본의 문화 통합이 낳은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조선어 교과서 개발과 참여는 조선의 말과 글을 가르치기보다는 국민(나아가 일제의 신민)을 향한 통치 이념과 정책 보급에 궁극적 목표가 있었던 까닭이다.

구자황 편역, 『신정심상소학 (학부 편집국 편찬)』,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5. 리봉운李鳳雲,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2.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3.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1897년(건양 2)에 리봉운李鳳雲이 지은 국문 연구서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문 확립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저술이다. 저자는 국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문에 대한 독창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어에 대한 체계적 이론서라기보다는 국문에 대한 일종의 논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내용에는 '자모 규식, 장음 반절 규식, 단음 반절 규식, 받침 규식, 언어 장단 규식, 문법론, 문법 말 규식, 탁음 규식, 어토 규식, 새 언문 규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말에 '학부대신 민죵목씨' 등의 '열람'이라 있는데, 같은 해에 간행된 이득수의 『국문정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으므로 당시 학부學部의 인정을 받은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형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순純한글로 쓰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갑오경장 이후 위상이 높아진 한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권점圈點을 통해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각 어절의 오른쪽 끝에 권점을 찍어 띄어쓰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조사와 어미를 어간에 붙여 쓰도록 한 조처는 현재의 맞춤법 규정과 동일하다. 다만 일부 관형형과 체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셋째, 고유명사 중에서 인명人名은 홑줄로, 지명地名과 국명國名은 겹줄로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그 이전 시기 성경의 번역본에 나오는 체제와 같은 것이다. 한편 리봉운이 제안한 국문 확립 방안 중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에는 장단, 고저, 청탁의 구별이 있으므로 국문에 이러한 구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장단의 구별을 중시해서 기존의 반절을 '장음반절규식'이라고 하고, 여기에 새로 '단음반절규식' 176자를 만들어 장음과 단음의 구별을 국문에서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리봉운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일본어의 특징을 기준삼아 국문을 확립하려 한 결과로 보인다. 이득수의 『국문정리』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둘째, 자모의 분류를 좌모자左母字, 우모자右母字, 종성終聲으로 구분했다. 자음은 모두 좌모자에, 모음은 모두 우모자에 속하게 하여 분류하고 있다.

『국문정리』, 조광국(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38_00&notes=basic



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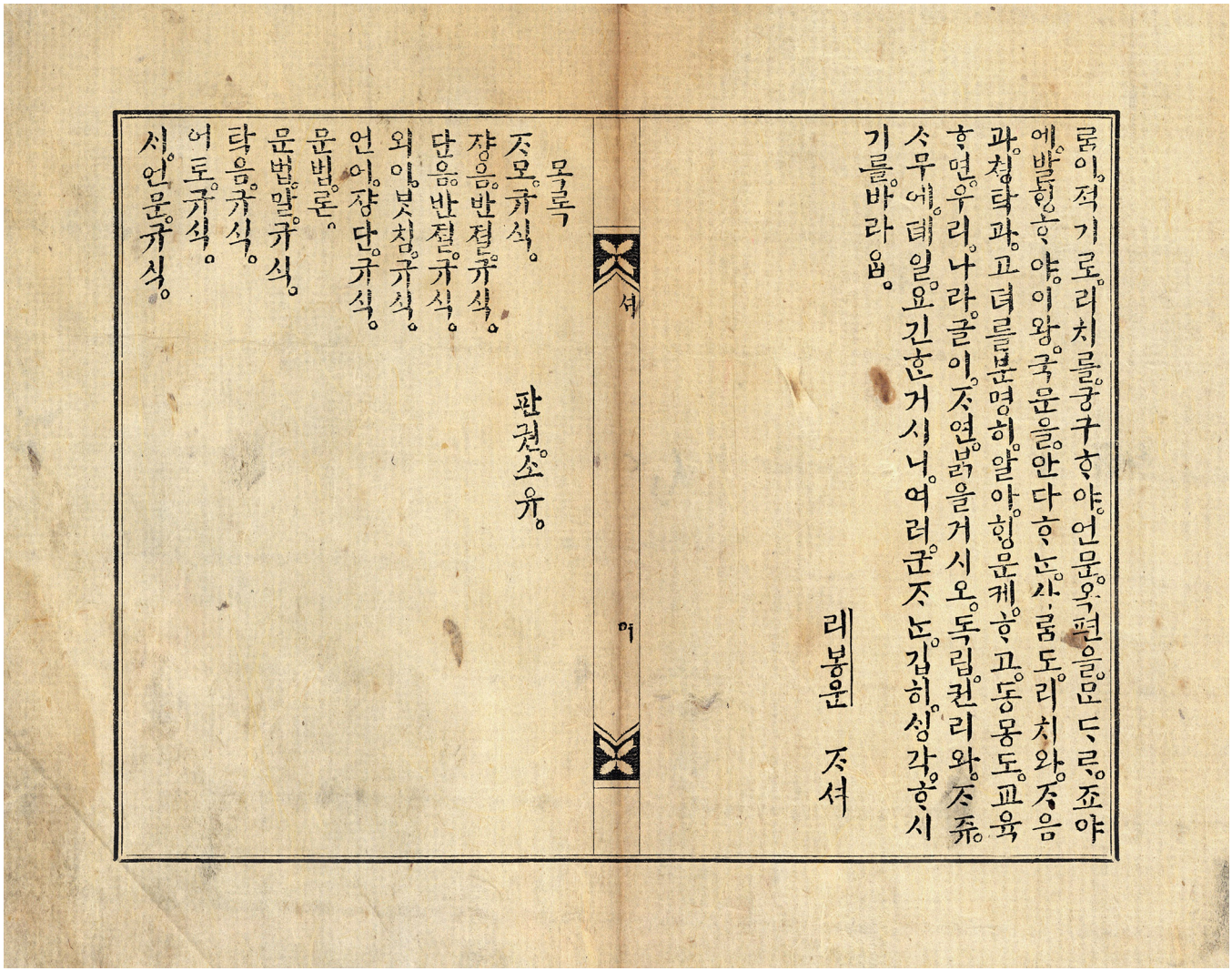
나라의 흥ᄒᆞ기는 ᄅᆡ항의 션비ᄂᆞᆫ 죠정의 공경이ᄂᆞ 츙심은 ᄒᆞᆫᄀᆞ지기로 젼정을 말ᄒᆞᄂᆞ니 대뎌 각국 사ᄅᆞᆷ은 본국 글을 숭상ᄒᆞ야 학교를 셜립ᄒᆞ고 학습ᄒᆞ야 국정과 민ᄉᆞ를 몽ᄒᆞᆯ일이 업시ᄒᆞ야 국부민강ᄒᆞᄂᆞᆫ 것ᄆᆞᄂᆞᆫ 죠션 사ᄅᆞᆷ은 남의 나라 글 ᄆᆞᆷ숭상ᄒᆞ고 본국 글은 아죠ᄅᆡ치를 알지 못ᄒᆞ니 졀통ᄒᆞᆫ지라

셰종조께 읍셔 언문을 ᄆᆞᆫᄃᆞ 섯것ᄆᆞᄂᆞᆫ ᄌᆞ고로 국문 학교와 션ᄉᆡᆼ이 업셔 ᄅᆡ치와 규법을 ᄀᆞᄅᆞ치여 빈호지 못ᄒᆞ고 입문ᄒᆞᆯ녀 가갸거겨ᄒᆞ야 음문입에 올녀 안다ᄒᆞ되 음도 분명히 모ᄅᆞ니 ᄒᆞᆫ심ᄒᆞᆫ지라 금쟈에 문명진보ᄒᆞ랴ᄒᆞᄂᆞ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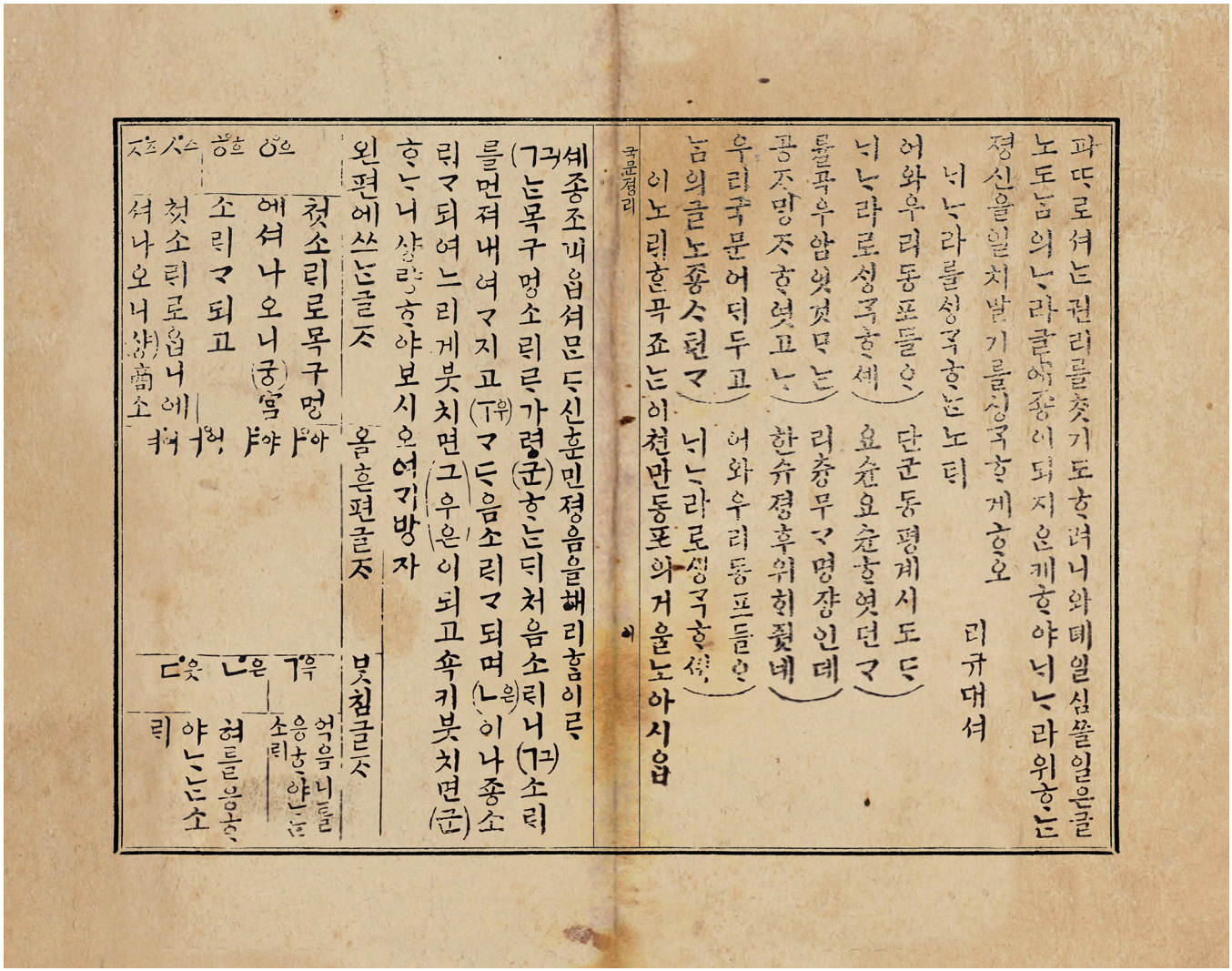
셔 일

ᄯᅴ요 ᄯᅩᄒᆞᆫ 태셔각국 사ᄅᆞᆷ과 일쳥 사ᄅᆞᆷ들이 죠션에 오면 위션션셩을 구ᄒᆞ여 국문을 비호기로 반졀리치를 무ᄅᆞ면 ᄃᆡ답지 못ᄒᆞᆫ즉 각국 사ᄅᆞᆷ들이 말ᄒᆞ되 너희 나라 말이 쟝단이 잇시니 언문에 도ᄃᆞ구별이 잇서야 올흘거신ᄃᆡ 글과 말이 ᄀᆞᆺ지 못ᄒᆞ니 가히 우슙도다 ᄒᆞ고 멸시ᄒᆞ니 그러ᄒᆞᆫ즉 ᄎᆡ가 어ᄃᆡ 잇시리오 외국 사ᄅᆞᆷ의 션싱도 ᄅᆞᆺᄒᆞᄂᆞᆫ 사ᄅᆞᆷ 묘ᄉᆞᄎᆡ가 아니오 젼국이 다ᄉᆞᄎᆡ가 되니 그러ᄒᆞᆫ즉 ᄉᆞᄎᆡ 붓ᄂᆞᆫ 거시 ᄒᆞᆼ분ᄒᆞ고 ᄯᅩᄒᆞᆫ 죵ᄌᆞ독립의 ᄅᆡ치로 말ᄒᆞ야도 남의 나라 글 ᄆᆞᆷ위쥬ᄒᆞᆯ 거시 아니오 ᄯᅩᄒᆞᆫ 비유로 말ᄒᆞ야도 그 부모ᄂᆞᆫ 공경치 아니ᄒᆞ고ᄃᆞ 로사ᄅᆞᆷ만ᄉᆞ랑ᄒᆞᄂᆞᆫ 모양이니 문명의 뎨일요긴ᄒᆞᆫ 거슨 국문이 ᄃᆡ반졀리치를 알아 사

도판 5-14.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셔, 일쪽



도판 5-15.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셔, 이쪽



도판 5-16.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이쪽

6.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敎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 大韓國民敎育會藏板, 1906년

『초등소학初等小學』은 대한교육회가 1906~1907년에 간행한 교과서이다. 『초등소학』은 총 4책 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서의 발행과 인쇄처는 모두 대한교육회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면 이 책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초등소학』의 간행을 맡은 대한교육회는1900년대 휘문 의숙 편집부, 휘문관, 보성관 등과 함께 검정교과서를 활발히 출원한 단체다. 『초등소학』을 비롯하여 『신찬소물리학』, 『대동역사략』등 같은 시기에 대한교육회에서 발간한 각종 교과서는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애국 계몽 운동에 힘입어 교과용 검정 규정과 소위 출판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07년 말까지 광범한 보급권普及權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년, 316쪽

『초등소학』은 표지와 목차, 단원명과 본문, 삽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한문혼용체로 쓰였다. '한글 깨치기' 성격이 강한 권 1에는 오늘날 소위 '의미 중심 교수법'에 해당하는 방식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이 구현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그림과 단어를 함께 제시하여 한글 자모의 소리와 결합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은 대개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등 애국 계몽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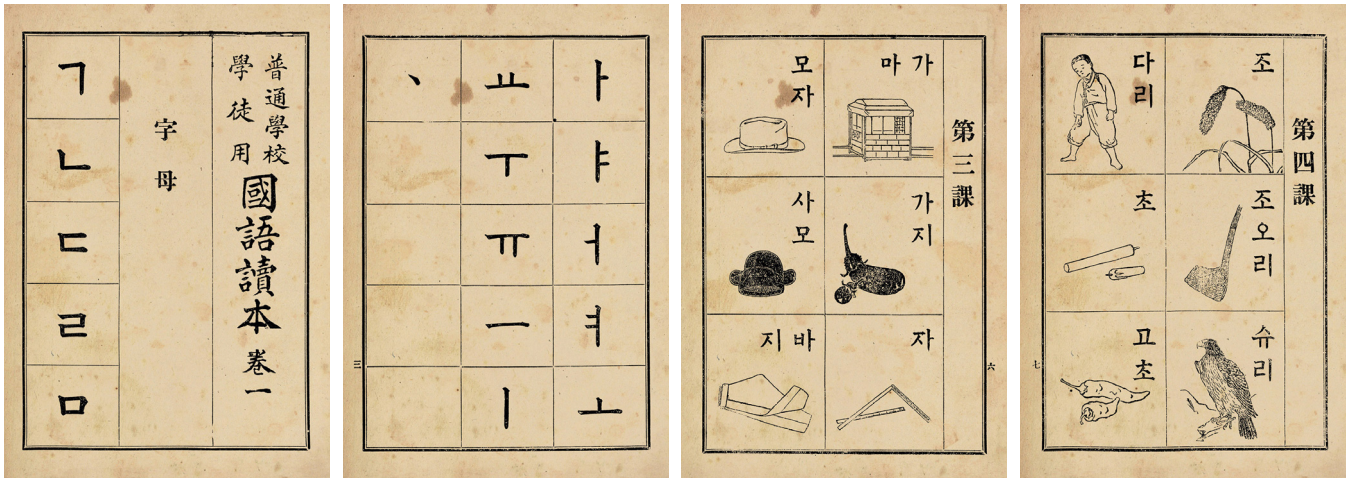
박치범, 박수빈 편역, 『초등소학 (상)(국민교육회 저)』,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도판 5-17.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敎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敎育會藏板, 1906년, 26, 31쪽

7.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연활자본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도판 5-18.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연활자본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1쪽, 3쪽, 6쪽, 7쪽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은 1907년 2월 1일 학부에서 편집하고, '대일본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한 교과서이다. 권두의 해제에 따르면, 초판은 『국어독본』으로 발행되었다가 1908년에 내용 일부가 정정되면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으로 재판되었다.

주지하듯이 통감부 시절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학정 참여관 미츠지 추조三土忠造이다. 1906년 4월부터 6월 20일까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초대 학정 참여관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를 해임하고 당시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이던 미츠지를 임명했다. 그는 이미 일본에서 교과서 편찬 경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은 1909년까지 수신서 4책, 일어독본 8책, 한문독본 4책, 이과서 2책, 도화독본 4책, 습자첩 4책, 산술서 4책 등과 함께 미츠치의 기획으로 완성되었다.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은 문자나 어휘, 문장 학습 중심으로 구성된 권1을 제외하고 어문교과語文教科로서 국어과國語科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은 몇몇 우화 중심의 단원이 전부이다. 오히려 국어독본의 전체적인 모습은 과학이나 일상생활에서 근대적인 제도나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과 한국의 정치나 외교 관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취사선택하여 일본 침략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임나와 신공황후의 존재를 명시한다거나 한국의 왕조가 주로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통감부나 일장기 등 일본의 정치나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배치하여 그 침략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강제 병합 이후에 나온 국어교과서에 비하면 한국의 전통이나 사상을 고려하는 내용을 배치한 흔적도 눈에 띄지만 그 분량은 극히 미미하다.

김혜련, 장영미 편역,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상)(학부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8.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최신 초등소학1』은 융희 2년(1908) 7월에 간행된 소학교용 교과서·독본이다. 4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우문관에서 인쇄본으로 제작하여 유통하였다.

편술 겸 발행은 정인호, 교정은 이충건이 맡았다. 정인호는 한일병합 후 군수로 역임했으나, 삼일운동을 전후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군자금을 모집하여 송금하려다 발각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최신 초등소학』에서는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애국심, 자강사상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편술자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신 초등소학』의 본문과 주석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본문은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로다', '더라', '더냐' 등의 어미를 주로 사용하여 언문일치를 꾀하고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한문체는 엄밀히 말하면 국어의 통사統辭가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주한종체國主漢從體에 해당한다. 이는 개화기 이후 전개된 언문일치 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4권 중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1권은 한자漢字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거의 한글로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편술자 정인호는 이 책을 통해 독자인 학생들의 애국심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각 장에는 한두 개의 중심 소재가 마련되어 있는데, 소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그 특성에 빗대어 교훈을 주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매나 식물의 뿌리와 같은 자연물에 대한 설명문의 성격을 지닌 단원에서도,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더하여 그 자연물의 성질에 빗대어 학생에게 교훈을 주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책은 상당 부분에서 당국과 마찰을 겪는다. 을지문덕이나 정몽주, 거북선 등 역사적인 인물이나 유산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독립 정신을 강조하는 단원들은 집필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으나 현재의 판본에는 삭제되어 있다. 이 독본이 발행된 시기가 한일병합 이전이지만 이미 학부 당국에서 일본인과 친일파의 득세가 두드러지던 시기였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결국 『최신 초등소학』은 1909년 학부 지시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한일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압수 · 분서焚書 처리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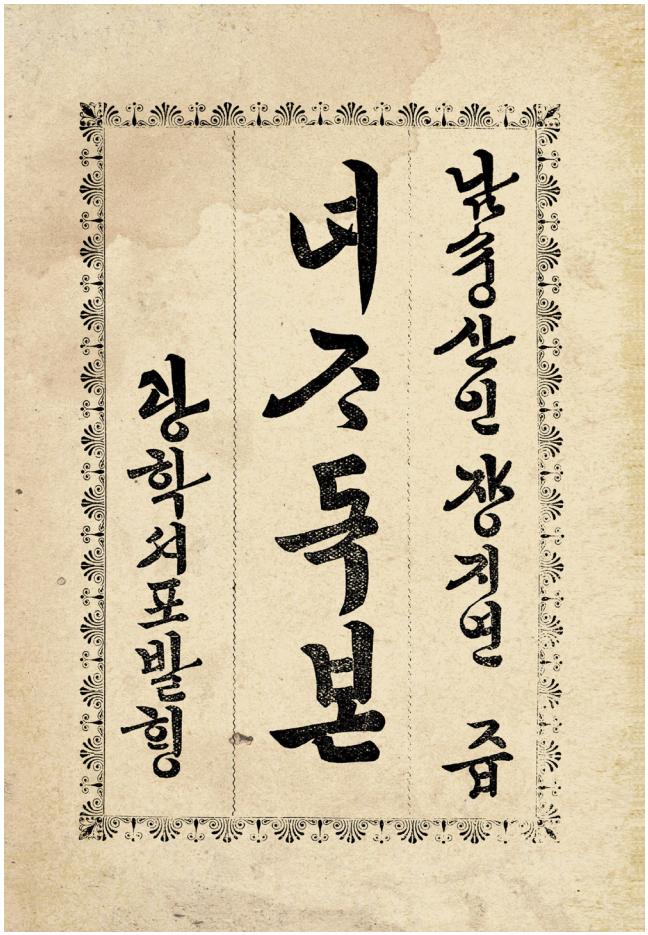
『최신 초등소학』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이때 동원되는 소재는 벌, 미역, 도요새, 소나무와 같은 자연물에서부터 '비를 무릅쓰고 책을 돌려주다', '바른말 하는 학도', '문명한 기상' 등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짧은 삽화들, 그리고 최치원, 정약용, 민영환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소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언어를 교육하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원된 소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술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호출되어 배치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한일병합 직전이라는 당대의 시대적 문맥 속에서 편술자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 1906년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보통학교령' 이 반포됨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교육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신 초등소학』이 위치한 1908년이란 시점은 곧 이 책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구국救國'과 '식민지화植民地化'라는 서로 병행할 수 없는 목적이 충돌하던 한 가운데 『최신 초등소학』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이승윤, 김준현 편역, 『최신초등소학(정인호 편술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19.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5~8, 26, 52쪽



도판 5-20.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1908년 장지연이 여성의 국어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상 · 하 2권으로된 순국문체의 인쇄본 교과서, 독본이다. 상권은 총론 · 모도母道 · 부덕婦德 · 정렬貞烈 · 잡편雜篇 등 5장 64과로 되어 있고, 하권은 장의 구별 없이 56과로 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 현모 · 현부의 사적을 열거하여 이상적인 유교적 여인상을 제시하였고, 하권은 주로 중국과 서양 여성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서양 여성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활동을 그려 신여성의 전범典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편찬 방법 및 기술상의 특징은 순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간혹 한자를 곁에 달았으며, 각 단원 끝에는 본문에 사용한 한자의 음과 훈을 별도로 묶어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상권의 총론에서는 국민의 지식이 가정교육의 발달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여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제2장 모도편에서는 김유신金庾信 · 정여창鄭汝昌 · 이항복李恒福 · 이이李珥 등의 어머니가 지녔던 부덕과 엄정한 가정교육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부덕편에서는 신라시대 소나素那의 처, 고구려 온달의 처, 신숙주申叔舟의 처인 윤부인尹夫人 등의 예화를 통하여 내조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제4장 정렬편에서는 석우로昔于老 · 박제상朴堤上 · 도미都彌의 처 등 정절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여인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제5장 잡편에서는 기생 · 무녀 등 천민 가운데에서 뛰어난 행적을 지녔던 인물들을 싣고 있다.

하권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여인 중에서 국가존망의 위기를 맞아 나라를 구한 영웅담과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절과 부덕을 지닌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맹모孟母 · 방아가녀龐娥賈女 · 마리타馬利他 · 여안如安 등 25명의 행적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여성용 교과서의 편찬 및 출판이 극히 제한되었던 개화기에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인 교재로 평가된다. 1910년 11월 일제에 의하여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36459

10. 유길준俞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1. 유길준俞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이 책의 목차 앞에는 상징적인 삽화 한 장이 실려 있다.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은 노동야학회 고문 유길준 씨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맨발에 짚신을 신은 '노동자'의 대화 장면이 그것이다.

조윤정 편역, 『노동야학독본(유길준 저술 및 발행)』, 도서출판 경진, 2012년, 8쪽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은 유길준俞吉濬(1856~1914)이 저술한 노동자 교육용 교과서이다.

갑오개혁 이래 근대 교육이 실시되면서 근대적 교육 기관 설립이 증가하는 한편 국어, 역사, 지리, 수학, 정치, 경제, 과학 등 근대 교과서의 저술, 출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역시 근대적인 교육을 위해 1908년 7월 경성일보사에서 출판된 교과서로 총 91쪽 분량으로 3,000부가 발행되었다. 이 책은 일반 학교가 아닌 야학에서 공부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였다.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사립학교 설립 운동과 함께 야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야학들 중 노동야학회의 경우 서울에서만 1만여 명을 넘어서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지회 설립을 통해 지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노동야학회의 고문을 맡고 있으면서 야학에서 사용할 교재로 『노동야학독본』을 저술했다.

교과서는 총 50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문체를 위주로 하고 한문 훈독을 기재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의무, 권리, 윤리에 관한 것이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 군주와 국가에 대한 충군과 애국심,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것이다.

『노동야학독본』은 제도권 교육 기관에서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들과 일반 민중을 위해 설치된 야학의 교재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노동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고 계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야학독본』의 노동,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당시 계몽 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반영이기도 했다.

『노동야학독본』,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0&levelId=tg_004_0240&ganada=&pageUnit=10


大韓文典 全

緒言

本著者가國語文典의研究로三十星霜을經ᄒᆞ야稿를易ᄒᆞ이凡八次에此書가始成ᄒᆞ니敢히完美ᄒᆞᆫ域에入ᄒᆞ다謂ᄒᆞᆯ지못ᄒᆞᆯ진則大方의一顧에資ᄒᆞᄂᆞᆫ바ㅣ有ᄒᆞᆯ이오며此를因ᄒᆞ야海內의注意를喚ᄒᆞᄂᆞᆫ者ㅣ中間第四次稿本이世間에誤落ᄒᆞ야愛書家의印佈ᄒᆞᆷ이再版에至ᄒᆞ나然ᄒᆞ나該稿本은舛謬를點이多ᄒᆞ야讀者의惑을反滋ᄒᆞᆯ慮가有ᄒᆞᆷ이라是를懼ᄒᆞ야一言을贅ᄒᆞ노라

隆熙三年孟春嘉松館

天民居士 識

大韓文典 緒言 二

도판 5-22.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緒言 一, 緒言 二

『대한문전大韓文典』,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은 개화사상가이자 정치가인 유길준(185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한 국어문법서이다. 1909년 융문관隆文館에서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언緖言에 의하면, 30년 동안 국어문법을 연구하면서 원고고치기를 8차에 이르러 이 책이 이루어졌으며, 그 제4차 원고본이 세간에 잘못 흘러 재판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로서는 개고를 8번이나 거듭한 끝에 이룩한 최종의 완결본이나, 최초의 문법가인 저자의 그러한 저술이 출판된 것은 최광옥崔光玉의 이름으로 출판된 『대한문전』(1908.1.),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11.)에 뒤이어 세 번째가 되었다.

저자 유길준은 11년간(1896~1907) 일본에 망명하여 있었고, 그 사이에 국어문전을 집필하여 『조선문전』의 여러 필사본과 유인본을 남겼으므로, 당시 나돌던 문전의 이본이 몇 가지에 이른다. 내용으로 보아 유길준 저술로 밝혀진 조선문전과 최광옥의 『대한문전』과 이 책의 3종인데, 이 3종이 모두 유길준의 저술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선, 『조선문전』의 서序와 이 책의 서언과의 취지가 같고, 특히 그 가운데 한 부분은 『조선문전』의 서와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것은 『조선문전』이 유길준의 저술임을 확인하는 증거인 동시에, 『조선문전』과 내용이 같은 최광옥의 『대한문전』도 유길준의 저술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 책은 자서自序와 서론緖論 · 언어론 · 문장론의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서론에서는 문전의 의의와 음운론 · 문자론 등을 다루고 있고, 제2편 언어론에서는 품사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3편 문장론에서는 문장 성분의 종류, 문장의 종류, 문장의 호응呼應 및 해부解剖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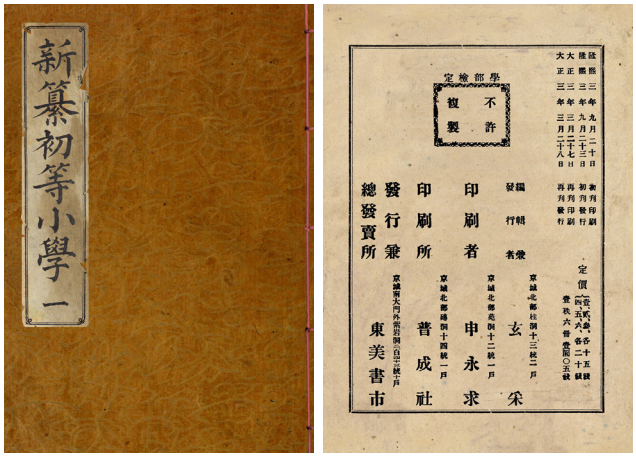
이 책은 교과서의 체재를 갖추고 있는데, 이전의 이본들에 비하면 훨씬 체계화되고 자세하며 정돈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최광옥 저술로 출판된 『대한문전』(1908)과 비교하면, 품사인 어종語種은 이전의 후사(조사)를 접속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어미에 해당하는 조동사를 독립시켜 같은 수의 8 품사가 되었으나, 음운의 3종인 모음과 부음 및 자음의 분류가 일치하고, 음운변이인 몽수蒙受와 축약, 명사의 세 종류와 대명사의 네 종류 및 그 수량, 동사의 자동과 타동 및 주동과 피동의 구분, 동사의 시제 및 변화, 조동사의 종류 등 또한 같다.

물론, 형용사에서와 같이 내용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자세하게 체계화한 부분도 있고, 접속사에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나 체계상 같은 부분도 있다. 또한, 개고판이기 때문에 용어의 변경이나 설명과 용례의 증보 및 하위 분류의 재조정 등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은 제3편 문장론이 가장 뚜렷하여 분량도 많이 늘어났다.

『대한문전大韓文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4999

1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3.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신찬초등소학1』은 1909년(융희 3)에 현채玄采(1886~1925)가 지은 사찬私撰 국어교과서다. 번역가이자 역사가였던 현채는 『신찬초등소학』에 앞서 초등학교 교과서 『유년필독幼年必讀』(1907)을 집필하였으며, 이 책은 당시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읽혔다. 그러나 애국심과 민족사상 고취를 근간으로 삼았던 『유년필독』은 1909년 5월 일제에 의해 발표된 '출판법'에 의하여 강제 압수 및 발매금지 당한다. 그 후 『유년필독』을 대신할 교과서로서 『신찬초등소학』이 출간되었다.

『신찬초등소학』의 내용은 기초 지식이나 일반 상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권 1은 특별한 제목 없이 자모字母와 철자의 보기를 들고, 낱말 익히기 형식의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2~6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우화寓話 형식의 비유를 통하여 기본적인 상식, 혹은 교훈을 전달하는데 주력한다. 이것은 크게,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 지식'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도리', 그리고 '조선의 지리와 역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 부분으로는 '닭', '누에', '나무', '기름' 등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단원과 '동서남북', '헤는 법', '7요일', '촌수 알기' 등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단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시계', '지남침', '기차', '군함' 등 근대화와 관련된 서구 문물에 대한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편지 쓰기 양식이 예시되어 형제간에, 혹은 친구 사이에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신찬초등소학』에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다만, 권 4의 35과 '경찰警察' 단원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신찬초등소학』이 한편으로 상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결과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글에서 경찰은 관할지역을 순시하여 화재나 수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구원하며, 항상 엄한 규칙을 준수하여 인민의 재난을 방비防備하고 구제하기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경찰의 본분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민은 경찰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까지 이른다.

『신찬초등소학』의 또 다른 내용으로 효성과 신의, 근면과 성실과 같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를 강조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서예가인 소야도풍小野道風, 미국의 초대대통령 워싱턴, 그리고 가난하지만 면학하는 아이들을 예로 들어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긍정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겸손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기도 한다.

박민영, 최석재 편역, 『신찬초등소학(현채 저작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4.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6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5.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7~12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6.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18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7.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9~24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8.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25~30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9.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1~36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30.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7~42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31.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3~48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3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9쪽, 51~55쪽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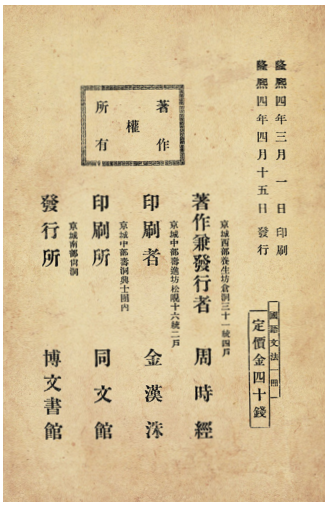


도판 5-33.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56~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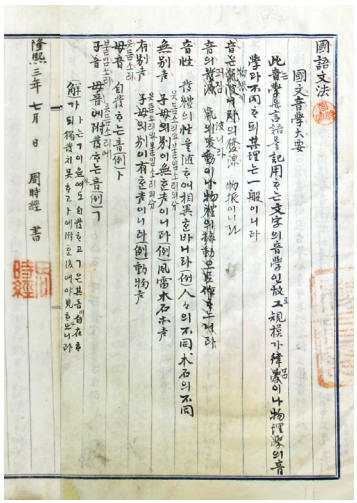
13. 周時經,『國語文法 全』과 주시경체周時經體

13-1. 周時經,『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國語文法
全


隆熙四年三月一日印刷
隆熙四年四月十五日發行
著作權所有
著作兼發行者 周時經
印刷者 金漢泳
印刷所 同文館
發行所 博文書館
定價金四十錢


出版許可
檢閱濟
國語文法


國語文法
隆熙三年 七月 日 周時經 書

도판 5-34. 周時經,『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도판 5-35. 周時經,『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융희隆熙3년(1909) 7월

『국어문법』은 국어학자 주시경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0년에 간행한 국어문법서이다.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주시경은 책의 서문에서 말과 문자가 독립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그 필요성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보편 문법의 토대 위에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품사 분류론과 문장 구성론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 품사 분류론에서는 9 품사를 설정하였고 문장 구성론에서는 독창적인 도해법과 의미해석 이론을 전개하였다.

『국어문법國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EBS주시경체」는 콘텐츠 저작권 강화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周時經 선생의 『국어문법』육필본 원본 자료를 협조받아, EBS 자체적으로 글꼴 원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글꼴 기본 모듈을 추출하였으며, 기본 모듈을 추출하여 3가지의 굵기로 파생하였다.

「EBS주시경체」, 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eong

또이때에우리나라에글다스리는일을맡으신이들
과우리나라말에이름이높으신이들과우리나라에
자라는사람의가르침을맡으신이들과우리나라말을
바르게쓰어좋은글이되게하고자하시는이들과우리
나라말의자전을만들고자하시는이들과그남아우
리나라말을발달하게하고자하시는뜻이잇으신이들
에게감히이글을들이노니이글이우리나라근래돌
아다니는문법들과다름이잇다고미리그맛이쓰리
라하여입에갓갑게도안이하시고곳버리시지말고
연구하실한걸이로삼아깊이씹어그속까지맛보시
고그잘못됨은다곧히어그맛을고르게하여우리나
라글이잘되게하여주시기를바라고어리석은뜻을
감히말함이로이다

융희삼년시월 일 주시경

도판 5-36. 『국어문법國語文法』, 118쪽 내용 중 일부를 「EBS주시경체」로 옮기다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1909년)의 국문서체國文書體

『국문연구의정안』은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 9월에 학부學部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에서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글이다.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1907년 7월은 시국적으로 볼 때 실로 격랑의 한 달이었다. 당시의 시국이 얼마나 복잡다단했는가는 7월 19일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일제로부터 협박을 받아 고종 황제가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였으며, 순종 즉위 직후인 7월 24일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27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신문지법新聞紙法', 이어서 29일에는 집회 · 결사를 금지하기 위한 '보안법'이 발표되는 한편, 31일에는 '군대 해산령'이 내려져 대한제국이 무력화된 사실 등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격랑激浪의 와중에서 설치된 국문연구소 위원들이 내놓은 『국문연구의정안』을 살펴보면, 국권 상실을 목전에 둔 시대적 불투명성과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어 오늘날의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참으로 감개가 크다. 그들이 경주傾注한 노력이 얼마나 큰가는 이 『국문연구의정안』에 따로 별첨된 『국문연구國文研究』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국문연구』는 1909년 3월 3일자 국문연구소 간사 이민응이 3월 16일 회의까지 최종연구안을 작성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위원들에게 보내고, 이에 위원들이 작성하여 회의일에 제출한 것을 묶어놓은 최종 연구안의 성격을 갖는다. 불과 10여 일의 여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전체 위원은 각자의 연구안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했는데, 그 분량은 어윤적 90장, 이능화 82장, 주시경 104장, 권보상 24장, 송기용 21 장, 지석영 15장, 이민응 7장, 윤구 11장 등에 달한다. 이 연구안들 가운데 어윤적 · 이능화 · 주시경의 연구안들은 각각 1책으로, 나머지 위원들의 연구안들은 함께 1책으로 묶여 모두 4책의 분량으로 『국문연구의정안』에 별첨 되어 제출되었다.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11, 12쪽

소 장 처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서 명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저 자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편編
필 사 년 융희 3년 1909년
판 사 항 필사본 31張 : 28.1 X 20.0 cm
해 제 국문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다. 1909년 12월 27일까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국어의 음운과 맞춤법에 관한 10개 의제議題를 연구하고 23회의 회의를 거쳐 1909년 12월 28일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국문연구의정안」, 「의결사」 등이 합철되어 있다.

表 題 『國文研究議定案』
刊 記 隆熙三年,1909,十二月二十八日
國文研究所委員長 尹致昕, 幹事 李敏應
印 「尹昕」, 「李敏」, 「李容植印」
合 綴 報告書, 國文研究所 隆熙3年,
『國文研究議定案』 筆寫本, 油印本(校訂), 議決事項

1. 『국문연구의정안』 보고서, 1909년 12월 28일

보고서

본 연구소에서 국문 연구를 종료하였기에 연구안을 첨부하여 의정안을 제출하옵고 사업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융희 3) 12월 28일

국문연구소위원장 윤치오

간사 이민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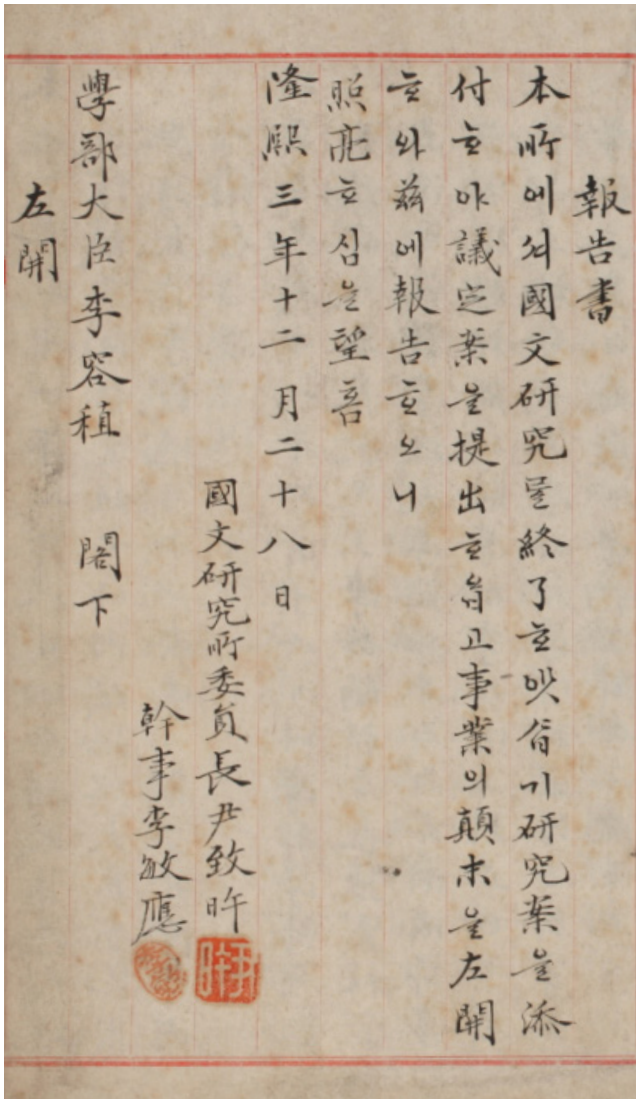
학부대신 이용직 각하

좌개

이 부분은 『국문연구의정안』의 첫머리로서, '보고서報告書'라는 제목 아래 1909년 12월 28일 국문연구소 위원장 윤치오가 그동안 국문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이용직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 사업의 전말에 관한 기술까지를 포함해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문연구의정안』 9장, 그리고 이 의정안 심의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사본 『국문연구의정안』 10장, 10회에 걸친 의결의 기록 4장이 붙어 있다. 의결 기록 다음에 <ㄱㄴㄷㄹㅁ 五字의 重音 (古謂 雙聲 俗稱 된시옷) 書法 一定>이라는 제목의 글 한 장이 있는데, 이는 이기문(1970:58)의 지적대로, 『국문연구안』 권 5 8장張의 어윤적의 연구안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글 다음에, 보고서에서 첨부한다고 한 연구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연구안은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최종연구안으로서, 『국문연구國文研究』라는 표제表題로 되어 있으며, 주시경, 어윤적, 이능화의 최종연구안이 각 1책, 권보상, 송기용, 지석영, 이민응, 윤돈구의 최종연구안이 함께 묶여 1책 등 모두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년, 1982년, 58쪽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24,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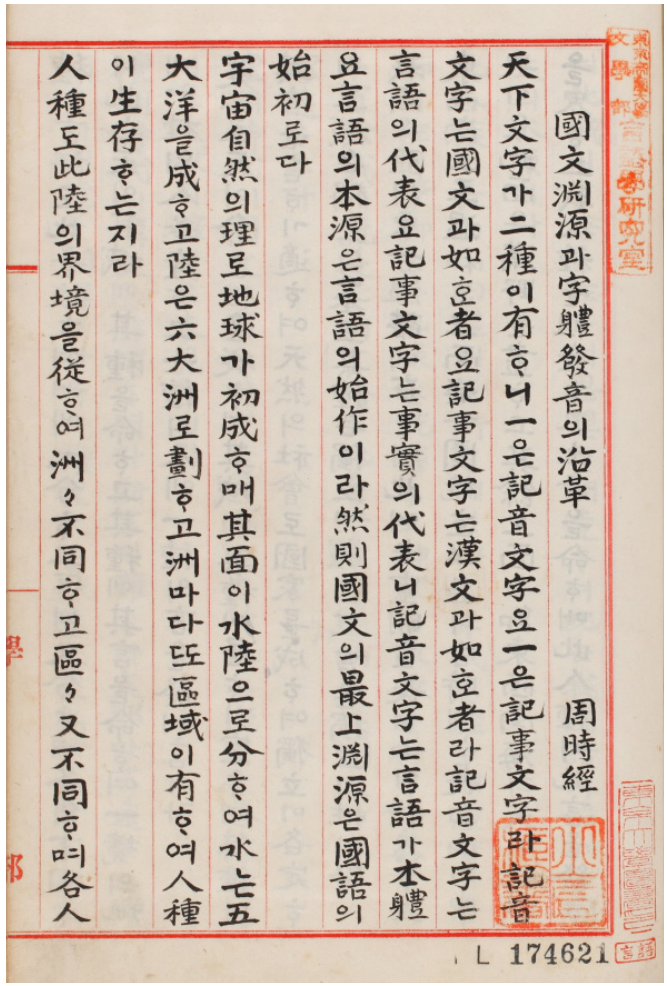

報告書
本所에서國文研究를終了호얏기研究案을添
付호야議定案을提出호옵고事業의顚末을左開
호와玆에報告호오니
照庇호심을望喜
隆熙三年十二月二十八日
國文研究所委員長尹致昊
幹事李敎應
學部大臣李容植 閣下
左開

도판 6-1.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研究所, 1909년, 1쪽

2.『국문연구國文硏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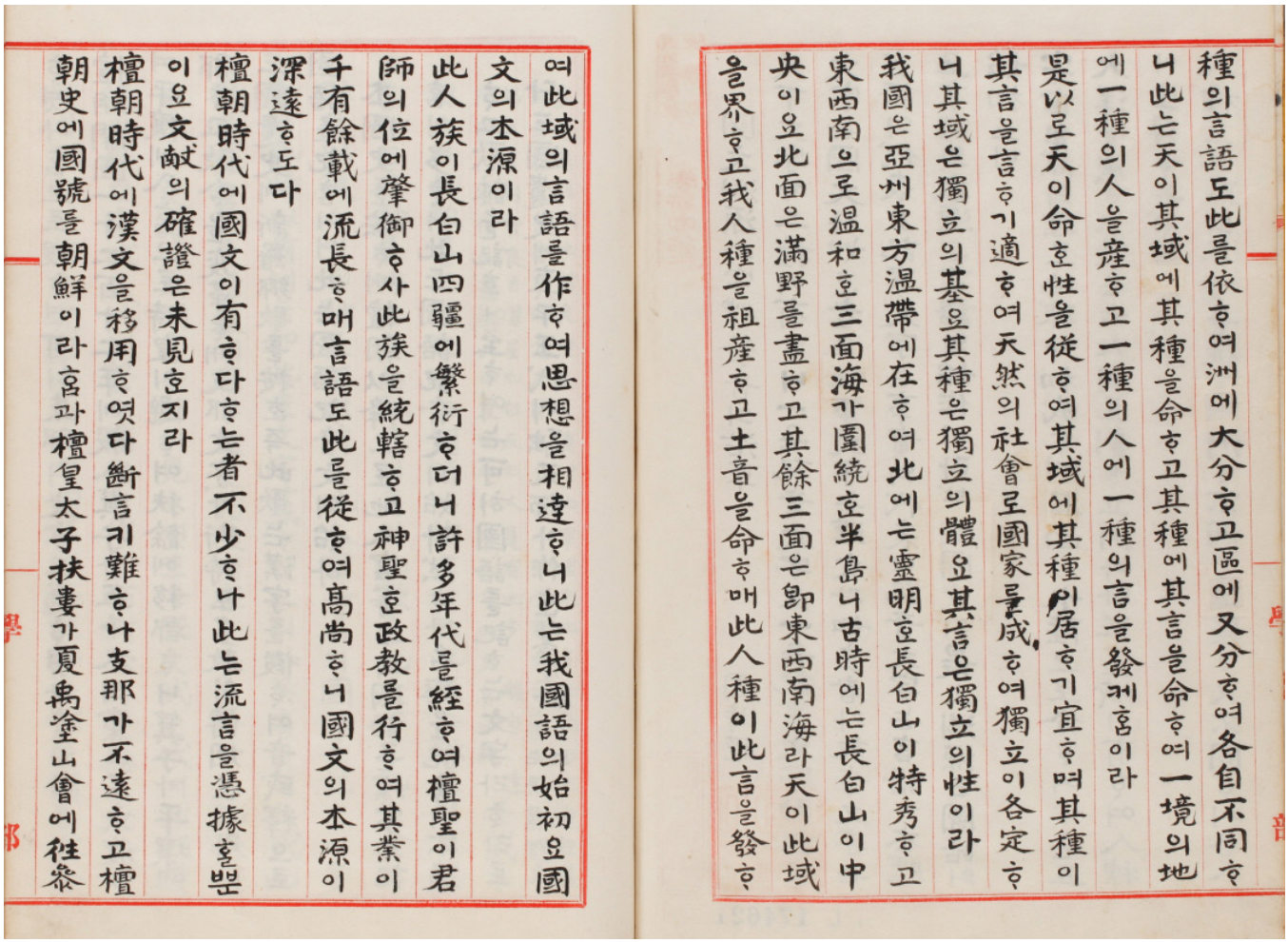
2-1. 주시경周時經,『국문연구國文硏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작 성 주 체　주시경周時經(1876-1914) 찬,
어윤적魚允迪(1868-1935) 찬,
이능화李能和(1869-1943) 찬,
권보상權輔相, 송기용宋綺用, 지석영池錫永,
이민응李敏應, 윤돈구尹敦求 찬
판　　종　필사본
발 행 사 항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
형 태 사 항　不分卷4冊 : 26.6 X 18.3 cm
주 기 사 항　表題:『國文硏究』
書根題:『國文硏究』
冊次:『國文硏究』周時經(L174621),
『國文硏究』魚允迪(L174622),
『國文硏究』李能和(L174623),
『國文硏究』權輔相 · 宋綺用 · 池錫永 · 李敏應 · 尹敦求(L174624)
四針眼訂法
국한문혼용체. 學部 用紙 使用
현 소 장 처　各冊張數 1冊 107張, 2冊 94張, 3冊 84張, 4冊 83張
청 구 기 호　일본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L174621-4


國文淵源과字體發音의沿革
周時經
天下文字가二種이有ᄒᆞ니一은記音文字요一은記事文字라記音文字는
文字는國文과如ᄒᆞᆫ者요記事文字는漢文과如ᄒᆞᆫ者라記音文字는
言語의代表요記事文字는事實의代表니記音文字는言語가本體
요言語의本源은言語의始作이라然則國文의最上淵源은國語의
始初로다
宇宙自然의理로地球가初成ᄒᆞ매其面이水陸으로分ᄒᆞ여水는五
大洋을成ᄒᆞ고陸은六大洲로劃ᄒᆞ고洲마다또區域이有ᄒᆞ여人種
이生存ᄒᆞ는지라
人種도此陸의界境을從ᄒᆞ여洲ᄭᅡ不同ᄒᆞ고區ᄭᅡ又不同ᄒᆞ미各人
L 174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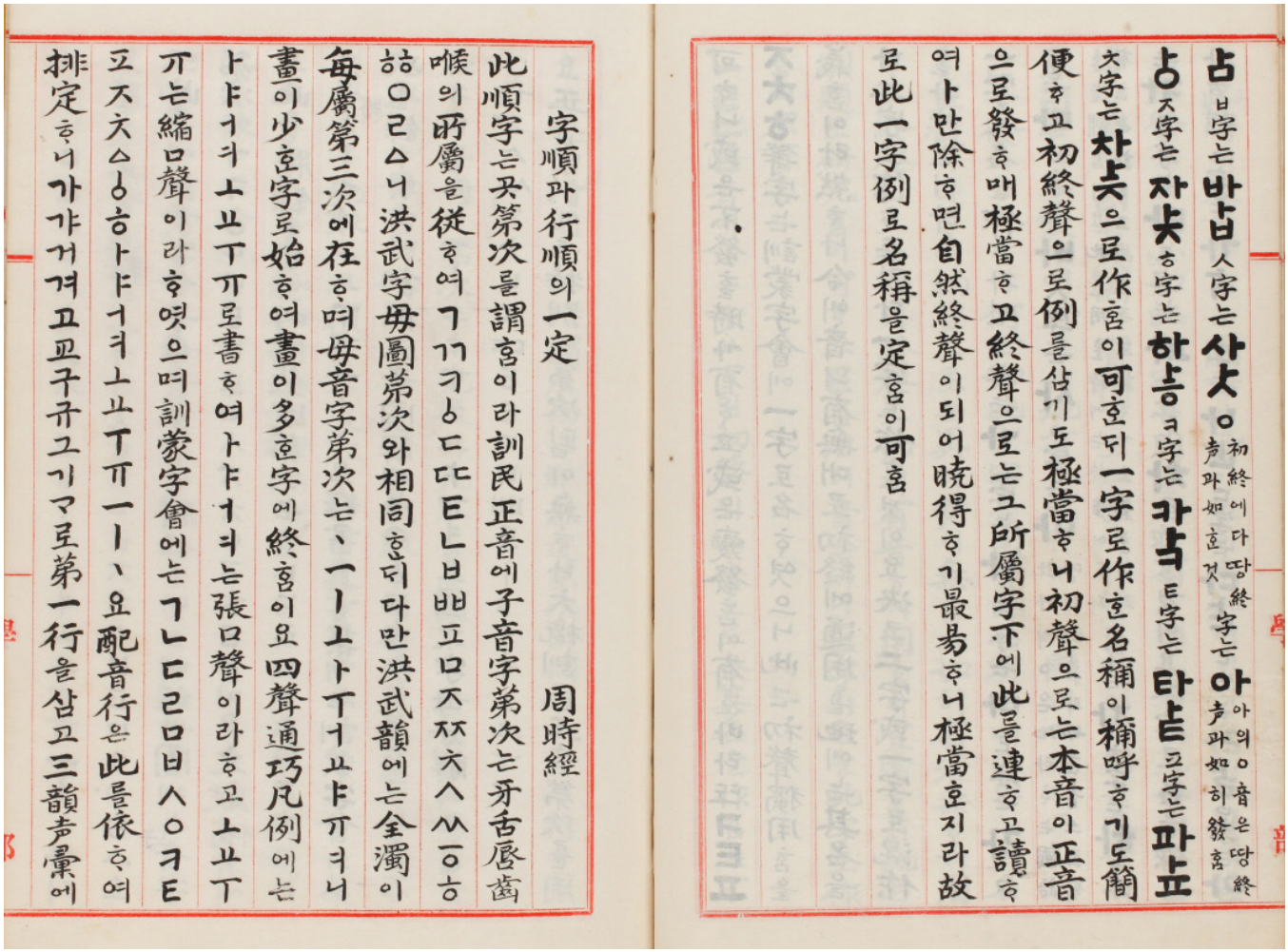
도판 6-2. 周時經,『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002쪽

주시경周時經, 『국문연구國文硏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種의言語도此를依ᄒᆞ여洲에大分ᄒᆞ고區에又分ᄒᆞ여各自不同ᄒᆞ
니此는天이其域에其種을命ᄒᆞ고其種에其言을命ᄒᆞ여一境의地
에一種의人을産ᄒᆞ고一種의人에一種의言을發케ᄒᆞᆷ이라
是以로天이命ᄒᆞᆫ性을從ᄒᆞ여其域에其種이居ᄒᆞ기宜ᄒᆞ며其種이
其言을言ᄒᆞ기適ᄒᆞ여天然의社會로國家를成ᄒᆞ여獨立이各定ᄒᆞ
니其域은獨立의基요其種은獨立의體요其言은獨立의性이라
我國은亞洲東方温帶에在ᄒᆞ여北에는靈明ᄒᆞᆫ長白山이特秀ᄒᆞ고
東西南으로温和ᄒᆞᆫ三面海가圍繞ᄒᆞᆫ半島니古時에는長白山이中
央이요北面은滿野를盡ᄒᆞ고其餘三面은卽東西南海라天이此域
을界ᄒᆞ고我人種을祖産ᄒᆞ고土音을命ᄒᆞ매此人種이此言을發ᄒᆞ
여此域의言語를作ᄒᆞ여思想을相達ᄒᆞ니此는我國語의始初요國
文의本源이라
此人族이長白山四疆에繁衍ᄒᆞ더니許多年代를經ᄒᆞ여檀聖이君
師의位에臨御ᄒᆞ사此族을統轄ᄒᆞ고神聖ᄒᆞᆫ政教를行ᄒᆞ여其業이
千有餘載에流長ᄒᆞ매言語도此를從ᄒᆞ여高尚ᄒᆞ니國文의本源이
深遠ᄒᆞᆫ도다
檀朝時代에國文이有ᄒᆞ다ᄒᆞᄂᆞᆫ者不少ᄒᆞ나此는流言을憑據ᄒᆞᆷ뿐
이요文献의確證은未見ᄒᆞᆫ지라
檀朝時代에漢文을移用ᄒᆞ엿다斷言키難ᄒᆞ나支那가不遠ᄒᆞ고檀
朝史에國號를朝鮮이라ᄒᆞᆷ과檀皇太子扶婁가夏禹塗山會에往參

도판 6-3.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0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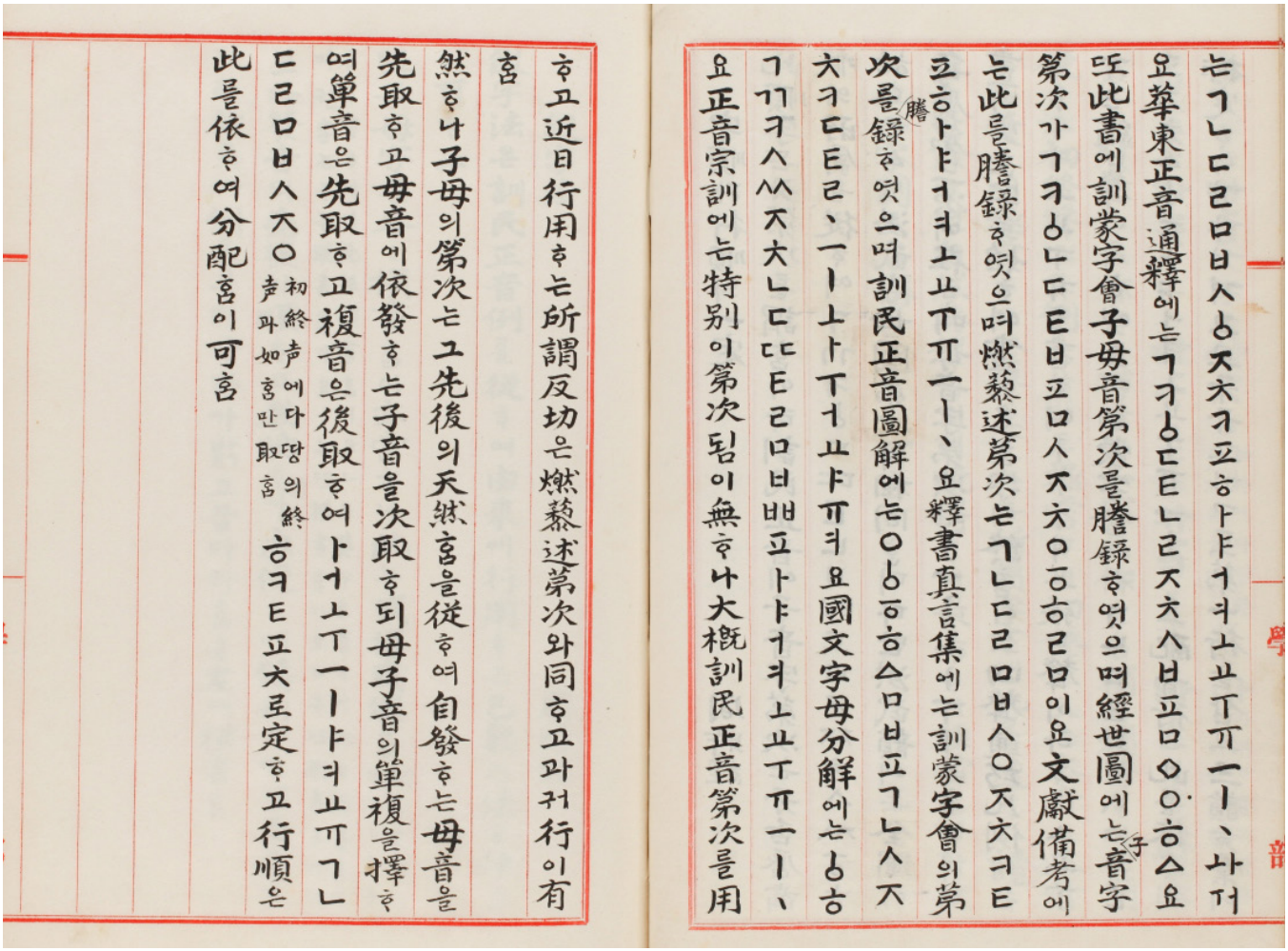
字順과 行順의 一定 周時經

此順字는 곳 第次를 謂홈이라 訓民正音에 子音字第次는 牙舌脣齒喉의 所屬을 從ᄒᆞ여 ㄱ ㄲ ㅋ ㆁ ㄷ ㄸ ㅌ ㄴ ㅂ ㅃ ㅍ ㅁ ㅈ ㅉ ㅊ ㅅ ㅆ ㅇ ㆆ ㅎ ㄹ 스니 洪武字母圖第次와 相同ᄒᆞ되 다만 洪武韻에는 全濁이 每屬第三次에 在ᄒᆞ며 母音字第次는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ㅣ니 洪武字母圖第次와 相同ᄒᆞ되 다만 洪武韻에는 全濁이 每屬第三次에 在ᄒᆞ며 母音字第次는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ㅣ니 畫이 少ᄒᆞᆫ 字로 始ᄒᆞ여 畫이 多ᄒᆞᆫ 字에 終홈이요 四聲通攷凡例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로 書ᄒᆞ여 ㅏ ㅑ ㅓ ㅕ는 張口聲이라 ᄒᆞ고 ㅗ ㅛ ㅜ ㅠ는 縮口聲이라 ᄒᆞ엿으며 訓蒙字會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ㅋ ㅌ ㅍ ㅈ ㅊ ㅿ ㆆ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ㅗㅏ ㅜㅓ ㅛㅑ ㅠㅕ ㅡㅣ 요 配音行은 此를 依ᄒᆞ여 排定ᄒᆞ니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ㅁ로 第一行을 삼고 三韻聲彙에

占 ㅂ字는 바ㅂ ㅅ字는 사ㅅ ㅇ初終에 다 땅終聲과 如ᄒᆞᆫ 것 字는 아 아의 ㅇ音은 땅終聲과 如히 發홈 ㅈ字는 자ㅈ ㅎ字는 하ㅎ ㅋ字는 카ㅋ ㅌ字는 타ㅌ ㅊ字는 파ㅍ ㅊ字는 차ㅊ으로 作홈이 可ᄒᆞᆫ되 一字로 作ᄒᆞᆫ 名稱이 稱呼ᄒᆞ기도 簡便ᄒᆞ고 初終聲으로 例를 삼기도 極當ᄒᆞ니 初聲으로는 本音이 正音으로 發ᄒᆞ매 極當ᄒᆞ고 終聲으로는 그 所屬字下에 此를 連ᄒᆞ고 讀ᄒᆞ여 ㅏ만 除ᄒᆞ면 自然終聲이 되어 曉得ᄒᆞ기 最易ᄒᆞ니 極當ᄒᆞᆫ지라 故로 此一字例로 名稱을 定홈이 可홈

도판 6-4.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103쪽

주시경周時經, 『국문연구國文硏究』, 학부學部, 한성漢城, 1907년



ᄂᆞᆫᄀᆞᄂᆞᆮᄅᆞᄆᆞᄇᆞᄉᆞᄋᆞᄌᆞᄎᆞᄏᆞᄐᆞᄑᆞᄒᆞᅡᅡᄒᆞᅣᅣᄒᆞᅥᅥᄒᆞᅧᅧᄒᆞᅩᅩᄒᆞᅭᅭᄒᆞᅮᅮᄒᆞᅲᅲᄒᆞᅳᅳᄒᆞᅵᅵᄂᆞᅡᄃᆞᅥ
요華東正音通釋에ᄂᆞᆫᄀᆞᄏᆞᄋᆞᄃᆞᄐᆞᄂᆞᄅᆞᄌᆞᄎᆞᄉᆞᄇᆞᄑᆞᄆᆞᄋᆞᄋᆞᄋᆞᄉᆞᅀᆞ요
또此書에訓蒙字會ᄌᆞ母音第次를謄錄ᄒᆞ엿으며經世圖에ᄂᆞᆫ音字
第次가ᄀᆞᄏᆞᄋᆞᄂᆞᄃᆞᄐᆞᄇᆞᄑᆞᄆᆞᄉᆞᄌᆞᄎᆞᄋᆞᄋᆞᄒᆞᄀᆞᄅᆞᄆᆞᄇᆞᄉᆞᄋᆞᄌᆞᄎᆞᄏᆞᄐᆞ
ᄂᆞᆫ此를謄錄ᄒᆞ엿으며燃藜述第次ᄂᆞᆫᄀᆞᄂᆞᄃᆞᄅᆞᄆᆞᄇᆞᄉᆞᄋᆞᄌᆞᄎᆞᄏᆞᄐᆞ
요ᄒᆞᅡᅡᄒᆞᅣᅣᄒᆞᅥᅥᄒᆞᅧᅧᄒᆞᅩᅩᄒᆞᅭᅭᄒᆞᅮᅮᄒᆞᅲᅲᄒᆞᅳᅳᄒᆞᅵᅵ、요釋書真言集에ᄂᆞᆫ訓蒙字會의第
次를(謄)錄ᄒᆞ엿으며訓民正音圖解에ᄂᆞᆫ○ᄋᆞᄒᆞᄋᆞᄉᆞᄆᆞᄇᆞᄑᆞᄀᆞᄂᆞᄉᆞᄌᆞ
ᄎᆞᄏᆞᄃᆞᄐᆞᄅᆞ、ㅣㅡㅗㅏㅜㅓㅛㅑㅠㅕ요國文字母分解에ᄂᆞᆫᄋᆞᄒᆞ
ᄀᆞᄁᆞᄏᆞᄉᆞᄊᆞᄌᆞᄎᆞᄂᆞᄃᆞᄄᆞᄐᆞᄅᆞᄆᆞᄇᆞᄈᆞᄑᆞᄒᆞᅡᅡᄒᆞᅣᅣᄒᆞᅥᅥᄒᆞᅧᅧᄒᆞᅩᅩᄒᆞᅭᅭᄒᆞᅮᅮᄒᆞᅲᅲᄒᆞᅳᅳᄒᆞᅵᅵ、
요正音宗訓에ᄂᆞᆫ特別이第次됨이無ᄒᆞ나大槪訓民正音第次를用

ᄒᆞ고近日行用ᄒᆞᄂᆞᆫ所謂反切은燃藜述第次와同ᄒᆞ고과거行이有
ᄒᆞᆷ
然ᄒᆞ나子母의第次ᄂᆞᆫ그先後의天然ᄒᆞᆷ을從ᄒᆞ여自發ᄒᆞᄂᆞᆫ母音을
先取ᄒᆞ고母音에依發ᄒᆞᄂᆞᆫ子音을次取ᄒᆞ되母子音의單複을擇ᄒᆞ
여單音은先取ᄒᆞ고複音은後取ᄒᆞ여ㅏㅓㅗㅜㅡㅣㅑㅕㅛㅠㅐㅔㅘㅝㅚㅟㅢ
ㄷㄹㅁㅂㅅㅈㅇ(初終声에다당의終声과如ᄒᆞᆷ만取ᄒᆞᆷ)ㅎㅋㅌㅍㅊ로定ᄒᆞ고行順은
此를依ᄒᆞ여分配ᄒᆞᆷ이可ᄒᆞ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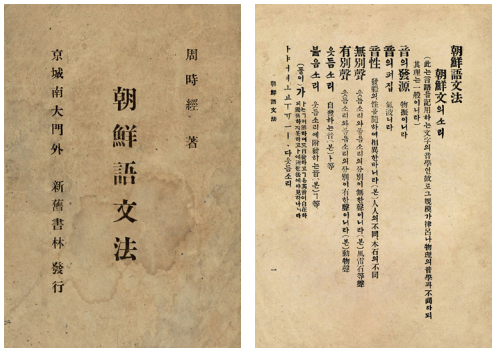
도판 6-5.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104쪽

제7장 한글시대韓契時代 한글교과서韓契敎科書(1911~193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911년 이후 1939년까지 발간된 아홉 종류의 한글교과서를 소개하고, 책에 사용된 한글서체를 인용하였다.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5.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8.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9.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周時經 著
朝鮮語文法
京城南大門外 新舊書林 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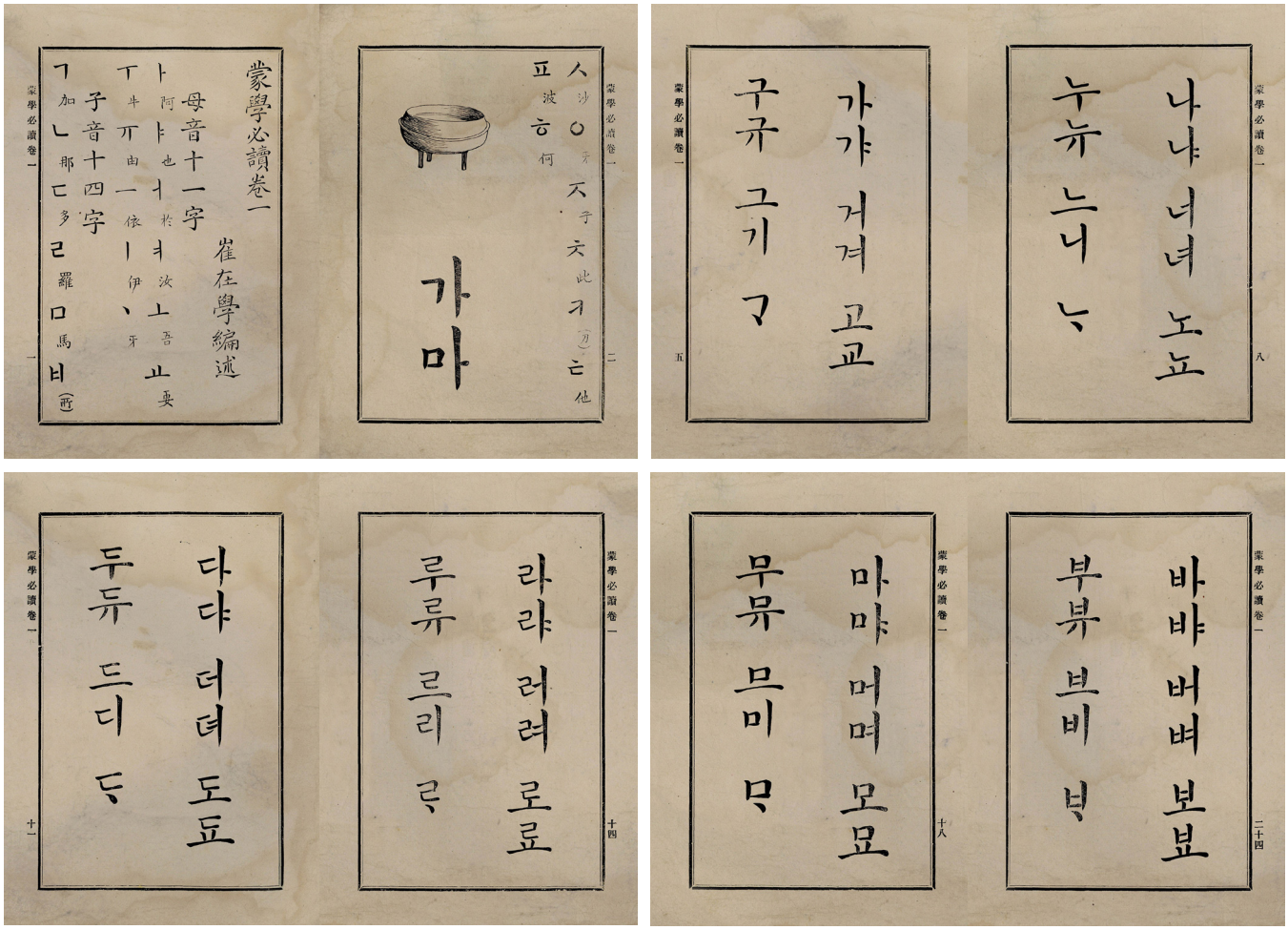
朝鮮語文法
朝鮮文의 소리

도판 7-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쪽

국어학자 주시경周時經(187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0년에 박문서관博文書館을 통해 간행한 국어문법서인 『국어문법國語文法』을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펴냈다.

주시경은 책의 서문에서 말과 문자가 독립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그 필요성에서 책을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보편 문법의 토대 위에서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다. 품사 분류론과 문장 구성론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데, 품사 분류론에서는 9 품사를 설정하였고 문장 구성론에서는 독창적인 도해법과 의미해석 이론을 전개하였다. 『조선어문법』이 『국어문법』과 다른 점은 품사를 의미하는 용어가 뒤의 책에서는 '기'인데, 앞의 책에서는 '씨'로 바뀐 사실이다. 이들 『조선어문법』은 '씨'라는 용어를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 책 가운데서 1913년의 『조선어문법』(재판)이 가장 오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朝鮮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2. 崔正學,『蒙學必讀 卷一,』普書舘, 京城, 1912년



도판 7-2. 崔正學,『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1, 2, 5, 8, 11, 14, 18, 24쪽

崔正學,『蒙學必讀 卷一,』普書館, 京城, 1912년



도판 7-3. 崔正學,『蒙學必讀 卷一』, 普書館, 京城, 1912년, 29, 33, 36, 40, 42, 45, 49, 52쪽

3.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말의 소리』는 우리나라 국어학과 국어 문법, 한글 맞춤법 연구의 기틀을 잡은, 지금의 한글학회를 있게 한 주시경 선생의 대표 저서의 하나이다. 1914년 신문관에서 석인본*으로 펴낸 이 책은 표지 포함하여 모두 72쪽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한자어 술어를 쉬운 우리말과 한글로 썼으며 음학音學에 대한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 문장부호와 달리 독특한 문장부호를 씀으로써 주시경 선생이 세운 독창적인 문법 체계 안에서 기능하는 문법 단위들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이다. 책의 내용은 『소리갈』을 원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체제와 내용이 잘 정리되었으며, 책의 끝에는 『훈민정음』, 『훈몽자회』,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을 싣고 그 끝에는 '씨난의 틀'과 한글 가로풀어쓰기 예문을 실었다.

『말의소리-한글학회』, hangeul.or.kr/homepage/custom/talksound

일제강점기 국어학자 주시경(1876-1914)이 국어의 문법 및 특징을 기술하여 1914년에 간행한 국어 문법서이다.

1권 석인본은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음의 성질, 자음 · 모음의 분류와 배열, 자음접변, 자음 · 모음의 결합, 음절, 자음의 중화中和, 운소韻素, 그리고 습관음習慣音에 대한 논술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말의 소리 부附」가 있는데 여기에는 『훈민정음』 · 『훈몽자회訓蒙字會』 등의 자료가 실려 있다. 그다음에 위의 자료를 간단히 해설한 「말의 소리 협입夾入」이 있다.

책의 끝에는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 이후에 전개된 주시경의 새로운 문법 체계의 구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씨난의 틀」과 가로풀어쓰기의 예인 「우리글의 가로쓰기 익힘」이 덧붙여 있다. 음학音學에 대한 주시경의 여러 글과 비교할 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학에 대한 주시경의 이론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

둘째, 체재와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

셋째, 『조선어문법』(재판)에 이르기까지 포함되던 『훈민정음』 등의 문헌 인용과 ' , ㅿ, ㆆ' 등 소실문자消失文字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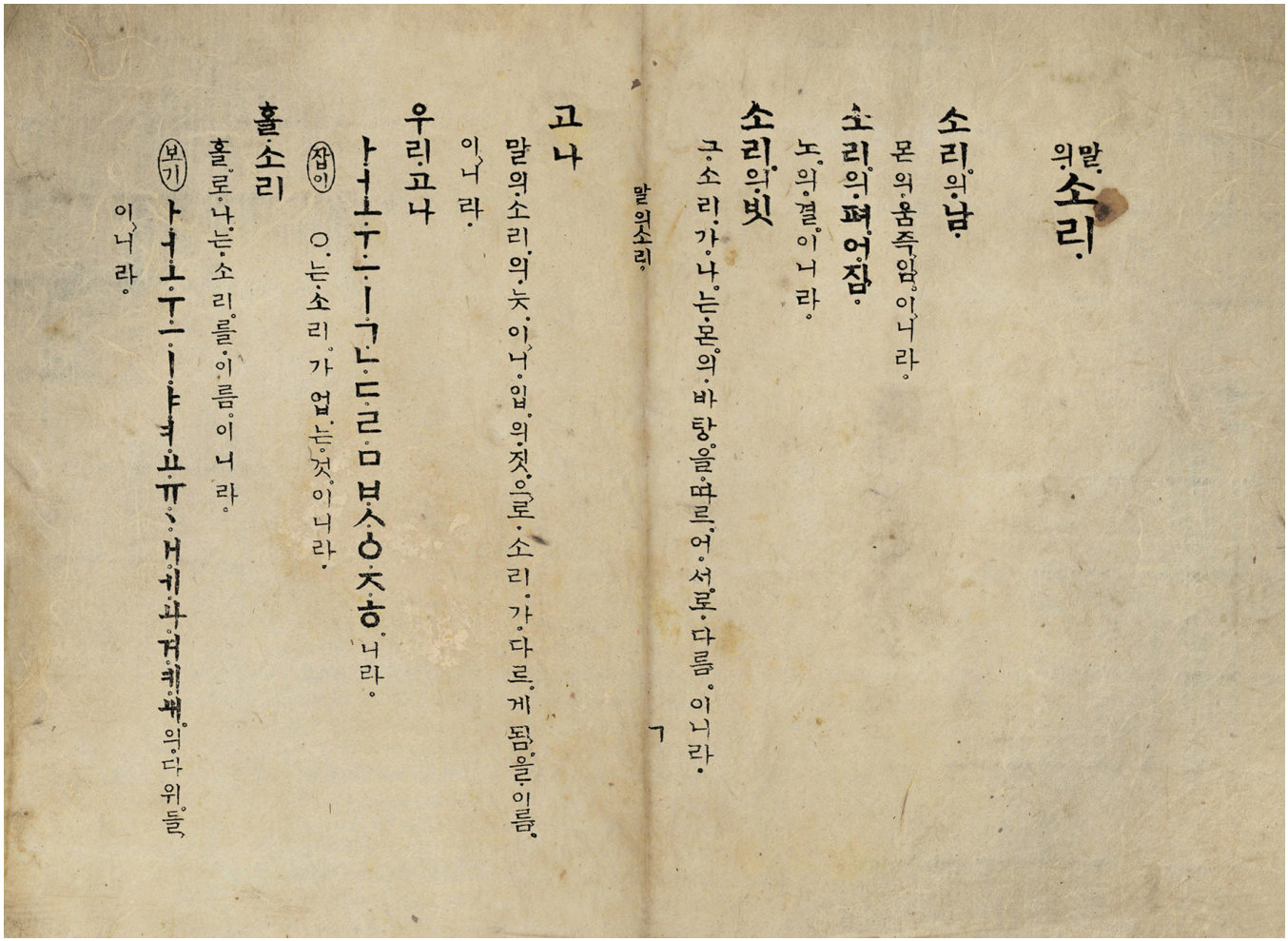
넷째, 한자漢字로 된 술어術語의 한글화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점과 부록을 제외한 전체 내용이 순한글로 쓰였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의 대부분은 이 책보다 1, 2년 전에 유인油印된 것으로 생각되는 『소리갈』에서도 확인된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책은 『소리갈』을 원본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체계화한 것이라 하겠다.

『말의소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7831

*석인본 石印本 : 석판 인쇄의 방법으로 찍어낸 책. 석판은 평판인쇄平版印刷의 초기 형태로, 처음에는 독일 바이에른 석회석을 이용하여 수용성 부분을 생기게 하고 그 부분에 유성잉크를 칠하여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독일인 제네펠더Senefelder,A.가 발명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석회석 대신 아연판 · 알루미늄판 · 플라스틱판으로 대체되었고, 사진 기술 발달로 사진석판술과 오프셋 석판술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석판술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세기 말의 개화기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cid=46669&docId=574798&categoryId=46669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말의 소리

소리의 남

몬의 움즉임이니라.

소리의 펴어짐

노의 결이니라.

소리의 빗

그 소리가 나는 몬의 바탕을 따르어 서로 다름이니라.

말의소리 ㄱ

고나

말의 소리의 늣이니 입의 짓으로 소리가 다르게 됨을 이름이니라.

우리고나

ㅏㅓㅗㅜㅡㅣㄱㄴㄷㄹㅁㅂㅅㅇㅈㅎ이니라.

(참이) ㅇ는 소리가 업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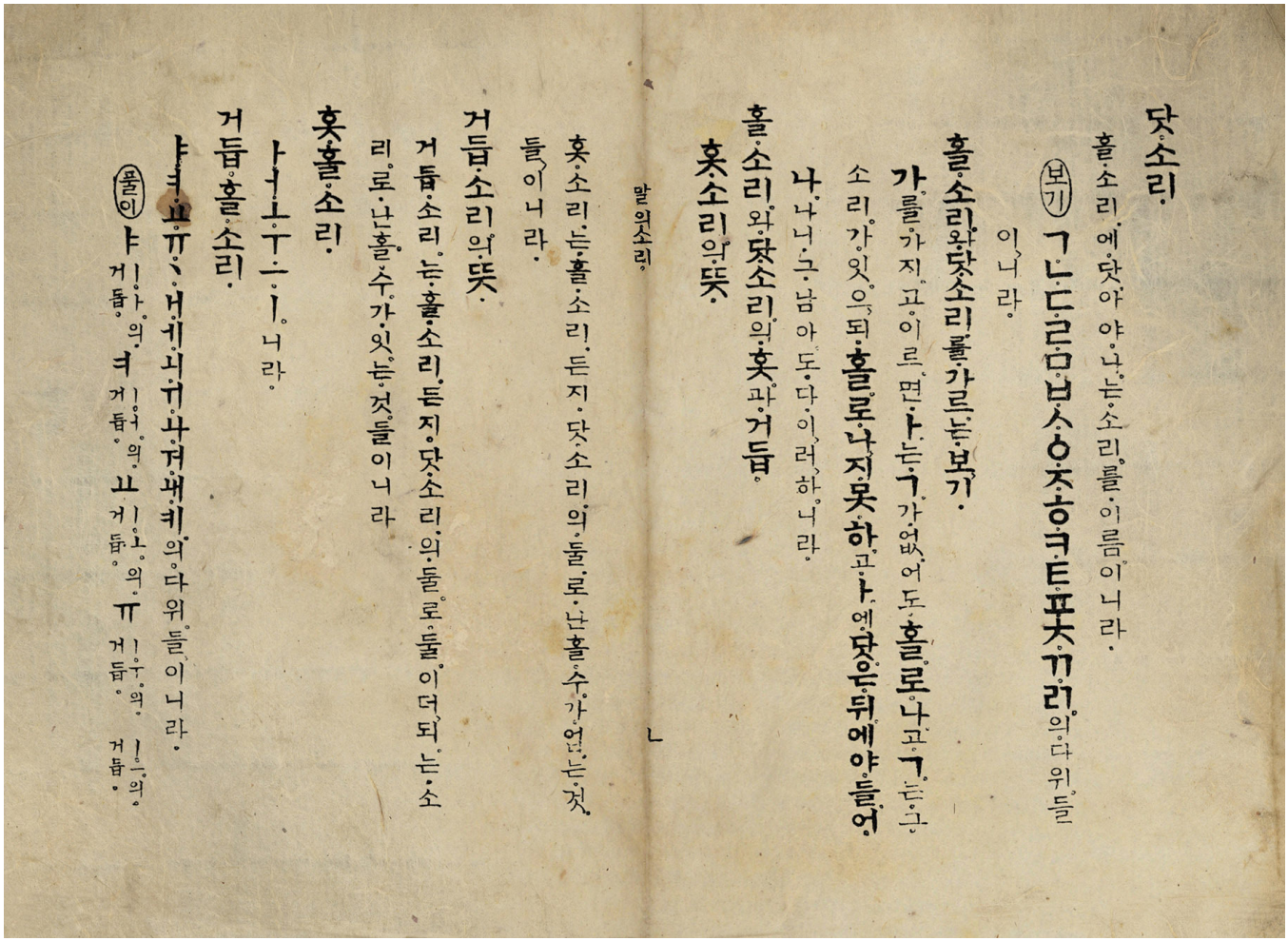
홀소리

홀로 나는 소리를 이름이니라.

(보기) ㅏㅓㅗㅜㅡㅣㅑㅕㅛㅠㅐㅔㅒㅖ의 다위를 이니라.

도판 7-4.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ㄱ쪽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닷소리.

홀소리에닷아야나는소리를이름이니라.

(보기)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의다위들이니라.

홀소리와닷소리를가르는보기.

가를가지고이르면ㅏ는ㄱ가업서도홀로나고ㄱ는그소리가잇으되홀로나지못하고ㅏ에닷은뒤에야들어나나니그남아도다이러하니라.

홀소리와닷소리의홋과거듭.

홋소리의뜻.

홋소리는홀소리든지닷소리의둘로는홀수가업는것들이니라.

거듭소리의뜻.

거듭소리는홀소리든지닷소리의둘로둘이더되는소리로는홀수가잇는것들이니라

홋홀소리.

ㅏㅓㅗㅜㅡㅣ니라.

거듭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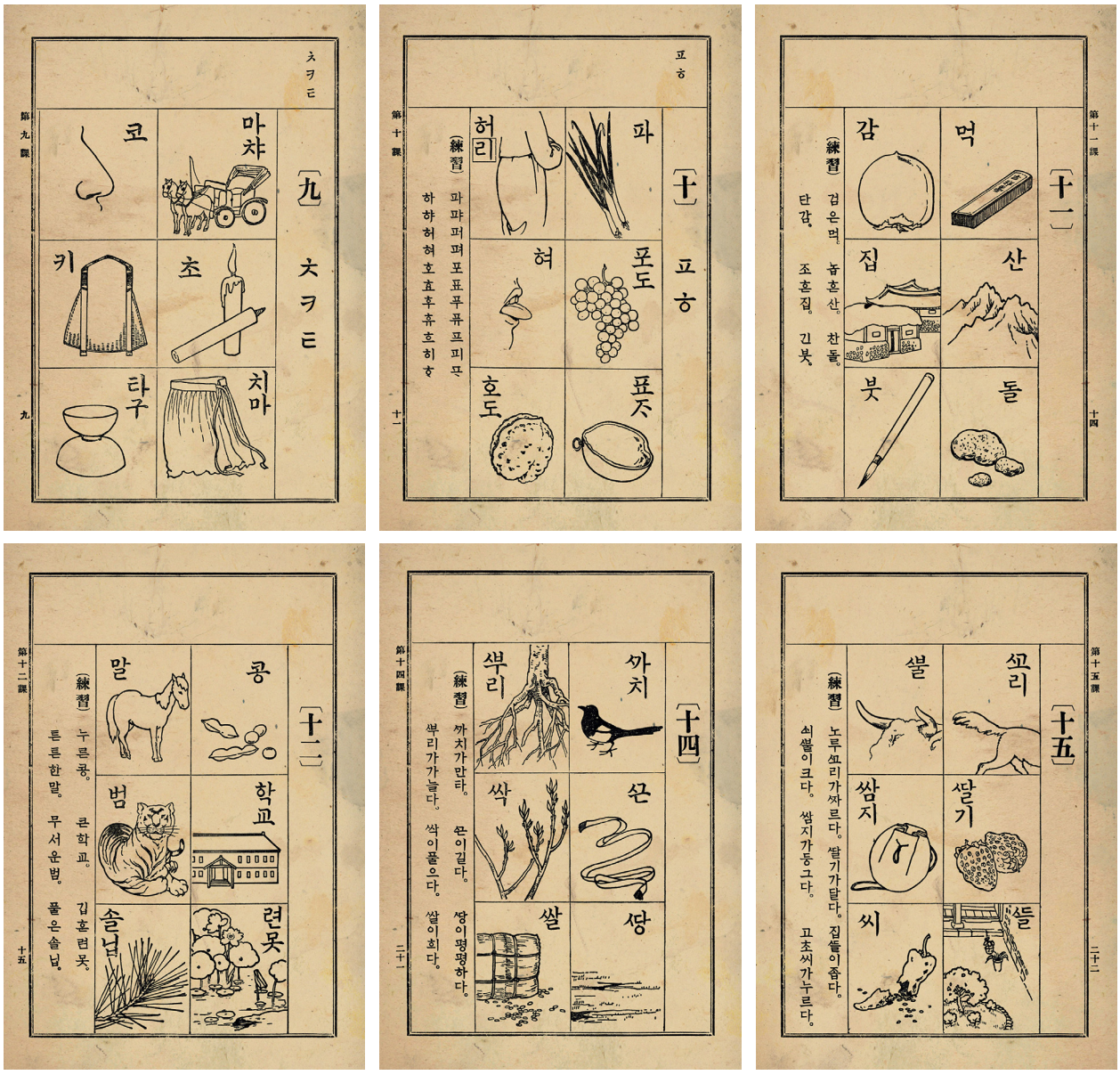
ㅑㅕㅛㅠㅒㅖㅢㅚㅟㅘㅝㅙㅞ의다위들이니라.

(풀이) ㅑ는ㅣ와ㅏ의거듭이요ㅛ는ㅗ와ㅣ의거듭이요ㅠ는ㅜ와ㅣ의거듭.

말의소리. ㄴ

도판 7-5.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ㄴ쪽

4.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도판 7-6.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9, 11, 14, 15, 21, 22쪽

5. 朝鮮總督府,『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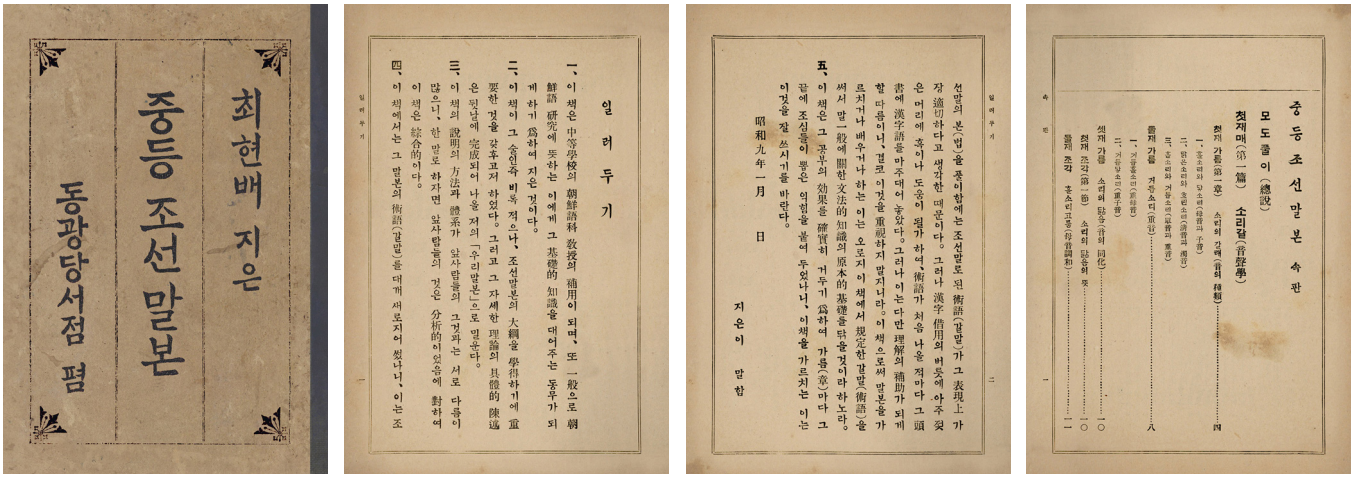
도판 7-7. 朝鮮總督府,『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21, 25, 29, 31, 32, 43쪽

6. 朝鮮總督府,『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도판 7-8. 朝鮮總督府,『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0, 13, 15, 16, 23, 24쪽

7.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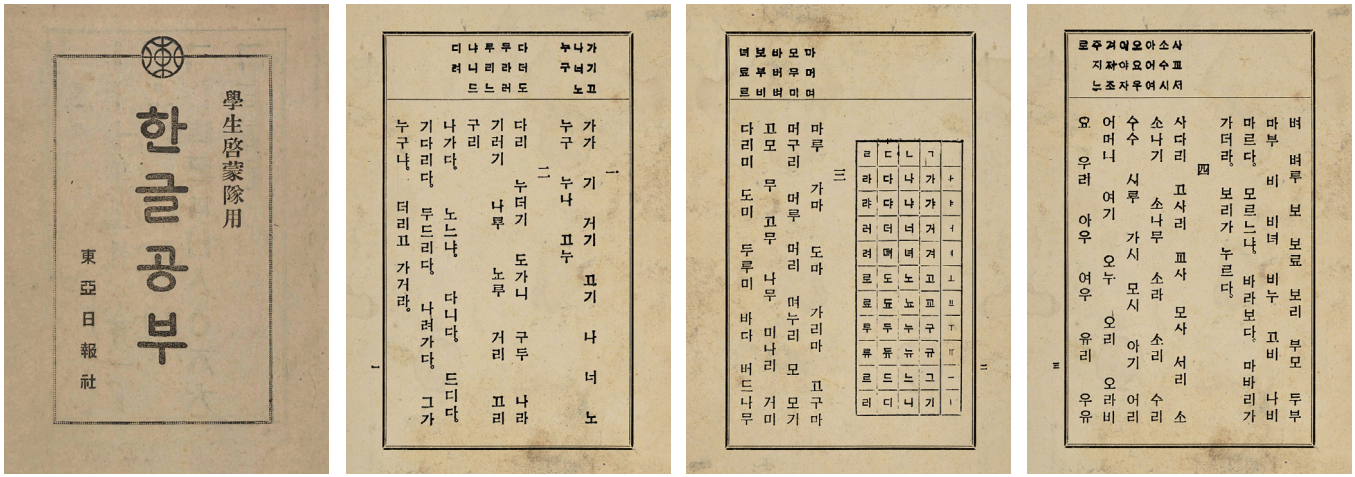


도판 7-9.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일러두기 1, 2쪽, 속판 1쪽

1934년 국어학자 최현배(1894~1970)가 중등학교의 국어문법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로 1934년 4월 5일 동광당서점에서 발행하였다. 『중등조선말본』은 본래 최현배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낸 책이다. 당시 한반도 안에서는 물론이고 만주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된 문법 교과서이다. 최현배 개인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기념비적 저서인 『우리말본』(1937)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교과서이기도 하다. 『중등조선말본』은 문법의 용어[術語]를 기존과는 다르게 고유어로 새로 지어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전의 우리말 연구 방식이 분석적이었음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절충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종전從前의 방식이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분석적 입장이었음에 비하여 이 책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절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최현배 개인이 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193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중등조선말본』(1934)은 처음 나온 지 5개월 만에 재판을 찍을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1938년 6월에 제4판을 찍으면서 개정판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광복 후 1945년에 이 개정판의 지형을 써서 정음사에서 다시 간행하여 해방 공간에서 중등학교의 문법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조사를 단어로 보는 절충식이 정립된 것은 이 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조선말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재 매[第一篇] 소리갈[音聲學], 둘재 매 씨갈[品詞論], 셋재 매 월갈[文章論]'이다. 즉 '음성학, 품사론, 문장론'의 3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품사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전체 194쪽 가운데 150쪽을 할당하고 있다. 특히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 움즉씨[動詞], 어떻씨[形容詞], 잡음씨[指定詞], 어떤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歎詞], 토씨[助詞]'의 10개 품사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토씨[조사]와 잡음씨[지정사] '이다'를 품사로 인정하는 것이 주목된다.

『중등조선말본』은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니라 광복 직후 해방 공간에서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문법 교과서로 역할을 하였으며, 2016년 현행 학교 문법 교과서에도 기초를 놓은 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중등 조선 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9263

8.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도판 7-10.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3쪽

1919년 3 · 1운동 이후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주시경의 제자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자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고 1931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글의 규범을 제정하였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의 체계를 세우고 보급하여 한글의 중요성을 알렸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글을 연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한글을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조선어학회와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브나로드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등보통학교와 전문학교 학생으로 세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학생계몽대는 고등보통학교 4, 5학년으로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으며 학생강연대는 전문학교 학생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 내역 등은 학생기자대의 원고로 기록되어 신문사로 보내졌다.

이 중 학생계몽대學生啓蒙隊에서 한글 강습 교재로 사용한 『한글공부』는 일제강점기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윤재李允宰(1888~1943)가 집필하였다. 한글 자·모음과 단어, 짧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데, 문장을 익힌 후에는 시조를 읊고 지리 및 역사 이야기를 읽게 하여 민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신하영,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한박웃음」, 제96호, 2021.8., www.hangeul.go.kr/webzine/202108/sub1_2.html

9. 朝鮮總督府,『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도판 7-11. 朝鮮總督府,『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4, 5, 11, 34쪽

제8장 한글시대韓契時代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911년부터 시작된 한글시대韓契時代의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14종류에서 사용된 서체는 1924년의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方手本 第三學年用上』에 사용된 흘림체를 제외하면 모두 정자체正字體임을 알 수 있다.

습자첩習字帖,1911년,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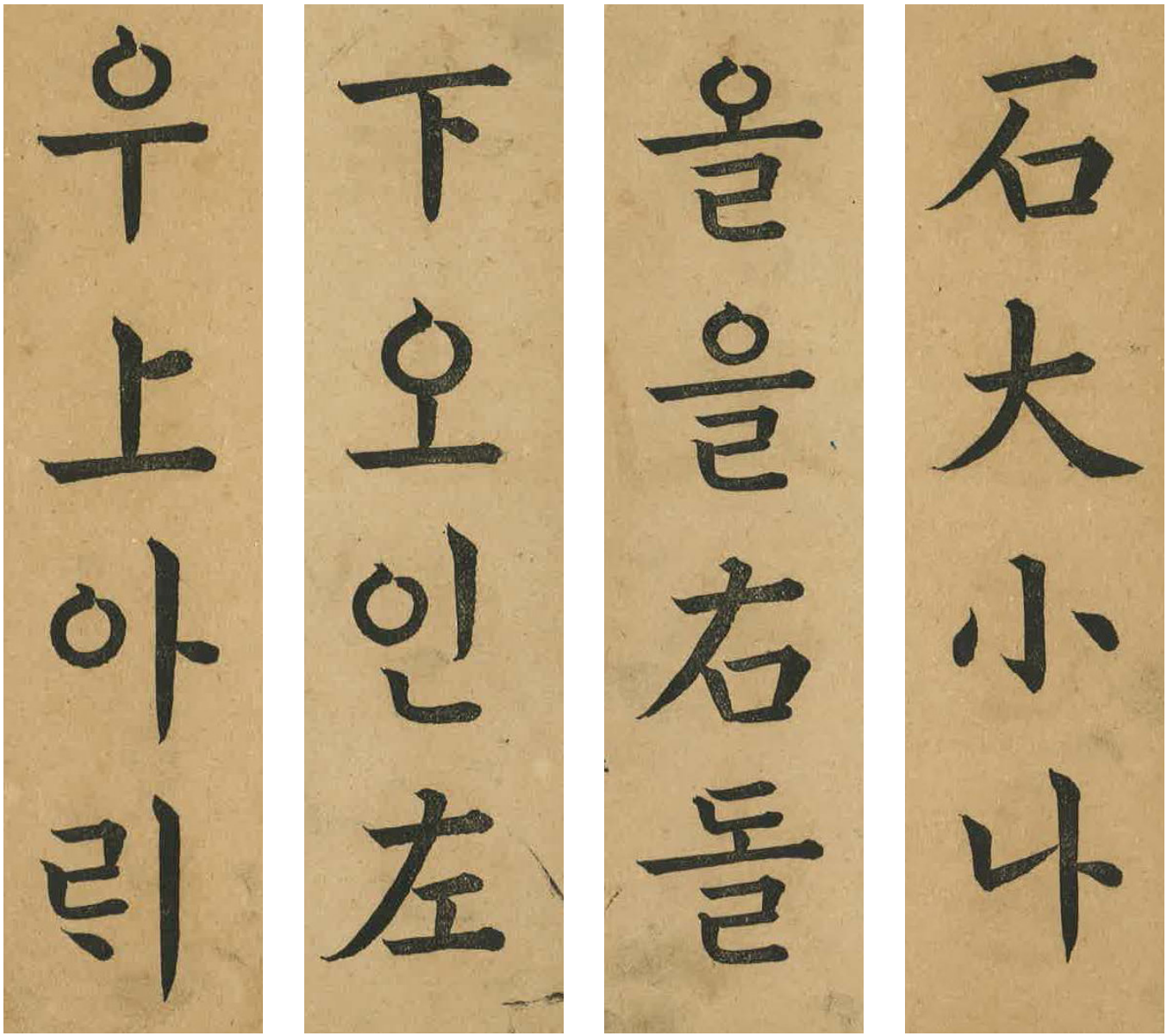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1924년, 1936년, 1937년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朝鮮総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 쓰기방법견본집書方手本에서 서방書方은 일본국어사전에 '카키카타'로 '쓰기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으나 서예에서는 서법書法으로 보는게 좋겠다. 수본手本은 '테혼'이라고 하여 일본에서 '본보기'를 의미하여 견본집見本集으로 보는게 좋겠다. 김지영, 개인 교신, 2023. 10. 22.

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 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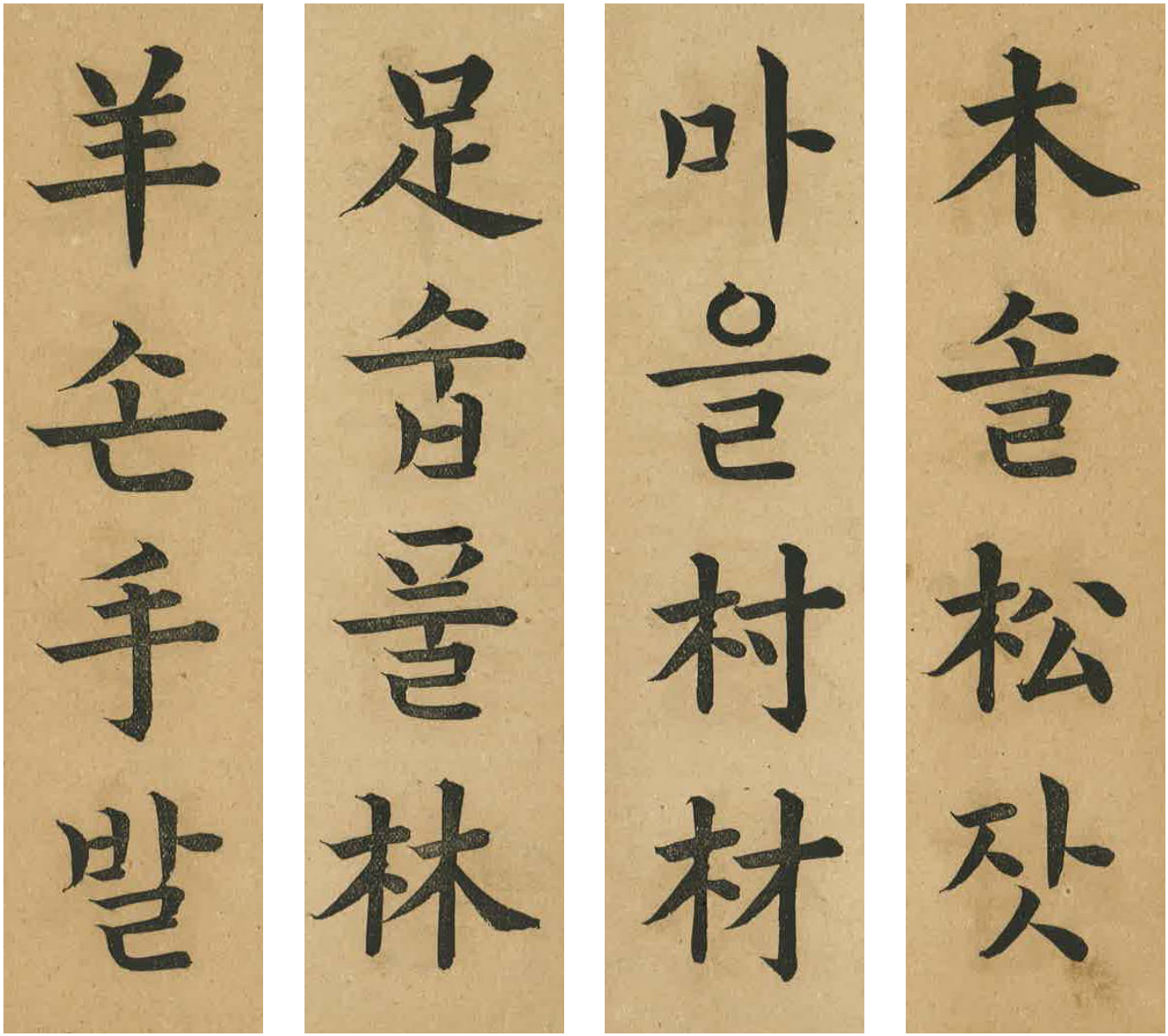
도판 8-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8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9~12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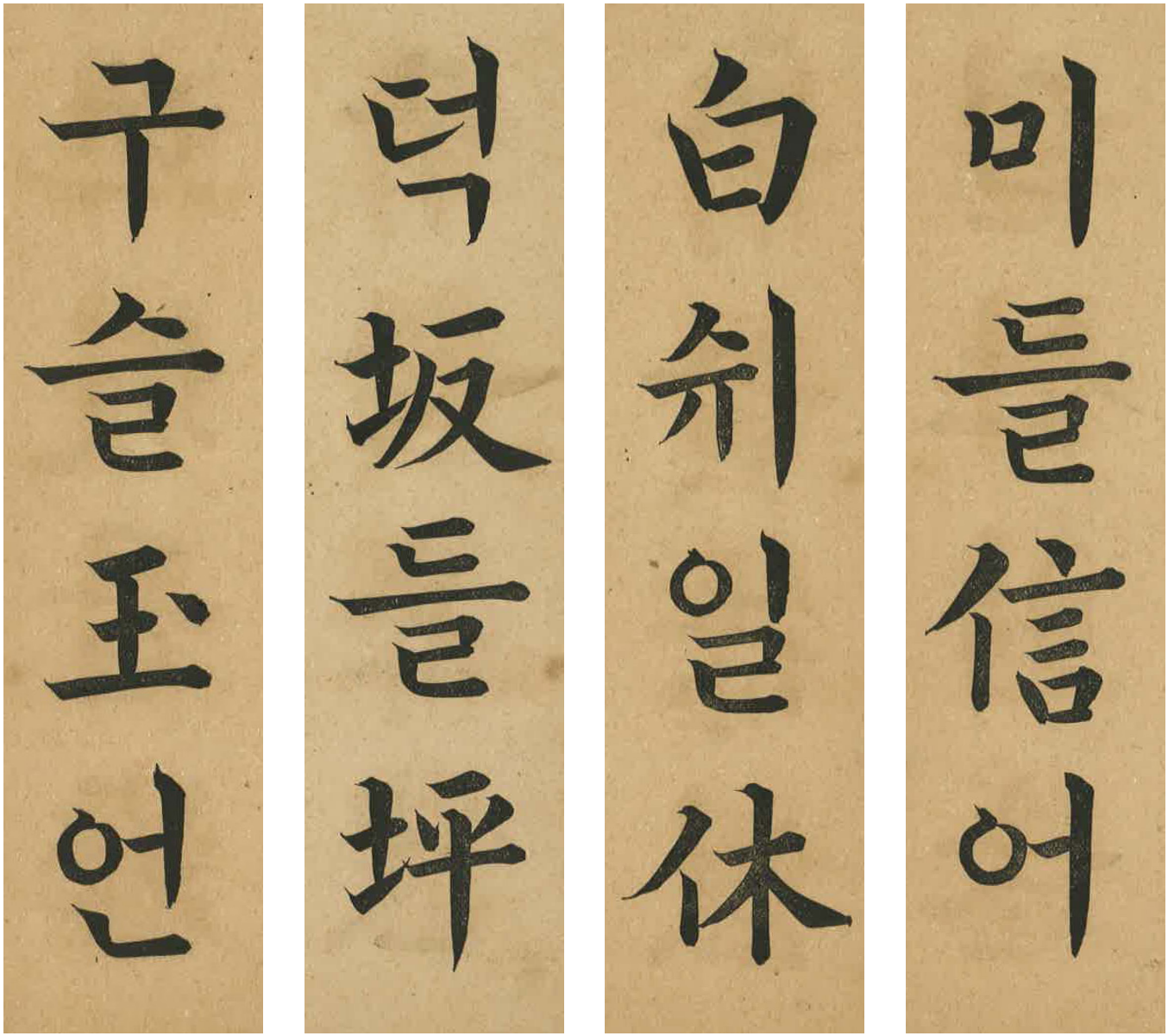
도판 8-4.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3~16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5.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7~20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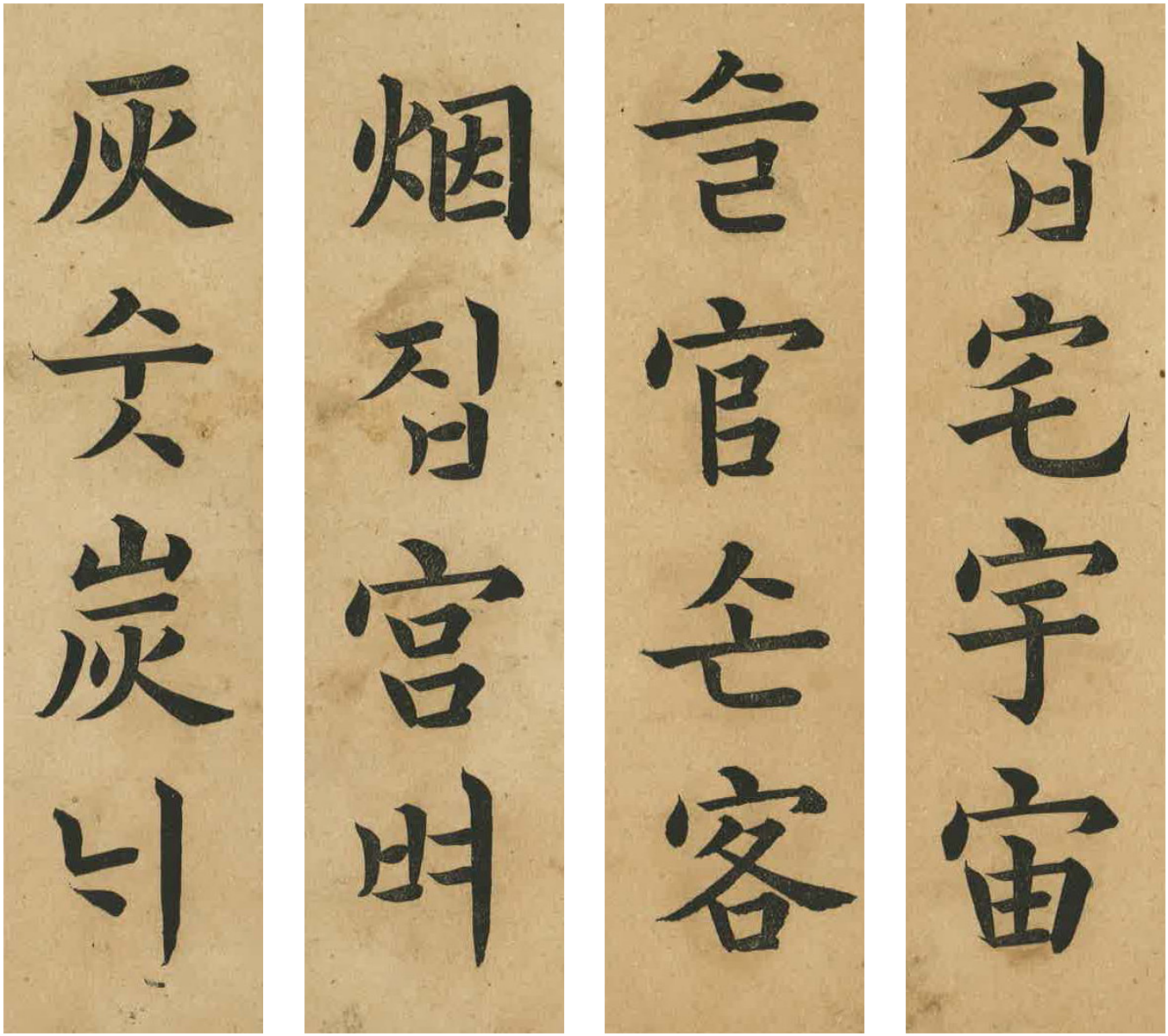
도판 8-6.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1, 22, 24, 25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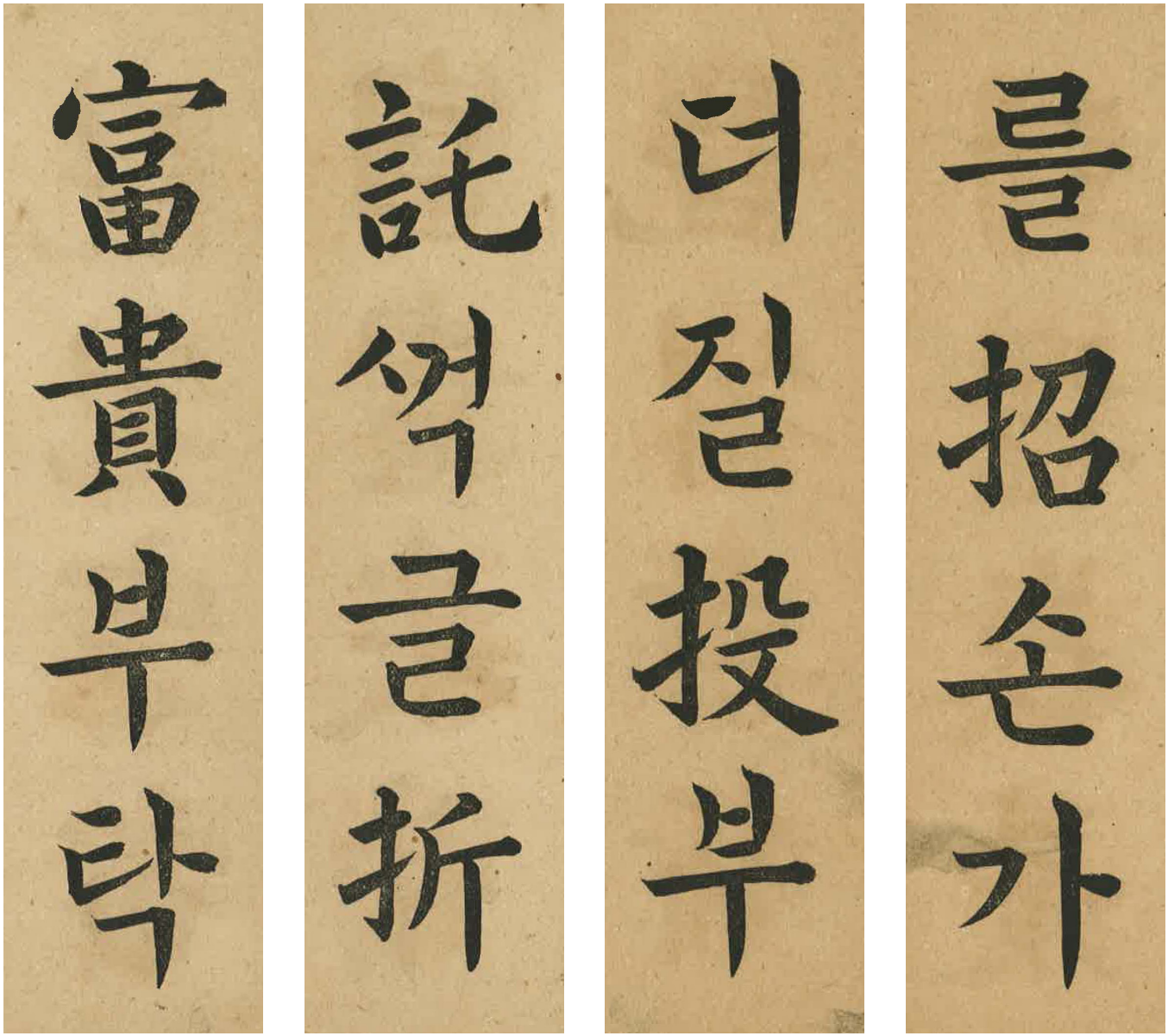
도판 8-7.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6~29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8.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0~33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9.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4~37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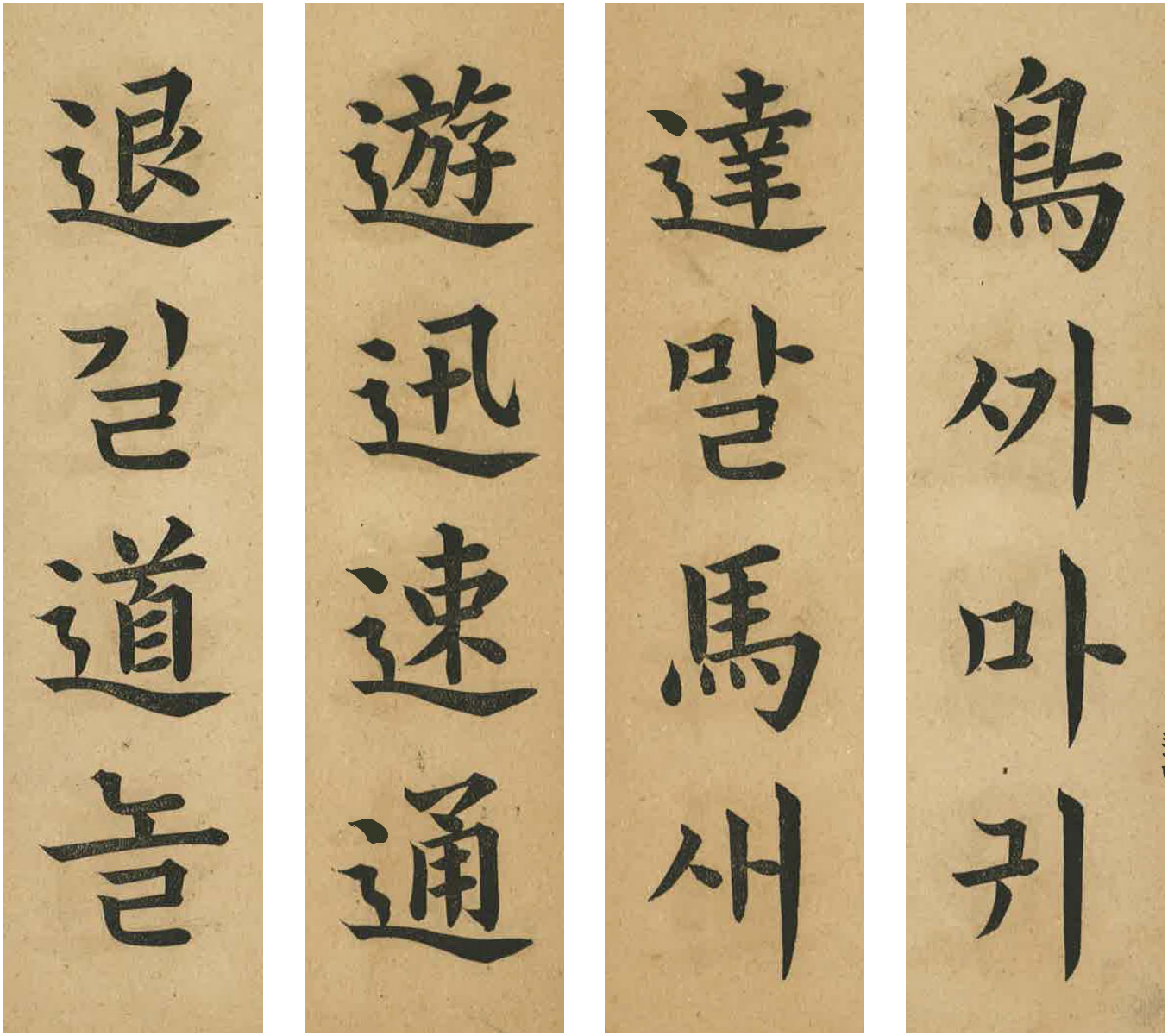
도판 8-10.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8, 40, 43, 4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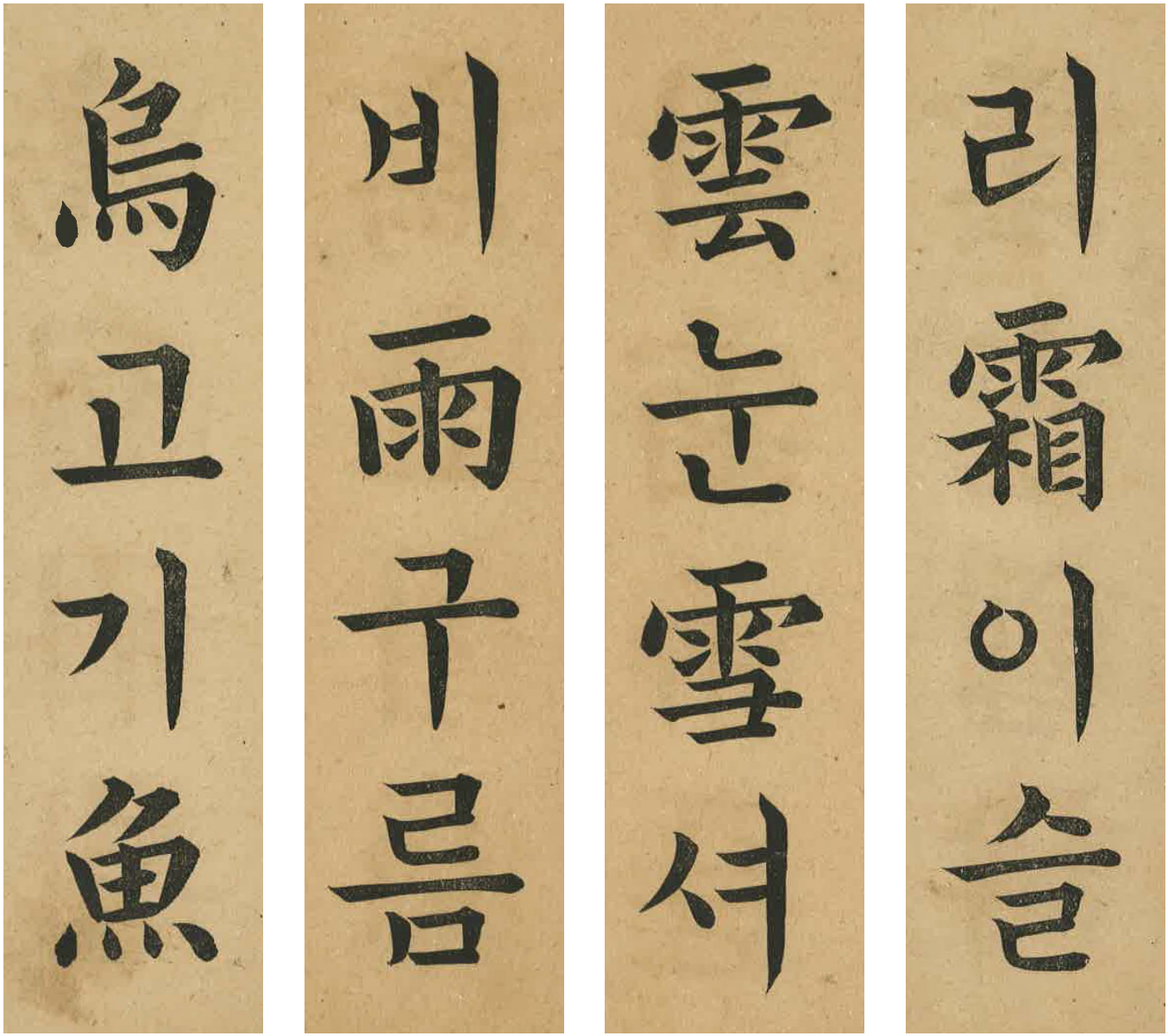
도판 8-1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45, 46, 48, 49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1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1~54쪽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도판 8-1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5~58쪽

2.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도판 8-14.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0쪽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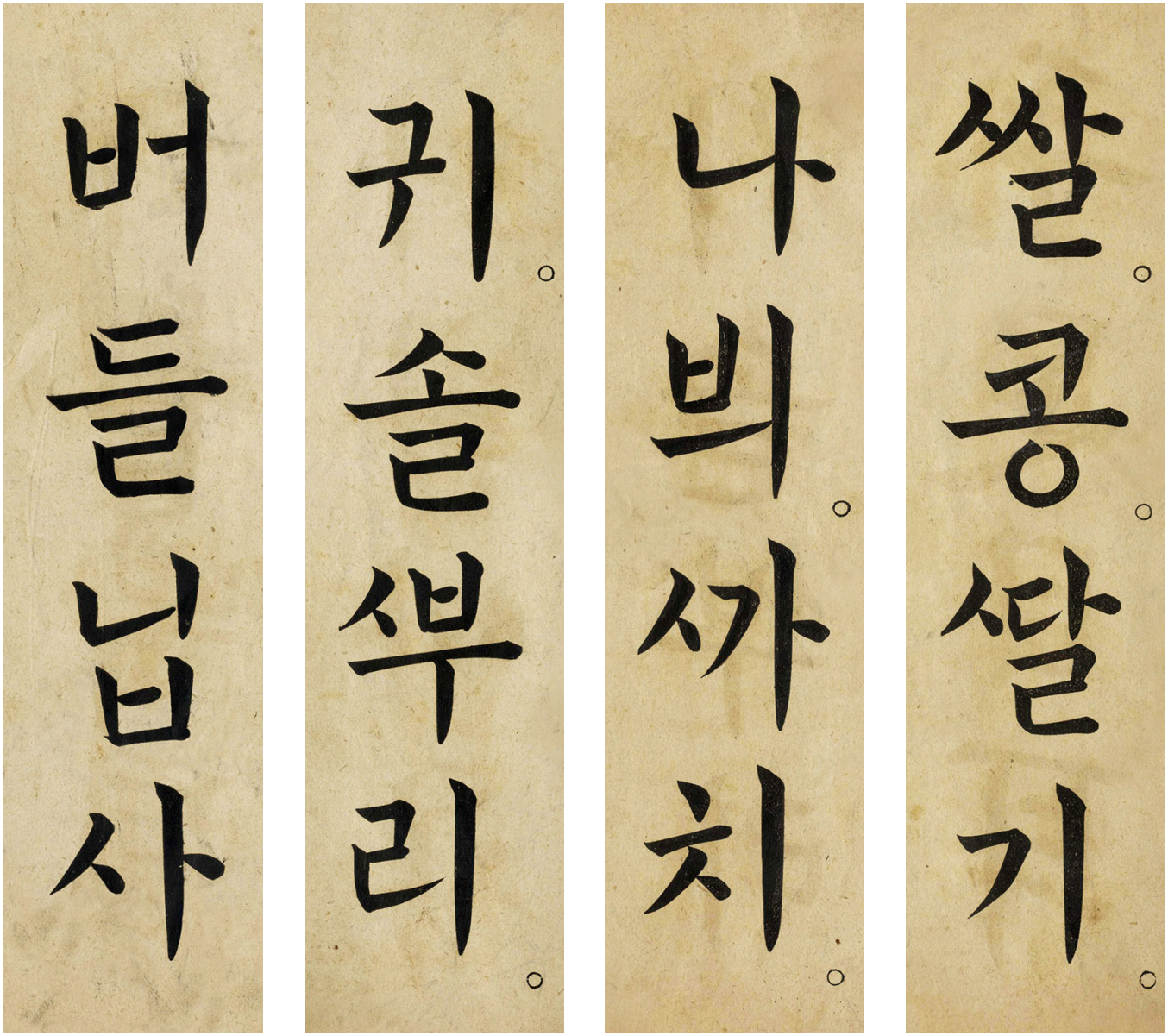
도판 8-15.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1~24쪽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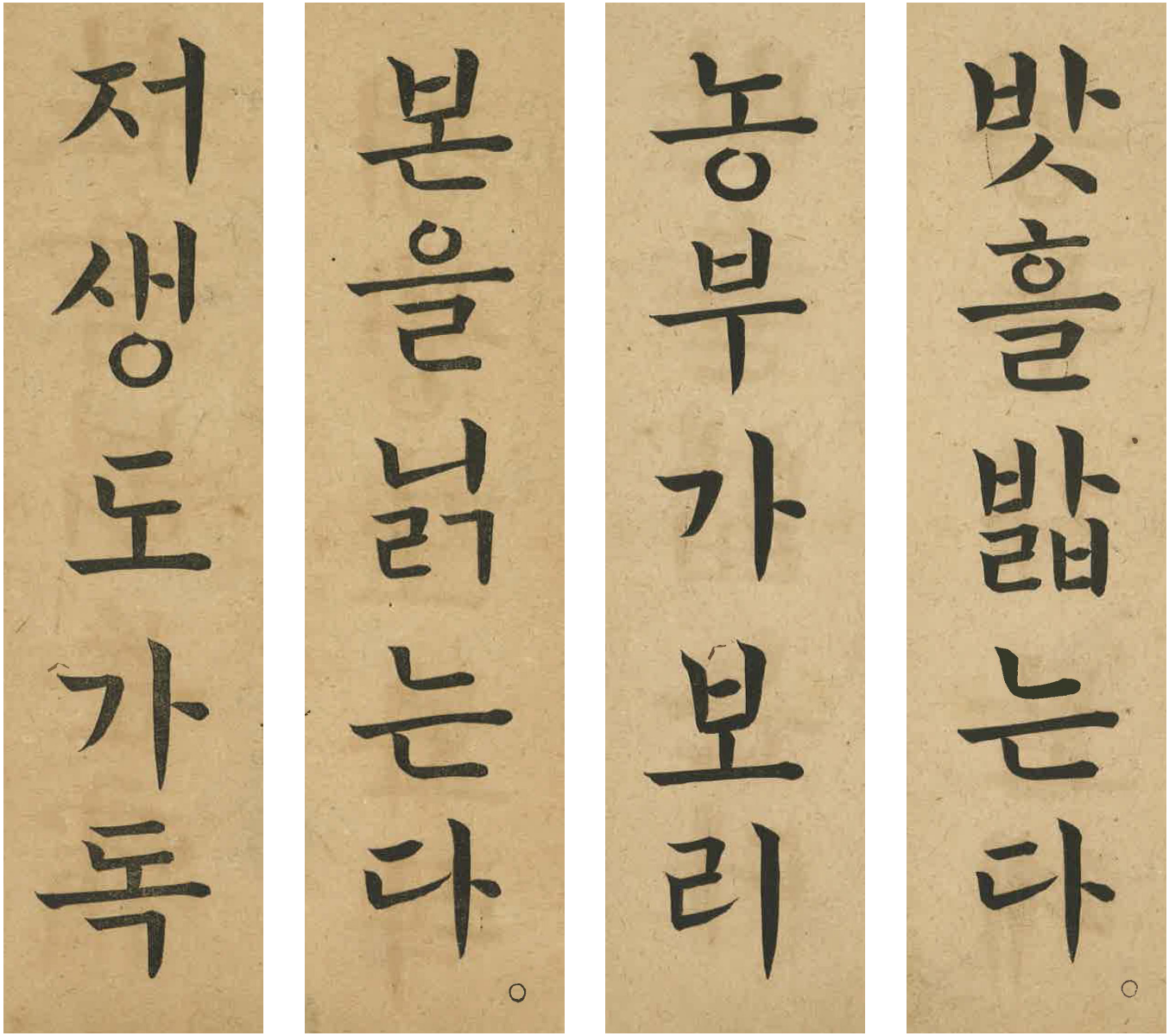
도판 8-16.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5, 26, 39, 40쪽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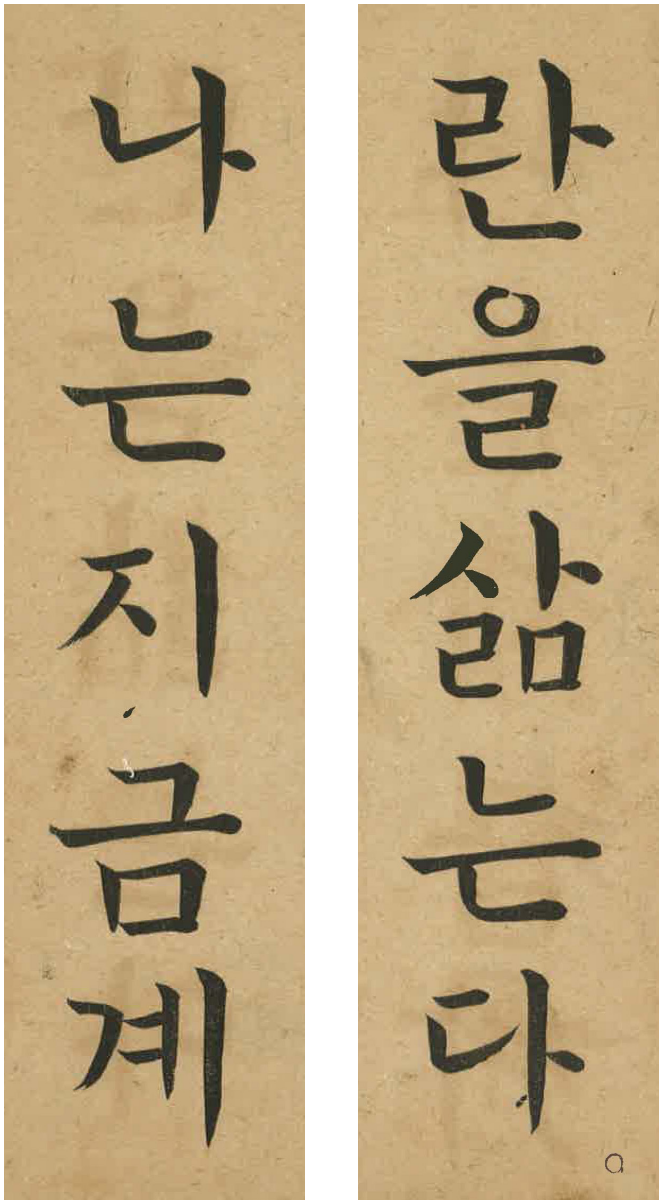
도판 8-17.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41~44쪽

3.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도판 8-18.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9~12쪽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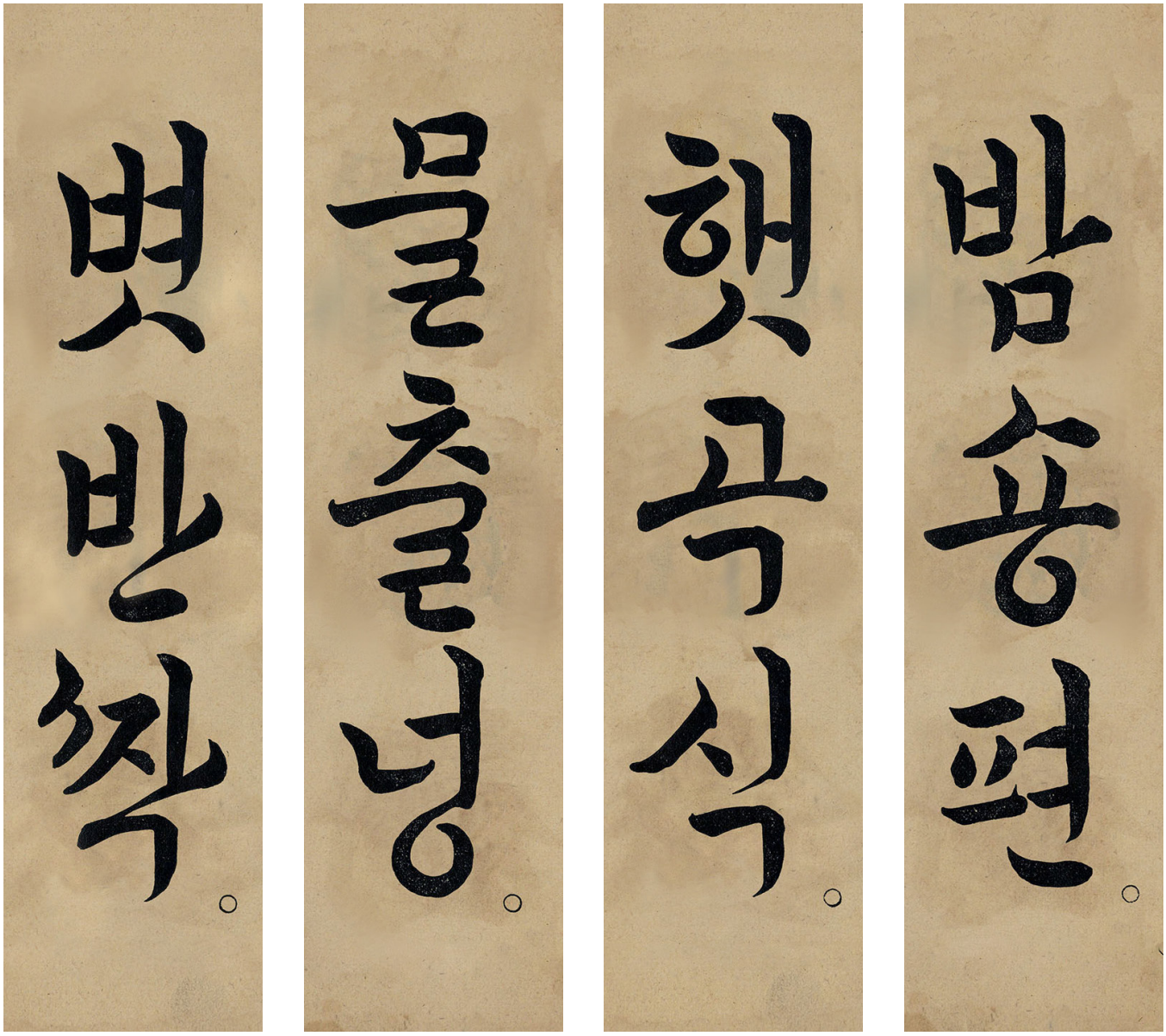
도판 8-19.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3, 14쪽

4.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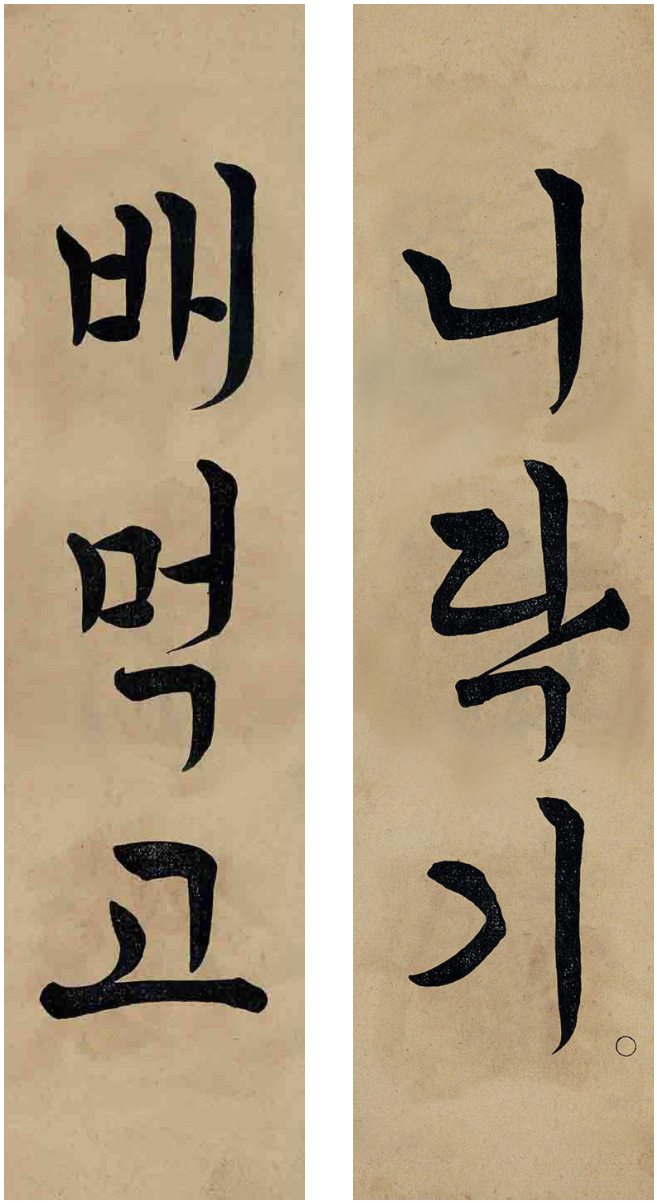
도판 8-2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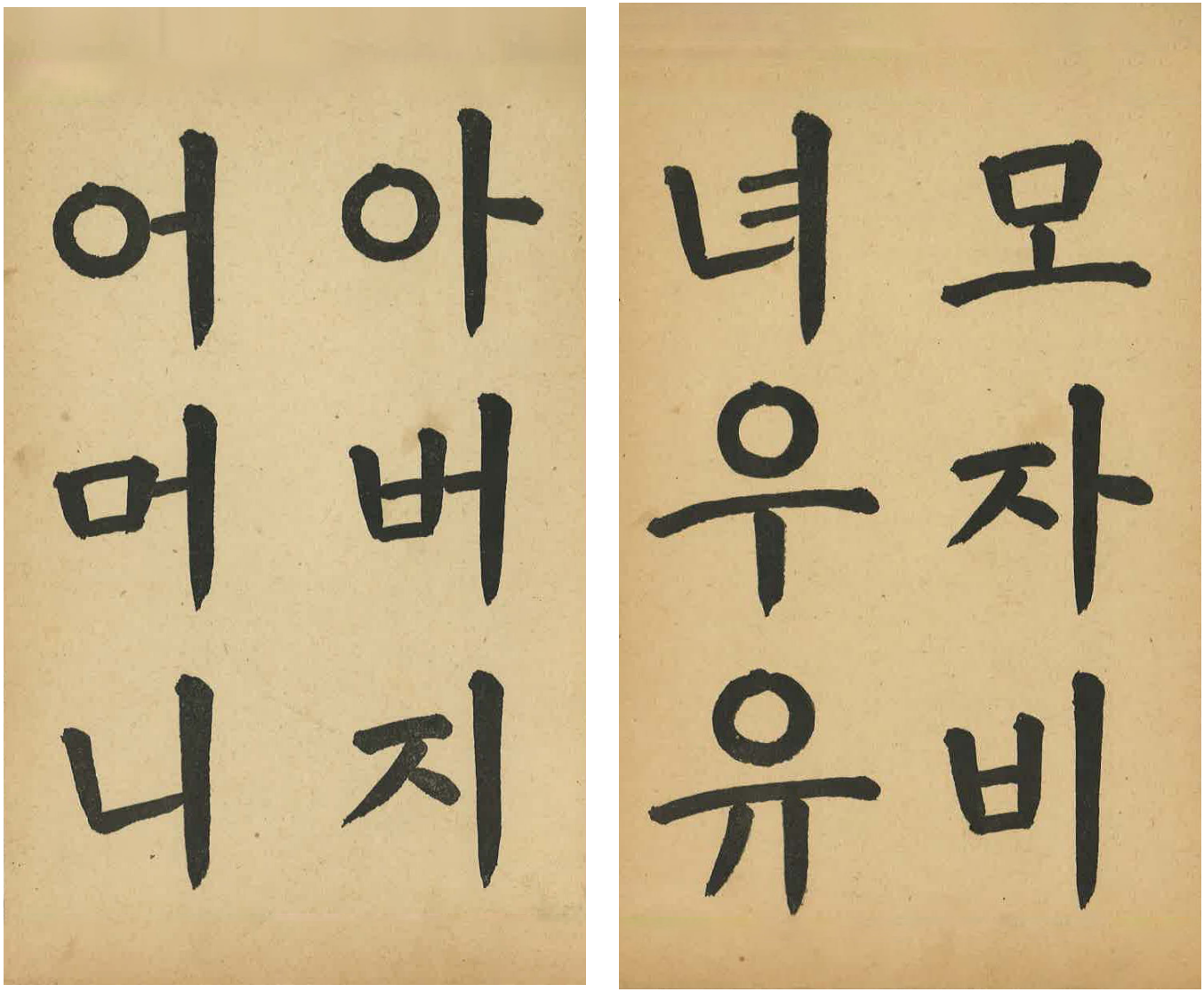
도판 8-21.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8쪽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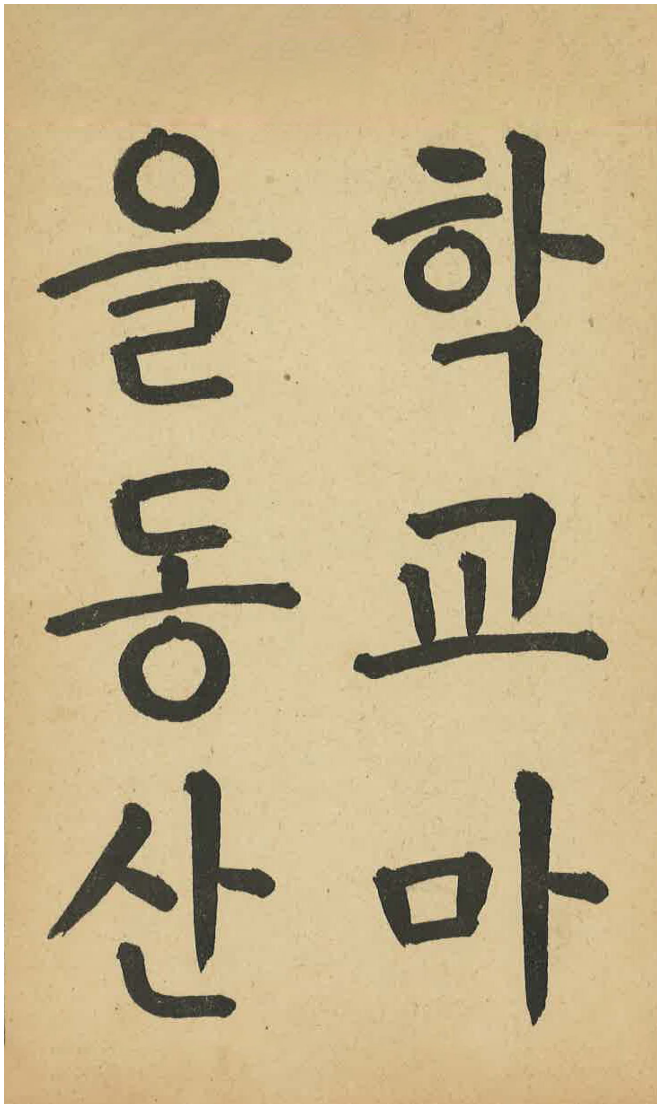
도판 8-22.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9, 10쪽

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6.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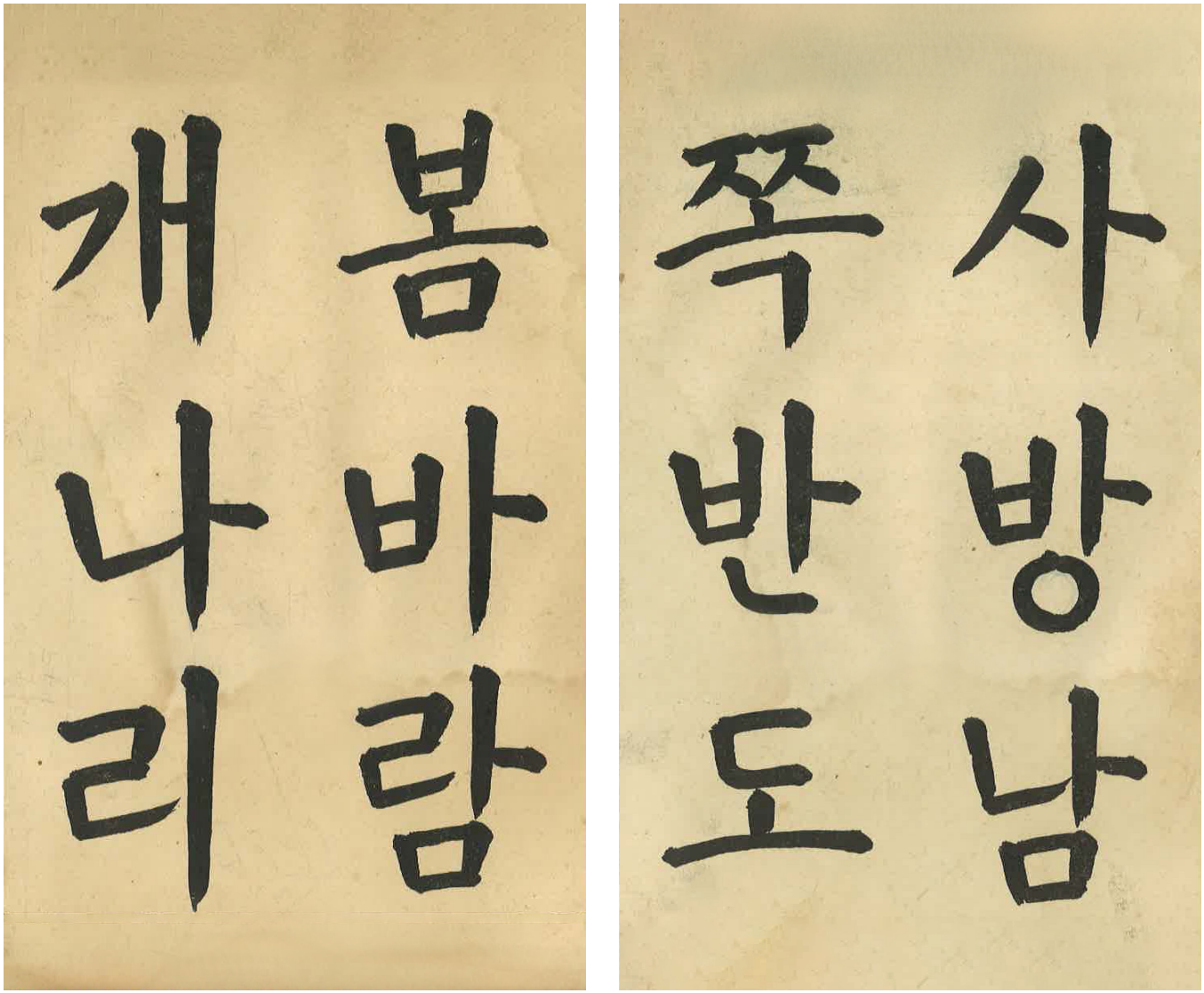
도판 8-2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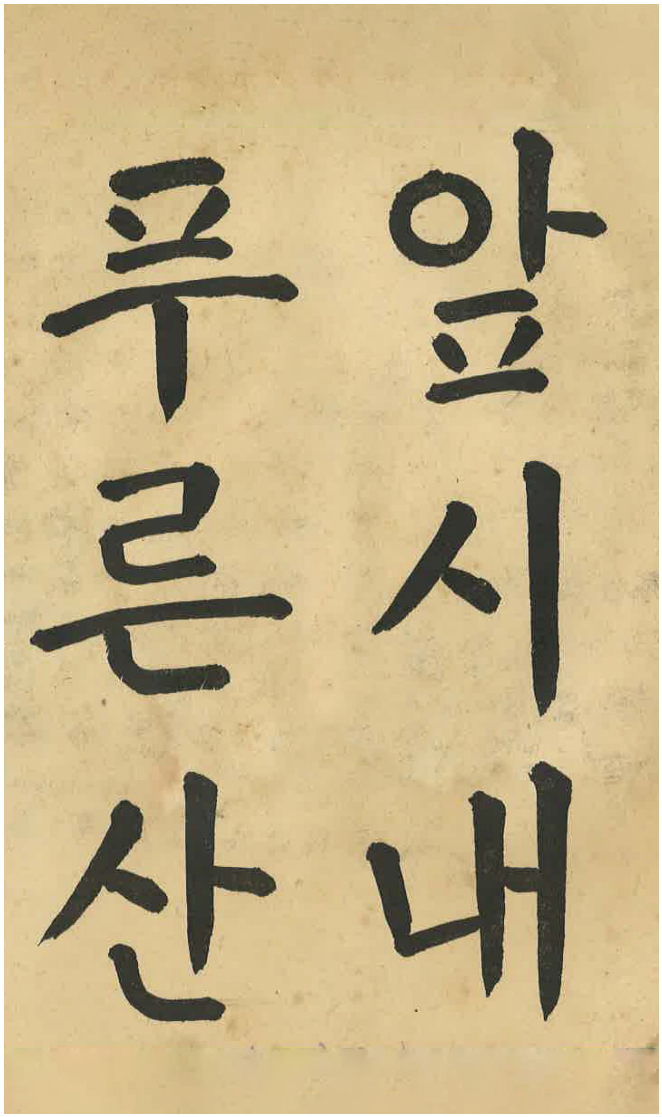
도판 8-24. 朝鮮總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7.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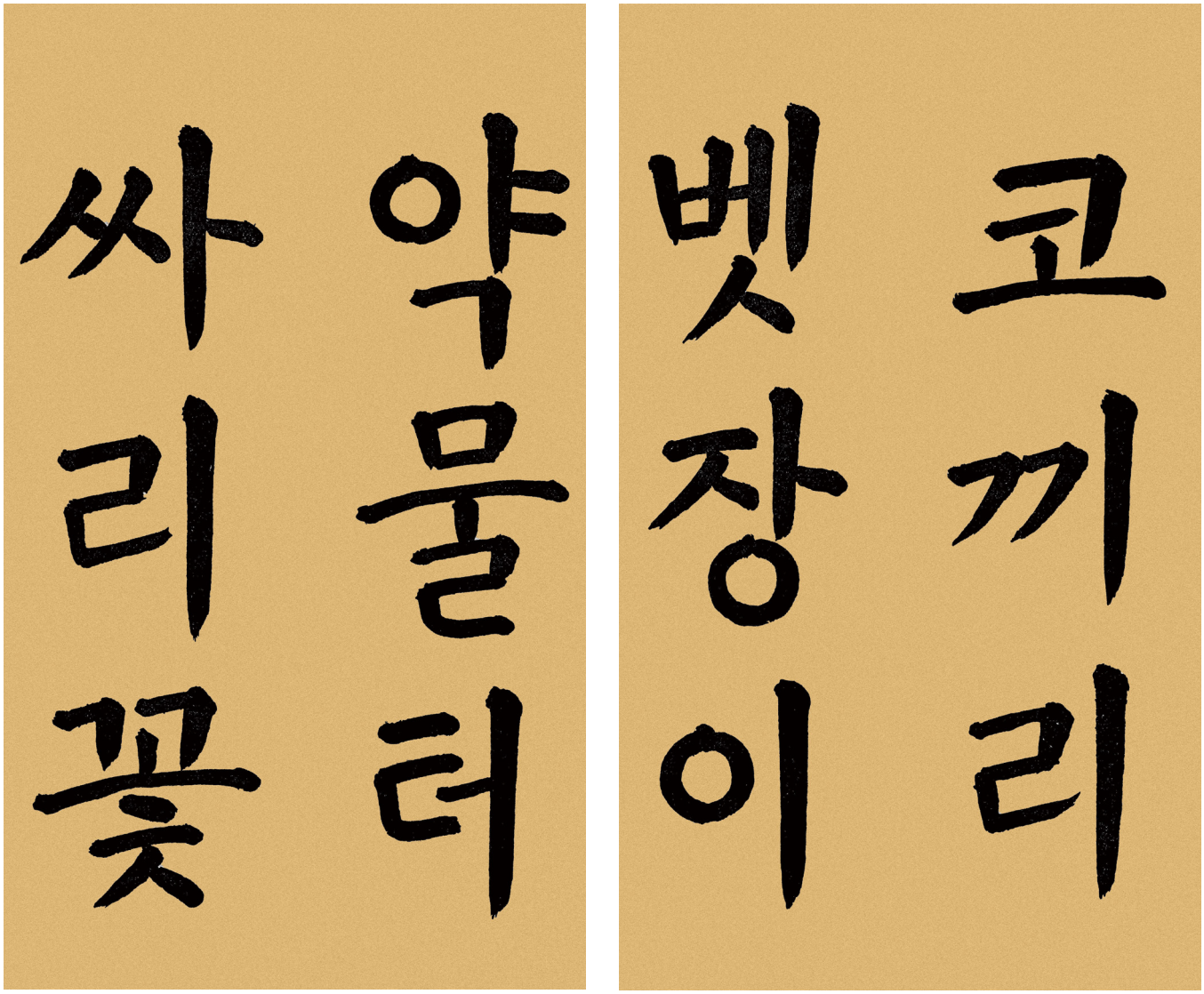
도판 8-2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도판 8-26.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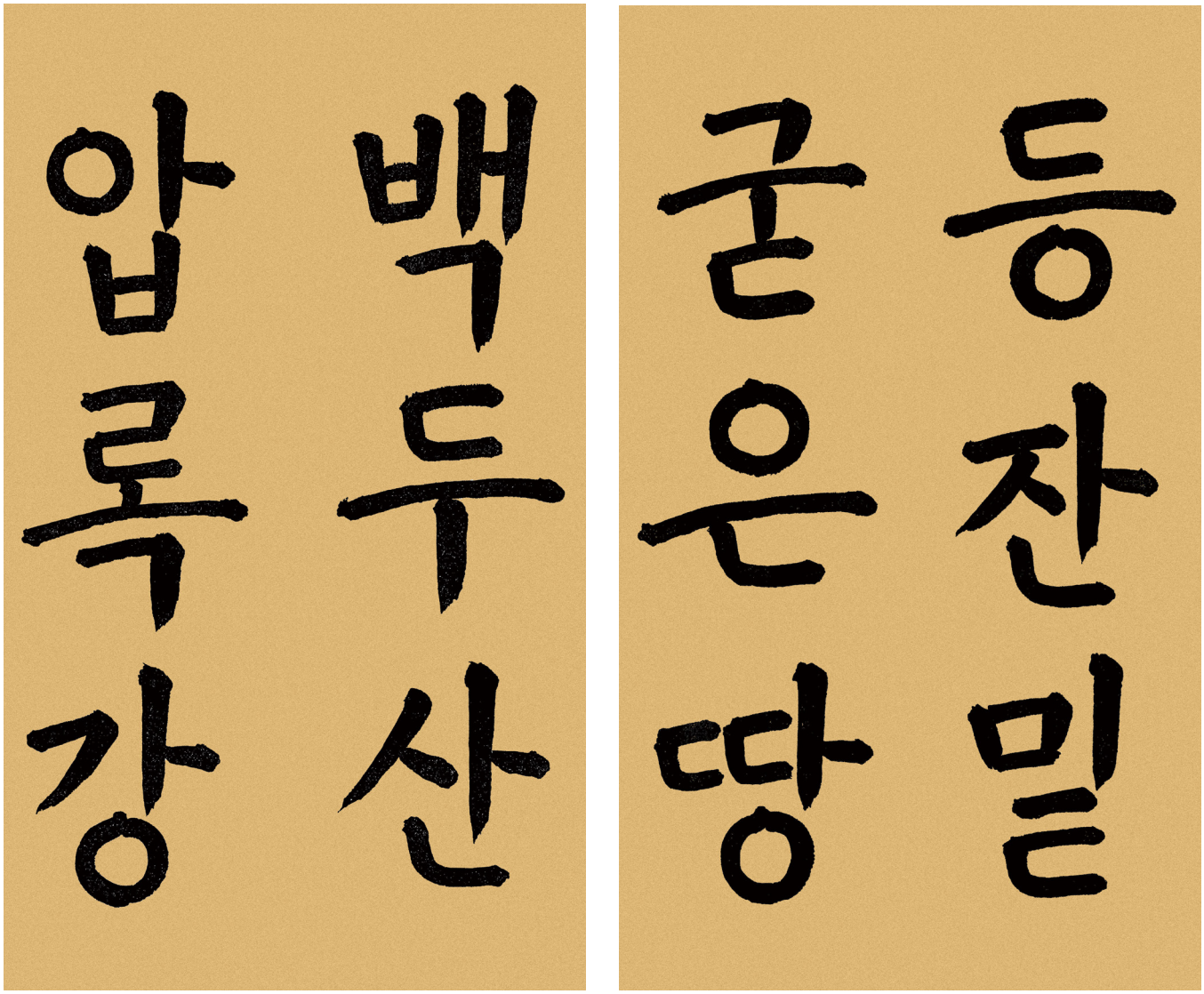
도판 8-27.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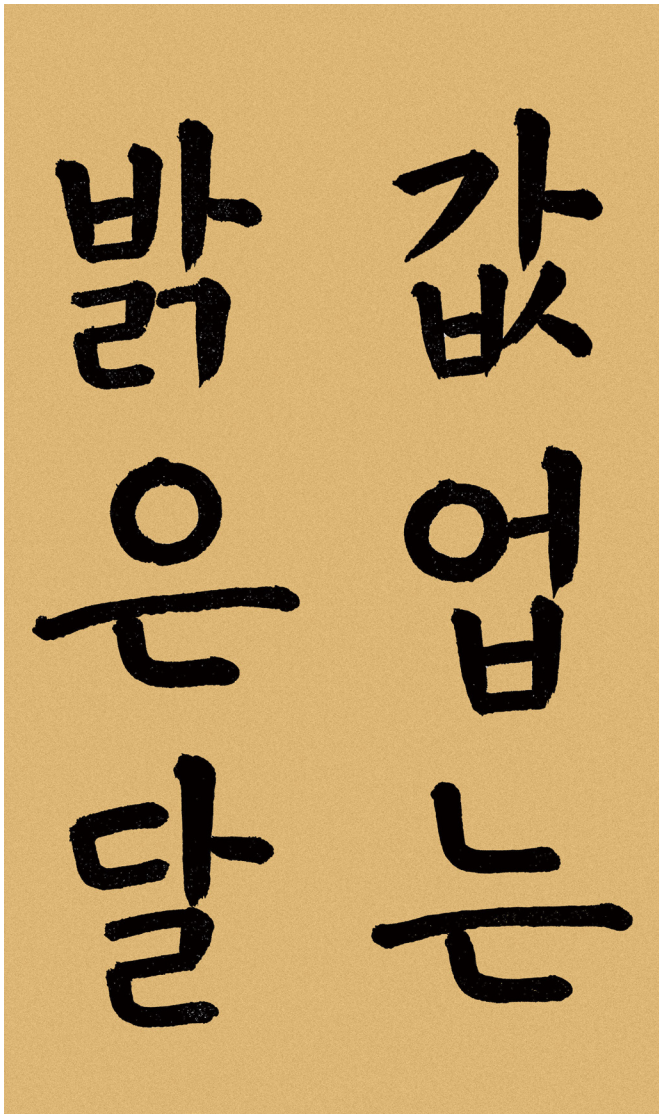
도판 8-2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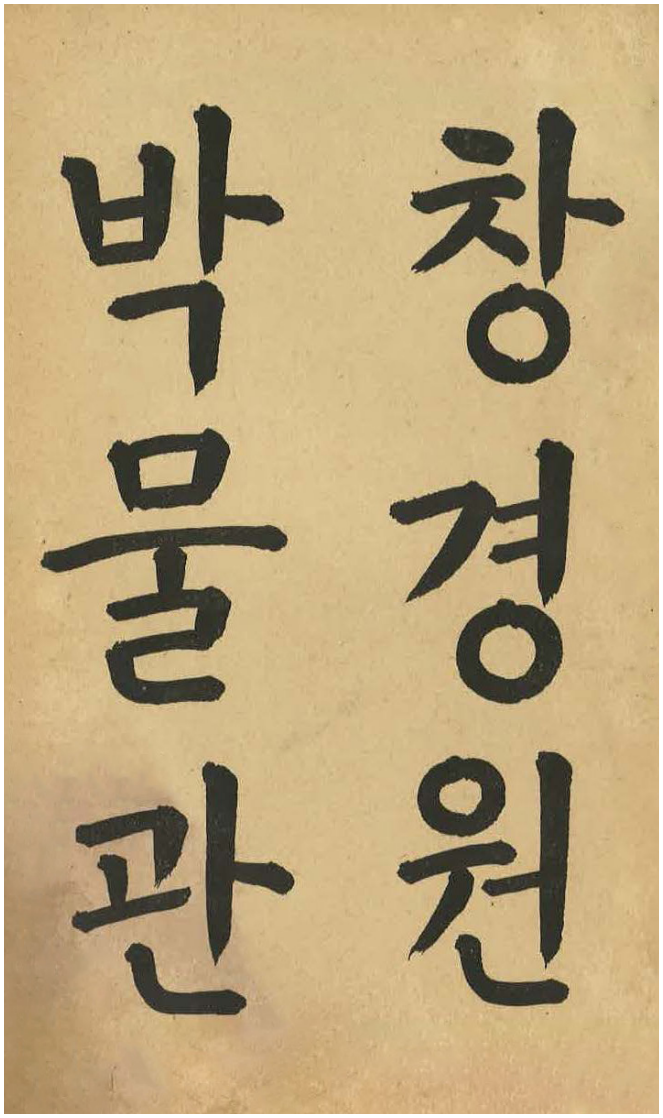
도판 8-2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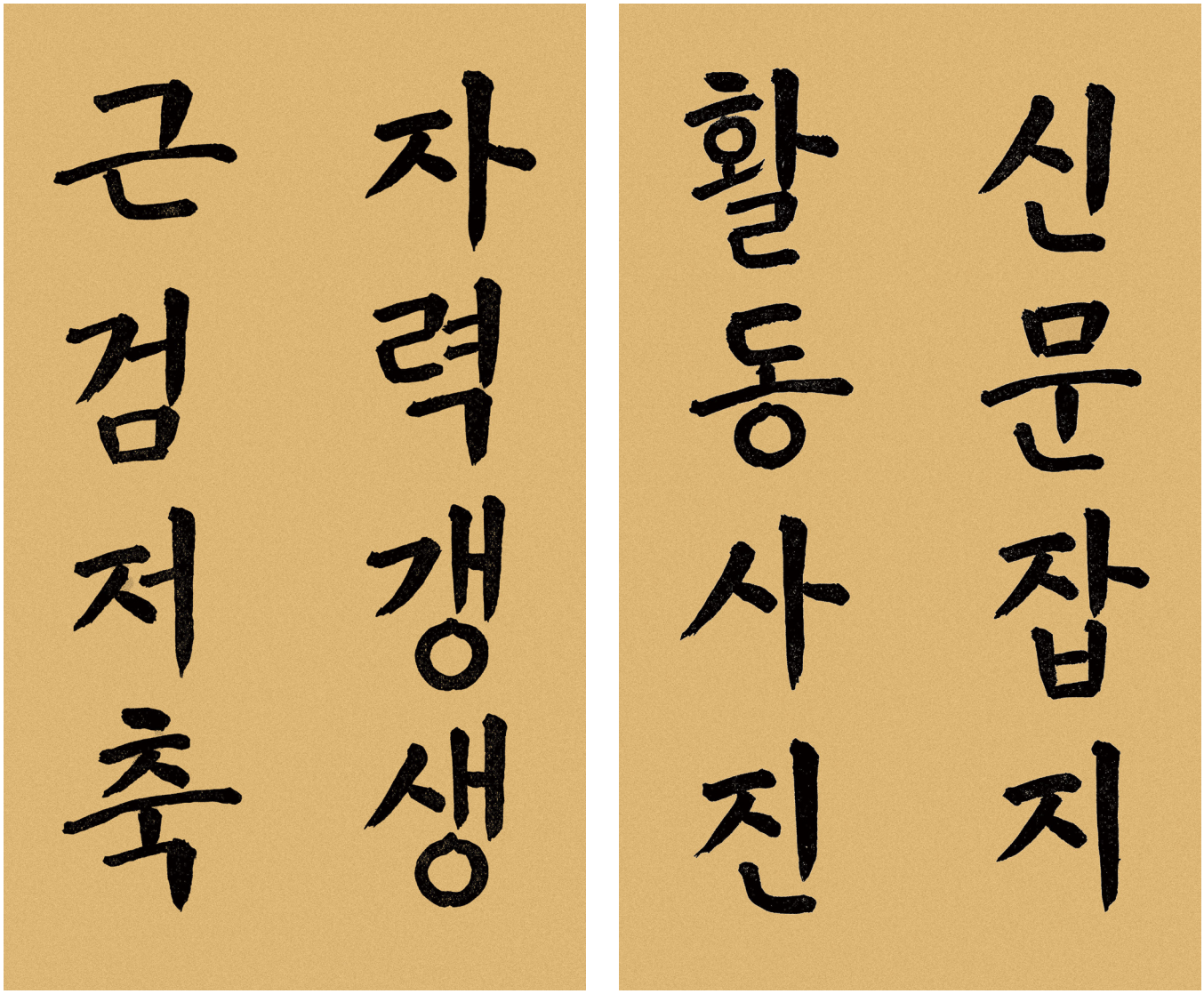
도판 8-3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1. 朝鮮總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2.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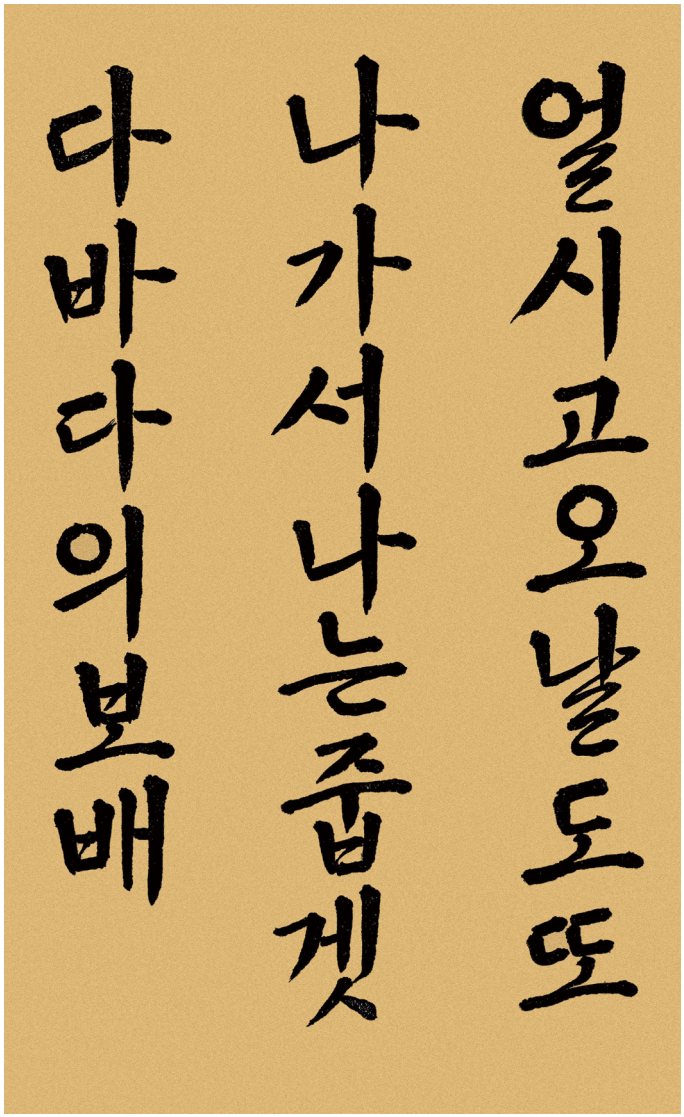
도판 8-31. 朝鮮總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朝鮮總督府,『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1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도판 8-32.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15쪽

14. 朝鮮総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도판 8-33. 朝鮮総督府,『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14쪽

제9장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조선왕조실록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왕직李王職(일제 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의 주관하에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편찬한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처음으로 한글이 등장한다. 고종실록의 필사 시기인 1930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 사이의 한글 서체를 볼 수 있어 실록의 일부를 인용한다.

1.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의 주관하에 고종 45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실록이다.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원명 高宗太皇帝實錄)은 편년 기사 48권 48책(고종 즉위년인 1863년에서 광무 11년인 1907년까지 45년간의 기사)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편찬한 정부본正副本은 영사본 40부와 같이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잔여 160부의 영사본은 관계기관에 반포되었다.

오늘날 유포된 74권 60책 3,781장으로 된 『고순종실록』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의 영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1970년, 탐구당探求堂에서 상 · 중 · 하 3권으로 영인 축쇄한 것이다. 이에는 원 실록에 없는 총색인 1권을 별책부록으로 붙였고 매권마다 목차를 만들어 권 초에 붙였으며, 또 구두점을 찍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였다.

편찬 계획에는 1년 기사를 1권 1책에 수록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고종실록』의 경우 즉위년을 원년으로 통합하고 1894년(고종 31)과 1897년(광무 1) · 1898년 · 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책하여 전 48권 48책이 되었다.

이 실록이 편찬된 때는 일제식민통치기日帝植民統治期이다. 1927년 4월 이왕직에서는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준비실을 설치해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자료를 추출, 등사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3월까지 만 3년에 『일성록日省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각종 기록 2,455책을 이용하여 총계 24만 5,356매를 등사하였다. 실록 편찬에 필요한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이왕직에 편찬실을 설치하고 1930년 4월 편찬위원을 임명, 배치하여 실록 찬술 작업을 착수하였다.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다. 그러나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서임敍任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의 예식과장禮式課長이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직을 맡겨 실록 찬술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 총책임은 1930년 4월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오다小田省吾가 맡았다.

편찬실에는 위원장 · 부위원장 밑에, 편찬에 필요한 공 · 사의 문서를 수집하며 사적史蹟의 조사 및 관계자로부터의 사실 청취의 일을 맡는 사료수집부, 각 사료에 기초하고 역대 실록에 준하여

편년체의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편수부, 편집된 원고에 대하여 사실史實의 정확을 기하고, 문자 장구章句를 정리하여 실록 원고를 작성하고 간행할 때 교정하는 일을 맡는 감수부의 3 부서를 두었다. 그리고 편집부만은 다시 1 · 2 · 3반의 세 반으로 나누었다. 각 부에는 위원 · 보조위원 · 서기를 두었다. 그리고 위원장 직할 하에 서무위원 · 회계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서기가 담당하였다.

편찬위원들은 기술記述 · 체재 · 편책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哲宗實錄』의 예에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다른 것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목록을 작성, 그 일자 밑에 중요 기사를 요약, 수록하고, 날짜를 간지 대신 숫자로 표현하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 · 약조 등을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편찬에 활용된 사료는 『승정원일기』가 주된 것이었고, 『일성록』·『계제사일기稽制司日記』 등도 이용되었다. 그 밖에도 각 사司의 등록謄錄 · 일기 · 계록啓錄 · 존안류存案類 · 문집류와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 및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가 이용되었다.

이 실록은 민족항일기에 일본인들의 간여干與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편찬 각 반 위원에 의해 편찬된 고서稿書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감책監冊 · 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다. 또 실록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장관의 결재를 얻어 간행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이 실록의 가치를 손상損傷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순종실록』 부록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강점 이후인 민족항일기의 황실과 이왕직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 멸망 후의 기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고종실록』·『순종실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그 밖의 관찬기록官撰記錄의 중요 내용을 채록하고 있어 고종시대사를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

개항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나 이후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각국과의 여러 약장約章, 관제의 개폐改廢,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詔書 · 칙령勅令 · 법률法律 · 각령閣令 · 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 근대사 연구에 주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종순종실록의궤高宗純宗實錄儀軌』
『실록편찬회회록實錄編纂會會錄』
『이왕직삼십년사자료李王職三十年史資料』
「고순종실록해제高純宗實錄解題」(최영희, 『고순종실록高純宗實錄』, 탐구당, 1970)
집필자 이원순

이원순,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3942

1-1.『고종실록高宗實錄』,「국고國庫의 고갈枯渴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다」, 1895년 3월 5일



務大臣徐光範奏也○初二日○初三日○初四日農商大臣嚴世永奏上年
七月後에商理局을農商衙門에暫屬ᄒᆞ얏사오나農商衙門에設置가旣有
ᄒᆞ온則該局은革罷ᄒᆞ오ᄆᆡ各道任房도一體撤罷ᄒᆞ야收稅等弊를嚴禁ᄒᆞ
고負褓商의作業을隨便行止케ᄒᆞ옴이何如ᄒᆞ올지允之○初五日內務大
臣朴泳孝奏京畿監司申獻求의牒報를見ᄒᆞ온즉抱川公兄等이來告大小
民人이今初三日에聚黨來會ᄒᆞ야公堂에攔入ᄒᆞ야官長을凌逼ᄒᆞ고境外
에曳出ᄒᆞ기에至ᄒᆞ다ᄒᆞ온故로該縣監丁大英은爲先罷黜ᄒᆞ옵고轉奏ᄒᆞ
옵기를請ᄒᆞ오나該縣監丁大英은所報를依ᄒᆞ와罷黜ᄒᆞ옵고幾營查報를
待ᄒᆞ와其罪狀은法務衙門으로ᄒᆞ야곰拿問重勘ᄒᆞ오ᄆᆡ抱川縣監의代ᄂᆞᆫ
前縣監趙昌鎬로差下何如允之○度支部大臣魚允中因國庫奇絀借款三
百萬元于日本銀行其條約如左

借款條約

第一條大日本帝國日本銀行에서金三百萬元을大朝鮮國政府에貸與
함이라日本銀行에서前項款額內에百五十萬元은銀貨로ᄡᅥ百五十
萬元은該行兌換銀券으로ᄡᅥ限至大日本曆明治二十八年七月三十

一日ᄭᅡ지均히大朝鮮國仁川港에서駐在該港之大朝鮮國監理事務
에게移交喜

第二條此項借款之利率은大日本曆一箇年에元金百分之六으로定卽
每年에元金百元에利息六元하고自借款之日로限至償還之日하야
大日本曆六月及十二月兩次로ᄒᆞ야大朝鮮國政府에서每次에半箇
年分之額을大日本帝國日本銀行으로支還하고오작大日本曆明治
二十八年分之利息은須於此年十二月에一時合併支還喜

第三條大朝鮮國政府에서自大日本曆明治二十八年으로至明治三十
年之間에此項借款之元金은姑閣之하고明治三十一年十二月及明
治三十二年十二月兩次에定하야每次에百五十萬元式償還喜

第四條大朝鮮國政府에서此項借款之元利金을均히該行兌換銀券으
로ᄡᅥ大日本帝國東京日本銀行本廛으로支還喜

第五條大朝鮮國政府에서現有欲在大日本帝國募集公債之意하ᄂᆡ倘
日後에該公債募集이有成則비록前條所載之限內라도其募集金으
로ᄡᅥ此項借款을儘先償還하고大朝鮮國政府에서만일財政을整理

도판 9-1.『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b면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고종실록高宗實錄』, 「국고國庫의 고갈枯渴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다」, 1895년 3월 5일



乙未 大朝鮮國開國五百四年 高宗大皇帝實錄卷之三十三 十一

하야餘貲가有한즉비록前條所載之限內라도償還함을得홈
第六條大朝鮮國政府에서大朝鮮國收入하는租稅로써此項借款元利
金支償하는擔保를삼고만일逾期하야元利金을償還치아니홀즉日
本銀行이大朝鮮國收入租稅에맛당히先取權을得有홈
朝鮮政府에서向有他項借款하야以各口海關稅項으로作抵者하니
日後에該借款을完淸하거든卽將各海關稅項하야前項擔保를代充
하고만일該稅項이不敷支還홀즉當以前項所載之租稅收入으로補
撥充額홈
此項借款之擔保는卽租稅니卽指以海關稅作充擔保之時云在其未
行完償此項借款之間에不得日本銀行準許則毋變作別樣擔保홈
本契約書는大日本帝國語와大朝鮮國語로써各成二本하야大朝鮮
國度支大臣魚允中과大日本帝國日本銀行總裁代理同銀行支配役
鶴原定吉이가記名鈐印홈大朝鮮國外務衙門의蓋印을經홀後大朝
鮮國政府及大日本帝國日本銀行은各其一通式所持로홈但本契約
의意義에關하야疑義를生할時는大日本帝國語로써作홀契約書에
據하야解釋홈
大日本曆明治二十八年三月三十日
大朝鮮曆開國五百四年三月五日大朝鮮國漢城에서記名調印홈
大日本帝國日本銀行總裁代理同行支配役 鶴原定吉
大朝鮮國度支大臣 魚允中

初六日○初七日○初八日○初九日○初十日內務衙門訓示于各道曰我
國의固有홀獨立基礎를立홀뗘百度革新홀銳氣가人民과更始홀야文明
域에進코저홀야本大臣이愚不才를不顧홀고百弊를芟除홀야士民의安
寧幸福을期홀야玆에條列訓示홀니其各遵守勿違言을望홀노라第一條
民은貴賤과親疎로써公平히홀야偏頗와私曲이업게홀事第二條任用을差別이업게홀事第三條里任은該洞으로써座首의任을擔홀事第四條鄕任과軍門職을空帖과借銜이업게홀事第五條
民이宮庭에跪伏홀고立홀고홈은節과民이라稱홀고小人이라稱홀고主人이라稱홀고僕이라稱홀고行止말을事第七條宮長이胥隷에게와主人이雇傭에게專히强暴로써待
치勿홀事第八條都有司掌議와및儒學과南學黨의名色을가빌禁防홀事第十條人民을보기本國史와本國文을敎홀事第十一條京鄕에出沒홀不具홀民을救護홀事第十二條窮困홀鰥寡孤獨과身體홀不具홀民을救護홀事第十三條棄홀兒를收養홀事第十四條
男女가毒을飮홀者를設홀事第十五條法을設홀事第十六條嚴禁홀事第十七條
人을一切禁斷홀事第十八條
命을害홀者를懲治홀事第十九條
身體를毁傷홀者를治罪홀事第二十條
父母喪을當홀者를給暇홀事第二十一條
夫婦女가毒을飮홀者를救治홀事第二十二條

도판 9-2.『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1a, b면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국고國庫가 고갈됨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元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였다.
그 조약은 다음과 같다.

차관 조약借款條約

제1조

대일본 제국大日本帝國 일본 은행에서 돈 300만 원을 대조선국大朝鮮國 정부에 대여한다. 일본 은행에서는 전항前項의 차관액 가운데서 150만 원은 은화銀貨로, 150만 원은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兌換銀券으로 하되, 대일본 역曆 명치明治 28년 7월 31일까지 모두 대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주재하는 당해 항구의 대조선국 감리사무監理事務에 넘겨준다.

제2조

이 차관의 이자율은 대일본 역으로 1년에 원액元額의 100분의 6으로 정하고(즉 매년 원금 100원에 이자가 6원임) 차관을 받은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대일본 역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대조선국 정부에서 매번 반년분의 금액을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에 상환한다. 오직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분의 이자는 이해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대일본 역으로 명치明治 28년부터 명치明治 30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차관의 원금 상환을 잠시 그만두고, 명치明治 31년 12월과 명치明治 32년 12월 두 번으로 정하여 매번 150만 원씩 상환한다.

제4조

대조선국 정부는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다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으로 대일본 제국의 동경東京 일본 은행 본점에 지불한다.

제5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현재 대일본 제국에 공채公債를 모집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혹 뒷날 이 공채의 모집이 성공하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그 모집한 돈에서 이 항의 차관을 모두 먼저 상환하고, 대조선국 정부에서 만일 재정을 정리하여 여유가 있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대조선국 정부에서 대조선국이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담보로 삼고, 만일 기한이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일본 은행은 대조선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먼저 차지할 권한을 가진다.

조선 정부에서 이전에 다른 차관이 있어 각 항구의 해관세海關稅 항목을 저당抵當한 것이 있다. 뒷날 당해 차관을 완전히 청산하면 즉시 각 해관세 항목을 앞 항목의 담보로 대신 채우고, 만일 이 당해 세의 항목이 상환하는 데 충분치 못하면 앞 항목에 기록한 조세 수입으로 보충하여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이항 차관의 담보는 바로 조세로서 (바로 해관세로 담보를 보충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항 차관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본 은행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담보로 바꾸지 못한다.

본 계약서는 대일본 제국의 언어와 대조선국의 언어로 각각 2통씩 만들어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과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總裁代理 동 은행 지배역支配役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대조선국 외무아문外務衙門의 인장印章을 찍은 다음 대조선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은 각각 한 통씩 가진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대일본 제국 언어로 만든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 3월 30일

대조선 개국開國 504년 3월 5일

대조선국 한성漢城에서 서명 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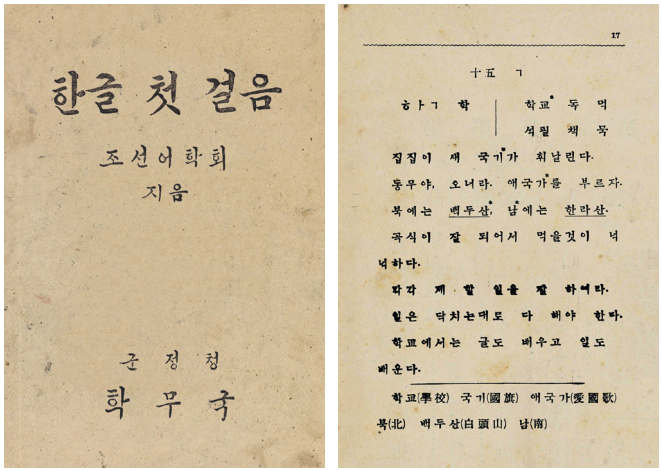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 동 은행 지배역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제10장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韓契敎科書(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韓契書體

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도판 10-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7쪽

『한글 첫 걸음』은 광복 후 최초로 개발된 초 · 중등 과정용 국어과 교과용 도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것만이 아니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 · 중등 과정 수준의 '한글 익힘책'으로 보급되었다.

일제 침략 세력이 이 땅에서 물러나고 우리말을 되찾은 마당에 국어 교육이야말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과 교재들에 우선하여 개발한 국어 교육 수단이 『한글 첫 걸음』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 교재들이었다.

당시 조선어학회(오늘의 한글학회)는 우리말 교재 저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등국어교본』(상, 중, 하)과 『중등국어교본』(상, 중, 하) 등 여러 교과서도 조선어학회가 저작 기관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한글 첫 걸음』은 조선어학회가 저작한 첫 번째 교과용 도서였으며,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했다. 『한글 첫 걸음』은 1945년 11월 6일에 발행되었으며, 인쇄 및 발행소는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이다. 이 책은 정식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편찬 · 발행되어 임시로 사용된 교재이기는 하나, 초 · 중등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랑받은 책이기도 했다.

당시 정식 교과서가 개발되기에 앞서 사용된 여러 임시 교재가 그러했듯이, 그저 제한된 시기만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특별 교재'로서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 부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말 우리글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일제 식민 잔재를 하루빨리 씻어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데 따른 첫 결실이 『한글 첫 걸음』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 학습서로 이 책을 편찬 · 발행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한글을 첫 걸음부터 익혀야 한다는 목적에 충실히 하고자 이 책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책머리에 이 책을 이용하는 데 따른 '주의注意'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초등국어』와 『중등국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 공부의 터전을 닦아주기 위해 지었고,
2. 이 책을 가르치는 교사는 『초등국어 한글교수지침』2)을 참고할 것이며,
3. 한글 자모 24자와 쌍자음, 겹모음의 명칭과 그 읽는 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글 첫걸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2627&cid=58156&categoryId=58156

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도판 10-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 2, 20, 30, 45쪽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1-1. 정인보鄭寅普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훈민정음 처음 지으실제 엄어금니의 옛말과 혀와 입시울과 이와 목궁게의 그대로와 및 변화하는 것을 형상하사 정음의 미묘함을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니 이는 세종 예성叡聖으로 인류, 문화 역사에 처음 비최오신 광명이라 반포 전 용비어천가 나고 반포한 뒤 여러가지 서적 번역이 있어 지금에 전하는 바 오히려 몇몇을 세이게 되니 훈민정음을 비롯하야 월린청강지곡을 날經로한 석보상절 같은배 가장 두렷하니 문짜 예롭고 장중하야 태를 아니 보이고 규구規矩로만 쓰온 전차轉借로 저 은殷 주周 고전古篆과 같아 부르고 빤 획이 없고 삐치고 어슷하는 모양을 만드지 아니 하얐더니 나려오며 여러 손을 지나 비로소 필법이 생기여 정자 흘림의 두체 되니 비컨대 진秦 한漢 이래 예서隸書와 해楷 초草 있게 된것과 같다. 대내에서 쓰오시던 제법이 특히 단정 엄중하야 자미 가운대 예 스러움을 가지니 이론바 궁체宮體라 우리 젊은 벗 김충현이 귀주 고가의 후손으로 이 체를 배워 이믜 세상에 알리웠거니와 이제 또 그 쓰는 법을 적어 이 책을 만드니 이로조차 널리 퍼짐을 볼지라 오호라 글짜는 선왕 어제요 필법은 대내 유전 하온 고체라 서를 쓰며 감회를 이긔지 못하노라.

임오 팔월 이십일 명인보鄭寅普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5쪽

1-2. 김충현金忠顯 서문序文,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우리 나라 글씨에 오즉 궁체 하나 있어 전해 오되 그 법을 조리 분명하게 적은 책이 없어 법 찾을 길이 흐미한지라 글씨 쓰는 이의 답답한 배 되고 일로 말미암아 법을 어그럿드리며 어지러이 하는 일 한 둘 아닌 것을 보겠고 더 심하게는 다른 나라의 글씨법을 그대로 끄러드려 쓰는 일도 있으니 보기에 눈 서투르고 이에서 더 아울리지 않는 일이 없다 하리라. 내 일즉이 궁체를 배우고 그 법을 일일이 모아서 책을 만드느라한지 여러 해 되다가 이 책이 모양을 나다낼새 책 꼭대기에 서문을 명담원鄭薝園 어룬께 무른지 벌서 일곱해 쨔 되었으나 그 동안 장님되고 벙어리 되던 때라 이나마 펴기 어려웠더니 요새야 모든 것을 다시 찾고 더 한 걸음 내드디려 하매 이것까지 여러 안목에 보이게 되니 눈치받고 병신 노릇 하던 그 시절이 얼른 생각 나고 그 때에 그렇듯이 내것 좋아하던 마음으로 틀렸는지 빠졌는지도 몰으고 염치 없이 기뿐 줄을 아노라. 여태것 하느라 하였으나 어찌 빈 틈 없을줄을 바라리오 혹시 글씨에 뜻 둔이에게 한 도움이나 될까하고 내기에 몇 줄 적다.

무자 봄날 저자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6쪽

1-3.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중앙신문』, 1946년

1-3-1.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우리의 글과 글씨는 제정制定 된 후後에 발전긔發展期와 침체긔沈滯期가 여러번 섞바뀌어 순조順調로운 발달發達을 긔期할수 없이 매우 진보進步되기 어려웠으니 따라서 확실確實한 보급적普及的 긔반基盤을 닦지 못하였다고 논단論斷할수있다. 더구나 저 무도無道한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 학정虐政에 가진 압박壓迫과 구속拘束으로 말미암아 떳떳한 글을 갖고도 활용活用을 마음대로 못 할뿐더러 금지禁止까지 당當하게 되어 가진 고초苦楚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어찌 우리의 마음대로 성장成長하였으며 향상

向上되었으리오.

그러나 글이 있은지 오백년五百年이나 되니 그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에 걸치어 소장성쇠消長盛衰의 변천變遷된 사실事實이 자못 많으니 연구硏究와 발전發展한 과정過程을 엿볼 수도 있다 우리 글의 쓰기 쉽고 쓰기 넓은 점點은 다시 말할 바도 아니거니와 글씨의 서체書體도 또한 지극至極히 아름답게 발달發達되었으니 이는 오직 궁체宮體를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과 글씨가 구비具備된 완전完全한 문화文化를 향유享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문자文字가 있으면 따라서 서체書體가 있으니 이는 진실로 불가리不可離한 일이오 당연當然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문자文字의 서체書體로는 궁체宮體가 유일唯一한 자리에 있다.

중국中國으로 보드라도 한문漢文이 있고 서체書體로는 전篆 예隸 해楷 행行 초草 등의 서법書法이 있으며 여러 서가書家의 명작名作이 역대歷代에 많이 있어 그 나라 뿐만 아니라 널리 동양東洋 제국諸國에 까지 그 서체書體와 필법筆法이 파급波及되어 힘써 배우고 또 굴지屈指할만한 명필名筆이 많이 났으므로 우리 나라에도 유명有名한 필가筆家가 배출輩出 하였으나 아직것 국문國文 글씨로서 저명著名한 필가筆家를 보지 못하였으니 너무나 국문國文을 등한等閑이 여기고 한문漢文 글시 이외以外에는 글 아니라고 칭도稱道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글과 글씨를 가진 민족으로서 이렇듯이 자긔문화自己文化에 관념關念이 적었다할 증좌證佐 되는 사실事實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상思想이 전승傳承 되어 훌륭한 글씨체를 갖고도 없는 것과 같은 처지處地로 도라가게 한다면 이 얼마나 섭섭하고 두려운일이랴.

서체書體의 변천變遷된 사실史實을 대략大略 들어보면 세종世宗 때 부터 고종高宗 때 까지 그 간間 서체書體의 진전進展은 대대代代로 계속繼續 되고 자못 볼만한 점點이 많었고 그 후後에는 현저顯著한 발전發展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서체書體를 연구硏究하는 이도 극極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290&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1948년, 7~8쪽

1-3-2.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이같이 이씨조선시대李氏朝鮮時代에 있어서 대대代代로 서체書體가 진전進展 되었다하였으나 이것도 국부적局部的 연구硏究에 말미암은 발전發展이오 일반적一般的 연구硏究에는 밎이지 못하였고 왜적倭敵의 침략侵略을 받은후後에는 국부적局部的 연구硏究까지 나마 계속繼續치 못하고 이제에 이르러서는 그 체본體本조차 보기 드므러 궁체宮體의 자취를 헛되이 놓게 될까 염려念慮 되는 바이다. 국부적局部的 연구硏究는 즉卽 궁중宮中의 상궁尙宮과 내관內官 등等의 궁인宮人이 연구硏究하야 쓰던 글씨체이니 이것이 이른바 궁체宮體라 하는것이다. 궁중宮中에서 글씨 연구硏究에 힘썼을 때도 일반 사회에서는 한문漢文을 숭상崇尙하던 관계關係로 국문國文은 오직 항간巷間의 부녀婦女들만이 사용使用하였으므로 국문國文 글씨에는 더구나 관념觀念이 없었고 법法도 없이 백사람百人이면 다 각각 그 마음대로 쓸 뿐이라 서로 다 달으고 글씨다운 글씨가 없었다. 이 같이 민간칙民間側에서는 국문國文을 부녀婦女들의 사용使用하는 글로만 간주看做하는 경향傾向이 있어 민간民間의 서체書體는 발전發展 되지 못하였으며 궁중宮中의 글씨는 항간巷間에 좀체로 흘러나오지 않어 항간巷間 부녀婦女들은 이체를 본 받기 어려웠고 자긔自己 소질素質대로 써낼 뿐이어서 글씨다운 글씨가 별로 없고 속태俗態를 벗지 못하였다.

우리 글씨에는 「정자」와 「흘림」의 두 법이 있으나 이는 궁체宮體가 발달되며 분명히 나누이게 되고 판본板本의 글씨는 대개 정자로 쓰나 소설류 서적小說類書籍의 판본板本은 간혹 흘림으로 쓰고 사본寫本 서적書籍은 흘림으로 써 낸 것이 많으며 봉서封書와 글월은 흔히 흘림으로 쓰고 그중 글월만은 정자로 쓰기도 하였다. 판본板本으로서 오래되고 글짜의 자체字體로서 원시에 가까

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판본板本을 보면 자체字體가 오직 옛스러웁고 질박質樸할 뿐이오 창조긔創造期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아무 발전發展된 점點을 찾기 어렵고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자체字體조차 그 모양이니 창조긔創造期의 서체書體라 필연적必然的인 일로 추칙推測된다.

그후 역조歷朝에 발간發刊된 경서언해經書諺解나 불경언해佛經諺解의 판본板本을 보면 창조긔創造期 서적書籍의 자체字體와는 훨신 진보進步 된 듯하야 자체字體와 서법書法이 그 미美를 발휘한 듯하며 또 출판 시대에 따라 그 진보進步의 정도와 능률能率을 엿볼 수 있으나 종시 고박古樸한 자태姿態가 많이 있어 연미硏美한 모양을 자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서법書法의 발전發展된 역사歷史가 얕았던 관계關係도 있다 하겠지만 판본板本의 글씨는 대개 모지고 규체적規體的인 자체字體를 썼었던 까닭인가한다.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id=CNTS-00065285375&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1948년, 8~9쪽

1-3-3. 김충현金忠顯,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숙종肅宗 영조英祖 시대時代의 사본寫本으로된 서적書籍을 보면 서체書體가 많이 진보進步 되어 아름다운 자태字態를 충분充分히 발휘發揮한 듯하나 미진未盡한 곳이 아직 남아있고 정조正祖 이후以後의 서적書籍은 더욱 진보進步 되어 자체字體로서의 미美를 전면적全面的으로 드러내였다고 볼 수 있다. 철종哲宗 고종高宗 시대時代의 사본寫本으로된 서적書籍과 글월 봉서封書 등等의 서체書體는 자체字體가 가진 특점特點을 실實로 남김 없이 발휘發揮한 듯하야 그 아름다움이 낱낱이 드러난 감感을 금禁하기 어렵다. 다음 우리 글씨의 자체字體와 서법書法을 개평槪評하면 자체字體는 딱딱하고 굳센가운대도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이 있다. 궁체宮體는 딱딱한 곳을 더욱 그 특색特色답게 나타내며 부드러운 곳을 더욱 곱게 드러내여 가장 적절適切하고 진보進步된 체법體法이라 할수있다. 우리 문자文字는 조직적組織的이고 과학적科學的으로 제정制定되었으므로 따라서 자체字體도 순전純全히 조직적組織的이고 과학적科學的으로 구성構成되었다.

서법書法도 또한 모든법法이 전부全部 조직적組織的으로 되어 글자가 정연整然하고 아담하게 보인다. 따라서 글씨 배우기도 글배우는 것과 같이 조직적 원리組織的를 추리적推理的으로 연구硏究하면 그렇게 어려운 서법書法이라 할 수 없으며 배우기 어려운 글씨라 할 수 없다.

긔술旣述한 바와 같이 역대歷代에 끈임 없이 발전發展을 계속繼續하다가 최근最近에 이르러 정체停滯 되었으니 그 체법體法을 더 한층 힘써 배우지 않으면 미법美法을 전승傳承키 어렵다. 여긔서 더욱 노력努力하면 서법書法이 진보進步되어 어느 정도程度에 이르를지 그 묘경妙境은 반듯이 개척開拓 되리라고 생각 한다.

우리가 오늘날 건국建國 도정途庭에 있어서 글을 보급普及시킴과 같이 이 서법書法을 전파傳播함은 역시亦是 우리의 큰 책무責務이라고 느끼는 바이며 동시同時에 교육문제敎育問題로 보드라도 궁체宮體가 아니면 진정眞正한 습자교육習字敎育은 도저到底히 긔期하기 어려우며 지도자층指導者層에서는 이 서법書法의 원리原理를 고찰考察하고 연구硏究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일昔日의 국부적局部的 연구硏究도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서 일반적一般的 연구硏究로 옮길수 있고 또 교육敎育이 완전完全히 정리整理 되면 이것이 실천實踐되리라고 믿는다.

결국結局 우리 일반一般이 우리 글씨에 궁체宮體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常識的으로 인식認識하야 문구文句를 공부工夫하고 문법文法을 연구하는 동시에 서체書體에 유의留意하야 글씨체의 전형典型과 서법書法의 대략大略을 배워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인個人 개인個人의 서체書體가 다 근거根據잇고 고전적古典的이며 졸속拙俗한 누태陋態들이 어느 정도 벗을 것이다. 이 유일한 서체書體이 단순한 서체書體를 밀어버릴 수 있으며 압흐로 일반적 연구一般的硏究의 긔반基盤을 확실確實히 닦고 필가筆家가 배출輩出하야 고래古來의 체법體法을 더 진보進步식히고 한거름 더 나

가 더욱 정묘精妙한 필법筆法을 연구硏究 실현實現하야 널리 파급波及하면 완전完全히 구비具備될 우리 문자文字의 문화文化는 가장 찬란燦爛한 앞길이 열리리라고 단언斷言할 수 있다.

(1946년一九四六年 중앙신문에 냇던것)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451&from=%EC%8B%A0%EB%AC%B8%2%EA%B2%80EC%83%89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1948년, 9쪽

1-4. 김충현, 「바로 찾아야 할 국문 쓰는 법」, 『서울신문』, 1948년

국문서체國文書體의 내력과 그 가치에 대한 여러 점은 내가 연전에 어느 신문지상에 수차 쓴 일이 있어 이에 상술함을 덜겠으나 요지음 내가 본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찾아야 할 점을 더욱 느끼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나의 견해와 그 외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에 언급하겠다.

정음제정正音制正 오五백년이래 국문은 발달의 길을 밟았다기보다 침체의 액厄을 면치못한배 많아서 글 자체가 그 지경에 이르러 자국문학自國文學이 큰 성과를 못얻었으니 하물며 글씨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나위 없게 되었었다.

그러나 궁중宮中에서 쓰던 글씨체 이른바 궁체宮體가 오직 하나 있어 샛별처럼 그 빛을 비쳐 없는 듯 있는 듯한 우리 글씨의 체를 전하고 법을 이어나왔으나 이 또한 국부적인 귀족문화貴族文化에 그치고 일반적인 평민문화平民文化에까지 번지기 어려웠으니 세대가 점점 멀어지는 오늘에 있어서 이 체가 많이 퍼지지 못함은 사리에 괴이怪異 할배 없다 할것이다. 우리는 이 궁체宮體를 넓리 보급시켜 우리의 전해오는 아름다운 서체書體를 배워야겠으며 자체字體에 맞도록 연구 성장한 이 서체를 배워서 누구나 다 체격에 얼리는 글씨를 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궁체 이상에 좋은 서체를 발견치 못하고 연구치 못한채로 궁체의 서법을 넘보고 또 날설은 개선책을 강구한 듯한 태도로 써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오즉 하나 전해오는 그 궁체보다 훨씬 진보되고 예술적 가치를 품고 있는 서체가 연구되어 발현發現되었다면 어찌 반드시 그 궁체 하나로써 고집하리오. 이것은 자가自家의 견해에 따라 물론 각각 다르겠거니와 대체 궁체는 그 구자상構字上으로 보아 아직까지 이 이상 더 적합한 서체가 없다고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한문의 서체와 견주어 보더라도 그 점과 획畫의 발전됨이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도리어 우리글씨의 우아優雅하고 미려美麗한 점 한문의 그것보다 지나침이 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다.

구자상으로 보아 적합히 발전되었다 함을 다시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글짜 구성은 두 가지로 적확히 나누어졌으니 하나는 추경遒勁하게 딱딱한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연미姸美하게 부드러운 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더욱 특색답게 나타낸 것이 궁체 아니고 또다시 볼 것이 없으며 그중에도 흘림에 더욱 확실히 발휘되었다.

궁체 이외에는 그동안 여러 백 년 동안 가지각색으로 쓰던 항간의 글씨를 말하겠는데 이것은 워낙 등한시하고 있던 것이라 종잡을 수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써서 법을 여기서 얻을 수 없고 따라서 누구에게 전하여 가르쳐 줄 수 없으니 즉 이만큼 혼란하게 체법 없이 나려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서체라 하면 무슨 문자에 어느 체를 막론하고 그 법에 체계가 서서 어느 구석이든지 통일된 곳이 있어 갈피를 찾을 수 있으며 갈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글씨에도 서법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자학상字學上으로 연구하여 보면 그 격格이나 법法으로 보아 조리 있고 법칙 있고 갈래와 갈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즉 궁체를 꼽을 따름이고 이외에 다시 찾아볼 것이 없다고 단언하고 남음이 있다.

또 글씨라 하면 보고 글짜로서의 이해할 만한 실용적임에 국한될 수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한걸음 달리 드디어 이해보다도 한 점 한획畫에 이르도록 예술적 흥미를 느끼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글씨에는 궁체 이외에 어디서 찾아볼 여지가 없다.

다음에 글씨에 대한 교육 문제를 들추어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곡절이 나오게 된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전일의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참다운 우리의 것을 찾고 배우려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전에 해보지 않던 것이며 내버려두었던 것이라 이것이 갑자기 관숙慣熟하게 될 수 있으리오. 그래 여러 가지로 부문에서 눈 서투른 것도 이따금 있는 배니 그중 습자習字부문의 교육 정도를 보면 이것도 아직 손익지 못하여 해괴한 일이 여러 가지로 번가러 연출되고 있어 광정匡正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바이다. 그동안 왜체倭體가 세상에 미만彌滿하였기 때문에 왜체의 필법을 그대로 국문에까지 이용하여 쓰기, 그렇지 않으면 한문의 필법을 끌어다 쓰기,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고 덮어놓고 쓰기, 또 이 밖에 놀라운 일은 웬만큼 궁체를 보기도 하고 그 필법을 이해도 하면서 소위 신구참작新舊參酌의 의장意匠으론지 야속野俗한 방향으로 역 발전하는 변격체變格體 이런 것들이 현금 여기저기 나타나는 점경點京이 눈녀우니 이는 우리나라의 서체를 위해서 가공可恐가외可畏 할 바이며 하루바삐 말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전의 철자법綴字法과 용자형식用字形式이 지금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 한 둘 아니다. 그러나 고친다하여도 이것도 어느 정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자모字母의 배정配定 문제에 그칠 바이고 점획點劃의 필법과 자모의 서법에 대해서는 고칠수 없을 것이며 그 규율을 더욱 굳게 직혀 개혁하여 씀에 틀림이 생기지 않게하여서 통일되고 법칙있는 글씨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러면 그전 글씨를 그대로 배워 익히는 것보다 더욱 주의하여 뢰동雷同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것이 서체에 있어서 일종의 발전이며 변천의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신구 참착도 이런 정도의 규율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 이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고쳐 낸다면 진실로 오천하창생誤天下蒼生의 옛말을 여기서 새로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할 것은 종縱으로냐 횡橫으로냐 이 두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예전식으로만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종縱하나 뿐이겠으나 근자에 횡서橫書가 많이 유행되어 이러한 말을 내게되는데 우리글짜는 횡으로 써도 무방한 글짜도 있고 반드시 종이 아니면 필법상 모순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자도 있어 구자講字가 이같이 두갈래로 나느이게 되었으나 서예書藝로 본다면 특수한 관계를 비켜 놓고는 전면적으로 종으로 쓰는 것이 유려하고 또 그래야 미美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 문자에는 중심을 맞쳐서 그 미美를 보는 글짜 그 밑을 맞쳐서 그 미를 보는 글짜 또는 그 옆을 맞쳐서 그 미를 보는 글짜 이런 것들 몇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 있으니 국문글짜는 그중에 옆을 맞쳐서 미를 보는 글짜에 속하도록 되었다.

그 오른옆을 맞춤으로써 우리 글씨의 특별한 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언뜻 보아 우리 글씨라는 애착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술적으로 보아서 종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누구나 그 체험에 있어서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교육에 있어서 국문을 철저 또 중요하게 이처럼 가르침은 정음 제정이래 처음있는 일이오 또 습자과목에 있어서도 국문습자에 이처럼 중점을 두어 가르치기 처음이니 국문습자로 보아서도 일 창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은 창시기에 있어서 제 지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이는 곧 백년을 그릇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반면에 자라나는 학도 들에게 참답고 바른길을 가르칠 것 같으면 그 슬기로운 재주에 좋은 성과를 얻어 영원히 빛날 건전하고 견고한 민족문화를 수립할 것이니 이런 때 이런 일에 어찌 길을 바로찾지 않을 수 있으랴.

(1948년一九四八年 서울신문에 냇던것)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1948년, 10~13쪽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궁체宮體를 체본體本으로 만든 언문톄첩 이후, 1948년부터 1997년 사이의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 책, 1949년부터 2023년 사이의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 책, 그리고 1948년부터 2023년 사이의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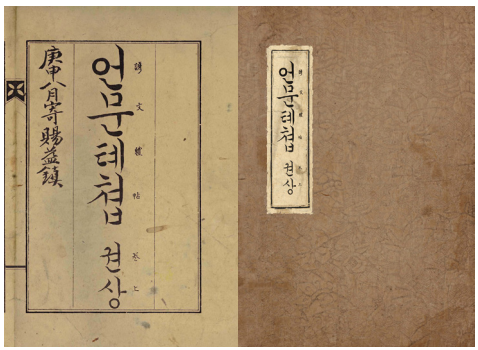
2-1. 『언문톄첩*諺文體帖』(1917년)

궁체宮體를 체본體本으로 만든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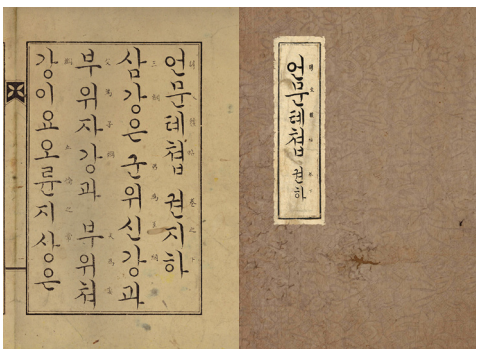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톄첩體帖 : 글씨를 쓸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잘 쓴 글씨를 모아 엮은 장첩粧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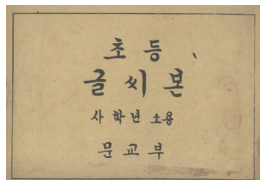
도판 11-1.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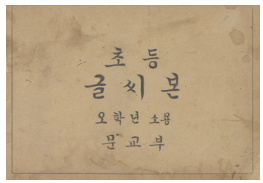
도판 11-2.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 (1948~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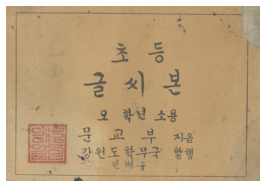
필자들이 확보한 1948년부터 1997년 사이에 출판된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 책은, 정음체도 포함된 1997년 판 『고등학교 서예』를 제외하면, 모두 궁체宮體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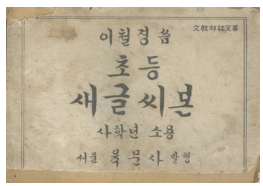
도판 11-3.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4.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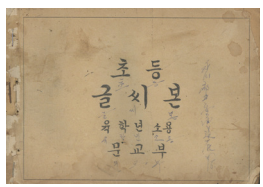
도판 11-5.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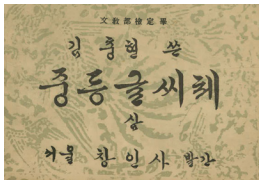
도판 11-6.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년 9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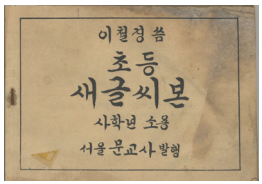
도판 11-7.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년 10월 28일



도판 11-8.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년 10월 30일



도판 11-9.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1954년 4월 5일



도판 11-10.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1955년 10월 30일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오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경원,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삼』,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이철경, 『중학교 글씨본 3』, 우종사, 서울, 1958.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⑥』,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이철경, 『초등글씨본(전 3 권)』,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④』, 대도문화사, 서울, 1961.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 (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5·6』, 문교부, 서울, 1976.
- 이철경, 『중학글씨본』, 우종사,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2-3. 초등, 중등 미술과美術科 글씨본과 서예(1949~2023년)

필자들이 확보한 194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출간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술과美術科 책에서는 궁체宮體에 더하여 2000년부터 정음체正音體와 자유로운 서체書體 쓰기 방법도 익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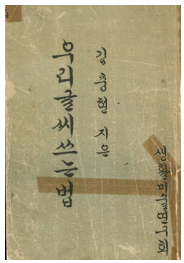
도판 11-11.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년, 1~24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년, 1~28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7년, 1~30쪽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년, 1~30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9년, 1~30쪽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년, 1~132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판본체 쓰기」, 『중학교 미술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년, 74~79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서체 쓰기」, 『중학교 미술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년, 72~77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붓과 먹으로 표현하기」,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5쇄 2022년, 40~43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우리 글씨 판본체」,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4쇄 2021년, 36~41쪽
- 김선아, 안금희, 장지선, 윤영섭, 심효진, 박슬기, 지가혜, 이은선, 「점과 획의 조화, 서예」, 『중학교 미술 1』,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8년, 3쇄 2023년, 92~97쪽
- 서예식, 고정곤, 김기나, 김기태, 김도홍, 김정령, 도병훈, 박현정, 손동호, 오일환, 윤여준, 윤정은, 이다정, 이민선, 이성원, 이정원, 이창식, 이혜우, 임종삼 전용각, 정문영, 정순희, 정흥순, 하지영, 「문자, 아름다움을 두드리다」, 『중학교 미술 1』, 해냄에듀, 서울, 2018년, 58, 59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아름다운 우리 글씨, 궁체」, 『초등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70~73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마음을 담은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26, 27쪽
- 정선화, 송혜원, 정현화, 홍완표, 이지영, 김이경, 한승연, 나두리, 「아름다운 우리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미술과생활, 서울, 초판 2019년, 5쇄 2023년, 36~43쪽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 (1948~2023년)

필자들이 확보한 1948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일반인들을 위한 글씨본과 서예 책은 대부분이 궁체에 관한 내용이지만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와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정음체正音體 관련 서적書籍의 숫자가 늘었고, 민체民體 관련 서적書籍도 많아졌다.



도판 11-12.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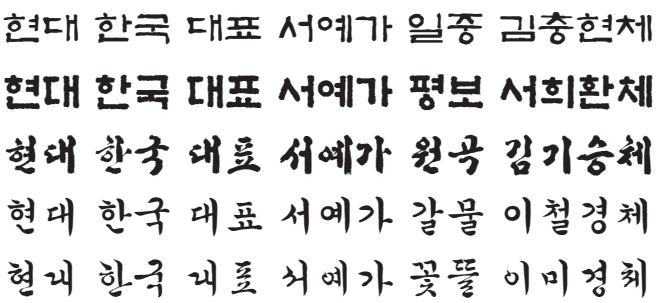
- 宋寅淳, 『理論·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敎育社, 서울, 1970.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환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 – 한글기초이론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金忠顯, 『김충현 쓴 일중 한글서예』, 視聽覺敎育社, 서울, 1978., 1995.
- 김중각, 『한글 궁체기초필법』,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89.
- 김응현, 『보한재 신숙주선생 한글창제사적비』, 정문출판사, 서울, 1990.
- 조용선, 『한글서예』, 미술문화원, 서울, 1991.
- 金膺顯, 『東方書範 (卷一) 正音(國文) (板本體,宮體)』, 東方研書會, 서울, 1993.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김중각, 『모범 한글서예』,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조용선, 『봉셔: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7.
- (역주)의랑 이현종, 『뎡미가례시일기』, 대신당필방, 서울, 1998.
- 이화문화출판사(편), 『옥원듕회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정주상, 『서예교실 한글서예 문장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조용선, 『항니도 · 사셩녹 · 품목 :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가사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흘림체 가사집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고전 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 배우는 법과 가르치는 법』,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성자, 『농가월녕가, 옥누연가 :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 신명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 레위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 민수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 출애굽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령, 『전통 새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녕, 『한국시조 500선 현대시조편: 궁체(정자·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1.
- 정주상, 『한글궁체(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2.
- 한상봉, 『(역주) 태상감응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2.
- 조성자, 『(역주) 낙셩비룡』,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3.
- 여태명, 『한글 서예판본 조웅전: 완판본』, 인사동문화, 2003.
- 조용선, 『일촬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조종숙(엮은이), 『우리글 서체를 찾아서』,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2021.
- 지남례, 『궁체시조선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천갑녕, 『시조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해오름한글서희, 『女四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한국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6.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곤순, 홍영순, 『남창별곡』,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07., 2022.
- 윤병두, 『한글서예』, 도서출판 채운재, 서울, 2007.
- 이기대,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 진흘림 상』,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 진흘림 하』,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조용선, 『옥원듕회연: 역주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김만중, 『(역주) 구운몽』,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8.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곤순, 홍영순, 『백발가취몽녹』,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신영길 (역주), 이현종, 이화자, 박정숙, 윤곤순, 윤미한, 이민재, 이정옥 (궁체옮김), 『한양가519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白岳美術館, 서울, 2009.
- 임인선, 이권석 , 박혜진, 『(역주) 십이봉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9.
- 한양근, 『체계적 한글서예 교본』, 도서출판 우람, 서울, 2009., 2022.
- 서정수, 임인선, 『(역주) 완월회맹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지남례, 『(역주) 남계연담』,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김연중, 『우리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1.
- 이석표, 이영순, 차부자, 『(역주) 인봉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조주연, 『(역주) 후수호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허준,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백경자, 『정사기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석보상절, 제6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석보, 권1』,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천강지곡 상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훈민정음 해례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김충현, 『일중 김충현: 한글서예』, 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13.
- 김종태, 『서법교본 한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3.
- 내일한자연구회, 『기초서예교본』, 매일출판, 서울, 2013.
- 조주연 옮김, 『금강산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3., 2020.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송강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4.
- 성무빈, 『정통 한글서예』, 도서출판 매일, 서울, 2014.
- 심현섭, 『글씨는 아름답다』, 도서출판 박실헌, 고양, 2014.
- 이현종, 『붓 한글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궁체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판본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나만갑, 『(역주) 산셩일긔: 정자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나만갑, 『(역주) 산셩일긔: 흘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문동호, 『한글서예기법과 실제: 궁체 판본체』, 법문 북스, 서울, 2015.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농가월령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윤호삼, 『순수한 우리말로 엮은 대울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임현순, 조주연, 홍성란(옮김), 『이츈풍젼』,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장성연, 『書藝技法實技1』,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장혜자(엮은이), 『규간자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한국학자료원 편집부, 『한글書藝敎本』,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해오름한글서회, 조성자, 『쓰기 쉬운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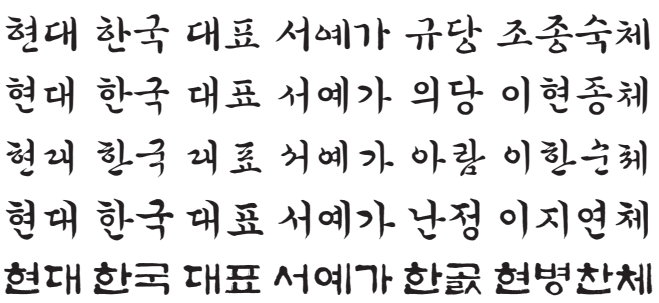
- 오동섭, 『10서체 반야바라밀다심경 5권, 9판본체, 10흘림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이미경, 『꽃들 이미경 쓴 한글서예』, 학원문화사, 서울, 2016.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홍성란, 임현순, 조주연 옮김, 『부인치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6.
- 강민석, 『모정 강민석 쓴 한글어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7.
- 유혜경, 『(묵향 담은) 한글서예: 한글서예작품집』,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정주환, 『고급 한글서예 정법』, 법문 북스, 서울, 2017.
- 조성자, 『궁듕발긔(궁중발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조주연 옮김, 『몽환가 · 토골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김경순,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리동규, 『한글서예: 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18.
- 정복동, 『월인천강지곡 상』, 이아임북, 하남, 2018.
- 정주상, 『한글서예(문장)』,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정자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흘림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지성룡, 『正史紀覽정사긔람』, 도서출판 고연, 시흥,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정자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흘림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흘림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함민숙, 『한글서예』, 센스토리, 서울, 2018.
- 구자송 · 서복희 · 홍영순, 『토싱젼(토생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국립한글박물관, 『공쥬 글시 뎍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고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인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서예』, 당신의 서재, 서울, 2019.
- 조주연, 임현순, 홍성란(옮김), 『해몽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9.
- 김정희, 『우보 김정희 쓴 궁체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김진태, 『월당 김진태 쓴 한글판본체옛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박정숙, 『이진사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0.
- 이현종, 김정묵, 이기훈, 이혜경, 박숙희, 김선숙, 박경희, 오승연, 『새겨읽은 규합총셔-권지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정광옥, 『한글궁체 길잡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허경무, 『혀경무 쓴 국 · 한 서예교본 시리즈 1-20』, 한예술사, 부산, 2020.
- 리동규, 『정석 한글서예(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21.
- 이화자,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장성연, 『한글 서예』, 한국학자료원, 서울, 2021.
- 정통한글서예교실, 『정통한글서예』, 매일출판, 서울, 2021.
- 주영갑, 『이목 주영갑 쓴 한글서예 판본체』, 도서출판 고륜, 2021.
- 천갑녕, 『자연과의 대화』,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정자 · 고문 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고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판본체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옛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宋炳德,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22.
- 송병덕, 『최신 한글판본체』, 한국영상문화사/태평양저널, 서울, 2022., 2023.
- 윤영조, 『구암 윤영조 쓴 한글궁체』, 도서출판 고륜, 서울, 2022.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갑녕, 『3서체(궁체 · 조화체 · 고체)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봉근, 『청강인체교본』, 도서출판 한글, 2022.
- 김영기, 『신명학의 뿌리 서예교본 (기초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김진태, 『기초부터 완성까지 월당김진태 쓴 한글판본체교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서정수, 조주연, 차부자, 홍성란(편역), 『옥원중회연 작품명제 130선』,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3.
- 한국국학진흥원, 『내방가사: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만나다』, 한국국학진흥원, 2023.
- 한치선, 『가장 쉬운 독학 타타오 서예 첫걸음』, 동양북스, 서울, 2023.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書體本(2009~2011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1차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① 일중 김충현 ② 평보 서희환 ③ 원곡 김기승 ④ 갈물 이철경 ⑤ 꽃뜰 이미경의 한글 서체를 컴퓨터 글자체로 개발하였으며, 5종의 글꼴(폰트)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판매 계약이 만료되며 무료 개방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2차로 개발 업체 ㈜폰트뱅크와 함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①규당 조종숙 ②의당 이현종 ③아람 이한순 ④난정 이지연 ⑤한곬 현병찬의 육필 원도를 제작하고, 5종의 디지털 한글 글꼴(폰트)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무료 개방하였다.



3-1.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일중 김충현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1921~2006)은 경성 삼흥보통학교와 중동학교를 졸업했으며, 일가이자 조부의 절친이었던 서화가 김용진金容鎭으로부터 서예를 익혔다. 1942년 중동학교 졸업 당시 한글 서예 학습서인 『국문서법연구서國文書法硏究書』를 완성한 이래로 한글 서예 보급에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당시의 저술에서는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의 옛 판본체에 전서와 예서의 필법을 가미하여 고안한 서체를 선보였는데, 정인보鄭寅普에 의해 일명 '고체古體'로 명명된 글씨였다. 궁중에서 쓰던 궁체宮體를 연구하여 한글 서예의 보급에 노력하였다.

김충현金忠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1846

3-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평보 서희환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평보平步 서희환徐喜煥(1934~1995)은 해방 이후 「애국시」, 「화엄경」, 「용비어천가」 등의 작품을 낸 서예가이다. 일찍이 근대의 명서가 소전素荃 손재형孫在馨에게 사사했다. 초기에는 전서 필법을 한글에 접목한 소위 "국문전서國文篆書"라는 스승의 서풍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한문에 비해 단조로운 구조와 짧은 전통을 극복하기 위해 고졸한 문기文氣와 생동감을 불어넣으려 했다.

서희환徐喜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8324

3-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원곡 김기승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1909~2000)은 한글 서체인 원곡체를 개발한 서예가이다. 1949년 제1회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부에 특선하여, 문교부장관상을 받았고 1953년의 제2회 국전에서 1955년 제4회 국전까지 잇달아 서예부 특선을 차지하여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78년 원곡서예상原谷書藝賞을 제정하였고, 1979년에는 한국기독교미술협회에서 원곡미술상을 제정하여 우수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독립선언서」 등이 있으며, 저서에 『한국서예사(韓國書藝史)』『원곡서문집(原谷書文集)』 등이 있다.
김기승金基昇, 두산백과,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1655

3-4.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갈물 이철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8.

갈물 이철경李喆卿(1914~1989)은 1914년 6월 4일 태어났다. 이철경은 국문학자였던 아버지의 서가에서 『신편언문톄법』(남궁억 1917)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궁체 교본을 발견하였다. 이 글씨를 연습하면서 한글 서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것이 평생을 한글 서예에 바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홍길동전』,『사문대의록』등의 옛 글씨를 통하여, 우리 글씨의 단아하고 정연한 아름다움, 여백과 공간의 처리, 조형 예술적 서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1933년 『궁체쓰는법』이라는 글씨본을 출판하였으나 발행 5일만에 모두 압수당하고 판매 금지 조치되었으며, 경찰서에 소환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자 본격적으로 한글 서예 보급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문교부의 의뢰로 『초등글씨본』, 『중등글씨본』을 펴냈다.
갈물 이철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galmul/profile/

3-5.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꽃뜰 이미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꽃뜰 이미경李美卿(1918~2022) 은 개성에서 출생하였다.
네 딸 가운데 각경, 철경, 미경 세 딸이 우리 한글 서예사에 큰 업적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교육에 헌신한 교육사상가이자 국문학자이며 한글 연구가였던 아버지 이만규선생의 우리 말과 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철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세 자녀에게 봄뫼 이각경, 갈물 이철경, 꽃뜰 이미경이라는 순우리말 호를 지어주면서, 서예 교육을 통하여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게 하였다. 꽃뜰 이미경은 일몽 이홍기선생에게서 하정荷庭이란 호를 받고 한문서예를 공부하기도 하였다. 일몽선생은 한문뿐 아니라 궁체에 대한 연구도 깊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궁체 점획의 특징, 작자의 묘법, 품격의 조건 등을 분석하며 꾸준한 가르침을 주었다.
꽃들 이미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flower/profile/

3-6.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규당 조종숙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규당圭堂 조종숙趙琮淑(1932~) 선생은 90세에 가까운 원로로 현재도 한글서예 관련 분야는 물론 서예전반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창작가, 행정가, 교육자 활동을 하는 모범 여성 작가이다. 규당 선생은 인품이 뛰어나 신사임당에 추대되었고, 동방대학원 대학 명예박사와 석좌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규당 선생은 1932년 서울에서 태어나 글씨를 잘 쓰며 의사로 활동한 아버

지의 영향을 받아 62년도에 동방연서회에 입회하면서 한문 서예 공부를 거쳐 한글서예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작가로 활약하게 되는 등 한문-한글서예의 실력을 단단하게 익힌 서예가이다. 현재도 한글서예계의 지도자 격의 대모 역할을 하고 있다. 규당 선생은 한글 서체의 독특한 '다정체' 라는 창작 서체를 개발하여 컴퓨터 폰트 서체로 실용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글서예 2020년, 조종숙 구술기록, 2020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디지털 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archives/inhouse/oral/267

3-7.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의당 이현종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의당懿堂 이현종李賢鍾(1932~)은 "서예는 사랑입니다. 특히 궁체는 순수한 사랑을 주어야 글씨가 됩니다. 잡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글씨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지난 40여 년 붓을 들고 궁체와 함께 살아온 의당 이현종선생의 서예에 대한 지론持論이다.
의당 선생은 1932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한글 가운데 궁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선생의 작품에는 안정적인 결구, 점획 속에 적당한 근골 혈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아취雅趣가 풍긴다. 점획의 표정은 굳셈보다 단아하고, 고우면서 부드러운 면이 두드러진다.

정태수, 「의당 이현종: 궁체에 사랑을 담아온 40년 서예의 길」, 「월간 서예문화」, 2012년 7월호

3-8.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아람 이한순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아람 이한순李漢順은 궁체 반흘림 글씨는 닿소리와 홀소리 받침을 활달하게 연결하지 않은 단정한 글씨체로 썼다. 이 글씨체는 약간 흘려 쓴 반흘림체로 글씨와 글씨 사이에 연결 역시 최대한 절제하였다. 한 글씨에 받침을 기준으로 연결의 느낌을 약간만 표현하되 각각 글자마다의 독립된 안정감 있게 나타냈다.

세종기념사업회, 현대한국대표서예가한글글씨본(아람 이한순), 2011.

3-9.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난정 이지연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난정蘭汀 이지연李知姸 선생. 그는 붓끝으로 노래하며 사랑을 전한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한글서예의 명인名人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에는 한국의 혼이 담겨있다.

장윤진, 「난정 이지연: 궁체의 신경지를 개척한 현시대의 신사임당」, 「위클리피플」 683호, 2010. 6. 14.

3-10.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한곬 현병찬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한곬 현병찬玄昞璨(1942~) 의 글꼴(서체)은 훈민정음 서체의 원필에 근거, 판본서체로 필사됐고 가로획은 가늘거나 굵은 획으로 변화있게 조형미를 구사하는 등 아름답고 부드러운 미소형이 가미됐다.
무엇보다 정사각형의 자형으로 개발, 가로는 물론 세로로 배자하는 데 적합하고 독립된 짧은 문장은 물론 긴 문장을 유연하고 안정감 있게 쓸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기, 「현병찬 선생 한글 판본체 개발」, 『제주일보』, 2011. 4. 13., 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321

4. 최정호崔正浩,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최정호(1916~1988)는 활자에서 사진 식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한글 원도原圖 설계와 연구에 몰두한 1세대 글꼴 디자이너이자 연구가이다. 최정호와 같은 원도 설계자가 등장하기 이전의 '손조각 활자'는 실제 크기의 씨글자를 활자 조각가가 도장을 파듯 새겨서 만드는 방식이었다. 반면 '원도 활자'는 자, 컴퍼스, 가는 붓, 잉크 등과 같은 레터링 도구를 이용해 한 글자씩 설계한 원도를 바탕으로, '자모字母 조각기matrix cutting machine'가 활자를 깎아주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늘을 탑재한 자모 조각기는 활자의 크기를 자유롭게 확대 축소할 수 있었고, 작은 크기의 활자도 정밀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원도를 설계할 사람이 없다면 좋은 활자를 만들어 내기 어려웠다. 이때부터 활자의 완성도는 활자를 조각하는 사람이 아닌 원도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그들을 바로 글꼴 디자이너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최정호는 오늘날 쓰이는 본문용 디지털 글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특히 명조체와 고딕체는 그의 땀과 노력을 딛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컴퓨터 화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굴림체도 그의 작업이다.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 대부분의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컴퓨터를 할 때, 길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간판을 볼 때마다 최정호가 남긴 유산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원도 활자 시대가 열린 후 인쇄 업계에 또 한 번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일본에서 도입된 사진식자기였다. 사진식자는 사진기와 타자기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네거티브 필름 및 유리 글자판을 만든 다음 렌즈를 이용해 글자 크기를 확대 축소해서 인화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장체, 평체, 사체 등으로 변형하는 것이 자유로워 활판 인쇄보다 능률적이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진식자기 도입 초기에는 한글 글자판이 없고 한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못했다. 1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사진식자 회사 모리사와는 사진식자 전용 한글 원도를 최정호에게 의뢰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시기 업계의 경쟁사였던 샤켄 또한 최정호에게 원도 제작을 의뢰했다는 사실이다. 두 회사 모두가 최정호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당시 한글 원도 설계자로서 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활판용 원도 제작에 익숙했던 최정호는 사진식자용 원도 제작 방법을 다시 익혀야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잉크의 번짐이 적기 때문에 글자 줄기를 조금 더 두껍게 그리는 등,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원도 설계가 필요했다. 1971년 그는 일본 모리사와에 가서 사진식자 관련 기술을 배우고 한글 원도를 그렸다. 1972년부터 모리사와 명조체와 고딕체를 세, 중, 태, 견출, 각각 네 가지 굵기로 설계했다. 샤켄 역시 최정호를 통해 샤켄 명조체, 고딕체를 비롯해 굴림체와 그래픽체, 공작체 등 수십 종의 글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표정의 최정호 원도를 탑재한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활판 인쇄를 대체하게 된다.

최정호의 사진식자용 원도는 가로쓰기를 중심으로 한 균형을 완성했다는 면에서 동아출판사체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최정호는 원도 활자 시대에 활판 인쇄용 원도를 설계해 세로쓰기 글꼴의 완성도를 높였고, 사진식자판 원도를 그려 가로쓰기 글꼴의 균형을 제시했으며, 명조체, 고딕체와 같은 본문 글꼴에서부터 굴림체, 환고딕체, 공작체, 그래픽체, 궁서체 등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30여종의 다양한 한글 글꼴의 원형을 개발했다.

말년에는 글꼴 조형 원리와 구조 분석을 통해 한글 글꼴 디자인의 기초 개념을 정리했다. 1988년 그는 마지막 원도인 최정호체崔正浩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평생 동안 남긴 작업과 노력은 한글 글꼴 디자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한글 글꼴 디자인은 최정호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해 왔다.

「최정호 - 한글 글꼴 디자이너 1세대」, 『디자이너 열전』, 노은유,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entry.naver?cid=58790&docId=3577782&categoryId=58790

「최정호,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한글의 큰 스승』,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240~263쪽

12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1-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제1장 개요槪要에서 밝혔듯이 『재민체在民體』라는 이름의 탄생은, 김민金民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民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의 명칭名稱은 주권재민主權在民도 있으니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고 한글재민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시카고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 양(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2020년 한글날 「대한의원개원칙서」에 포함된 33자 한글 붓글씨체筆體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감성의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Hangeul Jaemin Font를 개발하였고, 2020년 574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는 새로운 한글 글꼴 한글재민체를 발표하는 특별전을 했다. 한글재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혁, 「한글 글꼴 만든 癌 박사 "순종 황제 칙서의 단아함에 반했죠"」, 『조선일보』, 2020. 10. 7.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19~330.

한글재민체는 세계시민의 글꼴이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을 위해 개발한 글자체이다.

하철용, 개인 교신

단아하게 정돈된 현대적 감성의 폰트로써 편히 쓸 수 있는 깔끔하고 미려한 서체이다.

박갑수, 개인 교신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쪽

1-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벌의 디지털 폰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함께 쓰이는 한자, 영자, 숫자와 문장부호 등이 일관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성 폰트에서 한자가 제외되는 현실이다. 국한문 혼용 칙서의 붓글씨체에서 탄생한 한글재민체에는 한글과 동일한 스타일의 한자가 탑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020년 한글재민체를 무료 배포한 이후부터 한자 개발을 시작하였다. KS 표준한자 4,888자를 완성하고 2021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한글재민체2.0을 발표하는 특별전을 했으며 이 또한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

증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모든 국민이 '한글재민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1-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2022년 5월 25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배포를 시작한 「한글재민체3.0 韓契在民體3.0 Hangeul Jaemin Font 3.0」에는 기존 한글재민체2.0의 KS 표준한자 4,888자에 더하여 한국 한자 203자와 박재갑의 선조先祖의 문집 한자 49자, 김채식 대표가 추천한 고문헌 한자 205자, 2021년 말 기준 대법원 인명용 한자 8,279자 중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한자 총 8,682자를 탑재시켰다. 전국 지명 한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한국 한자 203자를 발굴하여 디지털로 남긴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무료 배포한 『한글재민체2.0』버전은 서예 작품의 세로쓰기 모본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문 가로쓰기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에 개원칙서의 멋을 오롯이 담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글재민체3.0』에서는 이러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하여 수려한 글꼴로 완성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1-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2022년 3월에는 중국에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유학하러 온 진황가陳凰嘉가 새롭게 연구팀에 합류하여 숙원이었던 한글재민체의 국제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시되는 간체자 폰트에는 약 25,000자의 글자가 수록되지만, 한글재민체에는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 6,763자를 탑재시켰다. 진황가 박사과정생과 그의 지도교수 김민은 표준 간체자 6,763자를 약 6개월에 걸쳐 제작하였고 9월 가을학기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또 다른 박사과정생 김지영이 연구팀에 추가 합류하여 일본 한자 6,776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 문자 207자를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완성하게 되었다.

5월까지 기술적인 코딩작업까지 마치고 국내 최고의 글꼴 전문기업 ㈜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전국의 대학,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한글, 로만, 아라비아숫자, 번체자, 간체자, 가나 문자 및 일본표준 한자를 동일한 필체로 개발한 '한글재민체4.0' 5만 벌을 무료로 배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700여 종의 디지털 폰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과 로만문자, 번체자, 간체자, 일본 문자까지 동일한 모양의 자소로 구성한 디지털 폰트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자평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번체자繁體字는 물론, 이웃 중국의 간체자簡體字와 일본 문자和文字를 한글과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개발시간과 비용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시 한 벌의 서체라는 것이 한글과 로만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글재민체는 2019년부터 4년간 많은 이들이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가능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 (集團) 公司, 2023;456:74~76.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40쪽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1-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2023년 한글날에는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5.0』이 출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와 수원여자대학교 김미애 교수가 중심이 되어 ㆆ(여린히읗), ㅇ(옛이응), ㅿ(반치음), ㆍ(아래아) 등 사라진 문자를 되살리고 훈민정음 창제 때 사용했던 획이나 점 등의 부호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문자들로 한글재민체5.0을 완성했다. 자음 94자, 모음 30자, 성조 · 첨자 · 장음 10자 등 기본 134자로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 풀어쓰기 타이핑을 위한 입력시스템 개발은 ㈜윤디자인그룹에서 기술을 지원하여 완성되었다.

김미애, 김민, 『국제음성기호 표기를 위한 한글 형태 연구 -한글 신자소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23;24:19~32.

이영관, 「'P'와 'F' 구분하는 글꼴 만든 교수들」, 『조선일보』, 2023. 10. 9.

이순녀, 「한글 풀어쓰기 '재민체5.0' 개발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이순녀의 이사람] "소수민족 등 세계 모든 언어 발음… 한글 풀어쓰기로 표기 가능해요"/논설위원」, 『서울신문』, 2023. 10. 26.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디자인*

大韓醫院開院勅書

朕이維컨대國運의隆替는國民의健瘁에因함이多한지라我國의現狀을察컨대衛生思想이尙히幼穉하고救療機關이不備함으로朕이

太皇帝陛下의聖旨를紹述하여有司로하여금長을友邦에取하여醫術의普及과振興함을計코저하여大韓醫院을創設함이러니有司의忠勤盡職함을因하여今에工事가告竣하고開院의式을擧하니盖院務가業已就緖하여其效果의曙光이漸次로遐邇에及하여四民이其惠澤에浴함은朕心에滿足하는바이나然而其任은甚重하고其道는猶遠이라朕은政府當局의協翼과本院庶僚의奮勵함을倚藉하여此를庶幾大成케하노니爾臣僚는朕旨를克體할지어다

隆熙二年十月二十四日

1908년 순종 황제가 내린 구한말 문서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속의 필체에 담긴 단아하면서도 독특한 자소 및 온글자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再解釋 한 폰트의 제작 과정을 제시한다.

개원칙서는 한글(107자)과 한자(176자)의 비중이 약 4 대 6으로 나타나지만, 중복되는 글자를 제외하면 추출할 수 있는 한글 글자는 총 33자에 불과하다. 글자 수가 한글 완성형 폰트를 구성하는 2,350자의 1.4%밖에 되지 않아 주어진 문서의 포맷과 자소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한자의 일부분을 차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1.

*이규선, 개인 교신, 2023. 9. 4.

2-1. 관공체官公體 107자, 33 낱자,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2-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필체筆體 비교

개원칙서의 필체와 조선 시대 후기에 기록된 「옥원중회연玉鴛重會緣」 21권 중 11권의 궁체정자와 비교했을 때 조형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옥원중회연은 송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 소설을 붓으로 써서 만든 필사본이다. 이 책의 정자체와 흘림체는 여러 궁체 필사본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쓴 것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움이 뛰어나 서예 교본체로 줄곧 활용되어 왔다.

이정자,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서예학연구, 2015;27:284~323.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5.

1) 세로획의 형태



옥원중회연의 세로획 첫 돌기는 좌측으로 기운 형태를 하지만, 개원칙서의 첫 돌기는 수직형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다. 맺음에서도 두 글꼴은 차이를 보인다. 옥원중회연의 맺음은 첫 돌기를 상하로 반전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원칙서의 맺음은 아래로 곧게 뻗는 형태를 갖춘다.

2) 기울기



옥원중회연과 개원칙서의 가로획 기울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수평에 가까운 옥원중회연 글자의 가로획과는 달리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약 30°의 비탈진 기울기를 주어 날렵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남긴다.

3) 꼭지점 / 4) 곁줄기



옥원중회연의 'ㅎ'꼴 꼭지점은 수평에 가깝게 누워있지만, 개원칙서의 꼭지점은 수직으로 가로획에 닿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옥원중회연 모음의 곁줄기는 수직으로 뻗지만, 개원칙서의 곁줄기는 하단에 방울로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ㅑ'의 곁줄기는 흘림의 형태를 보여 식별 역할을 한다.

'ㅇ'꼴의 형태



정원正圓에 가까운 옥원중회연의 'ㅇ' 꼴에 반해 개원칙서는 열린 'ㅇ' 꼴의 모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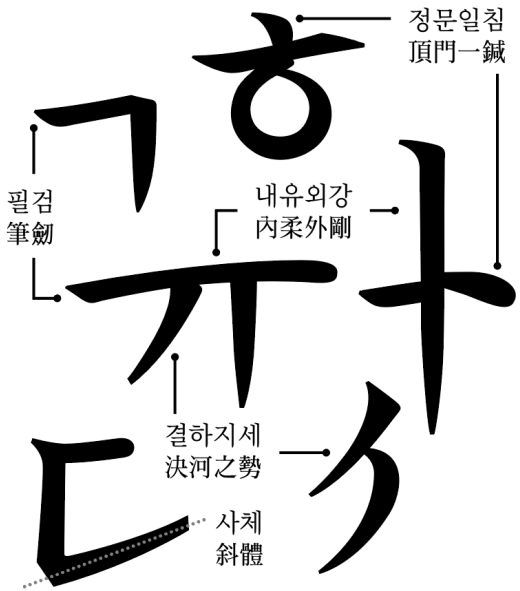
도판 12-1. 「옥원중회연」(좌)과 「대한의원개원칙서」(우)에서 선택한 글자들의 비교

「옥원중회연」 21권 중 11권의 궁체정자와 개원칙서의 필체를 비교(도판 12-1)했을 때 드러나는 조형적 차이를 1) 세로획의 형태, 2) 기울기, 3) 꼭지점, 4) 곁줄기, 그리고 5) 'ㅇ'의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옥원중회연의 글자들은 네모틀 구조에 맞춰 넣은 듯한 형태를 보이지만 개원칙서의 글자들은 그보다 장체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두 글꼴의 차이는 필압筆壓과 필속筆速에서도 볼 수 있다. 칙서의 세로획들은 상단에서 빠르게 하단으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곧게 떨어지다가 날렵하게 맺어지고, 가로획들은 붓보다는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울기와 날카로움을 보여준다.

옥원중회연은 글꼴의 획 굵기가 전반적으로 균일하여 부드럽고 정돈된 인상을 준다. 반면 개원칙서의 글꼴은 획 굵기의 대비가 크게 나타나 붓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날렵한 첫 돌기와 비탈진 기울기를 통해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완만한 맺음돌기와 하향하며 동그랗게 맺히는 곁줄기에서는 필획의 섬세한 단아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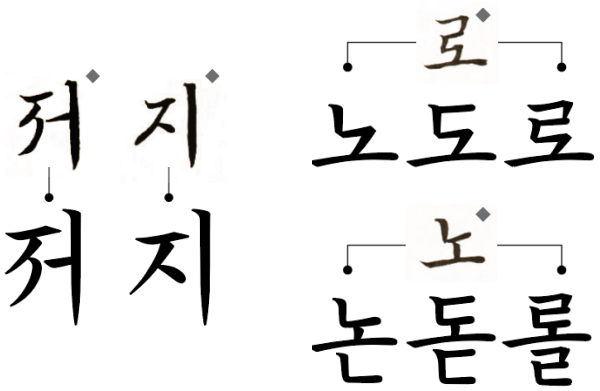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 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도판 12-2. 한글재민체의 주요 특징과 개념적 표현

폰트를 제작할 때 벡터vector로 포인트point와 앵커anchor를 활용하여 자소를 구현해 나간다. 한글재민체은 구성 포인트의 개수를 최소화하여 미려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가로획 시작에는 붓을 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예리한 느낌을 담았다. 일부 글자 자소는 비스듬한 기울기의 사체斜體로 긴장감을 부여했고 획의 굵기 변화를 최소화하여 절제된 선비의 필의筆意를 표현했다. 종성 'ㄱ'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느낌을 주었다. 칙서에서 볼 수 있었던 열린 'ㅇ'은 박재갑의 서예 스타일을 감안하여 배제했다.

도판 1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재민의 곧고 날렵한 세로획과 완만하고 부드러운 가로획에 내유외강內柔外剛을 표현했다. 비침의 속도에서 결하지세決河之勢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획의 시작은 날카롭게, 마무리는 부드럽게 나타내어 정문일침頂門一鍼의 기세를 부여했다. 개원칙서에서 볼 수 있었던 획 굵기의 대비를 한글재민 획의 시작, 중간 그리고 끝에 넣음으로써 가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개원칙서에는 이원화二元化된 자소 특징들이 나타난다. 한 문서 안에서 같은 원리를 자소에 부여하지 않고, 때에 따라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규칙이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에서 이원화라고 칭한다. 자소 이원화는 손 글씨만이 가질 수 있는 묘미이기도 하다.



도판 12-3. 개원칙서 원본의 자소를 이원화한 한글재민체 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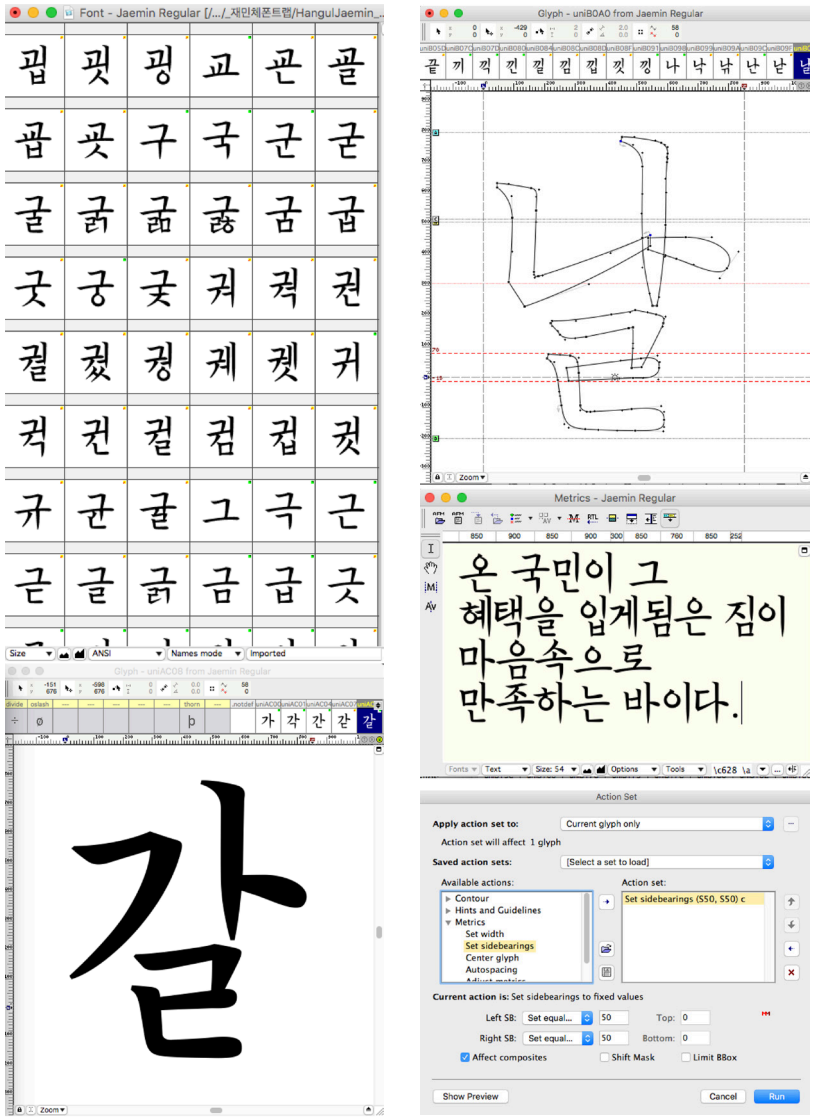
도판 12-4. 개원칙서 원본 자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3은 개원칙서의 이원화된 자소를 한글재민에 적용한 모습이다. 개원칙서에는 'ㅈ'이 2획으로 구성된 꺾임지읒과 3획으로 구성된 갈래지읒이 공존한다. 한글재민을 제작할 때 서체의 전체적인 시각적 일관성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두 종류의 'ㅈ' 형태 대신 일괄적으로 갈래지읒을 사용했다. '저'의 초성 우측으로 곁줄기가 붙자 갈래지읒의 내리점이 좌측 하단으로 곡선을 이루지만 '지'의 경우 초성 우측으로 곁줄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리점이 우측으로 맺는 형태를 갖춘다. 개원칙서 속에서는 'ㅅ'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ㅈ'과 같은 원리로 자소를 이원화하였다.

초성이 'ㄴ, ㄷ, ㄹ'인 세로모임 민글자와 받침글자의 경우에는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이원화 규칙을 한글재민에 가져와 일괄적으로 파생하였다. 세로모임 민글자의 경우에는 초성의 돌기가 맺기 전에 중성의 짧은 기둥에 날카롭게 이어진다. 받침이 올 때는 초성의 끝맺음 돌기를 부드럽게 맺고 중성의 짧은 기둥이 초성의 가로획 중간에 겹치면서 위치한다.

'코', '컨', '야'의 형태는 원본의 모습을 최대한 살렸다 도판 12-4 특히 'ㅑ'의 흘려 쓰듯 이어지는 윗곁줄기와 아래곁줄기는 한글재민의 식별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손 글씨의 맛을 살릴 수 있는 특징들을 가져와 한글재민에 녹여냈다. 턱없이 부족했던 한글 글자의 개수 때문에 개원칙서에 나타나는 한자의 특징을 한글에 적용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원고의 '職(직분 직)'자에 있는 '耳(설 립)'에서 'ㅍ'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글 글자 원형에 대입시켰다. 두 세로획의 각도와 가로획과 만나는 형태를 'ㅍ'에 대입하듯 'ㅛ'에도 반영하였다.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



도판 12-5. 폰트랩스튜디오5를 활용한 폰트 제작 과정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8.

폰트는 크게 비트맵bitmap 폰트와 아웃라인 폰트로 구분된다. 한글재민은 픽셀 이미지로 제작된 비트맵 폰트가 아닌 벡터로 제작된 아웃라인 폰트이며, 윈도우즈와 매킨토시 환경에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OTF, OpenType Font와 TTF, TrueType Font 두 종류를 개발했다. 초창기 폰트의 쓰임새가 출판 인쇄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 방송 자막, 개인용 PC,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폰트가 쓰이는 디스플레이 환경에 맞게 다양한 폰트 제작 툴도 점차 발전해 왔다.

박성훈 · 정유권, 「폰트 제작 툴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8.10., typographyseoul.com/%ed%8f%b0%ed%8a%b8-%ec%a0%9c%ec%9e%91-%ed%88%b4%ea%b3%bc-%eb%94%94%ec%9e%90%ec%9d%b4%eb%84%88/

2019년 기준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폰트 개발툴은 드리거Driger, 폰트랩FontLab, 글립스Glyphs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폰트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9년 연구보고,「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 디지털 글꼴 산업을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 2019.

본 연구에서는 폰트랩스튜디오5 FontLab Studio 5를 활용하여 폰트를 개발했다. 다음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된 벡터 글자를 폰트랩으로 진행한 폰트 개발 과정이다.

1. 폰트랩 2,350자 vfb파일을 열면 '가'에서 '힝'까지 글자 고유의 글립glyph셀이 생성된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미리 제작된 한글 글자를 복사하여 폰트랩 글립셀에 옮겨 붙인다.
2. 불러온 글자들의 점과 앵커를 정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지닌 글자 셀에 유사 자소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파생시킨다. 예를 들어 같은 'ㅏ' 모음을 가진 글자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글립셀에서 이미 정리된 자소를 복사하여 해당 셀에 붙여 넣는다.
3. 글자들을 만들면서 마크mark 기능을 이용하면 각각의 셀에 원하는 색을 입힐 수 있다. 같은 형태의 글자끼리 구별을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스크와 글로벌 가이드라인 기능을 이용하면 진행 과정이 더욱 수월하다.
4.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장 속 글자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수시로 검토하여 글줄, 획의 두께, 크기 등을 수정하면서 진행한다. 문장에서 비교할 글자들을 선택하여 메트릭스metrics 창을 열면 글자 간의 간격, 자폭, 자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한글을 마치면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제작한다. 한글의 느낌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획의 기울기, 두께, 맺음 등을 반영한다.
6. 유사한 구조를 지닌 글자들끼리 묶어 Action Set 기능을 활용하면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수정을 할 수 있다.
7. 모든 글립셀의 문자를 빠짐없이 제작한 후 '폰트 내보내기'를 한다. OTF, TTF의 구분을 명확히 한 후 폰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폰트 한 벌이 생성된다.
8. 생성된 폰트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판 테스트를 한다. 이때 글자 크기, 굵기의 통일성, 글자 간의 공간 안배, 글줄의 중심선, 가독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 작업에 반영한다. 수정 작업 완료 후에 폰트를 완성한다.

이규선, 김민,『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328.

이규선,『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폰트파일 기준 : 「한글재민체4.0」 / 「이현종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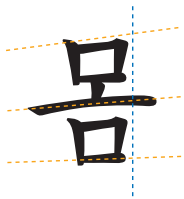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대한제국 순종 황제께서 근대식 국립병원으로써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리신 대한의원개원칙서



대한제국

얇은 붓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날카로운 느낌의 장체구조로
가변폭으로 제작



상단의 기울기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안정감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세로모임꼴의 경우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으며,
붓의 느낌은 있지만
거의 같은 굵기를 유지하는 획



중성 기둥과
삐침의 경우 시원하게
곧게 뻗고 있음

맘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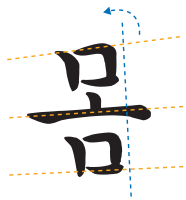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대한제국 순종 황제께서 근대식 국립병원으로써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리신 대한의원개원칙서



대한제국

보통 붓으로 쓴 것으로 보이며,
부드러운 느낌의 정체구조로
고정폭으로 제작



상단의 기울기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안정감이 있긴하나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보임





세로모임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며,
붓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굵기 변화가 있는 획
(중성 가로보에서 굵기 변화가 더 느껴짐)



중성 기둥의 경우 곧게 뻗다가
맺음 부분에서 굽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소 간 공간이 넓은 구조로
자소의 크기 감이 작음

맘몸

* 임광규, 개인 교신, 2024. 2. 20.



또박또박 쓴 느낌으로
자형에 충실한 느낌



붓의 흐름이 돋보이는
자형의 느낌이며,
혼합 꼴의 경우 이음보가
기둥에 붙는 특징







동글 이응의 속 공간이 비슷하여
자형의 크기 감이 같아 보이고
밝고 명쾌한 느낌



동글 이응의 속 공간이 비슷하여
자형의 크기 감이 같아 보이고
정원보다는 살짝 타원의 느낌



초성 'ㅎ'의 꼭지점이 세로형으로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 보임(동글 이응이
가로줄기와 상황에 따라 붙고 떨어짐)



초성 'ㅎ'의 꼭지점이 가로형으로
공간 문제로 인한 동글 이응이
타원형으로 표현



자형 크기를 고려 공간을 활용한 적절한 자소의 크기 감 적용
(중성 기둥의 첫돌기 크기가 크지 않아 공간 활용이 좋아 보임)



자형 크기에 비해 작은 자소의 느낌
(중성 기둥의 첫돌기 크기로 인한 영향 있어 보이며,
세로짜기의 구조 영향으로 무게중심이 내려와 있음)

전체적으로 두 글꼴의 도구가 붓이라는 것에 대해 획의 표현 방식이나 자소들의 형태는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글자 폭이나 획의 굵기, 자소의 크기, 기울기 표현 등 글자 내의 공간 여백이 다름으로 인해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재민체의 경우 자형에 충실하게 또박또박 쓴 시원한 필체가 느껴지는 현대적인 글꼴로 보이며, 이현종글씨는 부드럽고 눈에 익숙함이 있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가 각 간 갇 갈 갉 갊 감 갑
값 갓 갔 강 갖 갗 같 갚 갛
개 객 갠 갤 갬 갭 갯 갰 갱
갸 갹 갼 걀 걋 걍 걔 걘 걜
거 걱 건 걷 걸 걺 검 겁 것
겄 겅 겆 겉 겊 겋 게 겐 겔
겜 겝 겟 겠 겡 겨 격 겪 견
결 겸 겹 겻 겼 경 곁 계

곈	곌	곕	곗	고	곡	곤	곧	골
곪	곬	곯	곰	곱	곳	공	곶	과
곽	관	괄	괆	괌	괍	괏	광	괘
괜	괠	괩	괬	괭	괴	괵	괸	괼
굄	굅	굇	굉	교	굔	굘	굡	굣
구	국	군	굳	굴	굵	굶	굻	굼
굽	굿	궁	궂	궈	궉	권	궐	궜
궝	궤	궷	귀	귁	귄	귈	귐	귑
귓	규	균	귤	그	극	근	귿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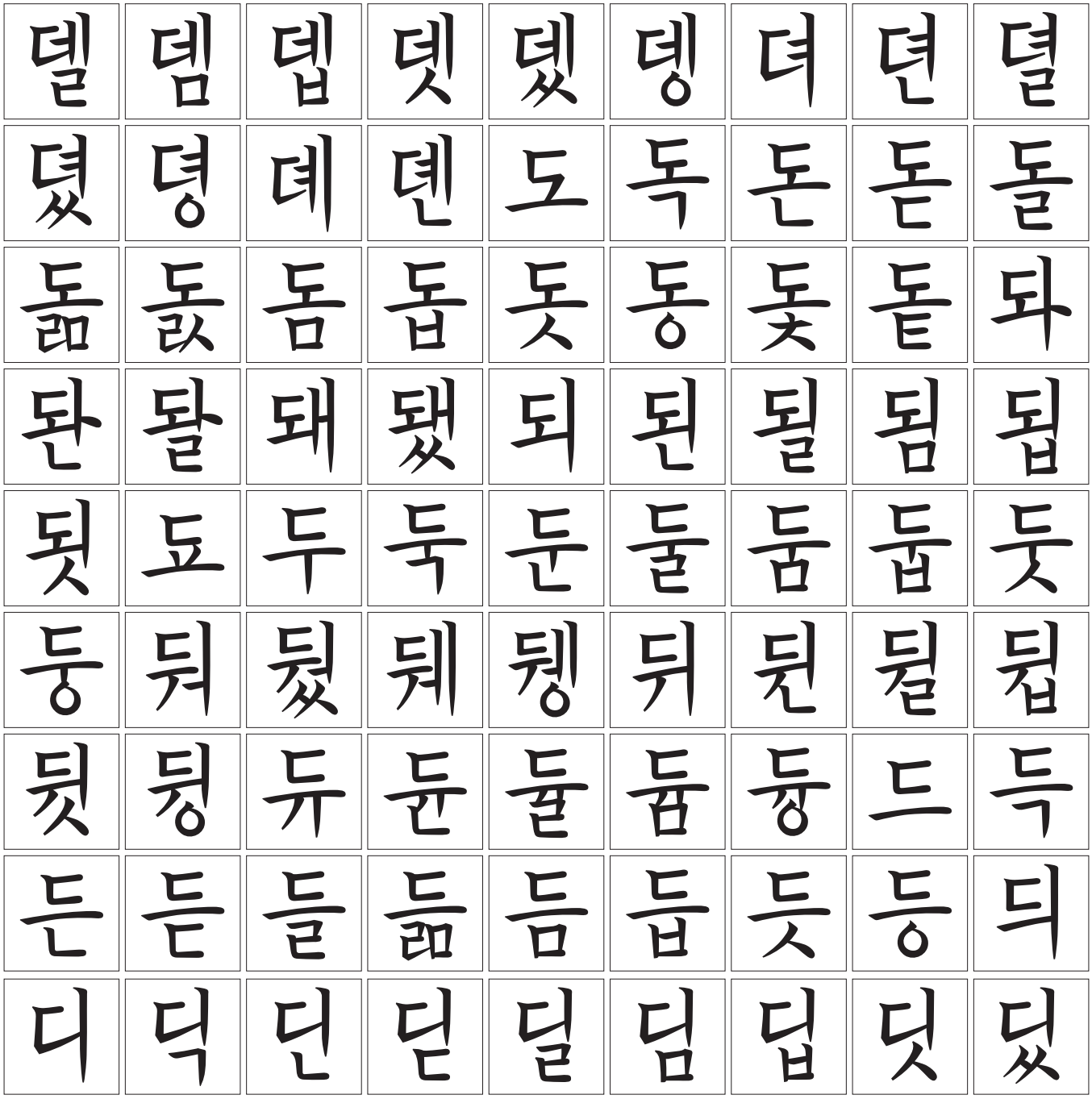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꽤	꽥	꽹	꾀	꾄	꾈	꾐	꾑	꾕
꾜	꾸	꾹	꾼	꿀	꿇	꿈	꿉	꿋
꿍	꿎	꿔	꿜	꿨	꿩	꿰	꿱	꿴
꿸	뀀	뀁	뀄	뀌	뀐	뀔	뀜	뀝
뀨	끄	끅	끈	끊	끌	끎	끓	끔
끕	끗	끙	끝	끼	끽	낀	낄	낌
낍	낏	낑	나	낙	낚	난	낟	날
낡	낢	남	납	낫	났	낭	낮	낯
낱	낳	내	낵	낸	낼	냄	냅	냇

냈	냉	냐	냑	냔	냘	냠	냥	너
넉	넋	넌	널	넒	넓	넘	넙	넛
넜	넝	넣	네	넥	넨	넬	넴	넵
넷	넸	넹	녀	녁	년	녈	념	녑
녔	녕	녘	녜	녠	노	녹	논	놀
놂	놈	놉	놋	농	높	놓	놔	놘
놜	놨	뇌	뇐	뇔	뇜	뇝	뇟	뇨
뇩	뇬	뇰	뇹	뇻	뇽	누	눅	눈
눋	눌	눔	눕	눗	눙	눠	눴	눼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뉘 뉜 뉠 뉨 뉩 뉴 뉵 뉼 늄
늅 늉 느 늑 는 늘 늙 늚 늠
늡 늣 능 늦 늪 늬 늰 늴 니
닉 닌 닐 닒 님 닙 닛 닝 닢
다 닥 닦 단 닫 달 닭 닮 닯
닳 담 답 닷 닸 당 닺 닻 닿
대 댁 댄 댈 댐 댑 댓 댔 댕
댸 더 덕 덖 던 덛 덜 덞 덟
덤 덥 덧 덩 덫 덮 데 덱 덴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딩	딪	따	딱	딴	딸	땀	땁	땃
땄	땅	땋	때	땍	땐	땔	땜	땝
땟	땠	땡	떠	떡	떤	떨	떪	떫
떰	떱	떳	떴	떵	떻	떼	떽	뗀
뗄	뗌	뗍	뗏	뗐	뗑	뗘	뗬	또
똑	똔	똘	똥	뙈	뙬	뙤	뙨	뚄
뚜	뚝	뚠	뚤	뚫	뚬	뚱	뛔	뛰
뛴	뛸	뜀	뜁	뜅	뜨	뜩	뜬	뜯
뜰	뜸	뜹	뜻	띄	띈	띌	띔	띕

띠	띤	띨	띰	띱	띳	띵	라	락
란	랄	람	랍	랏	랐	랑	랒	랖
랗	래	랙	랜	랠	램	랩	랫	랬
랭	랴	략	랸	랻	량	러	럭	런
럴	럼	럽	럿	렀	렁	렇	레	렉
렌	렐	렘	렙	렛	렝	려	력	련
렬	렴	렵	렷	렸	령	례	롄	롑
롓	로	록	론	롤	롬	롭	롯	롱
뢰	뢴	뢍	뢨	뢰	뢴	뢸	룀	룁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룃	룅	료	룐	룔	룝	룟	룡	루
룩	룬	룰	룸	룹	룻	룽	뤄	뤘
뤠	뤼	뤽	뤤	뤨	뤰	뤳	뤙	류
륙	륜	률	륨	륩	륫	륭	르	륵
른	를	름	릅	릇	릉	릊	릍	릎
리	릭	린	릴	림	립	릿	링	마
막	만	많	맏	말	맑	맒	맘	맙
맛	망	맞	맡	맣	매	맥	맨	맬
맴	맵	맷	맸	맹	맺	먀	먁	먈

먕	머	먹	먼	멀	멂	멈	멉	멋
멍	멎	멓	메	멕	멘	멜	멤	멥
멧	멨	멩	며	멱	면	멸	몃	몄
명	몇	몌	모	목	몫	몬	몰	몲
몸	몹	못	몽	뫄	뫈	뫘	뫙	뫼
뫤	뫨	뫱	뫳	뫵	묘	묜	묠	묩
묫	무	묵	묶	문	묻	물	묽	묾
뭄	뭅	뭇	뭉	뭍	뭏	뭐	뭔	뭘
뭡	뭣	뭬	뮈	뮌	뮐	뮤	뮨	뮬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뮴	뮷	므	믄	믈	믐	믓	미	믹
민	믿	밀	밂	밈	밉	밋	밌	밍
및	밑	바	박	밖	밨	반	받	발
밝	밟	밟	밤	밥	밧	방	밭	배
백	밴	밸	뱀	뱁	뱃	뱄	뱅	뱉
뱌	뱍	뱐	뱝	버	벅	번	벋	벌
벎	범	법	벗	벙	벚	베	벡	벤
벧	벨	벰	벱	벳	벴	벵	벼	벽
변	별	볍	볏	볐	병	볕	볘	볜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봐	봔	봤	봬	뵀	뵈	뵉	뵌	뵐
뵘	뵙	뵤	뵨	부	북	분	붇	불
붉	붊	붐	붑	붓	붕	붙	붚	붜
붤	붰	붸	뷔	뷕	뷘	뷜	뷩	뷰
뷴	뷸	뷺	븃	븅	브	븍	븐	블
븜	븝	븟	비	빅	빈	빌	빎	빔
빕	빗	빙	빚	빛	빠	빡	빤	빨
빪	빰	빱	빳	빴	빵	빻	빼	빽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뺀	뺄	뺌	뺍	뺏	뺐	뺑	뺘	뺙
뺨	뻐	뻑	뻔	뻗	뻘	뻠	뻣	뻤
뻥	뻬	뻥	뼈	뼉	뼘	뼙	뼛	뼜
뼝	뽀	뽁	뽄	뽈	뽐	뽑	뽕	뾔
뾰	뿅	뿌	뿍	뿐	뿔	뿜	뿟	뿡
쀼	쀵	쁘	쁜	쁠	쁨	쁩	삐	삑
삔	삘	삠	삡	삣	삥	사	삭	삯
산	삳	살	삵	삶	삼	삽	삿	샀
상	샅	새	색	샌	샐	샘	샙	샛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샜	생	샤	샥	샨	샬	샴	샵	샷
샹	섀	섄	섈	섐	섕	서	석	섞
섟	선	섣	설	섦	섧	섬	섭	섯
섰	성	섶	세	섹	센	셀	셈	셉
셋	셌	셍	셔	셕	션	셜	셤	셥
셧	셨	셩	셰	셴	셸	셿	소	속
솎	손	솔	솖	솜	솝	솟	송	솥
쇄	쇽	쇤	쇨	쇙	쇠	쇈	쇌	쇔
쇗	쇘	쇠	쇤	쇨	쇰	쇱	쇳	쇼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쇽	숀	숄	숌	숍	숏	숑	수	숙
순	숟	술	숨	숩	숫	숭	숯	숱
숲	쉬	쉈	쉐	쉑	쉔	쉘	쉠	쉥
쉬	쉭	쉰	쉴	쉼	쉽	쉿	슁	슈
슉	슐	슘	슛	슝	스	슥	슨	슬
슭	슴	습	슷	승	시	식	신	싣
실	싫	심	십	싯	싱	싶	싸	싹
싻	싼	쌀	쌈	쌉	쌌	쌍	쌓	쌔
쌕	쌘	쌜	쌤	쌥	쌨	쌩	썅	써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앞	애	액	앤	앨	앰	앱	앳	앴
앵	야	약	얀	얄	얇	얌	얍	얏
양	얕	얗	얘	얜	얠	얩	어	억
언	얹	얻	얼	얽	얾	엄	업	없
엇	었	엉	엊	엌	엎	에	엑	엔
엘	엠	엡	엣	엥	여	역	엮	연
열	엷	염	엽	엾	엿	였	영	
옅	옆	옇	예	옌	옐	옘	옙	옛
옜	오	옥	온	올	옭	옮	옳	옳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져	젼	졀	졈	졉	졌	졍	졔	조
족	존	졸	졺	좀	좁	좃	종	좇
좇	좋	좌	좍	좔	좝	좟	좡	좨
좼	좽	죄	죈	죌	죔	죕	죗	죙
죠	죡	죤	죵	주	죽	준	줄	줅
줆	줌	줍	줏	중	줘	줬	줴	쥐
쥑	쥔	쥘	쥠	쥡	쥣	쥬	쥰	쥴
쥼	즈	즉	즌	즐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짊	짐	집	짓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징	짖	짙	짚	짜	짝	짠	짢	짤
짧	짬	짭	짯	짰	짱	째	짹	짼
짤	짬	짭	짯	짰	쨍	쨔	쨘	쨩
쩌	쩍	쩐	쩔	쩜	쩝	쩟	쩠	쩡
쩨	쩽	쪄	쪘	쪼	쪽	쫀	쫄	쫌
쫍	쫏	쫑	쫓	쬐	쬑	쬘	쬤	쬐
쬈	쬐	쬔	쬘	쬠	쬡	쬥	쭈	쭉
쭌	쭐	쭘	쭙	쭝	쮜	쮰	쮱	쮜
쮸	쯔	쯤	쯧	쯩	찌	찍	찐	찔

찜 찝 찡 찢 찧 차 착 찬 찮
찰 참 찹 찻 찼 창 찾 채 책
챈 챌 챔 챕 챗 챘 챙 챠 챤
챦 챨 챰 챵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첬 청 체 첵 첸 첼 쳄
쳅 쳇 쳉 쳐 쳔 쳤 쳬 쳰 쳿
초 촉 촌 촐 촘 촙 촛 총 최
쵠 쵤 쵱 쵸 쵼 쵿 춈 쵭 쵯
쵱 쵸 춈 추 축 춘 출 춤 춥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춧	충	춰	췄	췌	췐	취	췬	췰
췸	췹	췻	췽	츄	츈	츌	츔	츙
츠	측	츤	츨	츰	츱	츳	층	치
칙	친	칟	칠	칡	침	칩	칫	칭
카	칵	칸	칼	캄	캅	캇	캉	캐
캑	캔	캘	캠	캡	캣	캤	캥	캬
캭	컁	커	컥	컨	컫	컬	컴	컵
컷	컸	컹	케	켁	켄	켈	켐	켑
켓	켕	켜	켠	켤	켬	켭	켯	켰

켱	켸	쿄	콕	콘	콜	콤	콥	콧
콩	쾌	쾍	쾐	쾔	쾜	쾡	쾌	쾡
쾨	쾰	쿄	쿠	쿡	쿤	쿨	쿰	쿱
쿳	쿵	쿼	퀀	퀄	퀑	퀘	퀭	퀴
퀵	퀸	퀼	퀌	퀍	퀫	퀭	큐	큔
큘	큠	크	큭	큰	클	큼	큽	킁
키	킥	킨	킬	킴	킵	킷	킹	타
탁	탄	탈	탉	탐	탑	탓	탔	탕
태	택	탠	탤	탬	탭	탯	탰	탱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타	탕	터	턱	턴	털	텂	텀	텁
텃	텄	텅	테	텍	텐	텔	템	텝
텟	텡	텨	텬	텼	톄	톈	토	톡
톤	톨	톰	톱	톳	통	톺	톼	퇀
퇘	퇴	퇸	퇫	툉	툐	투	툭	툰
툴	툼	툽	툿	퉁	퉈	퉜	퉤	퉤
튁	튄	튈	튐	튑	튕	튜	튠	튤
튬	튱	트	특	튼	튿	틀	틂	틈
틉	틋	틔	틘	틜	틤	팁	티	틱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틴	틸	팀	팁	팃	팅	파	팍	팎
판	팔	팖	팜	팝	팟	팠	팡	팥
패	팩	팬	팰	팸	팹	팻	팼	팽
퍄	퍅	퍼	퍽	펀	펄	펌	펍	펏
펐	펑	페	펙	펜	펠	펨	펩	펫
펭	펴	편	펼	폄	폅	폈	평	폐
폘	폡	폣	포	폭	폰	폴	폼	폽
폿	퐁	퐈	퐝	푀	푄	표	푠	푤
푭	푯	푸	푹	푼	푿	풀	풂	품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풉	풋	풍	퓌	퓡	퓌	퓐	퓔	퓜
퓟	퓨	퓬	퓰	퓸	퓻	퓽	프	픈
플	픔	픕	픗	피	픽	핀	필	핌
핍	핏	핑	하	학	한	할	핥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핼	햄	햅
햇	했	행	햐	향	허	헉	헌	헐
헒	험	헙	헛	헝	헤	헥	헨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혓	혔	형	혜	혠	혤	혭	호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韓契在民體 4.0 韓契 2,350字

흽 흉 히 힉 힌 힐 힘 힙 힛
힝

제13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결구법結構法*

한글재민체의 인상

단아端雅하고 단정端正한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자형字形은 전반적으로 글씨의 가로 폭보다 세로 폭이 긴 수직垂直의 형태形態를 가지고 있어서 역동적力動的인 느낌을 주고 있다. 동시에 결구結構에 있어서는 획과 획 사이가 조밀稠密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짜임새가 단단한 느낌을 준다.

한글재민체는 「한글재민체4.0」 폰트를, 궁체정자는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연구원에서 제작하고 공급하는 「이현종글씨」 폰트를 사용하였다.

* 김선숙, 박병천, 이현정, 손신진, 김복희, 장광순, 정재두, 장혜자, 개인 교신, 2023년 9월 ~ 2024년 2월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기본基本 자모음자子母音字

폰트파일 기준 : 「한글재민체4.0」 / 「이현종글씨」

기본 자음 14자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기본 모음 10자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 자모음자子母音字의 위치별 획형劃形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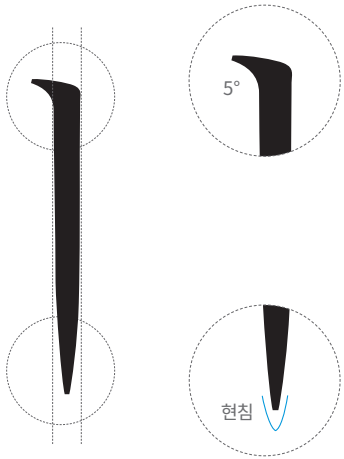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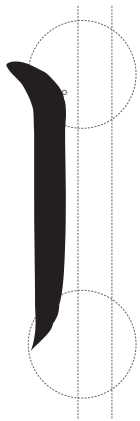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획劃

세로획 쓰기

한글재민체의 세로획은 머리 부분의 각도가 5°에 가깝게, 절법折法으로 면을 바꿔 각지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획을 마무리할 때는 붓끝을 중봉中鋒으로 모아 내려오면서 현침懸針으로 마무리한다.
이와 달리 궁체는 머리 부분의 각도가 45°에 가까우며, 전법轉法으로 붓을 돌려 둥글게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획을 마무리할 때는 붓을 약간 멈추는 듯하다가 붓끝을 모아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가늘게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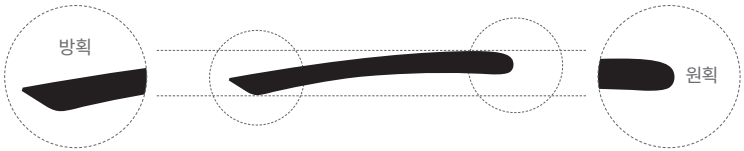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가로획 쓰기

한글재민체의 가로획은 기필 처에서 수필 처까지의 굵기 변화가 적고, 획의 방향은 수필 부분으로 가면서 살짝 올라가게 나타냈다.
붓을 역입하여 5° 각도의 사선 형태로 절折을 하여 방필方筆이 되도록 하고 중봉中鋒으로 모아 붓을 오른쪽으로 행필行筆 하면서 원필圓筆로 거두어들인다.
위를 향하여 탄력적으로 휘어져 있게 한다.
이같이 한글재민체 자형에 역동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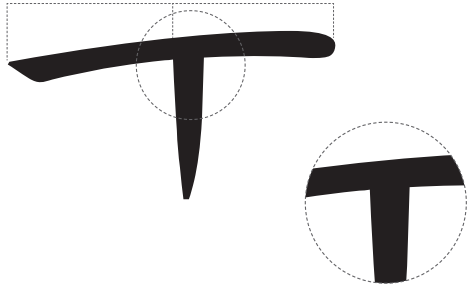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가로획에서 세로획 결합

'ㅜ'에서 한글재민체의 세로획은 가로획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가로획의 속에서 시작한다.
'ㅜ'에서 궁체는 세로획이 가로획의 2/3 부분에 위치하고, 가로획과 살짝 닿으며 시작한다.
예외로 한글재민체의 'ㅝ, ㅞ, ㅟ'는 'ㅜ'획과 다르게 가로획에 살짝 닿으며 시작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예외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점點

ㅏ, ㅑ, ㅓ, ㅕ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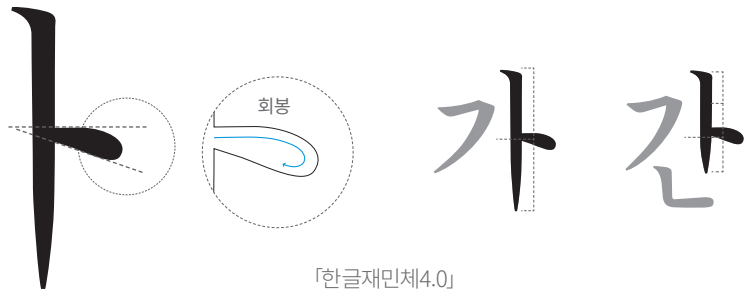
한글재민체의 점의 모양은 궁체와 다르게 수평 획으로 나타내지 않고 밑으로 내리면서 점을 찍는다.

'ㅏ'에서의 점의 위치는 받침이 없는 경우 세로획 중간인 1/2 위치에 접필接筆하고, 받침이 있는 경우 2/3 위치에 접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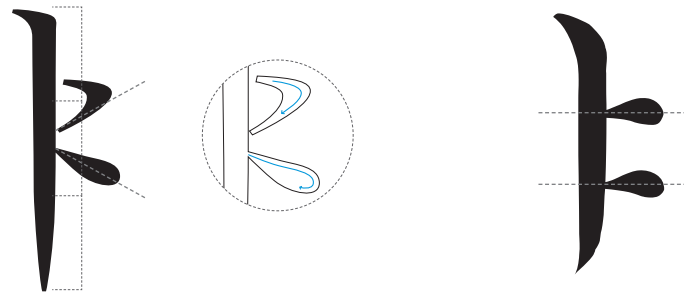
'ㅑ'는 받침이 없는 경우 'ㅣ' 모음 획의 1/3 위치에서 가볍게 평점을 찍으면서 방향을 아래로 이어지는 획형劃形으로 흘려 아래 점과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낸다. 아래 점은 밑으로 내리면서 회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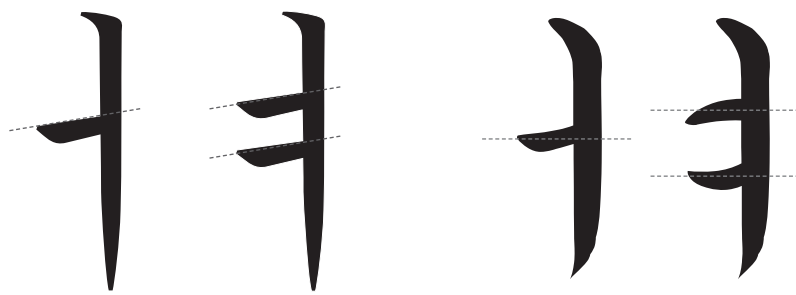
궁체의 'ㅑ'는 두 점의 방향과 모양이 같지만, 한글재민체의 'ㅑ'는 두 점이 이어지는 형태이면서 방향과 모양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한글재민체의'ㅓ', 'ㅕ'는 약간 치켜 올리는 형태로 가로획을 짧게 세로획과 접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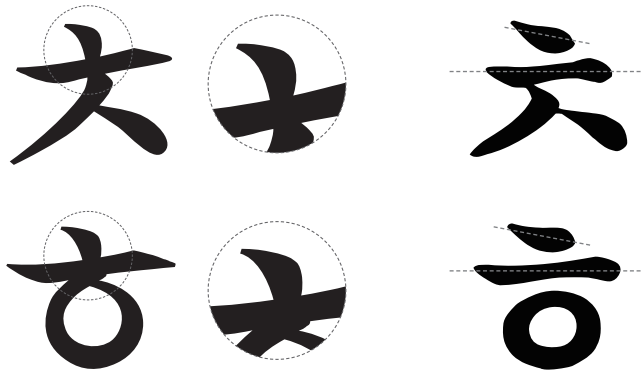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ㅊ,ㅎ의 점

자음‘ㅊ’, ‘ㅎ’의 점에서도 특징을 볼 수 있다. 궁체의 점은 가볍게 대서 오른쪽 아래로 누르며 점을 찍어준 후 간격을 두고 가로획을 그어준다.
한글재민체는 세로획의 기필 각도(5°)와 같이 운필運筆하여 점을 찍고 수직으로 내려그으며 가로획과 접필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ㄴ,ㅛ의 짧은 세로획

한글재민체의 ‘ㄴ’에서의 짧은 세로획은 자음의 가운데에서 시작해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치우친다. 궁체에서는 짧은 세로획이 자음의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수직垂直으로 내려온다.
한글재민체의 ‘ㅛ’는 앞의 짧은 세로획은 곧게 내려오고, 뒤에 짧은 세로획은 곧게 시작하여 왼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온다. 궁체의 ‘ㅛ’는 왼쪽 짧은 세로획과 오른쪽 짧은 세로획의 방향이 같고, 오른쪽 획이 왼쪽 획보다 조금 위에서 시작하여 내려온다.
한글재민체의 ‘노’, ‘도’, ‘로’, ‘토’는 예외로 짧은 세로획의 시작이 자음의 가운데가 아닌 자음이 끝나는 부분에서 바로 이어져 모음으로 연결된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와 궁체정자宮體正字의 자음子音

자음 ㄱ

한글재민체와 궁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획이 꺾이는 부분이다. 한글재민체는 절법折法으로 각지게 표현하고, 궁체는 전법轉法으로 둥글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글재민체 자음 'ㄱ'은 모음 'ㅏ,ㅑ,ㅓ,ㅕ,ㅣ' 그리고 모음 'ㅗ,ㅛ,ㅜ,ㅠ,ㅡ'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초성 'ㄱ'은 가로획의 기필 부분과 같은 각도로 시작하여 약간 올라가는 획으로 절折을 한다.
모음 'ㅏ,ㅑ,ㅓ,ㅕ,ㅣ'가 오는 경우 중봉中鋒으로 45°로 비스듬히 내려긋고, 모음 'ㅗ,ㅛ,ㅜ,ㅠ,ㅡ' 의 경우 방方획으로 비스듬히 내려긋는다.
받침 'ㄱ'은 가로획의 기필 각도와 같이하여 중봉 획으로 행필하다가 절을 하여 중봉으로 반듯이 내려그어 현침으로 거둔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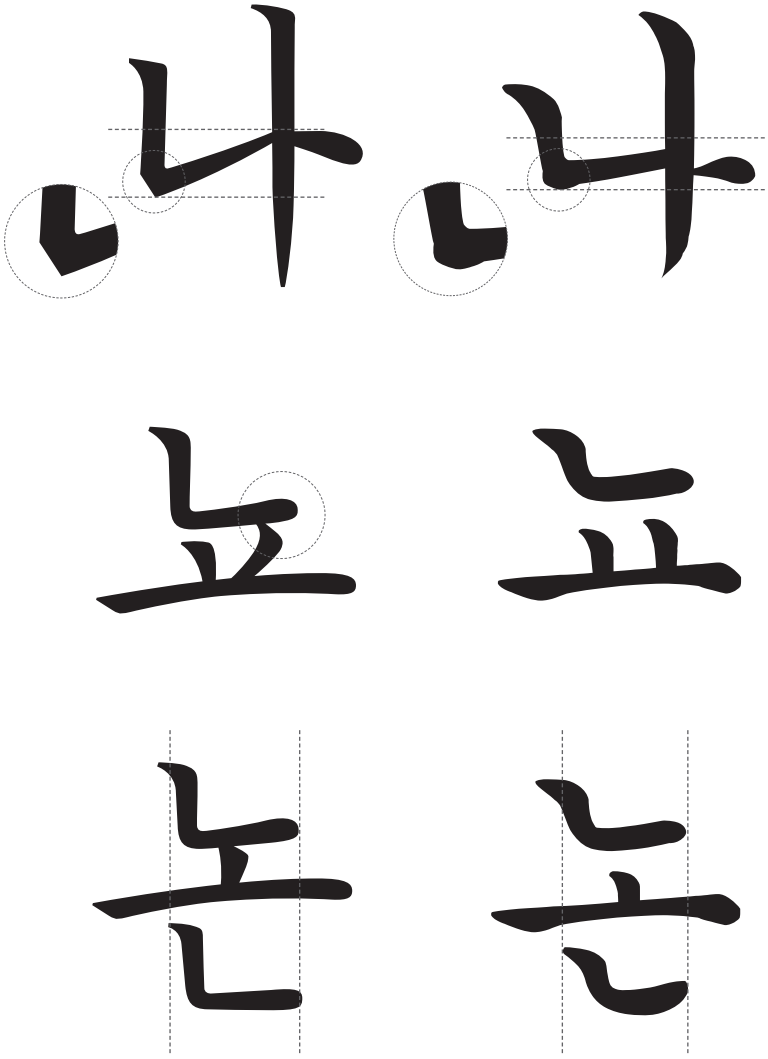
'ㄴ'은 모음과 만나는 아래 획의 방향이 궁체보다 위로 향해있다. 첫 획을 하고 꺾이는 부분에서 궁체는 전轉을 하여 부드럽게 꺾어주고, 한글재민체는 절折을 하여 날카롭게 꺾어 운필運筆한다.

한글재민체 자음 'ㄴ'은 모음 'ㅏ,ㅑ,ㅓ,ㅕ,ㅣ' 그리고 모음 'ㅗ(4.한글재민체와 궁체정자의 점點 참조), ㅛ, ㅜ, ㅠ,ㅡ '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모음 'ㅏ,ㅑ,ㅓ,ㅕ,ㅣ'의 경우 세로획의 기필각도(5°) 같이 하여 반듯하게 내려긋고 절折을 하여 방方획으로 오른쪽 모음을 향해 비스듬히 올려붙인다.

모음 'ㅗ,ㅛ,ㅜ,ㅠ,ㅡ' 의 경우 세로획과 같은 크기로 하여 원필로 거두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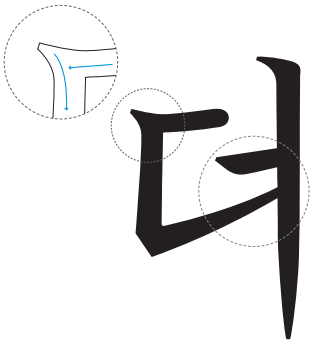
종성終聲 'ㄴ'은 초성 'ㄴ'과 같은 모양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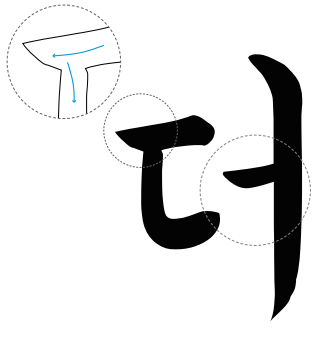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ㄷ, ㄹ

자음 'ㄷ'에서의 특징은 '더'를 쓸 때 나타나는데, 궁체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이 있지만 한글재민체에서는 '다'를 쓸 때와 같이 자음과 모음 사이에 간격 없이 접필한다.
또, 아래 'ㄴ'부분을 운필運筆할 때는 궁체처럼 가로획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획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받침 'ㄷ,ㄹ'은 초성 'ㄷ,ㄹ'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낸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ㅁ

자음 'ㅁ'의 특징은 첫 세로획을 운필한 후에 'ㄱ'을 쓸 때 볼 수 있는데 획의 안쪽 면은 한글재민체와 궁체 모두 수직 획으로 곧게 운필하지만, 획의 바깥쪽 면을 보면 궁체는 안쪽 면과 같게 거의 수직 획으로 내려오지만, 한글재민체는 사선으로 좁아지면서 내려오는 자형이다.
'ㅁ'의 모양은 모든 모음과 합쳐질 때 똑같은 형태이고, 받침도 같은 모양으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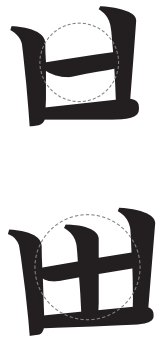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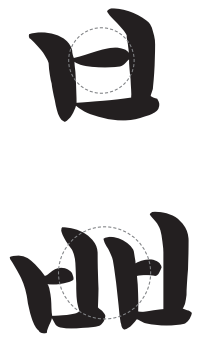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ㅂ, ㅃ

자음 'ㅂ'에서는 세로획과 가로획이 만나는 부분에서 얼마나 간격을 두고 쓰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궁체는 위쪽에 위치한 가로획은 점을 찍듯 써서 세로획과 사이에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고, 한글재민체는 시작 부분을 점이 아닌 획을 쓰듯 써 세로획과 붙여서 쓴다.
또한, 'ㅃ' 한글재민체는 가운데 획을 하나로 하여 'ㅂ' 두 개를 하나로 겹친 'ㅃ'자형이지만, 궁체는 'ㅂ'두 개를 각각 간격을 두고 나타낸 자형이다.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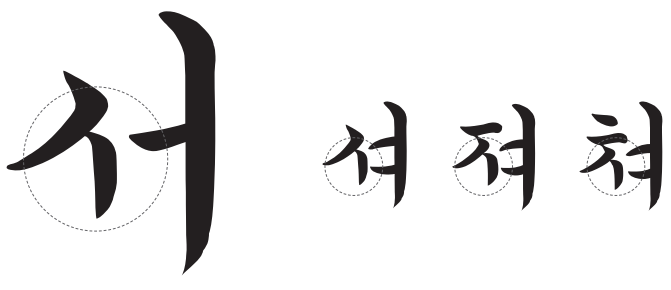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ㅅ,ㅈ,ㅊ

자음 'ㅅ,ㅈ,ㅊ'은 모음과 자음의 겹침이 없이 하기 위해 모음 'ㅏ,ㅑ,ㅐ,ㅒ,ㅣ' 그리고 'ㅓ,ㅕ,ㅔ,ㅖ' 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모음 'ㅏ,ㅑ,ㅐ,ㅒ,ㅣ'의 경우 45° 측봉으로 내리긋고 1/2 위치에 점을 찍지만, 모음 'ㅓ,ㅕ,ㅔ,ㅖ'의 경우 측봉으로 짧게 사향斜向으로 운필하고 1/3 위치에서 둥글게 내리그어 첫 번째 획의 수필收筆 위치와 나란히 수필한다.
한글재민체는 좌측으로 많이 꺾여 나가는 갈고리 모양을 띠고, 궁체는 세로획과 비슷하게 일자로 곧게 내려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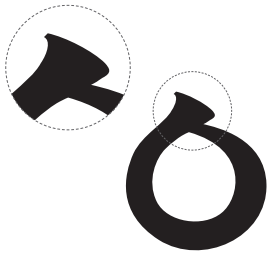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ㅇ

한글재민체의 'ㅇ'은 궁체 흘림체의 'ㅇ'의 시작 부분과 같이 점을 찍어 붓을 세워 둥글게 왼쪽 반원을 나타낸 후에 다시 시작점의 위치에서 밑으로 처지는 느낌으로 살짝 닿게 한 후 오른쪽 반원을 운필運筆한다. 초성, 종성으로 올 때 획형劃形이 모두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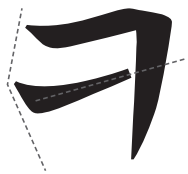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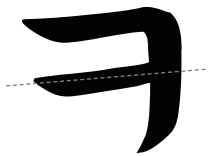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ㅋ

한글재민체의 'ㅋ'은 'ㄱ'을 쓴 후에 중간 획을 쓸 때 획의 길이와 각도가 특징이다. 궁체 'ㅋ'과 다르게 중간 획의 시작이 'ㄱ'의 시작 획보다 앞에서 시작하고 획의 각도가 평행이 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획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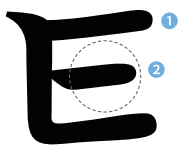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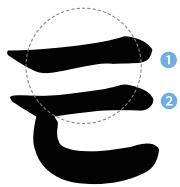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ㅌ

'ㅌ'은 궁체에서 첫 획을 운필運筆한 후에 간격을 두고 'ㄷ'을 쓰지만 한글재민체는 'ㄷ'을 먼저 쓴 다음 'ㄷ'의 안쪽 가운데에 가로획을 써서 'ㅌ'을 완성한다.



「한글재민체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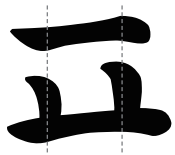
「이현종글씨」

자음 ㅍ

궁체 'ㅍ'은 두 세로획을 곧게 수직으로 내려 마지막 가로획과 닿지만, 한글재민체는 왼쪽 세로획의 운필運筆 방향을 우측으로 점을 찍듯 짧고 뾰족하게 내려 마지막 획과 닿지 않게 쓰고, 오른쪽 세로획은 첫 획에 붓을 대고 시작하여 각도가 좌측으로 향하며 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자음 ㅎ

'ㅎ'은 머리 부분과 'ㅇ'의 간격을 보면 궁체와 다르게 나타냈다.

궁체는 머리 부분의 丶과 一사이, 一와 ㅇ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쓰고, 한글재민체는 머리 부분과 'ㅇ'을 붙여서 쓴다.



「한글재민체4.0」



「이현종글씨」

맺음말

훈민정음은 고유어固有語, 외래어外來語(그 당시의 한자음), 외국어外國語(중국음과 범어梵語 등)를 표기表記하기 위하여 창제創製되었다. 그래서 고유어 표기 방식과 외래어 표기 방식, 그리고 외국어 표기 방식을 달리하였다.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붓글씨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등等이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라고 정의定義한 후 관공체官公體라 명명命名하고 새로운 한글서체의 정의定義 및 명칭名稱의 기원起源을 공식적公式的인 기록記錄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특허청特許廳에 상표명商標名 「관공체官公體」를 2022년 9월 22일 상표출원[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 82]하였으며, 상표명 「관공체」가 2024년 2월 13일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되었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의 관공체官公體 한글 107자 낱자 33자를 기반으로 한 재해석再解釋 디지털 폰트이다.

한글서체韓契書體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체인 정음체正音體와 훈민정음 언해본체인 정자체正字體 그리고 흘림체가 있다. 정자체에는 민체정자民體正字와 관공체官公體 그리고 궁체정자宮體正字가 있으며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이 있다고 2023년 5월 5일 출간出刊한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에서 밝힌 바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이 책에서는 여러 학자(박병천 등)와 논의論議 후,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서체를 민체라 정의定義하였다. 또한 여러 학자(한재영, 박병천 등)와 논의 후, 필획筆劃의 연결이 있는 흘려 쓴 서체를 흘림체라 정의하였다.

1894년 11월 21일 『공문식公文式』 제14조에 '법률 · 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으로써 근본을 삼고 한문을 부역附譯하거나 혹은 한문을 혼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1894년 11월 『공문식公文式』이 순한문純漢文으로 작성되었지만,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에 국문을 사용하도록 천명하였다. 그 뒤 1895년 5월 8일 국한문혼용체로 쓰인 『공문식』 제9조에 재천명再闡明 함으로써 드디어 한글 창제 이후 국문國文이 우리나라 대표代表 문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국문은 외래어 표기, 관원 시험 국문 규정, 법률 및 명령, 『관보官報』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드디어 대표 문자로 공인되었다.

1446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되고 448년이 지난 1894년 고종高宗 31년 갑오개혁기甲午改革期 국문國文의 새로운 용도用途 규정規定이 발표되고부터 1910년 경술년庚戌年까지 17년 간(1894~1910년)이 훈민정음이 나라의 문자라는 국문國文의 지위를 갖게 된 한글의 부흥기復興期 국문시대國文時代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음체로부터 꾸준히 자형이 변모하여 한글의 부흥기인 국문시대(1894~1910년)에 꽃을 피워 관공체官公體가 되는 과정過程을 조망하고자 필자 박재갑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2022년 임인년壬寅年, 2023년 계묘년癸卯年까지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 총 32종류를 임서臨書하고 『한글재민체 소고』에 게재揭載한 바 있다.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이 책에서는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이외의 다른 다양한 문서文書에 사용된 관공체官公體를 찾아보기 위하여 국문시대國文時代에 작성된 국서國書, 주본奏本, 주의奏議, 의주議奏, 칙령勅令,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관급증서官給證書,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의 관공체官公體 1,256자, 88 낱자(287쪽 참조)를 정리하였다.
관공체官公體가 사용된 개화기開化期 국문시대國文時代 국어교과서의 국문서체國文書體와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國語文法』 육필본肉筆本 글꼴 원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한 주시경체周時經體 및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내 별첨別添된 주시경 『국문연구國文硏究』의 국문서체를 소개하였다.

한글시대韓契時代 한글교과서韓契敎科書의 한글서체韓契書體를 소개하고 보통학교普通學校 습자첩習字帖과 쓰기방법견본집書法見本集의 한글서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고종실록高宗實錄의 한글서체, 건국建國 초기初期 한글교과서의 한글서체도 소개하였다.

김충현金忠顯의 우리글씨 쓰는 법에 관한 글과 함께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을 조사하고,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열 분의 한글 서체본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1세대 글꼴 디자이너 최정호崔正浩를 소개하였다.

필자들이 확보한 1945년 이후 2023년까지 출판된 다양한 한글 글씨본과 서예 책은 주로 미려美麗한 궁체宮體에 관한 서적書籍이지만, 근엄謹嚴한 정음체正音體와 민중民衆 각자各自의 개성個性이 나타나는 민체民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면서 정음체正音體와 민체民體 관련 서적書籍도 늘었다. 그러나 관공체官公體와 관련된 기록이나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관공체官公體의 디지털 폰트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는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 그리고 궁체정자宮體正字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결구법結構法을 궁체정자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제는 정음체正音體, 궁체宮體, 민체民體와 더불어,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도 애용愛用되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의 훈포장勳褒章이나 인사발령장人事發令狀 등 격조格調 높고 단정端正한 서체書體를 필요로 하는 각종 공식公式 문서文書 등의 사자寫字 시時에 관공체官公體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가 널리 활용活用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부록 1. 도판圖版 목록目錄

순번	제목
도판 1-1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도판 1-2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도판 2-1	『훈민정음 언해본』, 1459년 판을 디지털 수정한 것
도판 2-2	『월인석보』, 1459년, 권19, 79ㄱ / 권19, 110ㄴ
도판 2-3	『훈민정음 언해본』, 1459년, 15a / 14b
도판 2-4	『석보상절』, 1447년, 권21, 23b / 권21, 23a
도판 2-5	『월인석보』, 1459년, 권10, 89ㄴ / 권10, 89ㄱ
도판 2-6	『오대진언』, 1485년, 4b / 3b
도판 2-7	「범본오십자모실담장」, 『중간진언집重刊眞言集』, 1800년, 二十
도판 2-8	『월인천강지곡』, 1447년, 1a
도판 2-9	『용비어천가』 제1장, 1447년
도판 2-10	『석보상절』 권6, 1447년
도판 3-1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도판 3-2	「의안議案」, 1894년 7월 8일
도판 3-3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도판 3-4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 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도판 3-5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도판 3-6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도판 3-7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쪽
도판 3-8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 b쪽
도판 3-9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도판 3-10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도판 4-1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도판 4-2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도판 4-3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도판 4-4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도판 4-5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도판 4-6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 「청의서請議書 제2호弟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 b쪽
도판 4-7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 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 b / 001b_001 / 002a / 003a쪽
도판 4-8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 b / 005a, b / 006a / 007a쪽
도판 4-9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 b쪽
도판 4-10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號」, 1895년 3월 25일, 001a, b쪽
도판 4-11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7호第七號,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 b / 017a, b쪽
도판 4-12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1899년 4월 24일, 033a, b / 034a, b / 035a쪽
도판 4-13	議政府(朝鮮)編, 奎17706-v.19,「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 b / 015a, b / 016a, b / 017a, b쪽
도판 4-14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 b쪽
도판 4-15	「윤병학尹秉學의 대한의원大韓醫院 졸업증서卒業證書」, 1907년 7월 30일
도판 4-16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102, 1907년 8월 27일
도판 4-17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순번	제목
도판 5-1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2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1쪽, 2쪽
도판 5-3	유로바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4	아시아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5	북아메리까디도 北亞米利加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6	남아메리까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7	아프리가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8	오스드렐랴태평양셤디도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도판 5-9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도판 5-10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1쪽
도판 5-11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1,12쪽
도판 5-12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3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도판 5-14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셔, 일쪽
도판 5-15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셔, 이쪽
도판 5-16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이쪽
도판 5-17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敎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敎育會藏板, 1906년, 26, 31쪽
도판 5-18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刷, 연활자본鉛活字本, 1907년 初版, 1908년 再版, 1909년 參版, 1909년 四版, 1쪽, 3쪽, 6쪽, 7쪽
도판 5-19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5~8, 26, 52쪽

순번	제목
도판 5-20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1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도판 5-22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緖言 一, 緖言 二
도판 5-23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도판 5-24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6쪽
도판 5-25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7~12쪽
도판 5-26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3~18쪽
도판 5-27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19~24쪽
도판 5-28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25~30쪽
도판 5-29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1~36쪽
도판 5-30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37~42쪽
도판 5-31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3~48쪽
도판 5-32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49쪽, 51~55쪽
도판 5-33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56~61쪽
도판 5-34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도판 5-35	周時經, 『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융희隆熙3년(1909) 7월
도판 5-36	『국어문법國語文法』, 118쪽 내용 중 일부를 「EBS주시경체」로 옮기다
도판 6-1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 1909년, 1쪽
도판 6-2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002쪽
도판 6-3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003쪽

순번	제목
도판 6-4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103쪽
도판 6-5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년, 0104쪽
도판 7-1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1쪽
도판 7-2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1, 2, 5, 8, 11, 14, 18, 24쪽
도판 7-3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29, 33, 36, 40, 42, 45, 49, 52쪽
도판 7-4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ㄱ쪽
도판 7-5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ㄴ쪽
도판 7-6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9, 11, 14, 15, 21, 22쪽
도판 7-7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21, 25, 29, 31, 32, 43쪽
도판 7-8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10, 13, 15, 16, 23, 24쪽
도판 7-9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일러두기 1, 2쪽, 속판 1쪽
도판 7-10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1~3쪽
도판 7-11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4, 5, 11, 34쪽
도판 8-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 4쪽
도판 8-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8쪽
도판 8-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9~12쪽
도판 8-4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3~16쪽
도판 8-5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17~20쪽
도판 8-6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1, 22, 24, 25쪽
도판 8-7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26~29쪽

순번	제목
도판 8-8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0~33쪽
도판 8-9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4~37쪽
도판 8-10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38, 40, 43, 44쪽
도판 8-11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45, 46, 48, 49쪽
도판 8-12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1~54쪽
도판 8-13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55~58쪽
도판 8-14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17~20쪽
도판 8-15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1~24쪽
도판 8-16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25, 26, 39, 40쪽
도판 8-17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41~44쪽
도판 8-18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9~12쪽
도판 8-19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13, 14쪽
도판 8-2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1~4쪽
도판 8-21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5~8쪽
도판 8-22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9, 10쪽
도판 8-23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24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순번	제목
도판 8-25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26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27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28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29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3, 14쪽
도판 8-30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31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15쪽
도판 8-32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14, 15쪽
도판 8-33	朝鮮総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14쪽
도판 9-1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b면
도판 9-2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1a, b면
도판 10-1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17쪽
도판 10-2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1, 2, 20, 30, 45쪽
도판 11-1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년
도판 11-2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년
도판 11-3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4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5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년 4월 10일
도판 11-6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년 9월 5일
도판 11-7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년 10월 28일
도판 11-8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년 10월 30일
도판 11-9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1954년 4월 5일
도판 11-10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1955년 10월 30일
도판 11-11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도판 11-12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1948년 4월 10일
도판 12-1	「옥원중회연」(좌)과 「대한의원개원칙서」(우)에서 선택한 글자들의 비교
도판 12-2	한글재민체의 주요 특징과 개념적 표현
도판 12-3	개원칙서 원본의 자소를 이원화한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4	개원칙서 원본 자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한글재민체 자소
도판 12-5	폰트랩스튜디오5를 활용한 폰트 제작 과정

부록 2. 표表 목록目錄

순번	제목
표 1-1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표 2-1	월인석보와 월인천강지곡의 표기 비교

부록 3. 참고參考 문헌文獻

머리말 ····· 4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5~6쪽

제1장 개요 ····· 12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 **관공체官公體:** 상표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20174282, 상표출원(국제등록)일자: 2022. 09. 22., 상표등록번호: 4021531520000, 상표등록일자: 2024. 02. 13.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Kdcd=79&ccbaAsno=04490000&ccbaCtcd=11&pageNo=1_1_1_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2;22:319~330.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 (集團) 公司, 2023;456:74~76.
-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 박재갑, 김민, 이규선, 진황가, 김지영, 『한글재민체4.0』, 폰코font.co.kr/collection/sub?family_idx=10658, 2023. 5. 25.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40쪽
- 金炳基, 『書藝, 基本用語의 意味明瞭化試論-活劃(金翅劈海, 香象渡河), 字體, 書體, 筆體, 書風에 대한 辨釋』, 中國學論叢, 201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95~96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7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3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1쪽

제2장 훈민정음의 창제와 한글 변천의 시대 구분 ····· 18

- 송기중宋基中, 『東北아시아 歷史上의 諸文字와 한글의 起源』, 진단학보, 1997;84:203, 219.
- 홍윤표,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어사 연구, 2017;3:197-201.
-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 태학사, 파주, 2017년, 311~312쪽
- 홍윤표, 『훈민정음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국어사 연구, 2017;3:227~229.
- 홍윤표, 『한자 학습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파주, 2022년, 46, 47쪽
-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 태학사, 파주, 2017년, 312~314쪽
-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57~59쪽
- 이규영, 『한글모 죽보기』, 한힌샘연구, 1988;1:168.
- 유열, 『한글 강좌』,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서울, 1948년, 18쪽
-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35~39쪽
- 홍윤표, 『한글』, 세창출판사, 서울, 2016년, 63~68쪽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박용규, 『우리말 · 우리역사 보급의 거목 이윤재』, 역사공간, 서울, 2023년, 4쪽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一】』, 『동아일보』, 1932. 10. 29.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二】』, 『동아일보』, 1932. 10. 30.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三】』, 『동아일보』, 1932. 11. 1.
- 이윤재, 『한글운동運動의 회고回顧【四】』, 『동아일보』, 1932. 11. 2.
-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편, 『한뫼 이윤재 글모음』, 도서출판 선인, 서울, 2016년, 554~557쪽
- 브나로드운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

E0025066

- 鄭百秀, 『한국근대의 植民地體驗과 二重言語文學』, 아시아문화사, 2000년, 16, 17쪽
- 金成俊,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景仁文化社, 2010년, 109~112쪽
- 野間秀樹, 『ハングルの誕生』, 新版, 平凡社, 東京, 2021년, p308
-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돌베게, 파주, 2020년, 334쪽
- 박영순, 「한국어 세계화,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학술발표논문집, 2020;2020:1~8.
- (훈민정음학회)이호영, 황효성, 아비딘, 『바하사 찌아찌아』, 한국학술정보, 파주, 2009.
- 박의래, 「한글 도입 15년 인니 찌아찌아족…"전통언어 보존위한 특별도구"」, 『연합뉴스』, 2023. 12. 20.

제3장 국문의 새로운 용도 규정(1894년, 1895년) ····· 32

- 『大典通編>戶典>徵債>[私債成文諺文]』,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시대법령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사편찬위원회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서울, 2008년, 37~42쪽
- 尹炳喜, 『兪吉濬硏究』, 國學資料院, 서울, 1998년, 2015년, 7쪽
- 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5년, 17쪽
- 황위주黃渭周, 『公文式』에서의 '國文使用' 企劃 主體, 嶺南學, 2023;85:285~321.
- 황위주黃渭周, 개인 교신, 2024. 1. 24.
-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1894년 7월 8일, 31쪽, 32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5248_00
-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469&cid=46623&categoryId=46623
- 「의안議案」, 1894년 7월 8일, 『議案·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46~47쪽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8일 임오 4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원본】 36책 32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499면,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22, 1894년 10월 11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5~126쪽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호第一號, 공문식제公文式制반포頒布」, 1894년 11월 21일, 001a, b쪽/ 議案 · 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199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4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032권, 1894년 11월 21일, 065a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111021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계사 2번째 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13호第一三號」, 1894년 12월 10일, 014a,b/015a,b/016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3, 「칙령勅令 제86호第八十六號」, 1895년 5월 8일, 001a,b쪽, 議案 · 勅令(上), 서울대학교圖書館, 1991년, 244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3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8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5월 8일, 057b면,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5008_004&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8일 무인 4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원본】 37책 33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3면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제4장 국문시대 국서, 주본, 주의, 의주, 칙령, 내부내거문, 관급 증서, 서순행일기의 관공체(1894~1909년) ····· 48

- 박준호,「조선중기 전서篆書의 유행과 그 의미」,『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2011년, 43~55쪽
- 박재갑, 김민,『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3, 1895년 5월 3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박재갑, 김민,『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7~128쪽
-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왕실고문서 617, 1899년 10월 30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020. 3. 2.
- 한재훈, 원문 입력 및 국역
- 김인걸, 개인 교신, 2022. 11. 18.
- 박재갑, 김민,『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29~130쪽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1호第九十一號」, 1895년 1월 29일, 032a, 032b_01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2호第九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4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2-v.2, 「주본奏本 제93호第九十三號」, 1895년 1월 29일, 035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2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3-v.1, 「청의서請議書 제2호第貳號」, 1896년 11월 4일, 013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3_00&vol_no=0001
-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 제1호第一號, 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1a,b/001b_001/002a/003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 內閣編錄課(朝鮮) 編, 奎17705-v.1, 「의주議奏제 1호第一號, 첨부문서 勅令案(內閣官制)」, 1895년 3월 21일, 004a,b/005a,b/006a/007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5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 「칙령勅令 제32호第三十二號」, 1895년 1월 29일, 035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1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2, 「칙령勅令 제38호第三十八」, 1895년 3월 25일, 001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2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 「칙령勅令 제7호, 醫學校官制」, 1899년 3월 24일, 016a,b/017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7,「칙령勅令 제14호第十四號, 病院官制」, 1899년 4월 24일, 033a,b/034a,b/035a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07
- 議政府(朝鮮) 編, 奎17706-v.19,「칙령勅令 제9호第九號, 大韓醫院官制」, 1907년 3월 10일, 014a,b/015a,b/016a,b/017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06_00&vol_no=0019
- 칙령勅令,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外部(朝鮮) 編, 奎17794-v.1,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조회照會 제1호第一號」, 1895년 4월 22일, 001a,b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K17794_00&vol_no=0001
- 자료 제공 : 황상익, 2024. 1. 16.
-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2009년, 2019년, 42쪽, 43쪽
- 「대한국기념장증서大韓國紀念章證書」, 왕실고문서 102, 1907년 8월 27일, 자료 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20. 3. 2.
- 「1907년 대황제폐하즉위예식기념장」, 디지털장서각, jsg.aks.ac.kr/dir/view?dataId=JSG_RD00102
- 「서순행일기」, 자료 출처 : 화봉문고,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년, 3쪽, 14쪽
-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27.2×19.0cm / 필사본(筆寫本) / 선장(線裝), 1冊 133張 / 종이 / 국한문혼용, 청구기호: K2-222, 기록시기: 1909年

(隆熙 3) 以後,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황성신문皇城新聞』,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 · 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호, 2010.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남순행 연구』,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2007.
- 이왕무, 『대한제국기 순종의 서순행 연구 -서순행일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1, 2011.
- 『서순행西巡幸』, 위키 실록사전, sillokwiki
- 『서순행西巡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 한국학 기초자료사업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 http://waks.aks.ac.kr/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139~140쪽

제5장 국문시대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1894~1910년)의 국문서체 ····· 104

- 「2012년 가을 문턱에 편역자 일동, 총서(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발간사 중에서」,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5, 6쪽
- 양정섭, 『한국개화기 국어교과서』, 경진출판, 2021., mykyungjin.tistory.com/91
- 호머 헐버트,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1891년 초판, 1906년 수정판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년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년
- 리봉운,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년
- 대한국민교육회大韓國民教育會, 『초등소학1初等小學 一』, 대한국민교육회장판大韓國民教育會藏板, 1906년
- 정인호鄭寅琥, 『최신초등소학1最新初等小學 一, 옥호서림玉虎書林』, 경성京城, 1908년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년
-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년
-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년
- 현채玄采, 『신찬초등소학1新撰初等小學 一』, 동미서시東美書市, 경성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 학부學部, 『보통학교학도용普通學校學徒用 국어독본國語讀本 권1卷一』, 한국정부인쇄국인쇄韓國政府印刷局印, 연활자본鉛活字本, 1909년
-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년
- 김동진, 「최초의 교과서이자 최초의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81~92쪽
- 『사민필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5620
- Hulbert, Homer B., 국립중앙도서관 isni KOREA, www.nl.go.kr/isni/0000000081141905
- 강진호 편역, 『국민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 유임하 편역, 『소학독본(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 구자황 편역, 『신정심상소학 (학부 편집국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2쪽
- 『국문정리』, 조광국(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238_00&notes=basic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년, 316쪽
- 박치범, 박수빈 편역, 『초등소학 (상)(국민교육회 저)』,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김혜련, 장영미 편역,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상)(학부 편찬)』,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이승윤, 김준현 편역, 『최신초등소학(정인호 편술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1쪽
-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36459
- 조윤정 편역, 『노동야학독본(유길준 저술 및 발행)』, 도서출판 경진, 2012년, 8쪽
-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200&levelId=tg_004_0240&ganada=&pageUnit=10
- 『대한문전大韓文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4999

- 박민영, 최석재 편역, 『신찬초등소학(현채 저작 겸 발행)』, 도서출판 경진, 광명, 2012년, 8-10쪽
- 『국어문법國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 「EBS주시경체」, about.ebs.co.kr/kor/organization/font?tabVal=jusigyeong

제6장 『국문연구의정안』(1909년)의 국문서체 ····· 140

-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11, 12쪽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년, 1982년, 58쪽
- 한동완, 『국문연구의정안』, 신구문화사, 서울, 2006년, 24, 25쪽

제7장 한글시대 한글교과서(1911~1939년)의 한글서체 ····· 146

-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년
-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년
-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년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년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년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년
-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년
-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년
-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년
- 『朝鮮語文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6387
- 『말의소리-한글학회』, hangeul.or.kr/homepage/custom/talksound
- 『말의소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17831
- 석인본石印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terms.naver.com/entry.naver?cid=46669&docId=574798&categoryId=46669
- 『중등 조선 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9263
- 신하영,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한박웃음」, 제96호, 2021. 8. www.hangeul.go.kr/webzine/202108/sub1_2.html

제8장 한글시대 보통학교 습자첩(1911년, 1913년)과 쓰기방법견본집(1924년, 1936년, 1937년)의 한글서체 ····· 158

- 유한익劉漢翼, 『보통학교학도용습자첩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1년
-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1卷一』, 朝鮮總督府, 1913년
- 朝鮮總督府 編纂, 『보통학교습자첩普通學校習字帖 권2卷二』, 朝鮮總督府, 1913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용상 普通學校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1학년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2학년하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상 普通學教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보통학교쓰기방법견본집 제3학년하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總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4학년상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년
- 朝鮮総督府, 『쓰기방법견본집 제5학년상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総督府, 1937년
- 김지영, 개인 교신, 2023. 10. 22.

제9장 고종실록의 한글서체 ····· 192

- 이원순,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03942
- 『고종실록』, 033권, 1895년 3월 5일, 010a, 010b, 011a, 011b면,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 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za_13203005

_002&type=view&reSearchWords=&reSearchWords_ime=#
-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539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제10장 건국 초기 한글교과서(1945년, 1949년)의 한글서체 …… 198
-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년
-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교육교재』, 미국공보원, 1949년
- 『한글 첫걸음』,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교과서로 보는 시대별 교육, 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2627&cid=58156&categoryId=58156

제11장 한글서예, 한글 글꼴과 글씨본 …… 200

1. 김충현, 우리글씨 쓰는 법(1946~1948년) …… 200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5쪽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6쪽
-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一』, 『중앙신문』, 1946년 2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290&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7~8쪽
-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二』, 『중앙신문』, 1946년 2월 6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id=CNTS-00065285375&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8~9쪽
- 김충현, 『한글과 궁체宮體 三』, 『중앙신문』, 1946년 2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5285451&from=%EC%8B%A0%EB%AC%B8%2%EA%B2%80EC%83%89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9쪽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教社, 1948년, 10~13쪽

2. 한글 글씨본과 서예 …… 205

2-1. 『언문톄첩』(1917년) …… 205
-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
-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

2-2. 초등, 중등, 고등 글씨본과 서예(1948~1997년) …… 205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1948.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1948.
-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1949.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
-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서울, 1954.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오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경원,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삼』,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이철경, 『중학교 글씨본 3』, 우종사, 서울, 1958.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⑥』,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이철경, 『초등글씨본(전 3 권)』, 대도문화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 이철경, 『초등글씨본 ④』, 대도문화사, 서울, 1961.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 (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5.6』, 문교부, 서울, 1976.
- 이철경, 『중학글씨본』, 우종사,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2-3. 초등, 중등 미술과 글씨본과 서예(1949~2023년) …… 206
-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1949년 4월 5일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년, 1~24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년, 1~28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7년, 1~30쪽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년, 1~30쪽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9년, 1~30쪽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년, 1~132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판본체 쓰기」, 『중학교 미술 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년, 74~79쪽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한글 서체 쓰기」, 『중학교 미술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년, 72~77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붓과 먹으로 표현하기」,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5쇄 2022년, 40~43쪽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우리 글씨 판본체」,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년, 4쇄 2021년, 36~41쪽
- 김선아, 안금희, 장지선, 윤영섭, 심효진, 박슬기, 지가혜, 이은선, 「점과 획의 조화, 서예」, 『중학교 미술 1』,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8년, 3쇄 2023년, 92~97쪽
- 서예식, 고정곤, 김기나, 김기태, 김도홍, 김정령, 도병훈, 박현정, 손동호 오일환, 윤여준, 윤정은, 이다정, 이민선, 이성원, 이정원, 이창식, 이혜우 임종삼, 전용각, 정문영, 정순희, 정흥순, 하지영, 「문자, 아름다움을 두드리다」, 『중학교 미술 1』, 해냄에듀, 서울, 2018년, 58, 59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아름다운 우리 글씨, 궁체」, 『초등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70~73쪽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마음을 담은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년, 2쇄 2020년, 26, 27쪽
- 정선화, 송혜원, 정현화, 홍완표, 이지영, 김이경, 한승연, 나두리, 「아름다운 우리 글씨」,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미술과생활, 서울, 초판 2019년, 5쇄 2023년, 36~43쪽

2-4. 한글 글씨본과 서예(1948~2023년) ····· 207

- 宋寅淳, 『理論.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敎育社, 서울, 1970.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환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 - 한글기초이론.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金忠顯, 『김충현 쓴 일중 한글서예』, 視聽覺敎育社, 서울, 1978., 1995.
- 김중각, 『한글 궁체기초필법』,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89.
- 김응현, 『보한재 신숙주선생 한글창제사적비』, 정문출판사, 서울, 1990.
- 조용선, 『한글서예』, 미술문화원, 서울, 1991.
- 金膺顯, 『東方書範 (卷一) 正音(國文) (板本體,宮體)』, 東方研書會, 서울, 1993.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김중각, 『모범 한글서예』, 일신서적출판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조용선, 『봉셔: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7.
- (역주)의랑 이현종, 『뎡미가례시일기』, 대신당필방, 서울, 1998.
- 이화문화출판사(편), 『옥원듕회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정주상, 『서예교실 한글서예 문장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조용선, 『항니도 · 사셩녹 · 품목: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가사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서간체 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주영갑, 『흘림체 가사집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199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정자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흘림체 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권숙희, 『한글서예 고전 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2005., 2019.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배우는 법과 가르치는 법』,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성자, 『농가월녕가, 옥누연가: 역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신명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레위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민수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조용선, 『모세오경: 출애굽기』,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령, 『전통 새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천갑녕, 『한국시조 500선 현대시조편: 궁체(정자 ·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0.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1.
- 정주상, 『한글궁체(기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2.
- 한상봉, 『(역주) 태상감응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2.
- 조성자, 『(역주) 낙셩비룡』,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3.
- 여태명, 『한글 서예판본 조웅전: 완판본』, 인사동문화, 2003.
- 조용선, 『일촬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조종숙(엮은이), 『우리글 서체를 찾아서』,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2021.
- 지남례, 『궁체시조선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천갑녕, 『시조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4.
- 해오름한글서희, 『女四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4.
- 한국한글서예연구회, 『조선시대 문인들과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6.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곤순, 홍영순, 『남창별곡』,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송병덕,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07., 2022.
- 윤병두, 『한글서예』, 도서출판 채운재, 서울, 2007.
- 이기대, 『명성황후 편지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상』,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이재욱, 『순원왕후 어찰쓰기: 진흘림 하』,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조용선, 『옥원듕회연: 역주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7.
- 김만중, 『(역주) 구운몽』,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8.
- 백경자, 신명숙, 오명순, 오병례, 윤곤순, 홍영순, 『백발가취몽녹』,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신영길 (역주), 이현종, 이화자, 박정숙, 윤곤순, 윤미한, 이민재, 이정옥 (궁체옮김), 『한양가519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08.
- 金忠顯, 『우리글씨쓰는법』, 白岳美術館, 서울, 2009.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십이봉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09.
- 한양근, 『체계적 한글서예 교본』, 도서출판 우람, 서울, 2009, 2022.
- 서정수, 임인선, 『(역주) 완월회맹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지남례, 『(역주) 남계연담』,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0.
- 김연중, 『우리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1.
- 이석표, 이영순, 차부자, 『(역주) 인봉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임인선, 이권석, 박혜진,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조주연, 『(역주) 후수호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허준, 『(역주) 동의보감』,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1.
- 백경자, 『정사기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석보상절, 제6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석보, 권1』,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월인천강지곡 상권』,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한글서예연구회, 『훈민정음 해례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2.
- 김충현, 『일중 김충현: 한글서예』, 일중선생기념사업회, 2013.
- 김종태, 『서법교본 한글 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3.
- 내일한자연구회, 『기초서예교본』, 매일출판, 서울, 2013.
- 조주연 옮김, 『금강산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3., 2020.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송강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4.
- 성무빈, 『정통 한글서예』, 도서출판 매일, 서울, 2014.
- 심현섭, 『글씨는 아름답다』, 도서출판 박실헌, 고양, 2014.
- 이현종, 『붓 한글궁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궁체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한갑수, 『판본 첫걸음』,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4.
- 나만갑, 『(역주) 산셩일긔: 정자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나만갑, 『(역주) 산셩일긔: 흘림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문동호, 『한글서예기법과 실제: 궁체 판본체』, 법문 북스, 서울, 2015.
- 박한춘(서체집자), 『(원문집자)농가월령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윤호삼, 『순수한 우리말로 엮은 대울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윤호삼, 『대울 윤호삼 쓴 한글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5.
- 임현순, 조주연, 홍성란(옮김), 『이츈풍젼』,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장성연, 『書藝技法實技1』,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장혜자(엮은이), 『규간자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 한국학자료원 편집부, 『한글書藝敎本』, 한국학자료원, 서울, 2015.
- 해오름한글서회, 조성자, 『쓰기 쉬운 한글서예』,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5., 2020.
- 오동섭, 『10서체 반야바라밀다심경 5권, 9판본체, 10흘림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이미경, 『꽃들 이미경 쓴 한글서예』, 학원문화사, 서울, 2016.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판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6.
- 홍성란, 임현순, 조주연 옮김, 『부인치가사』,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6.
- 강민석, 『모정 강민석 쓴 한글어울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7.
- 유혜경, 『(묵향 담은) 한글서예: 한글서예작품집』,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정주환, 『고급 한글서예 정법』, 법문 북스, 서울, 2017.
- 조성자, 『궁듕발긔(궁중발기)』,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조주연 옮김, 『몽환가 · 토골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7.
- 김경순,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리동규, 『한글서예: 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18.
- 정복동, 『월인천강지곡 상』, 이아임북, 하남, 2018.
- 정주상, 『한글서예(문장)』,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정자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조현판, 『한글서예 흘림편』,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8.
- 지성룡, 『正史紀覽정사긔람』, 도서출판 고연, 시흥,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정자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흘림1』,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천갑녕, 『익히기 편리한 낱말궁체 흘림2』,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8.
- 함민숙, 『한글서예』, 센스토리, 서울, 2018.
- 구자송 · 서복희 · 홍영순, 『토싱젼(토생전)』,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국립한글박물관, 『공쥬 글시 뎍으시니: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유산』,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궁체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고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동연, 『겨레글 2350자: 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19.
- 김인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서예』, 당신의 서재, 서울, 2019.
- 조주연, 임현순, 홍성란(옮김), 『해몽가』,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19.
- 김정희, 『우보 김정희 쓴 궁체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김진태, 『월당 김진태 쓴 한글판본체옛시조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박정숙, 『이진사전』,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0.
- 이현종, 김정묵, 이기훈, 이혜경, 박숙희, 김선숙, 박경희, 오승연, 『새겨읽은 규합총셔-권지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정광옥, 『한글궁체 길잡이(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0.
- 허경무, 『혀경무 쓴 국 · 한 서예교본 시리즈 1-20』, 한예술사, 부산, 2020.
- 리동규, 『정석 한글서예(기본편)』, 법문 북스, 서울, 2021.
- 이화자, 『한글서예』,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장성연, 『한글 서예』, 한국학자료원, 서울, 2021.
- 정통한글서예교실, 『정통한글서예』, 매일출판, 서울, 2021.
- 주영갑, 『이목 주영갑 쓴 한글서예 판본체』, 도서출판 고륜, 2021.
- 천갑녕, 『자연과의 대화』,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정자 · 고문 정자』,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현대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궁체시조작품집: 고문 흘림』,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판본체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홍영순, 『옛시조작품집』,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1.
- 宋炳德, 『최신 한글서예』, 태평양저널/한국영상문화사, 서울, 2022.
- 송병덕, 『최신 한글판본체』, 한국영상문화사/태평양저널, 서울, 2022., 2023.
- 윤영조, 『구암 윤영조 쓴 한글궁체』, 도서출판 고륜, 서울, 2022.
- 장성연, 『예광 장성연 쓴 한글서간체』,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갑녕, 『3서체(궁체 · 조화체 · 고체)한글』,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2.
- 천봉근, 『청강인체교본』, 도서출판 한글, 2022.
- 김영기, 『신명학의 뿌리 서예교본 (기초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김진태, 『기초부터 완성까지 월당김진태 쓴 한글판본체교본』, 이화문화출판사, 서울, 2023.
- 서정수, 조주연, 차부자, 홍성란(편역), 『옥원중회연 작품명제 130선』, 도서출판 다운샘, 서울, 2023.
- 한국국학진흥원, 『내방가사: 아름다운 한글 서예와 만나다』, 한국국학진흥원, 2023.
- 한치선, 『가장 쉬운 독학 타타오 서예 첫걸음』, 동양북스, 서울, 2023.

3.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2009~2011년) ····· 210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일중 김충현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 김충현金忠顯,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71846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평보 서희환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 서희환徐喜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Article/E0028324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원곡 김기승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0.
- 김기승金基昇, 두산백과,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1655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자 한글 서체본 · 갈물 이철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8.
- 갈물 이철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galmul/profile/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꽃뜰 이미경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09.
- 꽃들 이미경, (사)갈물한글서회, www.galmul.or.kr/memorial/flower/profile/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규당 조종숙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한글서예 2020년, 조종숙 구술기록, 2020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디지털한글박물관, archives.hangeul.go.kr/archives/inhouse/oral/267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의당 이현종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정태수, 「의당 이현종: 궁체에 사랑을 담아온 40년 서예의 길」, 「월간 서예문화」, 2012년 7월호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아람 이한순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세종기념사업회, 현대한국대표서예가한글글씨본(아람 이한순), 2011.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난정 이지연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장윤진, 「난정 이지연: 궁체의 신경지를 개척한 현시대의 신사임당」, 「위클리피플」 683호, 2010. 6. 14.
-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서체본 · 한곬 현병찬 서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
- 김문기, 「현병찬 선생 한글 판본체 개발」, 『제주일보』, 2011. 4. 13., 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321

4. 최정호, 한글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 213
- 「최정호 - 한글 글꼴 디자이너 1세대」, 『디자이너 열전』, 노은유, ag 타이포그라피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entry.naver?cid=58790&docId=3577782&categoryId=58790
- 「최정호, 한글 글꼴의 원형을 만든 디자이너」,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한글의 큰 스승』,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2019년, 240~263쪽

제12장 한글재민체 ····· 214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9쪽
- 정상혁, 「한글 글꼴 만든 癌 박사 "순종 황제 칙서의 단아함에 반했죠"」, 『조선일보』, 2020. 10. 7.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 copyl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8.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19~330.
- 하철용, 개인 교신
- 박갑수, 개인 교신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7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 이규선, 박윤정,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2)-KS X 1001 한자 4,888자를 포함한 한글재민2.0』, 기초조형학연구, 2021;23:369~380.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 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9쪽
- 진황가陳凰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 (集團) 公司, 2023;456:74~76.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40쪽
- 김지영, 김민, 『디지털 폰트 '한글재민체4.0'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포럼, 2023;75:65~78.
- 김미애, 김민, 『국제음성기호 표기를 위한 한글 형태 연구 -한글 신자소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23;24:19~32.
- 이영관, 「'P'와 'F' 구분하는 글꼴 만든 교수들」, 『조선일보』, 2023. 10. 9.
- 이순녀, 「한글 풀어쓰기 '재민체5.0' 개발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이순녀의 이사람] "소수민족 등 세계 모든 언어 발음… 한글 풀어쓰기로 표기 가능해요"/논설위원」, 『서울신문』, 2023. 10. 26.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1.
- 이규선, 개인 교신, 2023. 9. 4.
- 이정자, 『「옥원중회연」 한글 필사본의 서지학 고찰과 서사기법』, 서예학연구, 2015;27:284~323.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5.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8.
- 박성훈 · 정유권, 「폰트 제작 툴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 8. 10., typographyseoul.com/%ed%8f%b0%ed%8a%b8-%ec%a0%9c%ec%9e%91-%ed%88%b4%ea%b3%bc-%eb%94%94%ec%9e%90%ec%9d%b4%eb%84%88/
- 2019년 연구보고, 「한글 글꼴 산업 현황 조사 : 디지털 글꼴 산업을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 2019.
-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22:327~328.
- 이규선, 『구한말 사자관(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3.0까지』,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서울, 2022.
- 임광규, 개인 교신, 2024. 2. 20.

제13장 한글재민체 결구법 ····· 256
- 김선숙, 박병천, 이현정, 손신진, 김복희, 장광순, 정재두, 장혜자, 개인 교신, 2023년 9월 ~ 2024년 2월

맺음말 ····· 268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32, 33쪽
-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서울, 2023년, 65~140쪽

부록 4. 기증寄贈 받은 참고參考 문헌文獻

부록 4-1. 홍윤표洪允杓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교수,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2023년 2월 27일

- 한글 문헌 자료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등 1,795 종류
- 서예사 자료 『홍무정운역훈』, 1455년, 등 327 종류
- 궁체 자료 『어제경세문답』, 1762년, 등 474 종류
- 민체 자료 『심청전』, 1894년, 등 625 종류
- 조선시대 한글편지 『순명효황후 언간』, 1902년, 등 595 종류

2023년 12월 6일

- 周時經, 『國文硏究』, 學部, 漢城, 1907.
-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 편編,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 보고서報告書,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 1909.
- 周時經, 『國語文法 全』 육필본肉筆本, 융희隆熙3년(1909)

부록 4-2. 김동진金東珍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미국 제이피모간은행 (전) 한국 회장

2023년 5월 19일

- 김동진,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참좋은친구, 서울, 2019년 초판 1쇄, 2023년 2쇄

부록 4-3. 김현일金賢鎰
一中先生記念事業會 사무국장, 백악미술관 관장

2023년 7월 10일

- 김충현, 『우리글씨쓰는법』, 文敎社, 서울, 1948.
- 김충현, 『중등글씨체 삼』, 창인사, 서울, 1954.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6』, 정민문화사, 서울, 1956.
- 김충현, 『중학서예 이』,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고등서예 2』, 창인사, 서울, 1956.
- 김충현, 『국민학교 미술과 쓰기 5』, 학총사, 서울, 1957.
- 一中 金忠顯, 『國漢書藝』, 視聽覺敎育社, 서울, 1970.

부록 4-4. 박병천朴炳千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전) 회장

2023년 7월 12일

- 劉漢翼, 『普通學交學徒用習字帖 卷二』, 朝鮮總督府, 1911.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習字帖 卷二』, 朝鮮總督府, 1913.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一學年』,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二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敎書方手本 第三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普通學交書方手本 第三學年下』,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四學年上』, 朝鮮總督府, 1936.
- 朝鮮總督府, 『書方手本 第五學年上』, 朝鮮總督府, 1937.
- 金景源, 『중등글씨본 이』, 민중서관, 서울, 1949.
- 문교부, 『국민 학교 미술과 글씨본 교사용 6』, 문교부, 서울, 1963.
- 유희강, 『모범 중등 글씨본』, 일지사, 서울, 1966.
- 宋寅淳, 『理論 · 實際 書藝入門』, 靑雲出版社, 서울, 1966.
- 정주상, 『중학교 서예 전』, 교학사, 서울, 1967.
- 조수호, 『새중학서예』, 향문사, 서울, 1969.
- 정환섭, 『중학서예』, 장학출판사, 서울, 1971.
- 리동규, 『교과과정에 의거한 붓글씨본』, 교육과학사, 서울, 1972.
- 김동출, 『새로운 중학글씨본 (전)』, 일한도서출판사, 서울, 1973.
- 유희강, 『인문계고등학교 모범서예 1』, 일지사, 서울, 1975.
- 金東出, 『최신 한글서예』, 삼환출판사, 서울, 1975.
- 박병천, 『바르고 쉬운 한글서예-한글기초이론 · 실기편』, 시청각교육사, 서울, 1976.
- 문교부, 『국민 학교 교사용 교과용 도서 서예 4 · 5 · 6』, 문교부, 서울, 1976.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삼중당, 서울, 1984.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1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4.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3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자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5.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2 한글궁체서법 – 정자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한글고전서체 임모교본 4 한글궁체서법 – 흘림 문장 쓰기편』, 일지사, 서울, 1997.
- 박병천, 『고등학교 서예』, 금성교과서, 서울, 1997.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중학교 미술1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0.
- 김기숙, 박병천, 이현표, 유금자, 강신술, 안병철, 김용주, 장경아, 『중학교 미술2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서울, 2001.

부록 4-5. 김한영金漢榮
참빛아카이브 대표, 옛 책 연구자

2023년 7월 20일

- 大韓國民敎育會, 『初等小學一』, 大韓國民敎育會蔵板, 1906.
- 學部, 『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卷一』, 韓國政府印刷局印刷, 鉛活字本, 1907年 初版, 1908年 再版, 1909年 參版, 1909年 四版

- 鄭寅琥, 『最新初等小學 一』, 玉虎書林, 京城, 1908.
- 玄采, 『新撰初等小學 一』, 東美書市, 京城, 1909년 初刊, 1914년 再刊
- 崔正學, 『蒙學必讀 卷一』, 普書舘, 京城, 1912.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習字帖 卷一』, 朝鮮總督府, 1913.
- 朝鮮總督府 編纂, 『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15.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23.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卷一』, 朝鮮總督府, 1930.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書キ方手本 第三學年用上』, 朝鮮總督府, 1924.
-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상卷上』, 以文堂, 京城, 1917.
- 李源生, 『언문톄첩諺文體帖 권하卷下』, 以文堂, 京城, 1917.
- 朝鮮總督府, 『簡易學校用 初等朝鮮語讀本 全』, 朝鮮總督府, 1939.

2023년 8월 7일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사학년 소용』, 경상북도 학무국, 서울, 1948.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오학년 소용』, 강원도 학무국, 서울, 1948.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육문사, 서울, 1948., 1949년 개정
- 이철경, 『중등글씨본 1 중등학교 미술과 소용』, 백영사, 서울, 1949., 1955년 개정7판.
- 문교부, 『초등 글씨본 육학년 소용』, 문교부, 1949.
- 김경원, 『초등 글씨본 오학년용』, 문화교육출판사, 서울, 1955.
- 이철경, 『초등 새글씨본 사학년 소용』, 문교사, 서울, 1955.
- 김충현, 『중학서예 삼』, 창인사, 서울, 1956.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5』, 태백출판사, 서울, 1956.
- 한권수, 『국민학교 미술과 초등글씨본 4』, 태백출판사, 서울, 1959.
- 신집호, 『국민학교 글씨본 6』, 영지문화사, 서울, 1959.
- 정주상, 『초등글씨본 사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0.
- 정주상, 『초등글씨본 육학년용』, 교학사, 서울, 1961.

2023년 11월 6일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소학독본小學讀本』,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5.
- 대한제국학부편집국大韓帝國學部編輯局,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대한제국학부大韓帝國學部, 1896.
- 周時經, 『國語文法 全』, 博文書館, 京城, 1910.
- 周時經, 『朝鮮語文法』, 新舊書林, 京城, 1911.
- 周時經, 『말의소리』, 新文館, 京城, 1914.
- 최현배, 『중등 조선 말본』, 동광당서점, 京城, 1934.
- 이윤재李允宰, 『學生啓蒙隊用 한글공부』, 東亞日報社, 京城, 1934.
- 조선어학회, 『한글 첫 걸음』, 군정청 학무국, 1945.
- 문교부, 『초등글씨본 오학년소용』, 경상북도학무국, 1948.
- 라우박, 『한글 첫 걸음-성인 교육 교재』, 미국공보원, 1949.

2024년 1월 22일

- 리봉운李鳳雲,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
- 리규대, 『국문정리國文正理』, 국문국國文局, 경성京城, 1897.
- 호머 헐버트 Homer B. Hulbert., 『사민필지士民必知』, 감리교출판사서울, 경성京城, 초판 1891., 수정본 1906.
- 현채玄采, 『유년필독幼年必讀』, 휘문관徽文館, 경성京城, 1907.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상』,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
- 장지연張志淵, 『녀자독본女子讀本 하』, 광학서포廣學書鋪, 경성京城, 1908.
- 유길준兪吉濬,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경성京城, 1908.
- 유길준兪吉濬, 『대한문전 전 大韓文典 全』, 융문관隆文館, 경성京城, 1909.

부록 4-6. 허유미許有美
서울은석초등학교 교사

2023년 8월 11일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초등학교 미술 3(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 5쇄 2022.
- 이은적, 정선화, 송혜원, 최진주, 김경희, 윤건령, 권보람, 『초등학교 미술 4(3~4 학년군)』, 비상, 서울, 초판 2018., 4쇄 2021.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초등학교 미술 5(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 2쇄 2020.
- 안금희, 장지성, 김선아, 이선혜, 구경주, 이남근, 이희욱, 김동완, 『초등학교 미술 6(5~6 학년군)』, 천재교과서, 서울, 초판 2019., 2쇄 2020.


가 갓 게 교 과 기 나 노 누 는
너 넉 는 는 다 더 데 도 되 든
더 라 란 로 를 리 를 름 만 며
면 못 므 믈 미 밀 미 부 붓 붓
비 뻐 사 셔 스 시 신 실 ㅅ 사
섹 쇼 섀 셰 샐 셔 아 야 앗 에
예 오 온 올 와 월 으 은 을 의
이 잇 읍 지 치 케 티 티 씰 볼
핫 호 홈 히 흣 흔 흘 흠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
민으로부터나온다대한민국의국민이
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국가는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
할의무를진다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
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대한민국은통
일을지향하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하고이
를추진한다 홍길동

동해물과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
하느님이보우하사우리나라만세
남산위에저소나무철갑을두른듯
바람서리불변함은우리기상일세
가을하늘공활한데높고구름없이
밝은달은우리가슴일편단심일세
이기상과이맘으로충성을다하여
괴로우나즐거우나나라사랑하세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대한사람
대한으로길이보전하세 홍길동 ◆

어제계주윤음

임금이계주문을내리기를 순후한성품의사람을광패하게만드는것이술이아니고무엇이겠는가마음은본래선하지만그것을공격하는것
들이많은데술마저해치게해서야되겠는가사람이미워하는것중에악보다심한것이없고사람이두려워하는것중에적보다심한것이없다그
런데그적을스스로불러들이고그악을스스로빚으니어찌애석하지않겠는가아신농씨가농사짓는법을가르쳐주셨으니사람을봉양하는바가지극하고극진하다그런데어찌백성이하늘로여기는곡식으로사람을구렁에빠뜨리는기틀을삼을
것인가고금에술로인해나라를망치고집안을망친예는날날이기록할수있다그런데도술로인해사람을상해하고사람을살해하여부형을위
태롭고욕되게하는데이르고도그것이인륜을망치고도의에어긋남으로귀결된다는것을자각하지못한다아사람이세상에태어나서비록그
도리를다해어버이를봉양하지는못할지라도어찌일과몸의욕구때문에그어버이를욕되게하는가하물며인생백년에질병과사고를께하면
남는날이얼마없거늘또광란의약물에방종하여그천성을해치고그자신을망치니어찌슬프지아니한가더구나술을많이빚는폐해는재물을
축내는데이르고술을즐기는해독은가산을기울게하는데이름에랴그것을금지하는방도는백성을다스리고가르치는임금에게있다그것이
무에어려울까싶지만어려워하는이유가있다대우가비록술을켜음발명한의적을멀리하셨지만술을없애지는않으셨고성현이예를께정할
때께사와향음에모두술을허락하셨다이것이술이없으면안되는이유이다지금곡식의수확이크게부족하여모든불필요한비용들을이미절
감한상황에서모든소비가이보다심한것이없다그러나마땅히먼저명령을하고법은나중에따라야하겠기에먼저술을경계하는글을보이는
것이며추후에술을많이빚는데대한금령을내릴것이다아그대대소신료들은나의이뜻을깊이헤아려술을함부로마시지말고국사에마음을
다하라아그대백성들은먼저스스로소요하지말지어다혹여나집에서많은술을빚는다면어찌숨길수가있겠으며장차금령을범한다면어찌
법이없다하겠는가께사에쓰기위해먹고살기위해술을빚는것을금하지는않을것이다오호라비록옛사람이길쌈을해서자식을가르치고자
손들에게선행을물려준일을본받지는못할지라도이런광패한약물을빚어서나의무고한백성을구렁에빠뜨리는자는나라에서비록금하지
않더라도그것이어찌선행을쌓아후손에게물려주는도리에크게어긋나지않겠는가폐부에서나온말이며글을쓰기위해하는말이아니니모
름지기가슴깊이새겨서큰죄에빠지지말지어다 하였다

영조철년서기일천칠백삼십이년일월이십육일

서기이천이십삼년칠월재민박재갑쓰다 재민

「어제계주윤음御製戒酒綸音」
—
작품 크기 : 130x70cm
《〈명사서예전〉,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2023년

영조英祖 대왕께서는 술을 금지하는 윤음綸音을 여러 차례 내리셨다.
문헌 검색으로 찾은 영조 대왕의 네 종류(1732년, 1755년, 1757년, 1758년) 어제계주윤음 중 1732년에 내린 윤음의 국역본(조선왕조실록)을 박갑수 교수와 한재훈 교수의 도움으로 다듬어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옮겨 적었다.

팔도와사도의늙은이들과백성들에게하유한윤음

왕은다음과같이말한다아부뎌한내가외람되게왕위에오른지십구년동안에덕을밝히지못하여정사는그릇되었고백성들은흩어졌으며위로는죄가쌓이고몸에는재앙이모여들었다이것은나로말미암아불러들인것이니아무리후회한들무슨소용이있겠는가임금의자리에오른이래로토목공사를크게벌였고백성들의재물을억지로긁어들여가난한사람이나잘사는사람이나다같이곤궁하게만들었으니이것은나의죄이다자주화폐를고치고무고한사람을많이죽인것도나의죄이다사당과서원을허물고첩폐하여충현에게제사지내지않은것도나의죄이며기를잡도없이한것도나의죄이다신명에게복을내려주기를비는제사를지나치게믿고내탕고의재물을허비한것도나의죄이다사람을녈리등용하지못하고종친과척신을높인것도나의죄이다대궐에대한단속이엄하지못하여궁녀와내시들이은택을가로채게한것도나의죄이다되물이공공연히성행하며탐오하는자들이징계받지않고가난한백성들의고통스러운정상이위에보고되지않은것도나의죄이다뎌죄이오랫동안덩비었으며군사와아전들을먹여주지못하고공가를오랫동안주지못하여시정이폐업한것도나의죄이다여러나라와우호관계를가지는것은바로시세의요구인데조치가방도를잃어한갓백성들의의혹만더하게하였으니이것도나의죄이다마침내는귀신이노하고사람이원망하여온갖변고가쏟아져나와아랫사람이윗사람을능멸하고재변이육친에까지미치게됨으로써멀리중국에까지근심을끼쳤고아래로는만백성들을소란스럽게만들었으며이웃나라에신의를잃고천하의웃음거리가되었으니이또한나의죄가아니경에이르렀으니무슨면목으로온나라의신민들을다시대하겠는가슬프고부끄럽고두려워서실로임금노릇하는줄거움이없다너희대소신민들은내가종친의잘못을버리고스스로새로워지는것을허락하려는가내이제마음을깨끗이씻고진날의실수를교훈삼아앞날을경계하여백성들에게불편했던종친의정령들은다없애버리고어진관리들을골라백성들을다스리게할것이며실효있는방법을강구하여온나라사람들과함께다시새롭게시작하려고한다너희들도마땅히케각기맡은일에힘쓰고훌륭한계책을많이고해주어야할것이다의견이설사부합되지않더라도호되게책망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다만약종친의과오를고치고함께나라의기틀을지킨다면종묘사직의다행이될것이다이번에난을일으킨역도들을토벌함에있어서극단적인무력을행사하지않고나머지무리를용서하였으며이제대사령을나라에실시하여다함께새로운출발을하게될것이다내가잘못을뉘우치고있는형편에무슨여가로남을책망하겠는가아나라가흥하는것도언제나여기에있고나라가망하는것도언제나여기에있다안위의기미는터럭하나처럼작은데있으니어찌경계하지않을수있겠는가이에마음을터놓고고하는바이니잘알아들었으리라생각한다

서기이천이십일년시월재민박재갑쓰다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王若曰嗚呼予以否德猥託民上十有九年不明厥德政失民散罪積于上殘集于躬由予所召雖悔曷追尊自嗣服以來大興土木勦斂民財使貧富俱困是予之罪也屢改錢幣多殺無辜是予之罪也邪佞之言聽信不疑是予之罪也過信祈禳之事虛糜帑藏是予之罪也用人不廣宗戚是疎是予之罪也宮闈不肅嬖寺干澤是予之罪也賄賂公行貪墨不懲窮民愁苦之狀莫達于上是予之罪也備員久虛軍吏失哺貢價積欠市井廢業是予之罪也聯好各國乃是時宜施措乖方徒滋民疑是予之罪也止竟神怒人怨變故百出下凌其上災及六親遠貽中國之憂下擾萬民之生失信於隣國取笑於天下此又予之罪也嗚呼予罪至此尙以何面目復對一國臣民乎悲遑愧懼實無南面之樂惟爾大小人民其肯棄予前過許予自新乎予將洗心滌慮懲前毖後政令之從前不便於民者悉令除之擇循良之吏以牧群生講究實效思與一國更始爾等亦宜各懋乃績告以嘉謨言雖不合必無苛責之理庶幾補綴前過共守丕基則宗社之幸也今玆亂逆斯討不極厥武宥其餘黨行將大赦國中咸與維新予方悔過何暇責人嗚呼興國恒於是亡國恒於是安危之機凜如一髮尙可不戒之哉玆以敷心以告想宜知悉

高宗十九年壬午七月二十日

西紀二千二十一年十月在民朴在甲書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

작품 크기 : 110x60cm

《第24期 東方書法探源畢業展》, 백악미술관, 서울, 2024년

1882년 7월 20일 고종高宗이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흐트러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전국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에게 내린 윤음綸音이다. 1882년 6월 9일 군료 지급에 불만을 품은 훈구파勳舊派 병사들이 개화파를 몰아내고 대원군을 내세웠으나 1882년 7월 13일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되고 개화파開化派가 다시 집권하게 되자, 고종은 자신의 실정을 전국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치를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윤음이다.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옮겨 적었다.

한글서체
한글서예
韓契書體
韓契書藝

관공체 한글재민체
官公體 韓契在民體

박재갑 Park Jae-Gahb
김선숙 Kim Sun Sook
이규선 Lee Kyu Sun
김　민 Kim Min

한글재민체연구회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ISBN 979-11-980056-6-3 (PDF)

9 791198 005663 05640

비매품/무료